

# 부산국제 공연예술마켓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2024. 10. 4. Fri — 10. 8. Tue



## CONTENTS

WELCOME TO BPAM! .....	4P
소개 INTRODUCTION .....	8P
일정 SCHEDULE .....	10P
장소 VENUES .....	15P
BPAM CHOICE .....	20P
BPAM SHOWCASE .....	38P
BPAM NEXTSTAGE .....	104P
BPAM STREET .....	182P
BPAM LINK .....	224P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 환영사 Welcome Speech

### "아시아 대표 공연예술마켓의 허브 부산, 예술의 바람을 타고 세계로!"

유난히 더디게 온 가을 탓에 선선한 바람이 더 반갑습니다.

이 좋은 계절, 축제와 예술의 도시 부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열리는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국내외 우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특히 부산지역 공연예술, B(BUSAN)-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런칭하였습니다. 덕분에 BUSAN ORIGINAL 5개를 포함한 총 6개의 작품이 8개국에 초청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BPAM의 또다른 진가는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극, 무용, 뮤지컬, 코미디, 크로스 오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에 한껏 매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40여 개의 공식 초청작을 포함한 200 여 개의 공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보다 공연 수는 물론 공연산업 관계자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공연 유통 마켓'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의적인 공연예술의 판권 거래, 국내외 예술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은 신진 예술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을의 부산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시입니다. BPAM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록페스티벌까지, 부산 구석구석 어디에 있더라도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수려한 자연경관, 하이엔드 관광인프라는 관객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 이기대에는 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 부산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글로벌 수준의 클래식 공연장도 본격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예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그 걸음걸음에 BPAM 관객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열정 넘치는 BPAM의 공연무대는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갈까요?

부산에 불고 있는 예술의 바람이 전 세계를 향하길 기원하며, BPAM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Busan: The Hub of Performing Arts in Asia, Riding the Winds of Art Across the World!"

The cool breeze is especially refreshing as autumn arrives unusually slow for this time of year.

In this wonderful season of fall, we warmly welcome everyone to Busan, the city of festivals and art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2024(BPAM 2024) opens its doors for the second time under the theme,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Last year, the city of Busan launched BPAM in an aim to discover outstanding performing artworks from home and abroad with a special focus on elevating the status of performing arts and B(Busan)-Culture. Thanks to this initiative, six performing acts, including five Busan originals, have been invited to eight different countries and are currently being enjoyed by audiences worldwide.

BPAM also stands out for offering a wide variety of artistic experiences. From theater, dance, and musicals to comedy and cross-genre performances, BPAM offers opportunities for audiences to fully immerse themselves in an array of creative expressions. This year, over 200 performances, including 40 officially invited shows, will take the stage.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both the number of performances and industry professionals, BPAM is solidifying its role as a genuine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market." Transfer of publication rights for creative performing arts and network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industry professionals will provide emerging artists with invaluable opportunities.

Autumn in Busan is truly the season of festivals. From BPAM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Biennale, and Busan International Rock Festival, art and culture can be found throughout the city. Diverse content, stunning natural scenery, and high-end tourism infrastructure will undoubtedly captivate all of you.

Moreover, Pompidou Center Busan, a branch of the Pompidou Center in Paris, will be established in the Igidae area. In addition, world-class classical music halls, including the Busan Concert Hall and Busan Opera House, are set to officially open soon. I sincerely hope that as Busan rises as a global arts hub beyond Asia, all BPAM attendees will join us every step of our journey.

A good book can change lives. A profoundly moving film can become a lifelong guide. Where will the passionate stages of BPAM take us next?

As the winds of art are blowing from Busan to the rest of the world, I once again warmly welcome everyone to this year's BPAM.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Heongjoon PARK,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 환영사 Welcome Speech

**"더욱 풍성해진 글로벌 공연예술의 물결, 부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 작년에 이어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넥스트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예술단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마켓에서는 국내외 40개의 초청작이 부산문화회관과 여러 공연장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공연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예술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BPAM이 예술가들과 공연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무대가 될 뿐만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공연예술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이곳에서 펼쳐질 공연예술의 진수를 함께 즐기시기를 바라며, BPAM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A Richer Wave of Global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 Welcome to Busan!

Building on last year's success, the 202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offers an even broader and richer array of content.

In particular, the "Next Stage" program launched this year, aims to discover young artists' companies poised to lead future generations, nurturing them and fostering a fertile soil for their growth and success.

From October 4th to 8th, 40 featured works from Korea and abroad will be showcased in theaters across Busan, including Busan Citizen's Hall.

In addition, a wide variety of programs designed to engage and involve the general public will be a channel to create a festive atmosphere where art and local community coexist.

I am confident that the 2024 BPAM will provide a platform for artists and members of the performing arts world to connect and collaborate, further contributing to making Busan a leading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I earnestly hope that all participants find new inspirations and opportunities here.

On this lovely day with a gentle autumn breeze, let us appreciate the true essence of performing arts unfolding across BPAM.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worked hard to organize the event. Thank you very much.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미 연**

Meeyeon Lee,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 환영사 Welcome Speech

### 진정한 글로벌 예술마켓을 지향하며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설레며 배짱과 용기로 밀고 나가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번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모로 신중해지게 됩니다.

저희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도 그랬습니다. 작년 제1회를 준비할 때와 달리 올해는 작년에 겪었던 이런저런 어려움과 실수, 부족했던 점들을 상기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 속에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저희의 비전과 각오는 분명합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연예술의 글로벌 마켓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올해는 해외 손님(델리게이트)들을 초청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비팜을 방문해서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예술가들과 델리게이트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부산문화재단, 저와 함께 양질의 국내외 예술작품을 선정하고 국내외 손님들을 모시느라 고생하신 네 분 감독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많이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For a Real Global and International Arts Market

There is a saying that the second attempt at something is often the hardest. Initially, you are filled with hope and ambition for a better future and work with enthusiasm and bravery. However, after completing the first round, you become aware of the challenges and shortcomings, making you more cautious as you prepare for the second attempt.

This was the case for the 2nd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Unlike the first one, in 2024, we were acutely aware of the difficulties, mistakes, and areas needing improvement. We faced many trials and errors but remained undaunted in our efforts. Despite these challenges, our vision and commitment remained steadfast.

We aim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and global market for performing arts, extending beyond Busan, across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To realize this dream, we ensured that our invited delegates were not concentrated in any one country or continent.

We worked diligently to bring together artists from the widest variety of cultural backgrounds, enriching the networking experiences for all participants in the Market.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the artists and delegates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and the citizens of Busan. Above all, my special thanks goes t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whose members worked tirelessly to organize this event, and to the four directors who faced many challenges with me in selecting well-written works and inviting artists and delegates from Korea and oversea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is festival belongs to you. Please enjoy and have an unforgettable time.

Thank you very much.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이 종 호**

Jongho Lee, Artistic Director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존경하는 국내외 예술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BPAM은 부산이 공연예술의 국제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식 초청작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과 일상이 더욱 가까워지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작품들이 국내외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켓이 그런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문화예술의 발전이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마켓은 공연예술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영감과 협력의 기회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onorable guests, esteemed artist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distinguished citizens of Busan,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heartfelt delight that I stand before you to celebrate the inauguration of the 202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dedicated to fostering the local community through various intrinsic capabilities and diverse initiatives aimed at maximizing the city's cultural potential. Therefore, I am confident that the 2024 BPAM will serve as a milestone, ensuring Busan's growth as an international hub for performing art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the featured works, the 2024 BPAM includes more events design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offering a channel to serve to build a festive atmosphere where art and everyday life are more interconnected.

The Busan Metropolitan City has proactively offered an environment where artists can showcase their works without reservation and promote them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Therefore, I am confident that the Market will serve as the breakthrough to lead such a new trend.

Recognizing that the flourishing of arts and culture greatly enhances the city's competitiveness and the happiness of its people,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provided unwavering support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initiatives.

Furthermore, the Market will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art and culture and foster collaboration among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from Korea and abroad, contributing to Busan's emergence as Asia's center of performing arts.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who grace the stage and hope the Market will inspire new idea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 성 민**

Sungmin Ahn, Chairperson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부산국제 공연예술마켓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이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무용, 연극, 음악, 다원예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공연작품을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BPAM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감독단이 선정한 공식 초청작 40편과 전도유망한 미래의 공연예술 작품 38편, 거리예술 24편 등 다양한 공연을 부산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부산에서 BPAM과 함께 감동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 행사기간: 2024. 10. 4.(금) ~ 10. 8.(화)
- 행사장소: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광안리해변 등
- 슬로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재)부산문화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은행, ABC마트, 파라렐라
- 협력: 부산문화회관, 국립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연예	BPAM 초이스	예술감독단이 선정한 공식 초청 전막 작품
	BPAM 쇼케이스	예술감독단이 선정한 공식 초청 쇼케이스 작품
	BPAM 넥스트스테이지	전도유망한 미래의 공연예술작품을 발견하는 무대
	BPAM 스트리트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부산거리예술축제(연계)
	BPAM 링크	부산에서 열리는 10월 공연예술 축제 연계 협력 작품
네트워크	BPAM 부스	공연예술단체의 작품 및 공연예술기관의 콘텐츠 홍보, 정보교류 및 협력기회 제공
	BPAM 데이트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
	BPAM 나이트	공연예술단체, 델리게이트, 예술인의 만남과 교류의 장
	BPAM 세미나	공연예술의 전망과 작품 유통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BPAM 오픈토크	연극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 예술인 간의 오픈 토크
시민 행사	BPAM 조인	시민이 공연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is an international festival presenting a diverse array of performing arts from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including dance, music, multidisciplinary arts, and street performances. The festival aims to innovate the distribution channels for emerging, high-quality works and to encourage the citizens of Busan to engage with these exceptional performances.

Celebrating its second edition this year, BPAM, under the slogan of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features a curated selection of 40 official pieces chosen by a distinguished judging panel, along with 38 works from emerging artists with significant potential and 24 dynamic street performances.

In Busan, a beautiful harbor city graced with a delightful autumn breeze and rich in arts and culture,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join us in BPAM to savor an unforgettable and inspiring experience.

- Name: 202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 Date: October 4th, 2024 (Friday) ~ October 8th, 2024 (Tuesday)
- Venue: Busan Cultural Center, Kyungsoo University, Cultural Alley, Gwangalli Beach etc.
-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 Host/Organizer: Busan Metropolitan City / Busan Cultural Foundation
- Sponso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na Bank, ABC Mart, Paralela
- Collaborative institutions: Busan Cultural Center, Pukyong National Univ, Kyungsoo Univ.

PERFORMANCES	BPAM CHOICE	Officially invited full-length performance selected by the artistic directors
	BPAM SHOWCASE	Officially invited showcase selected by the artistic directors
	BPAM NEXTSTAGE	A stage to discover promising future performing artists and groups
	BPAM STREET	Busan Street Arts Festival, where artists and citizens come together to enjoy
	BPAM LINK	Collaborative performances linked to Busan's October Arts Festival
NETWORKING	BPAM BOOTH	Opportunities for promoting works and exchanging information
	BPAM DATE	1:1 business meetings between performing arts groups and delegates
	BPAM NIGHT	Informal gatherings for artistic groups, delegates, and professionals
	BPAM SEMINAR	Seminar on the future outlook and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PARTICIPATING	BPAM OPEN TALK	An open dialogue of artists and specialists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he atrical pieces
	BPAM JOIN	Participation programs where public can experience performing arts

## 2024 BPAM 일정표

2024 BPAM Schedule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10. 4. Fri	10. 5. Sat	10. 6. Sun	10. 7. Mon	10. 8. Tue
<b>19:00~20:35</b> <b>개막식 &amp; 개막공연</b> Opening Ceremony & Opening Performances  <b>BPAM 초이스 다원</b>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b>라 갈러리(갤러리)</b> La Galerie	<b>20:00~21:00</b> <b>BPAM 초이스 음악</b> Choice Music  <b>두 팔을 벌려서</b> Open Your Arms	<b>20:00~21:05</b> <b>BPAM 초이스 다원</b>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b>라 갈러리(갤러리)</b> La Galerie	<b>20:00~22:00</b> <b>BPAM 초이스 연극</b> Choice Theater  <b>뮤지컬</b> <b>&lt;1976 할란카운티&gt;</b> <b>콘서트</b>  MUSICAL <b>&lt;1976 HARLAN COUNTY&gt;</b> CONCERT	<b>19:30~21:00</b> <b>폐막식 &amp; 폐막공연</b> Closing Ceremony & Closing Performances  <b>BPAM 초이스 무용</b> Choice Dance  <b>고르니슈트</b> Gornisht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iddle Theater

10. 5. Sat	10. 6. Sun	10. 7. Mon
<b>17:30~19:20</b> <b>BPAM 초이스 무용</b> Choice Dance  <b>영남무악</b> Youngnam Moo-Ak	<b>17:00~18:10</b> <b>BPAM 초이스 음악</b> Choice Music  <b>더 라틴 터치</b> The Latin Touch  <b>18:30~19:30</b> <b>BPAM 초이스 음악</b> Choice Music  <b>피아노 병창 "춘향"</b> Fire and Tears: Ko Yeong-yeol's New Wave K-Traditional	<b>18:30~19:30</b> <b>BPAM 초이스 다원</b>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b>두들팝</b> Doodle Pop

## 2024 BPAM 일정표

2024 BPAM Schedule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10. 5. Sat	10. 6. Sun	10. 7. Mon	10. 8. Tue
<b>BPAM 쇼케이스 음악</b> Showcase <b>Music</b> <b>13:00~13:20</b> 동백카니발 Dongbaek Carnival <b>13:40~14:00</b> 다섯 개의 탱고, 인생의 노래 Five Tango Life <b>14:20~14:45</b> 예술의 바람 The wind of Art <b>15:05~15:25</b> 동방 집시 앙상블 Easter Gypsy Ensemble <b>15:45~16:10</b> 김순영 재즈 탭 Kim Soon Young Jazz Tap <b>16:30~17:00</b> 월담 Beyond the wall	<b>BPAM 쇼케이스 무용</b> Showcase <b>Dance</b> <b>13:00~13:20</b> 하우스 오픈 How's Open <b>13:30~13:45</b> 밸런스 Balance <b>13:55~14:05</b> 징조 Indication <b>14:15~14:30</b> 미그레나2x2 Migrena2x2 <b>14:40~14:55</b> 봄의 제전 The Rite of Spring <b>15:05~15:20</b> 정서적 거리 Emotional Distance <b>15:30~15:45</b> 쿵 Koong <b>15:55~16:15</b> 걷다 To walk <b>16:25~16:40</b> 어른아이 Adult Children <b>16:50~17:10</b> 이상한 대화 Strange Conversation	<b>BPAM 쇼케이스 다원</b> Showcase <b>Multidisciplinary arts</b> <b>13:00~13:20</b> 하모니 오브 라이트 Harmony of Light <b>13:40~14:00</b> 세상을 바꿀 수 있어 I can change the world <b>14:20~14:40</b> 일장춘몽 Life is but a Dream <b>15:00~15:20</b> 홉빠! Hoppa! <b>15:40~15:55</b> 마술인형 '선물' Magic Puppets 'Present' <b>16:15~16:30</b> 제이-코드 J-Code <b>16:50~17:10</b> 더 레터 The Letter	<b>BPAM 쇼케이스 무용</b> Showcase <b>Dance</b> <b>13:00~13:15</b> 컨트롤 Control <b>13:25~13:40</b> 링거링 Lingering <b>13:50~14:10</b> 이야기의 탄생 The Birth of the Story

# 2024 BPAM 일정표

2024 BPAM Schedule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Kyungsung University Yeno Small Theater

10. 5. Sat	10. 6. Sun	10. 7. Mon
<p>BPAM 넥스트스테이지 무용</p> <p>NextStage Dance</p> <p>13:30~13:45</p> <p>애니멀 Animal</p> <p>13:50~14:05</p> <p>수렴하는 것들 Converging Things</p> <p>14:10~14:25</p> <p>Dear</p> <p>14:30~14:45</p> <p>Unseen</p> <p>14:50~15:05</p> <p>Face to Face</p> <p>15:10~15:25</p> <p>라그랑주 포인트 Lagrange Point</p> <p>15:30~15:45</p> <p>2024 시간의 진화 2024 The Evolution of Time</p> <p>15:50~16:05</p> <p>기氣류 Typhoon</p> <p>16:10~16:25</p> <p>Being</p> <p>16:30~16:45</p> <p>흐르다 Flow</p> <hr/> <p>BPAM 넥스트스테이지 다원</p> <p>NextStage Multidisciplinary arts</p> <p>16:50~17:05</p> <p>쳐랏 - ! Hit it - !</p> <p>17:20~17:35</p> <p>우아한 남자 Elegant Man</p>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음악</p> <p>NextStage Music</p> <p>13:30~13:40</p> <p>아리랑 판타지 프런티어 Ariang Fantasy&amp;Frontier</p> <p>14:00~14:15</p> <p>함께 아리랑 With Arirang</p> <p>14:35~14:50</p> <p>마지막 환경 Last Environment</p> <p>15:10~15:25</p> <p>제祭:Je</p>	<p>BPAM 넥스트스테이지 무용</p> <p>NextStage Dance</p> <p>13:30~13:40</p> <p>초원을 달리는 얼룩말 A zebra that runs through the grassland</p> <p>13:45~14:00</p> <p>본질적인 Intrinsic</p> <p>14:05~14:20</p> <p>유토피아 2: 달콤한 꿈 Utopia 2: Sweet Dreams</p> <p>14:25~14:35</p> <p>잠 못 자 죽어가는 마네킹 A sleepless Dying Mannequin</p> <p>14:40~14:50</p> <p>명석말이 Homo Sacer</p> <p>14:55~15:10</p> <p>Alleo 알레오</p> <p>15:15~15:30</p> <p>룩 백 ver.2 Look Back ver.2</p> <p>15:35~15:50</p> <p>에피파니 Epiphany</p> <p>15:55~16:10</p> <p>나의 4년 4계절 My 4years and 4seasons</p> <p>16:15~16:30</p> <p>논픽션 Nonfiction</p> <p>16:35~16:50</p> <p>버티- Withstand-</p> <p>16:55~17:10</p> <p>갈라테이아 II Galatea II</p> <p>17:15~17:30</p> <p>적당한 침묵 Moderate Silence</p>

## 2024 BPAM 일정표

2024 BPAM Schedule

###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10. 5. Sat	10. 6. Sun				
<p>BPAM 쇼케이스 연극 Showcase Theater</p> <p>13:00~14:00</p> <p>그때, 변홍례 At that time Byeon</p> <p>15:30~16:10</p> <p>정희정* Jeong Hee Jeong The Circle of Care</p>	<p>BPAM 쇼케이스 연극 Showcase Theater</p> <p>13:00~14:00</p> <p>이카이노 바이크 Tandem Border Bird</p> <tr> <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5:00~15:15</p> <p>비주얼 씨어터 &lt;노인과 바다&gt; 쇼케이스* Visual Theatre &lt;The Old Man and The Sea&gt; Showcase</p> <p>16:00~16:15</p> <p>평범한 삶 A Normal Life *</p> <p>17:00~17:15</p> <p>XXYY *</p> <p>18:00~18:15</p> <p>의자들 'rebuild' The chair 'rebuild' *</p> </td></tr>	-----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5:00~15:15</p> <p>비주얼 씨어터 &lt;노인과 바다&gt; 쇼케이스* Visual Theatre &lt;The Old Man and The Sea&gt; Showcase</p> <p>16:00~16:15</p> <p>평범한 삶 A Normal Life *</p> <p>17:00~17:15</p> <p>XXYY *</p> <p>18:00~18:15</p> <p>의자들 'rebuild' The chair 'rebuild' *</p>	
-----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5:00~15:15</p> <p>비주얼 씨어터 &lt;노인과 바다&gt; 쇼케이스* Visual Theatre &lt;The Old Man and The Sea&gt; Showcase</p> <p>16:00~16:15</p> <p>평범한 삶 A Normal Life *</p> <p>17:00~17:15</p> <p>XXYY *</p> <p>18:00~18:15</p> <p>의자들 'rebuild' The chair 'rebuild' *</p>					

### 문화골목 노가다 Cultural Alley Pub Nogada

10. 5. Sat	10. 6. Sun				
<p>BPAM 쇼케이스 연극 Showcase Theater</p> <p>14:00~14:40</p> <p>룸메이트* Roommate</p> <p>16:30~16:55</p> <p>뮤지컬 셰프* Musical Chef</p>	<p>BPAM 쇼케이스 연극 Showcase Theater</p> <p>14:00~14:40</p> <p>속살(부제:숨겨둔 진실) Sok Sal(Hidden Truth) *</p> <tr> <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6:30~16:45</p> <p>갠 나랑 헤어지고 후풍풍 왔을까* You miss me, Mr. Dildo?</p> <p>18:30~18:45</p> <p>와인 네 잔 4 Glasses of Wine *</p> </td></tr>	-----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6:30~16:45</p> <p>갠 나랑 헤어지고 후풍풍 왔을까* You miss me, Mr. Dildo?</p> <p>18:30~18:45</p> <p>와인 네 잔 4 Glasses of Wine *</p>	
-----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6:30~16:45</p> <p>갠 나랑 헤어지고 후풍풍 왔을까* You miss me, Mr. Dildo?</p> <p>18:30~18:45</p> <p>와인 네 잔 4 Glasses of Wine *</p>					

### 문화골목 갤러리 Cultural Alley Gallery

10. 6. Sun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5:30~15:45</p> <p>오함마백씨행장* The Sound of Being</p>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7:30~17:45</p> <p>단물 빠진 껌* Unsweet Gum</p>	<p>BPAM 넥스트스테이지 연극 NextStage Theater</p> <p>19:00~19:15</p> <p>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I am a Mother of One Child</p>

## 2024 BPAM 일정표

2024 BPAM Schedule

### 광안리해변

Gwangalli Beach

10. 5.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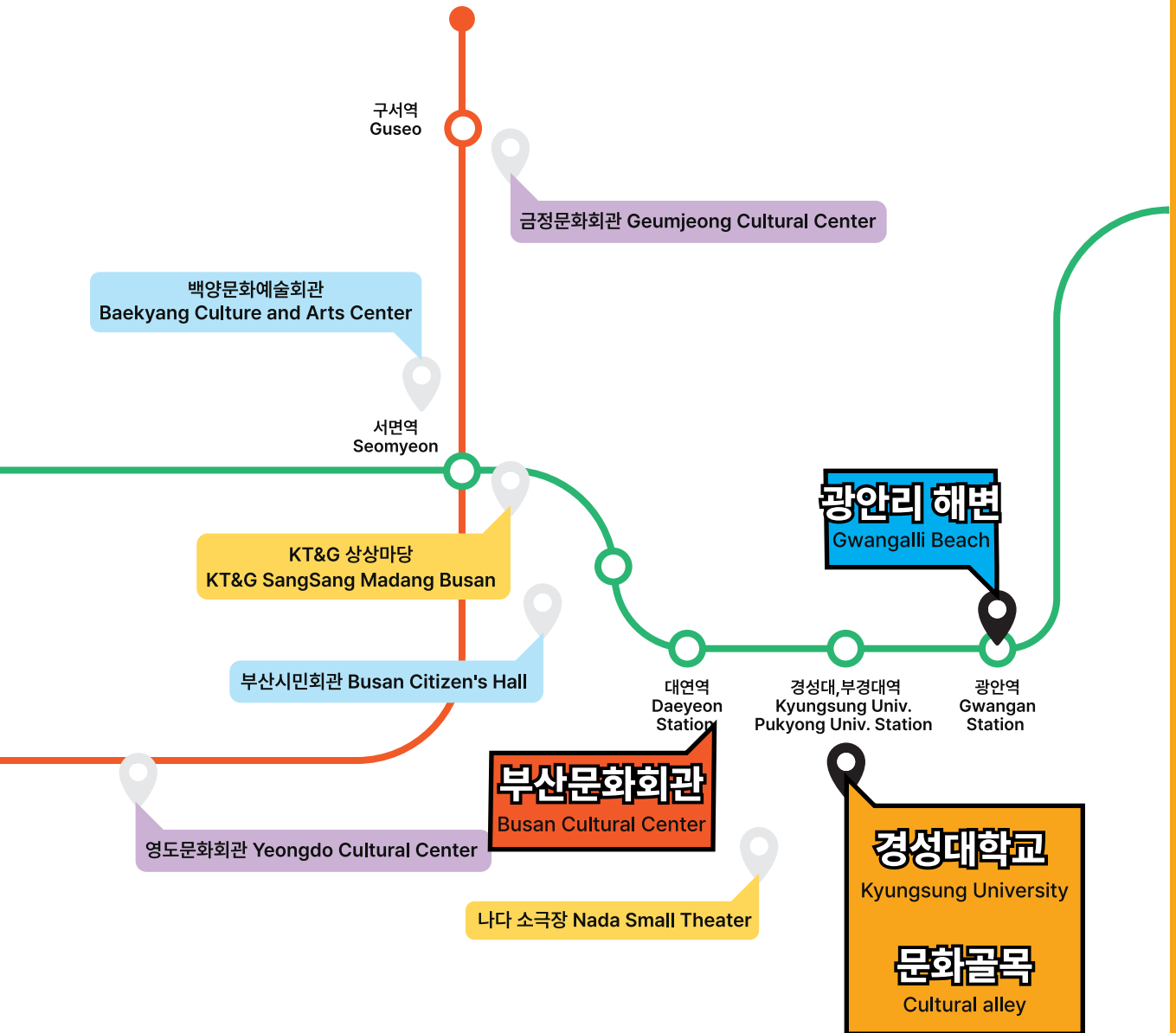
SPOT A	SPOT B	SPOT C	SPOT D
<b>11:30~11:55</b> 흔들 흔들 One Two! One Two!	<b>16:30~16:50</b> 고소공포증 Acrophobia	<b>12:00~12:40</b> 다이어트 Die A(nd) T(hink)	<b>11:00~11:40</b> 더글라스룸 The Glass Room
<b>13:00~13:45</b> 거리는 우리의 것 The Street is Ours		<b>15:00~15:45</b> 거리는 우리의 것 The Street is Ours	<b>13:30~14:20</b> 옛장수 허쟁강 Scissors Dance
<b>14:30~15:00</b> 모두의 광장 Everyone's Square 'BARA'		<b>18:00~19:00</b> <b>개막작</b> Opening Performances	<b>수영구 K 마당놀이</b> SUYEONG K MADANGNORI
<b>17:00~17:30</b> 유토피아 - 항해 Utopia - The Wave		<b>개막작</b> Opening Performances 허버트의 꿈 Herbert's Dream	<b>15:30~16:10</b> 동백꽃 Dongbaek Flower
			<b>17:30~18:10</b> 맹모 가라사대 Maengmo Says
			<b>19:30~20:10</b> 격동과 고요 Turbulence and Tranquility
			<b>21:30~22:10</b> 살롱 뮤지컬 시라노 Salon Musical Cyrano

10. 6. Sun

SPOT A	SPOT B	SPOT C	SPOT D
<b>12:00~12:50</b> 체어,테이블,체어. Chair,Table,Chair.	<b>18:30~18:50</b> 고소공포증 Acrophobia	<b>11:30~12:25</b> 거리는 우리의 것 The Street is Ours	<b>11:00~11:40</b> 랄랄라패밀리쇼 Lalala Family Show
<b>14:00~14:25</b> 리듬 Rhythm		<b>13:00~13:25</b> 합!? Hap!?	<b>13:30~13:55</b> 수직 Suzik
<b>15:00~15:30</b> 우주비행사 되기 대작전 Becoming an astronaut		<b>14:30~15:10</b> 거리상담소 with 말자할매 Street Counseling Center with Grandma Malja	<b>수영구 K 마당놀이</b> SUYEONG K MADANGNORI
<b>16:30~17:10</b> 해설이 있는 스트리트댄스 Street dance with commentary		<b>16:00~16:30</b> 홉빠! Hoppa!	<b>15:30~16:10</b> 맹모 가라사대 Maengmo Says
		<b>17:00~17:30</b> 0g(제로그램) 0g(zero gram)	<b>17:30~18:10</b> 동백꽃 Dongbaek Flower
		<b>18:00~18:30</b> 돌아버리겠네 Dizzy	<b>19:30~20:10</b> 살롱 뮤지컬 시라노 Salon Musical Cyrano
			<b>21:30~22:10</b> 격동과 고요 Turbulence and Tranquility

## 행사 통합 지도

MAP for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재단 올해의 포커스온 2개 작품 (10/3-10/15, 10/31)
- 북구문화예술회관,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회관 : 부산문화재단 씨어터링크 3개 작품 (10/3-10/5, 10/12, 10/26)
- KT&G 상상마당 : 부산문화재단 B. 라이징 아티스트 6개 작품 (10/3)
- 가온아트홀 : 부산문화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1개 작품 (10/3)
- 나다소극장 : 작지만 강한 연극제(작강연극제) 6개 작품 (10/5-10/6)
- 금정문화회관, 백양문화예술회관 : 부산국제춤마켓(BIDAM) 17개 작품 (10/2-10/5)
- 부산지역 소공연장 : 부산원먼스페스티벌 31개 작품 (10/1-10/31)

## 장소VENUE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지하철 2호선 대연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거리  
Get off Daeyeon Station on Subway Line 2, exit 5, and walk 10 minutes to the U.N. inter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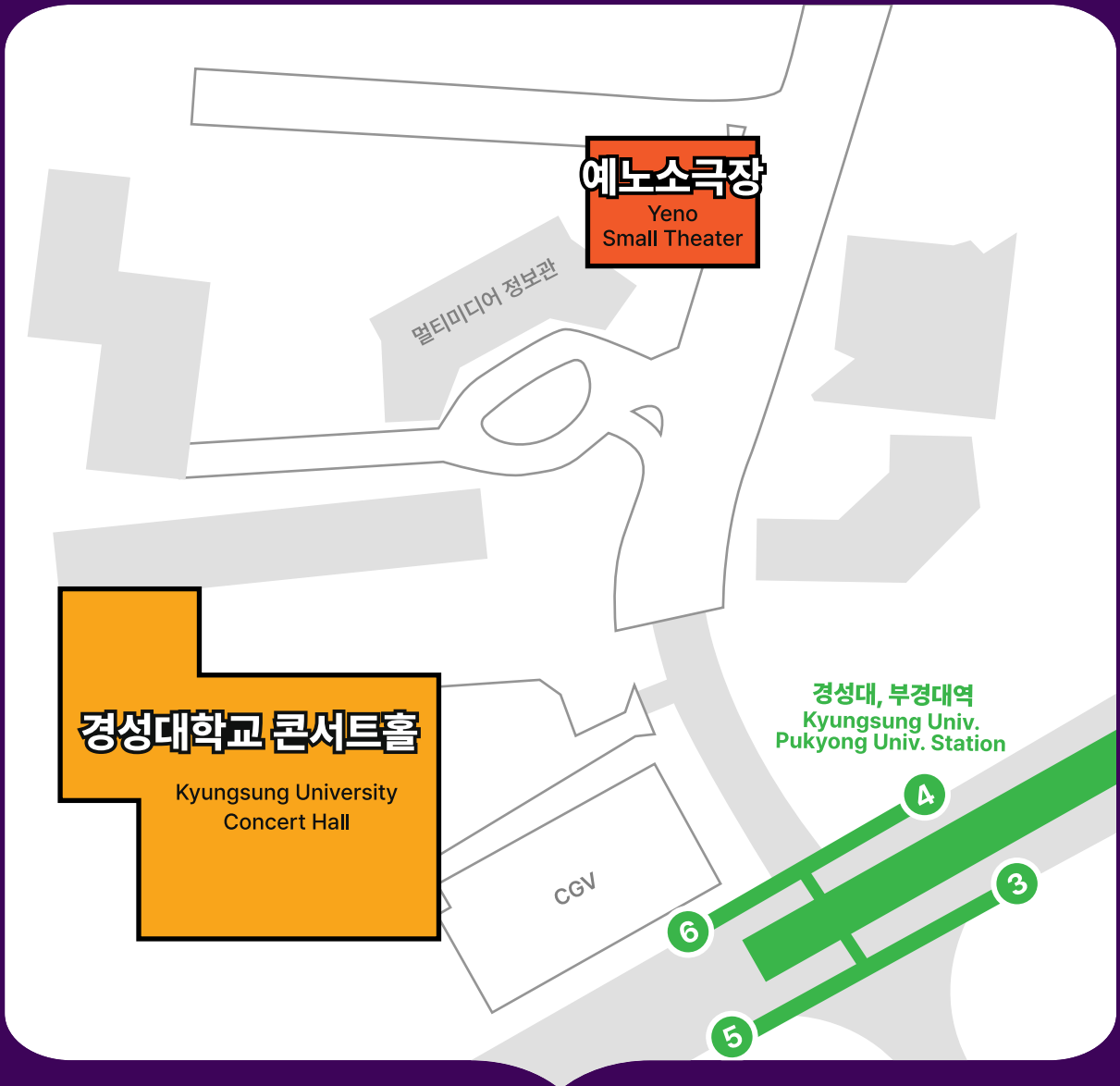
51번 (감만2동 방면) 유엔교차로, 산성교회 하차 / (금정공영차고지 방면) 시립박물관 하차  
No. 51 (to Gamman 2-dong) Enkyo-ro, Sanseong Church Exit / (to Geumjeong Public Garage) City Museum Exit

68번 (하단 방면) 유엔공원, 부산문화회관 하차 / (용당 방면) 유엔공원, 부산문화회관 하차  
No. 68 (bottom direction) UN Park, Busan Cultural Center drop-off / (Yongdang direction) UN Park, Busan Cultural Center drop-off

134번 (남부민동 방면) 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하차 / (용당동 방면) 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하차  
No. 134 (Southern Mind-dong) City Museum, Busan Cultural Center Get off / (Yongdang-dong) City Museum, Busan Cultural Center Ha1

## 장소VENUE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4번 또는 6번 출구로 나와서 경성대학교쪽으로 도보 10분거리  
Kyungsung University on Subway Line 2. Get off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tation, take exit 4 or 6, and walk 10 minutes toward Kyungsung University
- 24번 (서면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 (해군작전사령부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24 (Western direction) Get off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Navy Operations Command) Get off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39번 (기장교리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 (남구구민체육센터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39 (to Gijanggyo-ri) Get off at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to Nam-gu Community Sports Center) Get off at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41번 (충무동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 (민락동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41 (to Chungmu-dong) Get off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to Minrak-dong) Get off Kyungsung University Entrance

## 장소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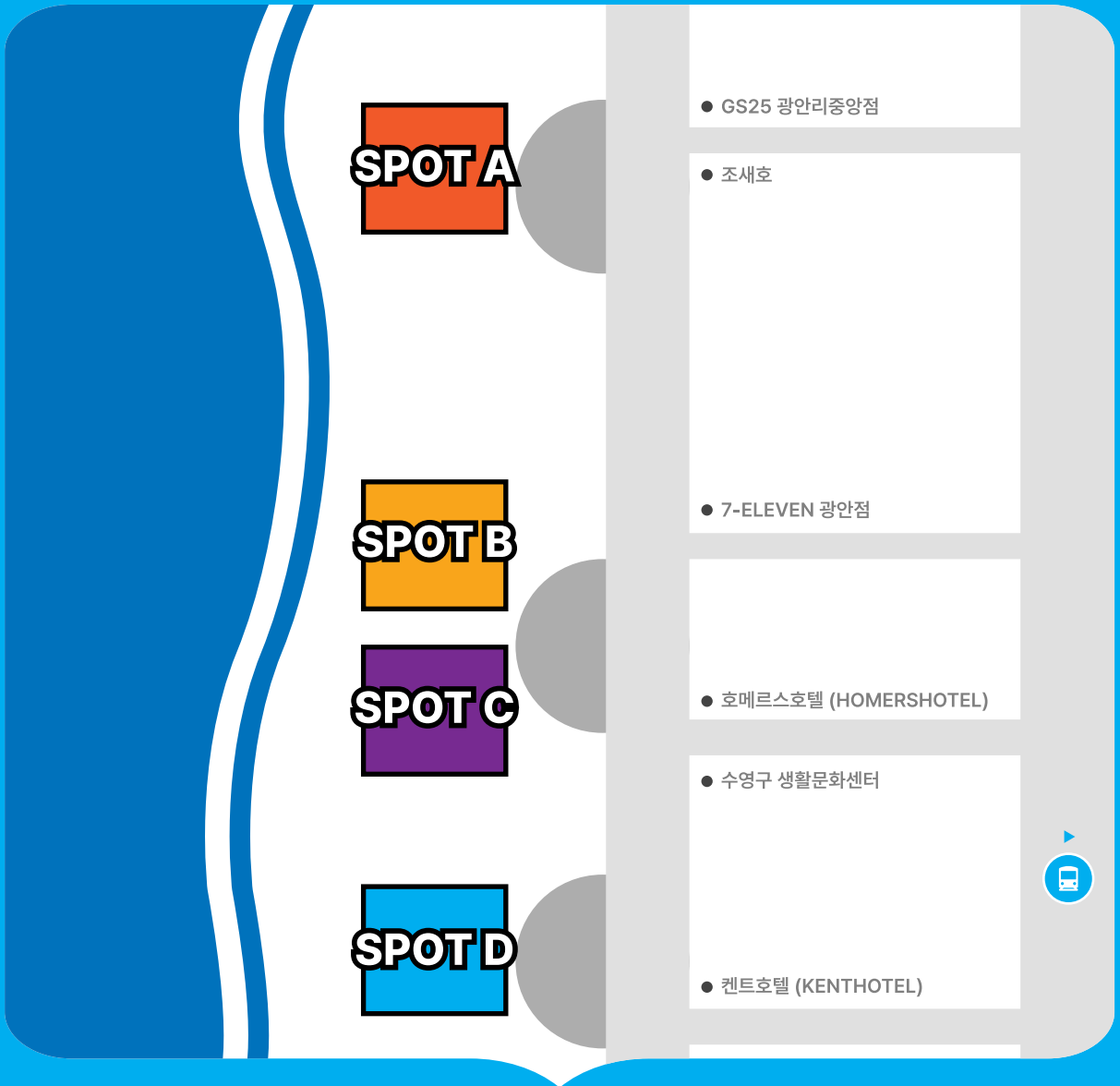
문화골목 Cultural Alley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서 부경대학교 후문쪽으로 도보 10분거리  
Get off at Kyungseung University and Pukyong University Station on Subway Line 2, exit 1 and walk 10 minutes toward the back gate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10번 (감만동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10 (to Gamman-dong) Get off Kyungseung University Entrance
- 24,27번 (용호동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24 and 27 (Yongho-dong direction) Get off Kyungseung University Entrance
- 131번 (오륙도 sk 방면) 경성대학교입구 하차  
No. 131 (to Oryukdo sk) Get off at Kyungseung University Entrance

## 장소VENUE

광안리해변 Gwangalli Beach



2호선 금련산역 하차(3번출구) 도보로 5분거리

Get off Geumryeonsan Station on Line 2 (Exit 3) 5 minutes on foot

광안역 하차(3번출구) 도보로 10분거리

Get off at Gwangnan Station (Exit 3) 10 minutes on foot



41, 49, 38, 42, 51, 62, 83, 83-1, 108-1 광안리해수욕장하차 3분거리

41, 49, 38, 42, 51, 62, 83, 83-1, 108-1 Gwangalli Beach 3 minutes away from each other

# BRAM CHOICE





# CHOICE

#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콘서트 MUSICAL <1976 HARLAN COUNTY> CONCERT

(주)이터널저니&콘티(Con.T)  
ETERNAL JOURNEY CORP. & Con.T

 \_eternaljourney

## 공연일시

10.07.(월) 20: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러닝타임

1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9명, 스태프 9명

## 출연진

### [배우]

홍주찬 김료호 이건명  
김형균 정명은 이하경  
엄준식 강성진 김상현  
황이건 김율 이민규  
최은영 성호수

### [오케스트라]

지휘 강진명  
키보드 박지예, 이혜수  
드럼 김택형  
베이스 윤진원  
기타 이정화  
바이올린 최서인, 한철희  
비올라 박미리  
첼로 이서연  
트럼본 이종승

## 제작진

프로듀서 이성모  
작가/연출 유병은  
조연출 진소윤  
작곡/음악감독 강진명  
음악조감독 이혜수  
무대감독 김범석

### [양상블]

공성유 김두리  
김찬호 양희웅  
오민석 이진성

제작감독 강효미  
제작PD 정수희  
영상디자인 송승규  
소품디자인 윤미연  
의상디자인 윤나래

## 작품소개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콘서트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0여 년이 지난 1976년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 여전히 남부 10개 주에는 인종 차별 문화가 남아 있는데, 백인 다니엘은 흑인 라일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북부 지역인 뉴욕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 할란 카운티를 지나던 두 사람은 존을 필두로 하는 광산노조 광부들이 '이스트오버 광산회사'의 황포에 맞서 대립하는 장면을 맞닥뜨린다. 다니엘과 라일리는 자신들의 여정에 도움을 준 노조위원장 모리슨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이들의 투쟁을 돕게 된다.

## 단체소개

(주)이터널저니는 '끝없는 여정'이라는 사명처럼 크리에이터, 배우, 관객과 함께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콘텐츠 창작 집단이다. 착한 제작진과 착한 배우가 모여 뮤지컬, 연극, 언버벌(Non-verbal) 퍼포먼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콘티(Con.T)는 공연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콘텐츠 기획 전문집단이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7.(Mon) 20:0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NNING TIME**

1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9, STAFF 9

**CAST****[ACTOR]**

Joochan Hong	Ryunho Kim	Kunmyung Lee
Hyunggyun Kim	Myungeun Jung	Hakyung Lee
Junsik Um	Sungjin Kang	Sanghyun Kim
Egan Hwang	Yul Kim	Minkyu Lee
Eunyoung Choi	Hosoo Sung	

**[ORCHESTRA]**

**Conductor** Jinmyung Kang  
**keyboard** Jiye Park, Hyesoo Lee  
**Drum** Taekhyung Kim  
**Bass** Jinwon Yoon  
**Guitar** Junghwa Lee  
**Violin** Seoin Choi, Chulhee Han  
**Viola** Miri Park  
**Cello** Seoyeon Lee  
**Trombone** Jongseung Lee

**[ENSEMBLE]**

Sungyu Gong  
 Duri Kim  
 Chanhoo Kim  
 Heewoong Yang  
 Minseok Oh  
 Jinsung Lee

**CREDITS**

**Producer** Syungmo Lee  
**Writer/Director** Byungeun Yoo  
**Assistant Director** Soyeon Jin  
**Composer/Music Director** Jinmyung Kang  
**Music Assistant Director** Hyesoo Lee  
**Stage Director** Beomseok Kim  
**Production Director** Hyomi Kang  
**Production PD** Soohye Jeong  
**Visual Design** Seungkyu Song  
**Props Design** Miyeon Yun  
**Costume Design** Narae Yoon

**INTRODUCTION OF THE WORK**

MUSICAL <1976 HARLAN COUNTY> CONCERT is a story set in the US in 1976, when over 100 years had passed since slavery was outlawed in the country but racism was still well and alive in 10 southern states. Daniel, a white man, helps the escape of black man Riley to New York to ensure his freedom.

Passing a small village called Harlan County in the south central state of Kentucky, Daniel and Riley discover the unionized miners including John protesting against atrocities of Eastover Mining Company. Daniel and Riley receive a secret request from Morrison, the chair of the labor union who once helped their escape and agree to help their strike.

**GROUP INTRODUCTION**

Just like its name suggests, Eternal Journey is a content creators group wishing to continue an eternal journey for a world where more justice is served with creators, actors and the audience. In other words, producers and actors with good will collaborate in this company to stage a wide variety of pieces such as musicals, theatrical plays and non-verbal performances.

Con.T is an arts and content production group focusing on the endless potential of a performing arts stage and ceaselessly looking for change. Being in full harmony and communion with everybody it collaborates with, it would like to spread a positive message to the world.

# 고르니슈트 Gornisht

로이 아사프 댄스 with 부산 무용가  
(Roy Assafe Dance with Busan Dancers)

 royassafdance  royassafdance.com

## 공연일시

10.08.(화) 20: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이스라엘 &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0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나오미 벤 데이빗	이용진
엘라 이스만	이종윤
로니 밀라틴	이제형
베아트리스 라리베	정승환
로니 아르가만	허성준

## 제작진

안무/무대/의상 로이 아사프  
협력 아리엘 프리드만  
조명디자인 예이르 바르디  
장식/조경 스튜디오 워드  
음악제작 및 편집 뢰트 예후다이  
가창  
뢰트 예후다이, 오스탯 하렐, 아야 아사프, 게리 레이건

## 작품소개

<고르니슈트>는 이해와, 모든 예상했던 이해의 방향이 도전받을 때 관객이 느끼는 모든 느낌들의 사이에 존재한다. 즉, 상상하고 의문을 품고 추측하며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것에 관련지어 보고 새로운 것을 감지하며 느끼는 모든 정신세계 속의 풍경이다. 말도 안 되고 횡설수설로 가득하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며 대서사시를 풀어내는 풍성한 소리의 부조리극과 지독히 개인적인 순간을 부담스럽도록 가깝게 들여다보는 어색한 시선, 그리고 전설적인 팝 명곡 소절들의 향연이 공존하는 무대에서 '의미'의 역할은 뒤틀리고 구부러지며 한 치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소리와 몸짓의 기묘한 조화가 어우러진다. 이번 공연은 BPAM의 새로운 프로젝트 일환으로, 부산 청년무용가 5인과 함께 국제협업으로 재탄생하는 작품이다.

## 단체소개

로이 아사프는 1982년 이스라엘 남부의 농업 커뮤니티 스데 모세에서 태어났다. 그는 기억하는 한 내내 춤을 추고 창작해왔다. 16세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용을 시작한 그는 2003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무가인 엠마누엘 갓을 만나 5년간 공연자이자 보조 안무가로 작업했다. 2010년 이후, 그는 독립적으로 작품을 개발해왔으며 벤자민 밀레피에의 LA 댄스 프로젝트, 로열 스웨덴 발레단, 바체바 무용단, 웨일스 국립 무용단, 예테보리 오페라 무용단, 줄리어드 스쿨, 탄츠 마인츠 및 덴마크 무용단 등 여러 단체 및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극장과 축제에서 공연되었다.

**DATE & TIME**

10.08.(Tue) 20:0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Israel &amp;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0, STAFF 2

**CAST**

Naomi Ben David  
Ella Isman  
Roni Milatin  
Béatrice Larrivière  
Roni Argaman

Yongjin Lee  
Jongyoon Lee  
Jehyoung Lee  
Seongjun Heo  
Seunghwan Jung

**CREDITS**

**Choreographer/Stage/Costume** Roy Assaf  
**Artistic Associate** Ariel Freedman  
**Lighting Design** Yair Vardi  
**Decor Construction/Tree Design** Studio Wid  
**Music Production & Editing** Reut Yehudai  
**Singing**  
Reut Yehudai, Osnat Harel, Aya Assaf, Gary Reagan

**INTRODUCTION OF THE WORK**

<Gornisht> exists in the space between understanding and... everything that may happen to a spectator when the expectation of understanding is undermined. Imagining, wondering, guessing, interpreting, associating, sensing, and feeling fill the psychological landscape. In an absurd, rich sound score of nonsense, gibberish, the almost-recognizable flash of epic speeches, an awkwardly intimate glimpse into a wildly private moment, and all-too-familiar quotations from the pantheon of pop, the role of 'meaning' twists and bends in a mercurial relationship between sound and movement.

As part of the new project series produced by BPAM, this piece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five emerging dancers from Busan.

**GROUP INTRODUCTION**

Roy Assaf was born in 1982 in the farming community of Sde Moshe in the south of Israel. He has been dancing and creating as long as he can remember. He began formal training at the age of sixteen, when he joined a dance group at the community center in Kiryat Gat. In 2003 he me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horeographer Emanuel Gat and collaborated with Gat as both performer and choreographic assistant from 2004-2009.

Since 2010, he has been developing his own works independently and has received commissions from companies including Benjamin Millepied's LA Dance Project, the Royal Swedish Ballet, the Batsheva Dance Company, the National Dance Company Wales, the Gothenburg Opera Dance Company, The Juilliard School, TanzMainz and Danish Dance Theater, among others. His work has been performed in such renowned venues and festivals as the 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Jacob's Pillow, American Dance Festival, Belgrade Dance Festival, Bolzano Danza, Sziget Festival, Trafo, Pavillon Noir, La Biennale di Venezia, La Biennale De Lyon and the Baryshnikov Arts Center. His award-winning duet Six Years Later was performed by Natalia Osipova in her program Pure Dance, produced by Sadler's Wells.

# 영남무악 Youngnam Moo-Ak

축제의 땅  
Festive Land

## 공연일시

10.05.(토) 17:3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러닝타임

1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9명, 스태프 5명

## 출연진

### [춤]

김운태 윤미라  
박경량 윤여숙  
박상용 황지인  
신은주

### [반주자]

해금 정은주  
피리 정석진  
대금 정승훈  
장구 이현호, 서자영, 윤미정  
북 신승균, 박보슬  
가야금 이정민  
팽과리 장보미, 배지현  
징 이희원

## 제작진

연출 진옥섭  
음악감독 정영만

## 작품소개

예로부터 ‘호남은 소리, 춤은 영남’이라고 할 정도로 영남은 춤으로 유명하다. 춤 음악은 김홍도의 <무동(舞童)>에 나오듯 좌고, 장고, 목피리, 겹피리, 대금, 해금 등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근본으로 한다.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삼현육각이 남은 곳은 통영이 유일하다.

<영남무악>은 대대로 전승된 영남의 춤과 음악을 찾아 판을 열고 옛 춤을 잇는 동시에 새 춤을 짓는 무대를 선보인다. 징과 구름을 맡은 음악감독 정영만을 필두로 자녀인 정석진(피리), 정승훈(대금), 정은주(해금), 그리고 제자 이현호(장구), 신승균(타악), 이정민(가야금)이 유구한 전통에 깊이를 더한다.

## 단체소개

축제의 땅은 연출가 진옥섭이 설립한 전통예술 전문 공연기획사로, 초야에 묻힌 전통의 예인들을 발굴해 무대에 올린다. 지금까지 <남무, 춤추는 처용아비들>, <여무, 허공에 그린 세월>, <전무후무> 등의 작품을 공연했고, 2006년에는 <풍물명무전>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다.

**DATE & TIME**

10.05.(Sat) 17:3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RUNNING TIME**

1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9, STAFF 5

**CAST****[DANCER]**

Woontae Kim	Mira Yoon
Kyeongrang Park	Yeosuk Yun
Sangyong Park	Jiin Hwang
Eunju Shin	

**[ACCOMPANIST]**

<b>Haegeum</b>	Eunju Jeong
<b>Piri</b>	Seokjin Jeong
<b>Daegum</b>	Seunghun Jeong
<b>Janggu</b>	Hyunho Lee, Jayoung Seo, Mijeong Yoon
<b>Buk</b>	Seungkyun Lee, Boseul Park
<b>Gayageum</b>	Jeongmin Lee
<b>Kkwaenggwari</b>	Bomi Jang, Jihyun Bae
<b>Jing</b>	Heewon Lee

**CREDITS**

**Director** Oksub Jin  
**Music Director** Yeongman Jeong

**INTRODUCTION OF THE WORK**

As there was the old saying, "Honam (the southwest of Korea) sings, dance is for Yeongnam (the southeast of Korea)", Yeongnam is renowned for traditional dance. As the legendary painting <Mudong (lit. "dancing boy", 1780)> by Kim Hong-do shows, musical instruments for a dance stage requires "Samhyeon Yukgak (lit. "six essential elements of a formal music"), which consists of jwago (hanging barrel drum played by a seated player), janggu (hourglass-shaped drum), mok-piri (small flute), gyeop-piri (small double flute), daegum (large bamboo flute), and haegeum (a string instrument made of a vertical fiddle with two strings). However, in the entire Yeongnam region, Tongyeong is the only area where the traditional Samhyeon Yukgak has survived.

<Youngnam Moo-Ak (lit. "shamanistic music of Yeongnam Area")> discovers the traditional dance and music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opens a stage and continues the traditional dance so that a new piece can be created as well. While the dance company is led by the music director Yeongman Jeong, who also plays jing (large gong) and sings gu-eum (vocalized background music without lyrics), his children Seokjin Jeong (piri), Seunghun Jeong (daegum), and Eunju Jeong (haegeum), and his students Hyunho Lee (janggu), Seungkyun Lee (buk and percussion), Jeongmin Lee (gayageum) add profoundness and sophistication to the traditional beauty of the dance and the music.

**GROUP INTRODUCTION**

Founded by performing arts director Oksub Jin, Festive Land is a performing arts production company specialized in traditional arts, which rediscovers the traditional artisans hidden from the general audience for many years. The company has staged pieces <Nammu (lit. "male dance"): Dancing Cheoyong Fathers>, <Yeomu (lit. "female dance"): Past Days Drawn on the Blank Space>, and <Jeonmu Humu (lit. "unprecedented in the past and impossible in the future")>. In 2006, the company received the Art Piece of the Year Prize by the Arts Council Korea for <Pungmul Myeongmu Jeon (lit. "tale of assorted folk music and talented dancers")>.

# 두 팔을 벌려서 Open Your Arms

비팜 프로젝트 밴드  
BPAM Project Band

 adelaide\_musicproduction

## 공연일시

10.05.(토) 20: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독일 &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리더/더블베이스 마틴 젠커  
피아노 파블로 스트루프  
해금 고수정  
보컬 페르난다 폰 작센  
퍼커션 파코 드 진  
색소폰 이병주  
기타 김경모  
드럼 허여정

## 제작진

위촉곡 작곡 그레고리 휴브너  
제작/진행 아델라이데 프로덕션  
연출 김우경

## 작품소개

재즈는 기본적으로 즉흥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대한민국의 부산과 독일의 뮌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8명의 음악가는 짧은 리허설 기간을 통해 다름은 스탠다드 재즈곡 위주로 60분 동안 무대를 채운다. 이번 공연에서는 ‘Open your arms’가 세계 초연된다. ‘Open your arms’는 뮌헨국립음악대학 그레고리 휴브너 교수에게 요청한 위촉곡으로, 한국의 민요와 영남무악, 동래학춤에서 영감을 받았다.

## 단체소개

‘국제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성된 BPAM 프로젝트 밴드는 한국과 독일의 재즈 뮤지션들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스, 피아노, 해금, 보컬은 독일 국립 뮌헨음대의 음악가 4인이, 드럼, 기타, 색소폰, 퍼커션은 한국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음악가 4인이 담당한다. 이들 8인의 연주자는 즉흥연주라는 재즈의 특징을 살린 음악을 선보인다.

**DATE & TIME**

10.05.(Sat) 20:0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Germany &amp;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2

**CAST****Leader/Double Bass** Martin Zenker**Piano** Pablo Struff**Haegeum** Soojeong Ko**Vocal** Fernanda Von Sachsen**Percussion** Paco de Jin**Saxophone** Byungjoo Lee**Guitar** Kyeongmo Kim**Drum** Yeojung Hur**CREDITS****Composer** Gregor Huebner**Production/Progress** Adelaide Music Production**Director** Wookyoung Kim**INTRODUCTION OF THE WORK**

Basically, jazz is music performed in improvisation. The 8 musicians based in Busan of Republic of Korea and Munich of Germany will fill the 60 minutes on the stage with popular standard jazz numbers, which they only refined during a short session of rehearsal. Moreover, what is going to premiere on this stage is "Open Your Arms", which is an original composition commissioned to Professor Gregor Huebner of the University of Music and Theater in Munich with inspiration from Korean traditional folk songs, Yeongnam Mooak (lit. "shamanistic music of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and Dongnae Hakchum (lit. "traditional crane dance from Dongnae district in Busan").

**GROUP INTRODUCTION**

BPAM Project Band was founded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 which consists of Jazz musicians from South Korea and Germany. While the sound of bass, piano, haegeum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resembling a vertical fiddle with two silk strings) and vocal is played by four musicians from the University of Music and Theatre Munich of Germany, the sound of drum, guitar, saxophone and percussion is played by the four Busan-based musicians from Korea. The ensemble of the aforementioned 8 musicians will best reflect the characters of Jazz music focusing on improvised performances.

## 더 라틴 터치 The Latin Touch

파코의 뉴 데코 클래식  
Paco's New Deco Classic

 pacodejin\_perc

### 공연일시

10.06.(일) 17: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러닝타임

7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 출연진

퍼커션 파코 드 진

기타 박윤우

베이스 전창민

바이올린 닐루파르

첼로 고준영

하모니카 이윤석

소프라노 강태경

테너 황현한

### 작품소개

<더 라틴 터치>에서는 클래식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결합한 곡들을 선보인다. 다른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의 음악을 접목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 민요를 녹인 '풍년가', '도라지 타령'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 단체소개

파코의 뉴 데코 클래식은 국내 유일의 퍼커서니스트이자 편곡자인 파코 드 진이 이끄는 그룹이다. 국적과 장르를 막론하고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스타일을 융합해 독특한 음악을 창조한다. 클래식과 재즈 등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여러 연주자의 하모니는 관객에게 음악에는 국경도, 시대적 단절도 없다는 말을 체감하게 한다.

**DATE & TIME**

10.06.(Sun) 17:0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RUNNING TIME**

7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CAST****Percussion** Paco De Jin**Guitar** Younwoo Park**Bass** Chagmin Jun**Violin** Nilufar Mukhiddinova**Cello** Junyoung Goh**Harmonica** Yoonseok Lee**Soprano** Taekyung Kang**Tenor** Hyunhan Hwang**INTRODUCTION OF THE WORK**

<The Latin Touch> features musical pieces that have converged works from a wide variety of genres and the Western classical music. The music from diverse continents, from Latin America to Middle East, Europe and Africa, merged with the well-known Western classical pieces, offers unexpected idiosyncratic vibes. In particular, reinterpretation of excerpts from popular Korean traditional folk songs such as Poongnyeonga (lit. "song celebrating rich harvest") and Doraji Taryeong (lit. "bellflower harvesting song") shows the new potential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INTRODUCTION**

"Paco's New Deco Classic" is a musical group led by Korea's top percussionist and music arranger Paco De Jin. The band creates a distinctive piece by crossing borders of nationalities and genres of music and merging a wide variety of styles. The harmony of diverse musical instrument players, active in various fields of classical music and jazz, will remind the audience that music never knows national borders or generational segregation.

# 피아노 병창 “춘향”

## Fire and Tears: Ko Yeong-yeol's New Wave K-Traditional

고영열  
Yeongyeol Ko

 ko\_y\_y\_

 KYY

 origingroove.com

### 공연일시

10.06.(일) 18:3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판소리/피아노 고영열

피아노 강재훈

플루트 이규재

기타 허정호

베이스 이동민

퍼커션 최승환

소리북 김재하

### 제작진

프로듀서 피트뮤직

작곡 고영열

### 작품소개

<춘향가> 원곡은 완창할 경우 8시간이 걸리고, 총 80개가 넘는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노 병창 “춘향”>은 이 방대한 작품에서 고영열이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고, 멋있고, 많이 알았으면 하는 대목들을 집대성한 곡이다. 북 대신 피아노에 소리를 얹어 화성을 입혔고, 관객들은 한국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이 작품을 통해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의 신선한 해석은 수백 년 전 청춘 남녀의 희로애락에 머물지 않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 단체소개

소리꾼 고영열은 세련된 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친숙한 이미지로 판소리를 알리고 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감성 소리꾼’으로,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탁월한 작사, 작곡, 연주, 프로듀싱 능력을 모두 갖춘 독보성을 인정받아 국악인 최초로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워너뮤직코리아와 레코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영열은 클래식, 팝, 재즈,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국악의 대중성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악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8:3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1

**CAST****Pansori/Piano** Yeongyeol Ko**Piano** Jaehun Kang**Flute** Gyujae Lee**Guitar** Jeongho Heo**Bass** Dongmin Lee**Percussion** Seunghwan Choi**Soribuk** Jaeha Kim**CREDITS****Producer** PETEMUSIC**Composer** Yeongyeol Ko**INTRODUCTION OF THE WORK**

Singing the entire original pansori piece <Chunhyangga> takes 8 hours, since the full-length Korean traditional romantic folktale consists of more than 80 songs. <Fire and Tears: Ko Yeong-yeol's New Wave K-Traditional> is a unique reinterpretation of Chunhyangga into a byeongchang (singing with an accompaniment of a musical instrument) of piano, which is also a condensed collection of what Ko considers as the most significant and beautiful and what Ko wants more audience to know from the 8-hour-long full-length Korean traditional story. Instead of buk (a traditional small barrel drum played by a seated player), piano adds rhythms and harmony to the vocal of pansori, so that the audience can be better immersed into the beautiful romance of Chunhyang and Mongryong through the well-known narrative well reflecting the beauty of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The idiosyncratic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lassic does not restrict itself in illustrating delight, anger, sadness and joy of a young romantic couple centuries ago, but aims to be established as a universal love story understood by everyone in the world, like <Romeo and Juliet>.

**GROUP INTRODUCTION**

Ko Yeong-yeol is a sorikun (lit. singer of pansori (Korea's traditional full-length musical storytelling genre performed by a solo vocalist and a drum player)) who contributes to increased popularity of pansori with sophisticated vocals, profound sensations and friendly impressions. Known as "a sensitive pansori singer who also plays the piano while singing", he also made the term "piano byeongchang (lit. vocal accompanied with a musical instrument)" known to the general public. With acknowledgement of unmatched ability of writing songs and lyrics, sing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s producing a musical stage, Ko became the first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musician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the internationally acclaimed record label Warner Music Korea.

Ko also helped the world of gugak to expand its popularity by collaborating with artists from a wide variety of backgrounds from Western classical music to pop, jazz and world music. Participating in many famous TV competitions shows such as "Phantom Singer 3 (a JTBC competition show of male crossover singers that aimed to form a male quartet)", "Poongryu (a JTBC competition show of fusion gugak singers and bands)" and "Immortal Songs: Singing the Legend (a KBS competition show where young singers pay tribute to a legendary musician by reinterpreting his/her representative pieces)", the sorikun has proved popular potential of gugak. Ko also uses diverse musical instruments on his stage to establish his own signature styles.

# 라 갈러리(갤러리) La Galerie

마신 드 시르크  
Machine de Cirque

 machinedecirque  en.machinedecirque.com

## 공연일시

10.04.(금) 19:30  
10.06.(일) 20: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러닝타임

65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캐나다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폴린 보나니	잭 맥거
벤자민 덴 월거스	린 굴렛
카를 뢰벤보르크	오웬 월슨
코너 홀리헌	콜린 안드레-에리오

## 제작진

연출/작가 올리비에 레핀  
예술감독/공동극작 뱅상 뒤베  
음악 마리-엘렌 블레  
예술자문 프레데릭 르브라쉴, 린 굴렛,  
막심 로렝, 라파엘 뒤베, 우고 다리오  
세트디자인 질리 레브스크  
조명디자인 브루노 마트  
의상 에밀리 포트뱅  
프로젝트 매니저 쥘리비에브 웰레-포르텡  
기술감독 마티외 위동  
도움 카를 D 자르덴, 질 베르나르

## 작품소개

서커스가 미술관에 쳐들어갔다! 일곱 명의 엉뚱한 곡예사와 짜릿한 음악가가 무색의 전시회를 점령한다. 독창적인 매력을 쏟아내는 그들은 전시회에 화려한 색감을 들이부으며 박장대소를 불러일으킨다.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캐릭터들은 공연 뒤에 숨겨진 것을 마음껏 들여다보게 해준다. 아찔한 동작과 거듭되는 놀라움, 다채로운 감성과 자신에게 고스란히 담긴 유머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에 담긴 오래된 창의성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도 한다. <라 갈러리(갤러리)>에 참여해 특별한 경험에 빠져들어보자.

## 단체소개

마신 드 시르크는 퀘벡에 기반을 둔 서커스 단체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서커스 공연을 통해 아찔한 기교, 강렬한 감성, 서정성, 지적 유희, 그리고 유머를 선사한다. 이들의 기발하고 깊이 있는 인간적인 작품은 항상 일관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마신 드 시르크만의 독특한 서커스 예술 접근 방식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며 강렬한 호소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DATE & TIME**

10.04.(Fri) 19:30  
10.06.(Sun) 20:0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NNING TIME**

65min

**AGE LIMITS**

8+

**NATIONALITY**

Canad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3

**CAST**

Pauline Bonnani	Jack McGarr
Benjamin Denne Wolgers	Lyne Goulet
Carl Löwenborg	Owen Wilson
Connor Houlihan	Colin André-Hériaud

**CREDITS**

**Director/Author** Olivier Lépine  
**Artistic Director/Writing Collaborator** Vincent Dubé  
**Music** Marie-Hélène Blay  
**Artistic Advisors**  
 Frédéric Lebrasseur, Lyne Goulet, Maxim Laurin,  
 Raphaël Dubé, Ugo Dario  
**Set Design** Julie Lévesque  
**Lighting Design** Bruno Matte  
**Costume** Emilie Potvin  
**Production Manager** Geneviève Ouellet-Fortin  
**Technical Director** Mathieu Hudon  
**Other contributors** Carl D. Jardins, Gilles Bernard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ircus invades the museum! Seven crazy acrobats and an electrifying musician take over a monochrome exhibition. In a burst of creativity, they transform it into an explosion of color. Laughing at convention, these characters, as many as they are touching, eagerly explore what's behind the scenes. Vertiginous feats, surprising finds, colorful poetry and self-mockery are all part of this ode to creativity. Let yourself be intoxicated by this unique experience. Take part in <La Galerie>.

**GROUP INTRODUCTION**

Machine de Cirque is a Quebec City-based circus company that offers a high dose of vertiginous prowess, strong emotions, poetry, intelligence and humor through the production of innovative and original circus shows. Its ingenious and profoundly human creations are always driven by a unifying vision. Machine de Cirque's unique approach to the art of circus touches and moves audiences.

## 두들팝 Doodle Pop

브러쉬씨어터 주식회사  
BRUSH Theatre Co., Ltd.



brushtheatre



brushtheatre

### 공연일시

10.07.(월) 18:3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 [배우]

정현기  
박선주

#### [뮤지션]

피아노 유수인  
드럼 강정혜

#### [영상테크니션]

김수연

### 제작진

연출 엄용균  
기획 조병욱  
무대감독 이경표  
음악감독 박소희조명감독 장영섭, 김재경  
음향감독 이소희  
영상감독 이예성

### 작품소개

<두들팝>은 어린이의 낙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흰 도화지가 흘러내리는 듯한 무대 배경 앞에서 진행되는 우기와 부기의 모험은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벽에 그린 동그라미는 얼굴로, 전등 스위치로, 공으로, 새끼 거북이가 태어나는 알로 변주되며 낙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음향 효과,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오브제들과 함께 아이들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이의 세계에 흠뻑 매료될 것이다.

### 단체소개

브러쉬씨어터 주식회사는 전 세계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배경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이념 아래 아이들을 미래의 관객이 아니라 현재의 관객으로 대하며, 문화예술이 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다. 공연 제작과 기획, 유통, 상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권이 즐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세계 시장으로 계속해 뻗어나가는 중이다.

**DATE & TIME**

10.07.(Mon) 18:3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3

**CAST****[ACTOR]**Hyunki Jung  
Sunju Park**[MUSICIAN]**Piano Suin Yoo  
Drum Jounghae Kang**[VIDEO TECHNICIAN]**

Sooyeon Kim

**CREDITS**

**Director** Yongkyun Yeom  
**Promotor** Byungwook Cho  
**Stage Director** Kyungpyo Lee  
**Music Director** Sohee Park  
**Lighting Director** Youngseob Jang, Jaekyung Kim  
**Sound Director** Sohee Lee  
**Visual Director** Yesung Lee

**INTRODUCTION OF THE WORK**

<Doodle Pop> has been inspired by children's doodles. Against the stage backdrop that resembles blank drawing paper flowing down, Woogie and Boogie embark on an adventure that goes through continuous metamorphosis captivating the audience and arousing their curiosity. The endless potential of doodles is rediscovered, as a circle drawn on the wall transforms itself into a wide range of variations such as a face, a light switch, a ball, and an egg from which a tortoise is born. The live stage of music, diverse sound effects, and objects emerging in the optimal time and location will immerse the children into the world of play, in which they could realize everything they imagine.

**GROUP INTRODUCTION**

BRUSH Theatre values the non-negotiable basic rights that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around the world should have access to high-quality performing arts, regardless of their social, economic or geographical backgrounds. Such conviction has made the theater company treat children not as the future or potential audience but as the real audience now, and be fully committed to enriching their life by permeating arts and culture into their daily life. Throughout the entire stages of producing, creating, distributing and staging a performing art piece, the company is dedicated to overcoming the language barrier and making the widest variety of ethnic and cultural groups appreciate it. As such, Brush Theatre has been in the ceaseless journey to reach the international audience.

# BPAM SHOWCASE



# SHOW CASE

# 그때, 변홍례 At that time, Byeon

극단 하땅세  
Theatre Haddangse

 haddangse  blog.naver.com/haddangse2

## 공연일시

10.05.(토) 13: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이지연  
문숙경  
박광선  
김예진  
백상민

## 제작진

작가 어단비  
연출 윤시중  
조연출 표지인  
총괄감독 권제인  
조명/음향오퍼레이터 윤경호  
자막 표지인

## 작품소개

1931년 일제강점기 조선인 하녀 변홍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전모를 밝히려 하고 또 누군가는 은폐하려 한다. 작품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물들의 욕망이 뒤얹힌 사건의 실제와 이면을 추적해 나가며 현대의 지옥도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때, 변홍례>는 과장된 분장과 무성 영화의 기법, 다채로운 조명 활용 등을 통해 수많은 볼거리를 안긴다. 연극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연극을 넘나드는 <그때, 변홍례>로 관객들은 즐기는 공연을 넘어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극단 하땅세는 2008년 창단한 이후 꾸준히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며 개성 있는 창작 작품을 선보여 왔다.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에서의 역량도 키워가고 있는데, 2014~2016년에는 프랑스 태양극장, 아비뇽 오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붓바람>, <오버코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를 공연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와 서울아트마켓(PAMS)을 통한 해외 교류 네트워크도 끈끈하게 이어지며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리투아니아에서 <그때, 변홍례> 투어 공연을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그때, 변홍례>와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를 선보였다.

**DATE & TIME**

10.05.(Sat) 13: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CAST**

Jiyeon Lee  
 Sukkyeong Moon  
 KwangSeon Park  
 Yejin Kim  
 Sangmin Peak

**CREDITS**

**Writer** Danbee Uh  
**Director** Sijoong Yoon  
**Assistant Director** Jiin Pyo  
**General Supervision** Jane Kwon  
**Lighting/Sound Operator** Geongho Yun  
**Subtitles** Jiin Pyo

**INTRODUCTION OF THE WORK**

In 1931,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 Korean housemaid Byeon Hongrye was found murdered. Someone wants to find out and reveal what really happened, while others try to cover them up. As the narrative develops and details are traced, the reality and the hidden side of the case, throughout which the desire of everyone involved is found intertwined, end up resembling the agony of the contemporary people.

Inspired by the true story, <At that Time, Byeon> offers a wide variety of intriguing spectacles such as exaggerated makeup, elements of silent films, and diverse use of stage lighting. <At that Time, Byeon>, which crosses boundaries of genres, like a film inside the play, or a play inside the film, will give the audience a unique unforgettable experience that they do not only watch but they also "partake" in the piece.

**GROUP INTRODUCTION**

Theatre Haddangse, since it was founded in 2008, has staged original pieces with signature characters by continuously converging and adding new approaches. Reaching the wider audience in and out of Korea, from 2014 to 2016, the company staged their representative pieces <Brush>, <the Overcoat>, and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in Théâtre du Soleil and Festival Off Avignon of France, and Edinburgh Festival Fringe of the UK.

Theatre Haddangse has also continued consistent international exchanges through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having a tour of <At that Time, Byeon> in Madrid and Lithuania in 2019 and staging <At that Time, Byeon> and <Wait!> in Edinburgh Festival Fringe.

# 룸메이트 Roommate

아이컨택  
iCONTACT

 icontact\_kr  icontact.creatorlink.net

## 공연일시

10.05.(토) 14: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노가다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양승민  
강승환  
백규진  
김주효  
안영현  
최지혜

## 제작진

작가/연출 백규진  
작가/디자인 안영현  
연출 박용희  
프로듀서 양승민  
기획 최지혜  
조명감독 강진구  
무대 블랙스테이지  
촬영 스튜디오가은

## 작품소개

연극 <룸메이트>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1부에서는 배우 지망생 규진과 고시생 승환, 승민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룸메이트다. 어느 날 규진은 공금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된다. 승환과 승민은 이 사실이 너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규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2부에서는 취업을 위해 상경하여 한 집에 모여 사는 세 여성(영현, 주효, 다빈)이 등장한다. 먼저 취업한 영현은 출퇴근을 위해 퇴거를 선언한다. 주효와 다빈은 앞으로 자신들이 떠안게 될 월세와 공과금 걱정에 마음껏 축하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진다.

##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아이컨택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존 관행에 대한 저항정신을 표현한다. 다양한 창작 공연을 바탕으로 융복합, 장소 특정형, 이머시브 공연 등 콘텐츠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매년 6~8회의 창작 및 레퍼토리 공연, 2~3건의 페스티벌 및 국제행사 용역사업을 진행하며 2,500~3,000명에 달하는 누적 관객 수를 기록 중이다.

**DATE & TIME**

10.05.(Sat) 14:00

**LOCATION**

Cultural Alley Pub NOGADA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3

**CAST**

Seungmin Yang  
 Seunghwan Kang  
 Kyujin Baek  
 Juhyo Kim  
 Yeonghyun Ahn  
 Jihye Choe

**CREDITS**

**Writer/Director** Kyujin Baek  
**Writer/Designer** Yeonghyun Ahn  
**Director** Yonghee Park  
**Producer** Seungmin Yang  
**Promotor** Jihye Choe  
**Lighting Director** Jingu Kang  
**Stage** Black Stage  
**Photo** Studio GA-EUN

**INTRODUCTION OF THE WORK**


<Roommate> illustrates a story of young people residing in a shared space. Act 1 unfolds the narrative of three men—Kyujin, an aspiring actor, and Seunghwan and Seungmin, who are studying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y are roommates who reside in the same studio and emotionally rely on each other to realize their dream. One day, Kyujin siphons the money he collected from his roommates for shared living expenses and uses it in sports betting. Seunghwan and Seungmin are angry with what Kyujin did, but they cannot help just wishing for the victory of Korea's national team, to which Kyujin has bet the money. Act 2 portrays the story of the three women who live together after moving to Seoul to look for a job (Yeonghyun, Juhyo, and Dabin). One day, Yeonghyun announces that she is leaving the shared residence since she has got a job. Juhyo and Dabin cannot just feel happy for her or congratulate her, since each of the two are left having to pay more share of monthly rent, utility bills and living expenses. As they cannot hide their uncomfortable feelings, their hidden secrets are revealed to further aggravate their conflicts.

**GROUP INTRODUCTION**

ICONCONTACT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with childlike innocence. Through ceaseless experiments and research, the company develops its signature approaches to express objection against conventional practices. Based on a wide variety of original play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ir specialties across content creation industries, such as convergence of genres, site-specific contents, and immersive shows. Staging from six to eight original or repertory theaters and from two to three events in festival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every year, the company has received around 2,500-3,000 accumulated viewers.

# 정희정 Jeong Hee Jeong, The Circle of Care

래빗홀씨어터  
Rabbithole Theater

 rabbithole\_theater

## 공연일시

10.05.(토) 15:3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6명

## 출연진

이유주

허진

## 제작진

연출 윤혜숙

조연출 김성령

무대디자인 김혜림

조명디자인 성미림

의상 김미나

음악 박소연

음향디자인 임서진

영상 강수연

프로듀서 나희경

인터뷰이 강문영, 성애연, 윤주영, 이수가, 임가연

## 작품소개

연극 <정희정>은 60대 정희와 30대 희정 모녀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돌봄의 순환과 여기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는 생계를 위해 타인을 돌본다. 그리고 황혼기에는 자녀나 타인에게서 돌봄을 받는 정희와 희정은 여성의 일생 속 '돌봄의 도돌이표'를 보여준다.

## 단체소개

래빗홀씨어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토끼굴처럼 관객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시간과 공간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려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 등장한 매체를 하나씩 걷어내며 가장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을, 연극 본연의 무언가를 찾는 극단이다. 관객은 래빗홀씨어터의 '작지만 풍성한 연극'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DATE & TIME**

10.05.(Sat) 15:3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6

**CAST**

Yoojoo Lee

Jin Heo

**CREDITS****Director** Hyesook Youn**Assistant Director** Sungryung Kim**Stage Design** Hyerim Kim**Lighting Design** Mirim Sung**Costume** Mina Kim**Music** Soyeon Park**Sound Design** Seojin Lim**Video** Sooyeon Kang**Producer** Heekyung Na**Interviewee**

Moonyoung Kang, Ayeon Sung,

Jooyoung Yoon, Suga Lee, Gayeon Lim

**INTRODUCTION OF THE WORK**

Play <Jeong Hee Jeong> consists of interviews of multiple Jeonghees in their 60s and their daughters Heejeongs in their 30s. The work eventually discusses the painful circle of demand for care for children and elderly members of a family, and life of women struggling everywhere to desperately fill in the blanks created by having to serve the demand. They raise their children when they are young and, after the children grow up and be independent, work as caretakers of others to make ends meet. Afterwards, when they grow old, they are cared for by their children or other employed caretakers. As such, the life of Jeonghee and Heejeong represents "the circle of care" throughout the life of a woman.

**GROUP INTRODUCTION**

Like the rabbit hole in <Alice in Wonderland>, Rabbithole Theater would like to be a channel that guides the audience to the special time and space that they would otherwise pass by without recognizing. In other words, the theater company would like to discover something that must be the essence of theater, which you would only find out after clearing the layers of the new media, which evolution of time created, one by one. "A small but rich stage" produced by the company will remind the audience to look around and rediscover themselves and those around them.

# 뮤지컬 셰프 Musical Chef

(주)페르소나  
Persona Inc.

 musical\_chef  musicalchef.net

## 공연일시

10.05.(토) 16:30

## 공연장소

문화골목 노가다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4명

## 출연진

한철희  
유성현  
위대한  
김기영  
신지원  
이소희  
최정길  
박재홍

## 제작진

총감독 최철기  
연출 전준범  
무대감독 김관은  
조명감독 장영섭  
음향감독 박경운

## 작품소개

<뮤지컬 셰프>는 비트박스 역동적인 비보잉으로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다. 특수효과나 녹음 음향 없이 100% 라이브로 진행되어 관객들은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비보잉 퍼포먼스와 비트박스의 리듬감이 어우러져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무대를 선보이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짙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 단체소개

페르소나의 목표는 '창작자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전문 창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실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더욱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려 한다.

페르소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작품 창작을 지향한다. '넘버벌 퍼포먼스'라는 하나의 장르를 고집해 왔지만, 창작자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장르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들의 창작물은 '개인의 삶'과 '예술'을 잇는 가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작해 나가는 디딤판으로 기능할 것이다.

**DATE & TIME**

10.05.(Sat) 16:30

**LOCATION**

Cultural Alley Pub NOGADA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4

**CAST**

Chulhee Han  
 Seonghyun Yu  
 Daehan Wii  
 Kiyeong Kim  
 Jiwon Shin  
 Sohee Lee  
 Junggil Choi  
 Jaehong Park

**CREDITS**

**Chief Director** Chulki Choi  
**Director** Junbeom Jeon  
**Stage Director** Gwaneun Kim  
**Lighting Director** Youngsub Jang  
**Sound Director** Kyungeun Park

**INTRODUCTION OF THE WORK**

<Musical Chef> portrays the process of creating a wide variety of representative dishes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beatbox and dynamic B-boying. The 100% live performance without any special effects or recorded sounds further immerses the audience into the dynamics of the vibrant and lively stage. The world-class meticulous skills of B-boying and beatbox are in harmony to complete the performance which makes the audience surely feel the rapid surge of adrenaline and cherish the memory of the unforgettable experience after the end of the stage

**GROUP INTRODUCTION**

The objective of Persona is "to build an environment where a creator can be fully dedicated to creating". In other words, the creative group aims to build a space where professional creators can freely experiment with and share their works, so that they produce works, which are of matchless high-quality and irreplaceable originality, and loved by the widest range of general audience years and decades later. Persona would like to create works that are not only loved by Koreans but also reach the international audience. Despite focusing on a single genre of "non-verbal performance", the creators of Persona have always overcome the potential restriction with ceaseless imagination. Building the bridge connecting "individual life" and "art", the works created by Persona will serve as the scaffold to enable everyone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and create.

# 이카이노 바이크 Tandem Border Bird

불의전차  
Tank of Fire

 fire\_theater

## 공연일시

10.06.(일) 13: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유희제  
정명균  
오현서  
도예준  
김계림  
최경식  
장태민  
김희수

## 제작진

작가 김철의  
연출 변영진  
무대디자인 박영훈

## 작품소개

재일교포 중에는 국적이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조선적(朝鮮籍)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지만,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조선적 재일교포들은 여전히 뜨겁고도 특별한 애국심을 가슴 한쪽에 품고 살아 가고 있다.

연극 <이카이노 바이크>는 무대에 놓인 오토바이를 매개로 이처럼 애뜻한 조선적 재일교포의 시간을 따라간다. 낡고 녹슨 오토바이는 1세대부터 4세대로 이어지는 세월의 흔적을 대변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선과 새들을 따라가며 우리 역사 속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이야기를 반추해 보자.

## 단체소개

극단 불의전차는 이름처럼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공연단체이다. 분주하지만 그 사이에 무력감과 우울함이 범람하는 오늘날이지만, 세상은 살 만하고 살아갈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를 연극을 매개체 삼아 전하려 한다. '꺼지지 않는 불, 지치지 않는 전차'라는 슬로건처럼 관객들은 극단 불의전차의 작품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DATE & TIME**

10.06.(Sun) 13: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3

**CAST**

Heeje Yoo

Myunggun Jeong

Hyunseo Oh

Yejoon Do

Gyerim Kim

Gyungsik Choi

Taemin Jang

Heesu Kim

**CREDITS****Writer** Cheolui Kim**Director** Youngjin Byun**Stage Design** Younghun Park**INTRODUCTION OF THE WORK**

Among Koreans in Japan (Zainichi), there are people who chose to be neither of South Korean, North Korean, or Japanese but remained stateless to keep "Chosen-seki (朝鮮籍)", the legal status of the ethnic Koreans before South and North Korea were founded in 1948. Those Zainichi Korean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Japan but never consider themselves as Japanese, still keep their identity as Koreans stronger and more special than those of anybody else.

<Ikaino Bike (Tandem Border Bird)> uses the motorcycle placed on the stage as the medium to trace back on the tragic past of the Zainichi Koreans. The old, worn and rusty motorcycle, which represents the traces of the retrospective narrative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generations of Zainichi Koreans, will invite you to the history that we should never forget, along with the national borders and the birds which do not know such boundaries.

**GROUP INTRODUCTION**

Tank of Fire, as its name suggests, is full of blazing enthusiasm. Even though the busy contemporary days are full of helplessness and frustration, we would like to use theater as the medium to convey the message that our society is still something we should carry on and our life is something we should keep trying. As the motto "The fire that never goes out, the tank that never gets exhausted" suggests, the audience will be encouraged to carry on living tomorrow.

# 속살(부제: 숨겨둔 진실) Sok Sal(Hidden Truth)

극단 파수꾼  
Troupe Watchman

 troupe\_watchman

## 공연일시

10.06.(일) 14: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노가다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9명, 스태프 6명

## 출연진

이원재

오순태

심원석

민재원

김규도

이상숙

이정주

김가빈

이유진

## 제작진

작가/연출 이은준

무대디자인 박은혜

음악감독 박민수

조명디자인 정태민

무대감독 김병건

조명/음향오퍼레이터 박구용

## 작품소개

연극 <속살>은 오랜 친구인 네 사람의 이야기다. 고교 시절부터 단짝인 상필, 경식, 영석, 형기는 성인이 되어 취업한 뒤에도 한결같은 우정을 지키고 있다. 어느 순간, 영웅심이 많고 리더 역할을 하던 상필은 친구들이 뒤통다끼리를 해줘야 하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한다. 친구들은 조금씩 상필을 피하게 되고, 그럴수록 상필은 비뚤어진다. 그러던 중 상필이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친구들은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 상필의 '속살'은 무엇이었을까?

## 단체소개

극단 파수꾼은 진실이 가려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는 시대를 경계하며 '사람다움'을 추구한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삶의 소중함,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아날로그적인 정신과 인간미를 간직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디지털이 범람하는 시대, 극단 파수꾼은 우리가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임을 끊임없이 인지하게 한다.

**DATE & TIME**

10.06.(Sun) 14:00

**LOCATION**

Cultural Alley Pub NOGADA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9, STAFF 6

**CAST**

Wonjae Lee  
 Soontae Oh  
 Wonseok Sim  
 Jaewon Min  
 Gyudo Kim  
 Sangsuk Lee  
 Jungjoo Lee  
 Gabin Kim  
 Yujin Lee

**CREDITS**

**Writer/Director** Eunjun Lee  
**Stage Design** Eunhye Park  
**Music Director** Minsoo Park  
**Lighting Design** Taemin Jeong  
**Stage Director** Byeonggeon Kim  
**Lighting/Sound Operator** Guyong Park

**INTRODUCTION OF THE WORK**

<Sok Sal> (meaning in Korean: hidden internal tissue)" is a play illustrating a story of four old friends. Sangpil, Kyungsik, Yeongsuk and Hyeongki, who were best friends from high school, remained friends after they grew up and got different jobs. While Sangpil used to be a proud and benevolent leader who was willing to take care of everyone and was admired by everyone, he went through a downfall at some point and ended up becoming a burden, always causing trouble that everyone else has to deal with. Friends gradually avoided talking to him, which made Sangpil feel frustrated further and be nastier. One day, Sangpil suddenly disappears and friends eventually discover the hidden truth. Then what lay beneath Sangpil, or what was his "sok sal"?

**GROUP INTRODUCTION**

Troupe Watchman is concerned about the advent of time in which concealing truth and denying human nature is a new norm. Therefore, "being human" is one of the key interests that it would like to portray. Reflecting on the degeneration of many virtuous things humans are naturally supposed to have, such as empathy towards others, respect of life, and critical views towards the world, the troupe stages works that try to preserve humanity and meticulous attitude of the era of analog processing. In the era of capitalism, materialism and flooding digital data waste, Theater Troupe Watchman ceaselessly reminds the audience that we are still humans with warm blood flowing through the veins inside.

# 하우스 오픈 How's Open

## 팟댄스프로젝트 POD Dance Project

 pod\_dance\_project

### 공연일시

10.06.(일) 13: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9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이종윤

허소희

이인우

이지혜

하현봉

김수민

박채경

이원재

김동현

### 제작진

안무/시놉시스 이종윤

작곡 우지코브사운드

의상 최두경

###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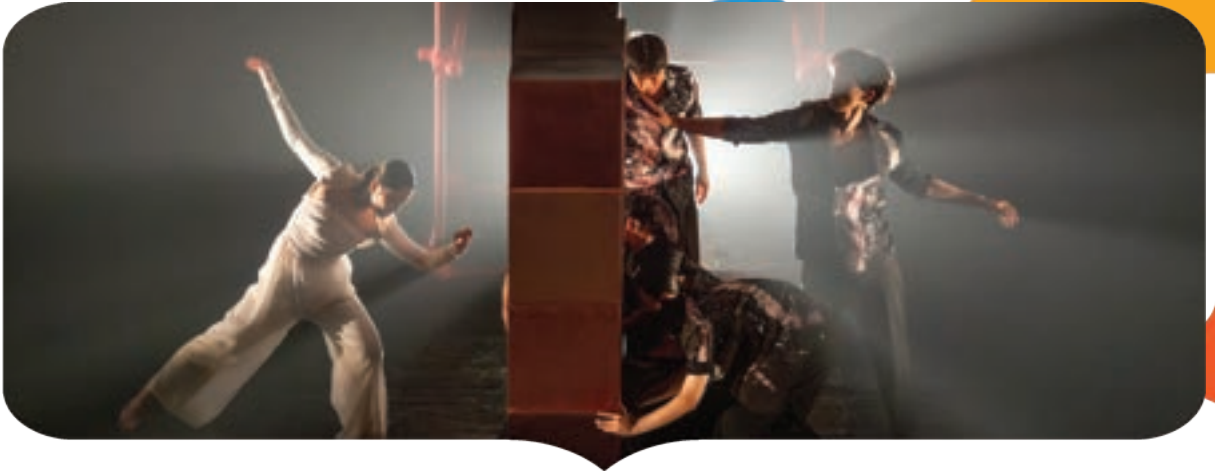
하나의 작품을 선보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관람객은 그 '결과'로서의 작품만 목격한다.

<하우스 오픈>은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무대를 세우고 철거하는 모든 '과정'을 공연화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무용수는 스태프로 분장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무대라는 흰 도화지는 공연자와 무대 세트라는 도구로 점차 채워지고, 완성된 뒤에는 다음 그림을 위한 백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관객은 공연이 끝으로 치달음에 따라 화려한 무대가 아닌, 점점 비어가는 무대를 보게 되며,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작품이 가지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다.

### 단체소개

팟댄스프로젝트의 'POD'는 'Planet of Duo'의 약자로, 기존 공간과 분리된 새로운 공간 또는 이인조 행성이라는 의미다. 팟댄스프로젝트는 작품을 통해 기존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품, 오브제를 활용해 관객이 공감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7년 <공차적응>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모전, 페스티벌, 경연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국무용제 Solo&Duet 부문 최우수상, 2019년 제2회 서울무용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ATE & TIME**

10.06.(Sun) 13:0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9, STAFF 1

**CAST**

Jongyoon Lee

Sohee Heo

Inwoo Lee

Jihye Lee

Hyunbong Ha

Soomin Kim

Chekyung Park

Wonjae Lee

Donghyun Kim

**CREDITS****Choreographer/Synopsis** Jongyoon Lee**Composer** Usicove Sound**Costume** Dookyung Choi**INTRODUCTION OF THE WORK**

A large amount of time and effort is required until a new piece is released, but what the audience can see is "the end result". <How's Open> does not only show "the end product" but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and dismantling the stage as part of the performance.

Dancers play the role of the technical staff and build the stage through dynamic physical movements. The blank canvas of the stage is gradually filled with the performers and the props and is supposed to return to the blank canvas again for a next piece. As the work is close to the end and the audience sees the glamorous stage getting dismantled gradually, they may be reminded of the real value of a performing art piece as "an end product".

**GROUP INTRODUCTION**

"POD" of POD Dance Project refers to the abbreviation of "Planet of Duo", which means a new space that is separate from the existing world or a double-unit planet. As such, POD Dance Project creates pieces in which the performers escape the existing space, build a unique space, and utilize creative and experimental props and objects that enable immersion of the audience. Starting with <Adjust the Difference in Space (2017)>, it ha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competitions, festivals and recruitment exhibitions. POD Dance Project has received the Grand Prize of the Solo and Duet Division from the Korea Dance Festival in 2018, and the Grand Prize from the 2nd Seoul Dance Film Festival in 2019.

# 밸런스 Balance

최호정  
Hojeong Choi

 hotima\_vez

## 공연일시

10.06.(일) 13: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최호정  
오현택

## 제작진

안무 최호정  
작곡 장지호  
의상 최인숙

## 작품소개

균형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할 때부터 스스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힌다. 성장하면서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일과 생활, 이상과 현실 등 수많은 것들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불균형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이 깨지고 불안정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다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불균형의 과정에 있는 것일까, 혹은 불균형 전의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일까? <밸런스>는 이러한 고민을 안무에 담은 작품이다. 관객은 균형과 불균형을 오가는 안무를 통해 '균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호정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과 특별함을 찾아내 안무로 구성한다. 공연자나 기획자가 아닌, 관객의 시선에서 안무를 관찰하고 인체 본연의 움직임을 주제와 의도에 맞는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움직임과 함께 새어 나오는 감정도 하나의 무대 구성 요소로 활용한다. 관객들은 안무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선에 공감하며 몰입하게 된다.

**DATE & TIME**

10.06.(Sun) 13: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CAST**

Hojeong Choi

Hyeontaek Oh

**CREDITS****Choreographer** Hojeong Choi**Composer** Jiho Jang**Costume** Insook Choi**INTRODUCTION OF THE WORK**

Staying in balance is the instinctive need of a human being. A child learns to keep his/her balance when he/she begins to walk as a little baby. As you grow up, you keep your balance with many things around you, such as relationships with others, work and life, or the ideal and the realities. As such, your life finds stability. Nevertheless, imbalance is not always bad. For improvement, you need a certain phase of dismantlement of the existing balance and resulting instability. Change and advancement is the product of the attempt to restabilize this imbalance. Having said that, is our life in the phase of imbalance to find the future balance, or the balance soon to be challenged by the next imbalance? <Balance> is the choreography portraying such concerns. The dance moves embodying the journey across balance and imbalance will remind the audience to think about the real meaning of "balance".

**GROUP INTRODUCTION**

Hojeong Choi is a dancer and choreographer actively dancing and creating in the dance company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who tries to find something new and extraordinary from what seems ordinary and familiar. From a fresh perspective from the general audience rather than that of a performer or a producer, the artist reviews the choreography to form the image directed to the themes and intention out of the inherent movements of human bodies. In this process, the emotions exposed from the performers along with the movements are also actively used as the key elements on the stage. Therefore, the audience is immersed into the narratives as well as the sentiments conveyed by the dance moves.

## 징조 Indication

쿠라치 카에  
Kae Kurachi

 studiokknagoya  studiokknagoya.com

### 공연일시

10.06.(일) 13:5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일본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쿠라치 카에

### 제작진

안무 쿠라치 카에

음악 오코치 토시노리

### 작품소개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희망과 빛이 있다. 쿠라치 카에는 이 희망과 빛의 존재를 믿고 계속 찾아나간다.

### 단체소개

쿠라치 카에는 1998~2006년 프랑스 장-클로드 갈로타의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2012년에는 나고야 시 예술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과 2018년에는 나고야 시 예술제 무용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DATE & TIME**

10.06.(Sun) 13:5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Jap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Kae Kurachi

**CREDITS**

**Choreographer** Kae Kurachi

**Music** Toshinori Ohkochi

**INTRODUCTION OF THE WORK**

There is hope and light even in today's chaotic world. Kae Kurachi believe that and keep seeking out.

**GROUP INTRODUCTION**

Having been a dancer of La Compagnie Jean-Claude Gallotta in France from 1998 to 2006, Kae Kurachi received the Nagoya City Arts Encouragement Award in 2012 and Nagoya City Arts Festival Dance Division Special Award in 2014.

# 미그레나2x2 Migrena2x2

요탐 펠레드 앤 프리 래디컬  
Yotam Peled & the Free Radicals

 yotampeled.com

## 공연일시

10.06.(일) 14:1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헝가리 & 이스라엘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요탐 펠레드

## 제작진

프로젝트 매니저 및 배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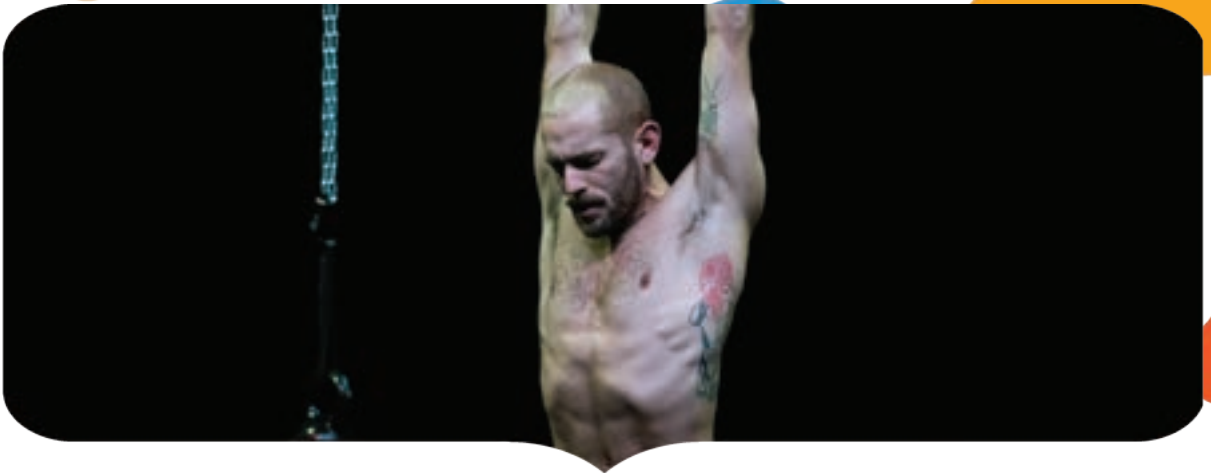
레이아 몬토야/TINA 에이전시

## 작품소개

<Migrena2x2>는 기억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초현실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1인 하이브리드 공연으로, 대상의 억압과 조작을 통한 몸짓의 표현을 보여준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추상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잠재의식을 탐험하고 내면의 상처와 환상을 직면하는 방식으로 고대의 예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다. 주인공이 짊어진 부담은 무대 위에서 무게 운동 기구인 케틀벨로 표현되었는데 반복되는 기도와 호소 사이에 이러한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이 전통 의례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표현된다. 격렬한 움직임 패턴의 강화는 몸이 천천히 해체되고, 분해되고, 녹아내리며 추상적인 물질로 깨어나는 과정을 유도한다. 이는 팔, 다리, 장기들의 집합체가 공간을 삼키는 것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오직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순응하게 된다. 이 작품은 PRISMA 파나마와 키프로스 컨템포러리 댄스 페스티벌을 포함해 전 세계 여러 공연장에서 활발히 공연되었다.

## 단체소개

요탐 펠레드 앤 프리 래디컬은 다양한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무용단으로 컨템포러리 다원 무용에 주력하여 젠더와 권력 구조, 지역 의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하노버 주립 오페라단의 '싱크 빅(THINK BI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엔트로피아(Entropia)와 함께 2018년 9월에 창설된 이 단체는 지속 가능하며 독립적인 공연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와 상생을 추구하며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 창작 및 순회공연을 할 때 일반 극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 공간에 서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4:1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Hungary &amp; Israel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CAST**

Yotam Peled

**CREDITS****Project Management & Distribution**

Laia Montoya/TINA Agency

**INTRODUCTION OF THE WORK**

<Migrena2x2> is a hybrid solo performance which exists in a surreal, confined space made of fragments of memory, introducing suspension and object manipulation into movement. It is an abstract,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biblical Jonah, aiming to embody the notion of prophecy by exploring the subconscious, confronting traumas and fantasies. The burden of the performer is embodied by kettlebells, and its shedding unfolds through a ritual - between a prayer and a rave. An intensification of wild movement patterns causes the body to slowly deconstruct, decompose, melt and surrender to awaken an abstract material, a collective of limbs and organs devouring the space, with no clear objective besides obeying the sensations that pass through it. The piece has been performed extensively in venues worldwide, including festivals such as PRISMA Panama and Cyprus Contemporary Dance Festival.

**GROUP INTRODUCTION**

Yotam Peled & the Free Radicals acts as a project-based company engaging different freelancers, focusing on contemporary interdisciplinary creation – addressing topics of gender, power structures and community rituals. The ensemble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8, following the creation of Entropia, as part of 'THINK BIG' project at the State Opera of Hannover. Out of our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sustainable, independent performance art, we aim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our local community, built on mutual exchange and growth. The Free Radicals, therefore, focus on creating and touring in Europe and operate both in conventional and alternative spaces.

# 봄의 제전 The Rite of Spring

양종예(다이라쿠다칸)  
Jongye Yang(Dairakudakan)

 jongye\_b.line

## 공연일시

10.06.(일) 14:4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양종예

## 제작진

연출/안무 양종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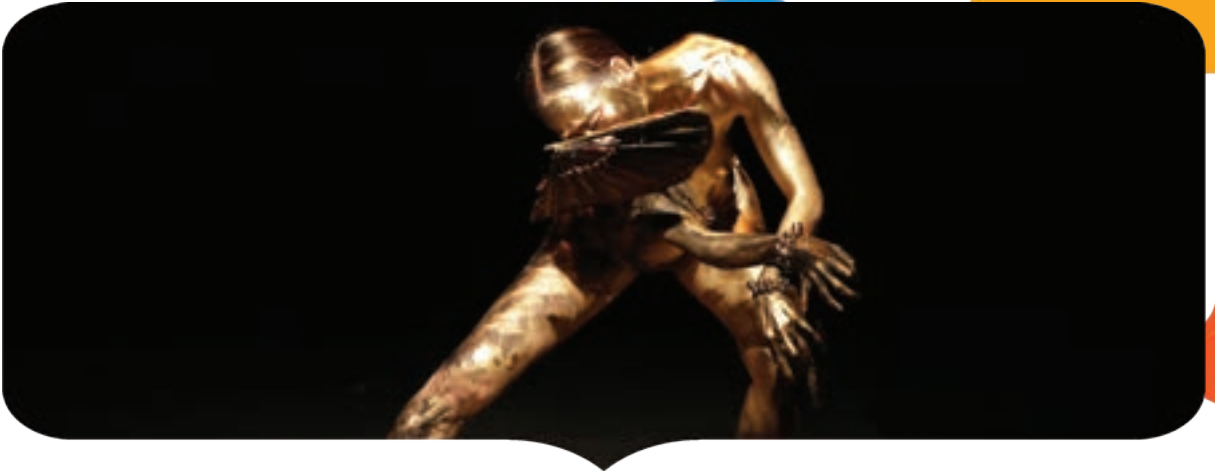
## 작품소개

바츨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의 <봄의 제전> 마지막 장면은 제물로 선택된 처녀가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장면이다. 동화 <빨간 구두>의 소녀 같기도 하고, 우리 전통의 무속 행위인 '굿'을 하는 신들린 무당을 연상하게도 하는 이 장면은 일본의 춤 '부토'와도 닮아 있다.

한국의 샤머니즘에 익숙한 양종예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공포가 아니라 신비감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15세에 시작한 한국무용을 지나 일본의 부토까지 이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지하고 육체를 경계로 구분되던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며 숨겨져 있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 단체소개

부산 태생으로 현재 일본의 다이라쿠다칸에서 부토(butoh)를 공연하는 양종예는 무용뿐 아니라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안무가와 연출가로 활동해 왔다. 1998년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다원그룹 퍼포먼스파크를 설립했고, 2009년부터는 일본으로 건너가 다이라쿠다칸 소속으로 유럽, 중미 등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이다.

**DATE & TIME**

10.06.(Sun) 14:40

**LOCATION**

Kyung 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Jongye Yang

**CREDITS****Director/Choreographer** Jongye Yang**INTRODUCTION OF THE WORK**

The last scene of <The Rite of Spring> produced by Vaslav Nijinsky features the girl selected to be the sacrifice dancing until her death. The deadly dance, quite reminiscent of Karen from the Red Shoes written by Andersen as well as an excited shaman dancing in the Korean traditional rite of "Gut", also resembles the Japanese traditional dance "Butoh".

Jongye Yang, who was used to Korean shamanism, found invisible beings more mystic than horrific. That interest continued from Korean traditional dance the artist started at 15 to Butoh in Japan. As the piece recognizes the invisible beings and lets the exterior and interior worlds, which have been divided by the physical boundarie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journey to find the undiscovered "I" begins.

**GROUP INTRODUCTION**

Jongye Yang was born in Busan, Korea and now performs Butoh (舞踏) in the Japanese dance company Dairakudakan, active as a choreographer and director in a variety of genres from dance to theater and arts. In 1998, Yang founded Performance Park, a multidisciplinary arts group in cooperation with artists from diverse backgrounds. Then the artist moved to Japan in 2009 to be active on diverse stages throughout Europe and Latin America as a member of Dairakudakan.

# 정서적 거리 Emotional Distance

정하늘  
Hanul Jung

 contemporeosky

## 공연일시

10.06.(일) 15:0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정하늘  
최호정  
최예원

## 제작진

안무 정하늘  
음악 장지호

## 작품소개

<정서적 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일화와의 정서적 거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해 각 사건의 시간과 장소, 감정, 지식 등을 회상한다. 무언가와의 거리는 항상 달라진다. 어떨 때는 한없이 가까워지다가 또 한편으로는 더없이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심리적 근원감을 표현한 안무를 통해 관객은 나와 타인, 나와 대상 간의 정서적 거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

## 단체소개

정하늘은 병역특례 예술요원, KARTS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는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안무가다. 다른 예술 분야와의 융합, 각종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연출을 응용하며 참신한 방법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공연 창작을 지향한다. 동시에 일상적인 것들을 변형, 결합한 새로운 미적 효과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며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이해하고 영감을 공유하는 문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6.(Sun) 15:0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Hanul Jung  
Hojeong Choi  
Yewon Choi**CREDITS****Choreographer** Hanul Jung  
**Music** Jiho Jang**INTRODUCTION OF THE WORK**

<Emotional Distance> is an intuitive embodiment of an emotional distance felt from a past experience or an old anecdote. The narrative starts from the moment of the narrator's birth, looking back on the time, location, emo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each event. A distance from something is always prone to change. After all, you may find a certain object sometimes overwhelmingly close and other times far and away. The dance moves portraying senses of closeness and distance will remind the audience of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or themselves and the objects around them.

**GROUP INTRODUCTION**

Having finished his military service as a special arts and sports personnel and been selected as one of Ring Start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nul Jung is acclaimed as a choreographer with unique, creative and youthful styles. Through convergence with other artistic genres and use of a variety of media and online platforms, he has utilized diverse forms and methods of stage production and direction to convey distinctive commentaries to current social affairs.

He aims to create an inclusive work that can be appreciated by everyone. At the same time, he would like to generate an idiosyncratic aesthetic effect by transforming and merging daily life elements, which will inspire the entire sensations of the audience so that they will understand differences of each other and share their inspirations.

# 쿵 Koong

최소영  
Soyoung Choi

 stillcannotfixbrokenmachine  choisoyoung.net

## 공연일시

10.06.(일) 15: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배진호  
김희준  
김지혜  
김윤지

## 제작진

안무 최소영  
음악 Sikkal  
영상기록 오정석

## 작품소개

<쿵>은 인간의 본능적 행동양식 중 하나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춤은 싸움이 되기도 하고 놀이가 되기도 한다. 화학 반응인 감정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축적되고 신체의 물리 반응으로 전환되면 싸움으로 발현한다. 이때 생체 스위치가 꺼져 발생하는 '블랙아웃' 현상은 어쩌면 싸움의 정반대 측면인 '명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계속해 반복되고 중첩되는 몸의 감각은 평화의 순간, 즉 명상으로 이어진다.

## 단체소개

최소영은 크리에이터 그룹 '아트프로젝트 보라'의 창단 멤버로, <금>, <별양>, <Material> 등 작품의 안무가이자 실험영화 <BANG>의 연출가다. 일상의 감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주제와 소재를 구체화하는 데에 관심이 크며, 기존의 무용 예술 특성을 벗어난 형식을 구현해보려 한다. 보다 은유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고민을 작품에 담아내려 한다.

**DATE & TIME**

10.06.(Sun) 15: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1

**CAST**

Jinho Bae  
Heejun Kim  
Jihye Kim  
Yunji Kim

**CREDITS**

**Choreographer** Soyoung Choi  
**Music** Sikkal  
**Filming** Jungsoek Oh

**INTRODUCTION OF THE WORK**



<Koong> portrays one of the most instinctive ways of human behavior—fighting. The dance moves here embody fights as well as plays. When an emotion—one of the ways chemical reactions turn out to—towards negative feelings are accumulated and converted into a physical response projecting them, that violent physical response causes a fight. Meanwhile, “black-out”, the extinguishment of the body taking place during such a violent activity, happens to constitute “a meditation”, an activity with the exactly opposite properties to those of a fight. Therefore, the repetitive and overlapping physical sensations staged in this piece are immediately connected to a peaceful moment, or a meditation.

**GROUP INTRODUCTION**

Soyoung Choi is a founding member of the creators' group “Art Project BORA”, who, as a choreographer, created pieces including <Gold/Crack>, <Byeol Yang (Extraordinary)>, and <Material>, and, as a director, produced an experimental film <BANG>. Interested in specifying the subject matters and materials drawn from everyday sensations and experiences, the artist would like to develop a unique form escaping the convent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as an art genre, embodying the personal, social and periodic concerns of the contemporary world through metaphorical as well as intuitive methods.

# 걷다 To walk

모헤르댄스컴퍼니  
Mujer Dance Company

 mujerdance\_company  mujerdancecompany.imweb.me

## 공연일시

10.06.(일) 15:5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7명

## 출연진

강요찬  
정하연  
양지수  
진솔  
김민주  
이재영  
서연수

## 제작진

연출 강요찬  
안무 서연수

## 작품소개

<To walk>는 한국춤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치를 뿜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통이라는 땅을 딛고서 한국춤이 동시대 예술의 맥락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담았다. 버선 같은 사물부터 발디딤 같은 움직임까지. 한국춤에는 명확히 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와 우리 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전통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여있다.

이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추는 춤의 뿌리, 더 나아가 그 씨앗까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가 추고 있는 춤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던진다. 씨앗에서 새싹이 나와 줄기를 내고 가치를 뿜어 앞을 떨구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에 빚대어 한국춤이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 단체소개

모헤르댄스컴퍼니는 한국춤의 가치와 형태를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지평을 확장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집 속의 집: 안팎>(2024), <직선과 곡선 ver.2>(2023), <숨 쉬는 나>(2019) 등이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과 감각을 넘나드는 소재를 융복합적인 창작 스타일로 구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2023년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아름다운 시선상, 2022년 한국춤평론가회 작품상, 2021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안무가상, 2020년 서울무용제 최우수상, 2019년 PAF 우수안무상 등을 수상하였다.

**DATE & TIME**

10.06.(Sun) 15:5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7

**CAST**

Yochan Kang  
 Hayeon Jeong  
 Jisoo Yang  
 Sol Jin  
 Minju Kim  
 Jaeyoung Lee  
 Yuensoo Seo

**CREDITS**

**Director** Yochan Kang  
**Choreographer** Yuensoo Seo

**INTRODUCTION OF THE WORK**

<To walk> shows how Korean dance branches in a variety of directions. Our serious concerns were about how Korean dance, having had the same basis of the Korean tradition, is, or should be, situated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arts. From the shapes of traditional items such as beoseon (fabric footwear with signature upper curves) to dance moves of stamping on, Korean dance is the complex mix of myriads of elements, which can be defined as something old and traditional without arguments or which are too blended in our life effortlessly to be recognized as a distinctive Korean tradition.

This piece looks back on the root of the dance we do now, to the very beginning, to cast a profound question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as we dance. Comparing dance with the process of a seed sprouting and the stem branching and bearing fruit, let us find where the Korean dance is from.

**GROUP INTRODUCTION**

Mujer Dance Company has been acclaimed as a dance company which successfully reinterprets the values and form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emporary arts and expands the horizon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Home Within Home>(2024), <Straight and Curve Ver.2>(2023), <I'm Breathing> (2019) are som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the company. The company has received many awards and recognitions, including the Beautiful Perspective Prize by the Society of the Contemporary Dance Promotion of Korea in 2023, Best Piece Prize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in 2022, the Best Choreographer Prize by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2021, the Prize of Excellence from Seoul Dance Festival in 2020, and the Outstanding Choreographer Prize from Performing Arts Festival in 2019.

# 어른아이 Adult Children

대구시립무용단  
Daegu City Dance Company

 daegucdc  dc1981

## 공연일시

10.06.(일) 16:2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김초슬

박정은

사미 시밀레

## 제작진

예술감독/안무 최문석

리허설디렉터 배효섭

조명디자인 황웅기

작곡 서영완

## 작품소개

<어른아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청년세대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숨 막히게 버거운 삶 속에서 천진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며, 획일화를 거부하며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표출하기도 한다. <어른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 단체소개

1981년 창단한 대구시립무용단은 국내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단이다. '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우수한 안무자들과 함께 수준 높은 현대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나아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쌓아가며 문화외교 사절의 역할도 톡톡히 해나가는 중이다.

**DATE & TIME**

10.06.(Sun) 16:2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2

**CAST**Chosul Kim  
Jungeun Park  
Sami Similae**CREDITS****Artistic Director/Choreographer** Moonsuk Choi  
**Rehearsal Director** Hyosub Bae  
**Lighting Design** Ungki Hwang  
**Composer** Yeongwan Seo**INTRODUCTION OF THE WORK**



<Adult Children> represents the grown-up people struggling to survive in contemporary society. Because of rapid change, the young generation is forced to give up what they have dreamt. From the burden of the hectic everyday life, they sometimes miss the childhood when they had nothing to worry about, or even secretly reveal their desire to express their own undeniable personalities. As such, the piece represents the contemporary world full of people like us, who, despite having been physically grown up, still remain childlike.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1981, Daegu City Dance Company became the first national/public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 Korea. As a dance company representing Daegu Metropolitan City, which aims to be "the city of performing arts and culture", Daegu City Dance Company has staged meticulous contemporary dance pieces in cooperation with talented choreographers. By improving competitiveness through accumulated overseas experiences of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the company has also successfully served as the cultural ambassador promoting Korean culture.

# 이상한 대화 Strange Conversation

## 5 Edges

 the\_strange\_rules  hyoungminkim.wordpress.com

### 공연일시

10.06.(일) 16: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김형민

오현택

### 제작진

안무 김형민

음악 해미 클레멘세비츠

조명디자인 벤야민 웨일리커

드라마투르그 이진아

프로덕션매니저 임다영

프로듀서 김수나

### 작품소개

<이상한 대화>는 배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것들을 표현한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언어는 파편적으로 기록되며 각종 문제와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고, 침묵은 핵심적인 규범이자 미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얼굴이나 입과는 달리 배는 감정이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다. 배의 의사소통은 추상적이고 은밀하지만,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이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하다.

공연에서 '나'라는 주체는 끊임없이 대치되고 이전된다. 얼굴에서 배로, 배에서 배의 소리로, 소리에서 의미로, 소리에서 공간으로, 공연자에게서 관객으로 퍼져간다. 지속적인 변형과 탈중심의 논리로 작동되는 배의 움직임은 '모두가 말하고 있다, 모두가 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 단체소개

프로젝트 그룹 5 Edges는 베를린과 서울에 기반을 두고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현대무용 중심의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5 Edges는 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착과 이주, 주체와 객체, 보호와 침해, 명확성과 불명확성 등 경계에 있는 현상을 다루어 왔다.

**DATE & TIME**

10.06.(Sun) 16: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3

**CAST**Hyoungmin Kim  
Hyuntek Oh**CREDITS**

**Choreographer** Hyoungmin Kim  
**Music** Remi Klemensiewicz  
**Lighting Design** Benjamin Schaelike  
**Dramaturg** Jeana Lee  
**Production Manager** Dayoung Lim  
**Producer** Soona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In <Strange Conversation>, movement of the stomach portrays what a conventional social dialogue usually misses or ends up distorting. Even though it is assumed that we have freedom of speech, only partial fragments of what we speak are recorded and ignite further conflicts and controversies, which is why silence is considered the best strategy as well as the key norm to survive. Unlike the face and the lips, the stomach does not show the person's feelings. Therefore,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stomach is abstract as well as secret, but the most fundamental and intrinsic expressions are also out there.

On the stage, the subject of "I" is continuously transposed and transferred, spreading from the face to the stomach, from the stomach to the abdominal sounds, from the sounds to the meanings, from the sounds to the space, and from the performer to the audience. The movement of the stomach, operating with the logics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and decentralization, conveys the metaphorical message: "Everyone is speaking, and everyone can speak."

**GROUP INTRODUCTION**

"5 Edges" is a project group based in Berlin and Seoul to continue contemporary-dance-focused performances across Germany and Korea. Gentrification, migration and settlement, subjects and objects, protection and violation, and clarity and ambiguity are some of the key themes of the group, which usually focuses on the phenomena on the boundaries.

# 컨트롤 Control

아트랩 제이 댄스  
ArtLab J Dance

 artlabjdance  artlabj.com

## 공연일시

10.08.(화) 13: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미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에릭 조셉 블로비츠  
월터 앱스

## 제작진

예술감독 정주리  
안무 김광민  
음악 박주원

## 작품소개

<컨트롤>은 인간관계의 복잡성 및 상호 작용의 영향에 따른 변화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사람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몸짓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며 변화와 다양성을 촉진한다. 이 작품은 관계와 통제, 서로에 대한 자극과 변화의 시사점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며 이러한 새로운 예술적 테크닉을 통해 우리 주변과 현실 세계에서 인간 상호 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 단체소개

아트랩 제이 댄스는 인간 본성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탐구하는 예술적인 몸짓과 퍼포먼스를 추구한다. 무용과 문화를 통해 아트랩 제이 댄스는 인간의 다양성을 탐험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하고 인간 사회의 행위와 감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굴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8.(Tue) 13:0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United States of Americ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CAST**

Eric Joseph Blovits  
Walter Apps

**CREDITS**

**Artistic Director** Joori Jung  
**Choreographer** Kwangmin Kim  
**Music** Joowon Park

**INTRODUCTION OF THE WORK**

<Control> explores the complexity of relationships and the transformations wrought by influence. Movements generated through mutual stimulation intersect and collide within a space, creating change and diversity. This work experiments with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s, control, mutual stimulation, and change-examining their occurrences in our surroundings and reality to discover artistic merit.

**GROUP INTRODUCTION**

ArtLab J Dance explores humanity's fundamental nature through honest observations and natural reactions, leading to artistic movement and performance. Through dance and culture, ArtLab J seeks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focuses on personal and community growth, and strives to discover the positives of our society's behavior and emotions.

# 링거링 Lingering

베어 피트 댄스 씨어터  
Bare Feet Dance Theatre

[facebook.com/mauvaischausson](https://facebook.com/mauvaischausson)

## 공연일시

10.08.(화) 13:2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만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리우 준테

리우 윤

유 유친

## 제작진

안무 린 이친

드라마투르그 초우 링치

음악 충 친이, 사운 창

조명디자인/기술감독 레이 첩

의상디자인 에릭 차이

제작 엘라 첩, 린 치양

무대매니저 텡 샹팅

제작코디네이터 지나 창

현장조사 컨설턴트

칸젠 바구스, 아나스타샤 멜라티, 에이원 생관 탄

## 작품소개

베어 피트 댄스 씨어터의 최신작 <링거링>은 대만국립극장(NTCH)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며 2024년 11월 타이완 가을 아트퀸(Artquam) 페스티벌에서 초연 예정이다. 본 공연은 이 작품을 15분 분량으로 압축한 버전이다. <링거링>은 어려운 용기를 내 바다를 건너 망명하려고 했지만 꿈꾸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헌정하는 작품으로, 떠도는 유령들은 말하지도 알리지도 못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바다의 파도 위를 떠다닌다. 공연자들은 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령들을 연기하며 사후 세계를 무대에 불러오고, 작품은 외딴 섬의 역사와 기억, 신화를 무대에 펼쳐낸다. 이 작품은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예술에서 착안하여, 창작자들이 기존의 음악과 춤을 해체하고 재배치하여 현대적인 무대 작품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베어 피트 댄스 씨어터는 아시아 유산에서 비롯된 현대적 실험을 통해 <링거링>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탐구한다.

## 단체소개

2014년에 대만에서 현대무용단으로 창설된 베어 피트 댄스 씨어터는 혁신적인 예술적 비전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2019년부터 국립문화예술재단(NCAF)의 대만 탑 프로그램(Taiwan TOP Program)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베어 피트 댄스 씨어터는 수년간 '현장의 인체(Body in the Field)' 프로젝트에 치중하며 다양한 지역의 향토 의식 현장과 전통 음악 합주, 각종 예식 및 야생의 자연 등에 방문하여 전통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탐색하고 성찰해 왔다. 이들은 스튜디오와 현장을 넘나드는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현장 활동을 통해 인체의 미학을 확장하며 다양화하고 있다.

**DATE & TIME**

10.08.(Tue) 13:2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Taiw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3

**CAST**

Liu Chun-Te

Liu Yun

Yu Yu-Hsin

**CREDITS****Choreographer** Lin I-Chin**Dramaturg** Chow Ling-Chih**Music** Chung Chi-Yi, Sayun Chang**Lighting Design/Technical Director** Ray Tseng**Costume Design** Eric Tsai**Producer** Ella Jheng, Lin Chih-Yang**Stage Manager** Teng Hsiang-Ting**Production Coordinator** Gina Chang**Field Research Consultant**

Kanjeng Bagus, Anastasia Melati, Awan Seng-goan Tan

**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15-minute performance is an extract of <Lingering>, which is Bare Feet Dance Theatre's latest work commissioned by National Theater and Concert Hall (NTCH), and will have its premiere in Nov. in Taiwan at 2024 Artqu岸 in Autumn Festival.

<Lingering> is an offering to the victims who bravely risked migrating across the sea but never reached their dreamland. These lingering ghosts, rolling with the ocean currents, have stories that remain untold and unheard. By summoning the spiritual world, where performers embody these ghosts, Lingering unravels the island's history, memory, and myth.

Devised from traditional arts in both Taiwan and Indonesia, creative artists deconstruct, rearrange then transform the existing music and dance to contemporary stage work. Bare Feet Dance Theatre explores its new voice in Lingering as it is a contemporary experimentation bred from Asian heritage.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14, Bare Feet Dance Theatre is a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 Taiwan. It has been known for its innovative art vision and supported by NCAF's TAIWAN TOP program since 2019.

Bare Feet Dance Theatre has been dedicated to its "Body in the field" project for years, in which the dance company travels to different regions to visit various folk rituals, traditional music ensembles, ceremonies, and even the natural world to perceive and reflect on the animistic universe. Its research and practice are based on a continuous dialogue between the studio and fieldwork in order to expand and diversify body aesthetics.

# 이야기의 탄생 The Birth of the Story

99아트컴퍼니  
99 Art Company

 99artcompany

## 공연일시

10.08.(화) 13: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7명

## 출연진

김은이

송효영

이고운

이수경

이승아

장서이

추세령

## 제작진

안무 장혜림

작곡/음악감독 라예송

드라마투르그 채민

조안무 장서이, 이고운

의상 배경술

## 작품소개

안무가 장혜림의 이름은 '은혜로운 숲'으로, 숲은 수많은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 숲의 나무들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며, 모든 동물은 땅과 나무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숲을 떠올리면 자연히 평화로움, 고요함, 생명력이 연상된다.

바쁜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마음의 평화를 갈구한다. <이야기의 탄생>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처음 자리를 내리는 태고의 시간을 무대에 올린다. 춤과 음악을 통해 관객들은 심연에 자리한 고요를 마주하며 '이야기가 탄생하는 순간'을 엿보게 된다.

## 단체소개

99아트컴퍼니의 모토는 '영혼에 울림을 주는 춤'으로, 국내외의 여러 무대에서 활발한 창작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들에게 전통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상이며, 한국춤과 현대 예술을 결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99아트컴퍼니는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의 완전한 정착을 이루었다.'라는 평을 받으며 작품에 진정성을 담아 관객과 공명하려 한다.

**DATE & TIME**

10.08.(Tue) 13: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7

**CAST**

Euni Kim

Hyoyoung Song

Goowoon Lee

Sookyung Lee

Seunga Lee

Seoyi Jang

Seryung Choo

**CREDITS****Choreographer** Hyerim Jang**Composer/Music Director** Yesong Ra**Dramaturg** Min Chae**Assistant Choreographer** Seoyi Jang, Gown Lee**Costume** Kyongsool Bae**INTRODUCTION OF THE WORK**

The name of our choreographer "Hyerim Jang" happens to mean "graceful (蕙, hye) forest (林, lim)". Likewise, a forest is a place of grace, enabling diverse organisms to coexist in harmony. Trees take root on the land while animals live on the land and the trees. We are naturally reminded of an image of peace, tranquility and vitality when we think about a forest.

Contemporary people, who are always too busy and face ceaseless change, desperately look for peace in their minds. <The Birth of the Story> embodies the most ancient time when the earliest lives on the Planet were born. Through the dance and music, the audience will face the deepest tranquility from their minds to look into the very first moment "of the Birth of the Story".

**GROUP INTRODUCTION**

"The dance that will keep resonating in your soul" is the motto of 99 Art Company, which has actively staged its original pieces at a variety of opportunities in and out of Korea. Since 99 Art Company considers tradition not as something conventional, but as what is always likely to change and improve, it focuses on trying a converge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Having been acclaimed as "having completely established Korean contemporary dance", 99 Art Company would like to continue its sincere moves to find resonance together with the audience.

# 동백카니발 Dongbaek Carnival

동백유랑단  
Dongbaek Carnival

 dongbaek\_carnival

## 공연일시

10.05.(토) 13: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 출연진

비올라 가영

바이올린 조혜운

피리/태평소 진형준

퍼커션 이경민

피아노 이동욱

## 제작진

작곡/편곡 가영, 이동욱

## 작품소개

동백유랑단은 이번 공연에서 총 다섯 곡의 음악을 선보인다. 2023년 부산 공연을 기념으로 작곡한 블루스곡 '광안리 블루스'를 시작으로, 국악과 아일랜드 민요를 결합한 댄스곡 '동백카니발', 한국 무속 음악에 바이올린, 비올라, 퍼커션을 얹은 '풀이'가 이어진다.

'다크 아이즈 & 차르다시'는 러시아 민요 '다크 아이즈'와 이탈리아 작곡가 몬티의 집시곡 '차르다시'를 엮어 새로운 느낌을 주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동백유랑단만의 색으로 편곡해 공연한다.

## 단체소개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프로젝트 양상블을 표방하는 동백유랑단은 국내 최고의 클래식 음악가들과 국악 명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양 악기의 조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의 결합은 색다른 양상블을 들려준다. 2022년 전석 매진 단독콘서트로 데뷔한 동백유랑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유랑하며 자신들만의 음악을 널리 알리려 한다.

**DATE & TIME**

10.05.(Sat) 13:00

**LOCATION**

Kyungsoo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CAST****Viola** Ga young**Violin** Hyewoon Cho**Piri/Taepyeongso** Hyungjun Jin**Percussion** Gyoungmin Lee**Piano** Donguk Lee**CREDITS****Composer/Arranger** Ga young, Donguk Lee**INTRODUCTION OF THE WORK**

Dongbaek Carnival plays five pieces at this stage. "Gwangalli Blues" is a blues composition paying tribute to the eponymous beach in Busan, which was written to celebrate the concert hosted in Busan in 2023. "Dongbaek Carnival" is a dance music written as a convergence of gugak and Irish folk music, which will be followed by "Puri (lit. "washing away the lament")", a Korean traditional shamanistic composition accompanied with a harmony of violin, viola and percussion.

"Dark Eyes and Csárdás" is a unique merger of a popular Russian folk song "Dark Eyes (Ochi chyornye)" and "Csárdás", a Gypsy dance music written by Vittorio Monti, which will impress the audience with distinctive reinterpretation. Last but not least, a signature rearrangement of "the Hungarian Dances" by Johannes Brahms will be played with distinctive characters of Dongbaek Carnival.

**GROUP INTRODUCTION**

Dongbaek Carnival (Korean: Dongbaek Yurangdan, lit. "Traveling troupe Camellia") aims to be a cross-over world music project ensemble, which now consists of some of Korea's most talented classical musicians and master artisans of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Striking harmony of East Asian and Western musical instruments and the convergence of acoustic and electric music forms an idiosyncratic ensemble. Having debuted with a solo concert in 2022, in which all seats were sold out, Dongbaek Carnival would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expanding to overseas stages and promoting its unique music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 다섯 개의 탱고, 인생의 노래 Five Tango Life

친친탱고  
Chinchin Tango

 chinchintango  MrCollapsing

## 공연일시

10.05.(토) 13:4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반도네온/작곡 김종완

피아노 이안나

바이올린 강소연

퍼커션 이영훈

보컬 김경한

## 작품소개

<Five Tango Life>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맞이'는 꿈과 목표를 이루려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내며, '뒹'에서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경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담아냈다. '단역'은 모든 순간에 반드시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우리를 위로한다. 타인과의 비교로 낙담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파랑새'는 남미 민중가요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에서 영감을 받아 재작곡한 곡으로,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희생과 용기, 상실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노래한다. '준비 Set Vamos!'는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며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려는 의지와 도전을 응원한다.

## 단체소개

2020년 창단한 친친탱고는 부산을 거점으로 탱고에 기반한 창작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다. 탱고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감정적 경험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들의 음악은 '존재적 표현'을 밑바탕에 두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해석해 청중과의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친친탱고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 단독 기획공연인 'Le Grand Chinchin Tango'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후에는 클래식과 탱고를 접목한 '쇼팽, 탱고를 만나다'를 무대에 올렸다.

**DATE & TIME**

10.05.(Sat) 13:4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1

**CAST****Bandoneon/Composer** Jongwan Kim**Piano** Anna Lee**Violin** Soyeoun Kang**Percussion** Yeonghoon Lee**Vocal** Kyoungghan Kim**INTRODUCTION OF THE WORK**

<Five Tango Life> consists of 5 musical compositions under the themes of multifaceted aspects of a human life. "Dalmaji (lit. "greeting the full moon")" embodies the desperate desire and hope to realize dreams and objectives. "Sail" suggests an analogy of life to a sea voyage and stages growth and change throughout life through diverse experiences and difficulties. "Extra" serves as a message of consolation telling us that we do not have to get a lead role in every act. In other words, rather than comparing ourselves with others to feel frustrated or blame ourselves, we are reminded of the real value of ourselves. "Blue Bird" is a recomposition inspired by a Chilean protest song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lit.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which celebrates selfless sacrifice and defiant bravery to protest social oppression, and the trauma of loss and persistent will to get over it. "Junbi (lit. "ready"), Set, Vamos" relates how our life, despite being full of delight, anger, sadness and joy, is just beautiful as it is, and encourages our undaunted determination and ambitious challenge to face a better tomorrow.

**GROUP INTRODUCTION**

Chinchin Tango is a Busan-based band founded in 2020 that plays tango-inspired original compositions. The complex and profound feelings of human beings are portrayed through tango and sentimental experiences are embodied as a musical reincarnation. "Ontological expression" being the basis of their music, the band reinterprets their own internal world to build a rapport with the audience. Chinchin Tango has participated in a wide variety of international events. In 2022, it successfully hosted its special solo concert "Le Grand Chinchin Tango". Afterwards, it staged "Chopin Meets Tango", an original composition that merges classical music with tango.

# 예술의 바람 The Wind of Art

예풍단  
YePoongDan

 kyoungtae\_kim00

## 공연일시

10.05.(토) 14:2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대금 송누리영

아쟁 박경진

기타 김경태

## 제작진

작곡/편곡 최지민

## 작품소개

작곡가 최지민은 전통 민요에서 영감을 받은 작곡, 편곡을 통해 현대를 사는 관객에게 신선한 느낌의 국악을 들려준다. <가을, 당신과 함께하는 예술의 바람 '예풍단(藝風團)'>에서는 총 네 곡을 선보이며 국악을 넘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관객과 소통할 것이다.

## 단체소개

예풍단은 예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로 국악과 기타를 접목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컨템포러리 국악 밴드다. 대금과 아쟁, 기타의 선율이 자아내는 하모니는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DATE & TIME**

10.05.(Sat) 14:20

**LOCATION**

Kyungsoo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Daegeum** Nuriyoung Song**Ajaeng** Gyeongjin Park**Guitar** Kyoungtae Kim**CREDITS****Composer/Arranger** Jimin Choi**INTRODUCTION OF THE WORK**

Composer Jimin Choi offers unique pieces written and arranged with unexpected vibes, which have been inspired by traditional folk songs and will surprise the contemporary audience. "The Wind of Art Staying with You in Autumn: YePoongDan" plays 4 pieces across a wide spectrum beyond conventional gugak, in order to be in full communion with the general audience.

**GROUP INTRODUCTION**

YePoongDan is a contemporary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that composes unique pieces by adding guitar to gugak, with the objective of blowing a fresh wind to the world of arts. The distinctive harmony of daegeum (large bamboo wind instrument), ajaeng (wide zither with twisted silk strings), and guitar suggests the immeasurable potential of gugak.

# 동방 집시 앙상블 Easter Gypsy Ensemble

더스키80  
Dusky80

 dusky\_80

## 공연일시

10.05.(토) 15:0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기타 정용도, 최기윤

보컬 이규리

콘트라베이스 김대호

아코디언 전유정

바이올린 이산호

## 작품소개

<동방 집시 앙상블>에서는 집시 재즈를 동양적인 느낌으로 해석한 곡들을 선보인다. 집시 악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 기타, 콘트라베이스, 아코디언의 멜로디 위에 매력적인 보컬을 얹어 더스키80만의 색깔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집시들의 자유와 낭만, 사랑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더스키80은 '일상에서 만나는 낭만적인 순간'을 주제로 집시 재즈에 기반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누리며 유랑하는 집시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바이올린, 기타, 콘트라베이스, 아코디언이라는 신선하고도 이국적인 조합으로 선보이는 집시 재즈, 샹송, 인디팝, 포크,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로맨틱하면서도 정열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DATE & TIME**

10.05.(Sat) 15:0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1

**CAST****Guitar** Yongdoe Jeong, Giyun Choi**Vocal** Kyuli Lee**Contrabass** Daeho Kim**Accordion** Yujeong Jeon**Violin** Sanho Lee**INTRODUCTION OF THE WORK**

<Eastern Gypsy Ensemble> plays a variety of Gypsy jazz numbers reinterpreted with hints of East Asian vibes. The melodies of violin, guitar, contrabass and accordion, which constitute the typical composition of a Gypsy jazz music, is accompanied with an attractive and convincing vocal that completes the signature style of Dusky 80. The stage will invite the audience to the carefree world of Gypsies, who deny any constraints and exhaustively exercise freedom, romance and love.

**GROUP INTRODUCTION**

Dusky 80 is a band playing a variety of music based on Gypsy jazz, with the shared theme of "a romantic moment encountered from an ordinary life". The image of Gypsy musicians reinterpreted by the band, exercising their inherent rights to deny any suppression and traveling the world, is rather romantic. The diverse musical genres from Gypsy jazz to French chansons, indie pops, folk songs and contemporary jazz played by a unique as well as exotic composition of violin, guitar, contrabass and accordion dominate the stage with a romantic and passionate mood.

# 김순영 재즈 탭 Kim Soon Young Jazz Tap

김순영 재즈 탭  
Kim Soon Young Jazz Tap

 jazz\_tap

## 공연일시

10.05.(토) 15:4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 출연진

탭/보컬 김순영

피아노 이하림

베이스 노태현

드럼 이윤창

색소폰 이삼수

## 작품소개

탭댄스는 현란한 몸짓으로 보기만 해도 흥을 더한다. 여기에 색소폰, 드럼, 더블베이스, 피아노가 연주하는 재즈 음악과 호소력 있는 보컬이 더해지면 리듬과 멜로디의 향연은 더욱 풍성해진다. 관객은 <김순영 재즈 탭>의 공연을 통해 눈으로 보는 춤, 귀로 듣는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오감으로 즐기는 공연의 진수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김순영 재즈 탭은 탭댄스를 춤의 장르로 국한하지 않고 '탭 퍼커션(Tap Percussion)'이라는 하나의 타악기로 보고 접근하는 한국 최초의 탭댄스 라이브 재즈 밴드다. 나아가 재즈 보컬리스트인 리더 김순영의 경험을 살려 재즈의 즉흥성을 접목해 'Tap Live Performance'를 선보인다.

김순영은 2022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2023 울산 재즈 페스티벌 등 국내 행사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도쿄 인터내셔널 탭 페스티벌, 홍콩 탭 페스티벌, 일본 오사카 투어 등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5:4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CAST**

**Tap/Vocal** Soonyoung Kim

**Piano** Halim Yi

**Bass** Taeheon Noh

**Drum** Yunchang Lee

**Saxophone** Samsu Lee

**INTRODUCTION OF THE WORK**

Ceaseless and energetic movements of tap dancing would make anyone watching it want to follow the rhythm. Then a beautiful improvisation of jazz music from an ensemble of saxophone, drum, double bass and piano, and a convincing vocal will further enrich the blend of rhythms and melodies. The audience of "Kim Soon Young Jazz Tap" would not restrict themselves to seeing the dance and listening to the music, but feel the vibrant sensations of receiving the stage with all the five senses.

**GROUP INTRODUCTION**

Kim Soon Young Jazz Tap does not restrict tap dance to the genre of dance, but has become Korea's first "tap dance live jazz band" that considers tap dancing as a musical percussion instrument of "tap percussion". Based on the leader Kim Soon Young's experience as a jazz vocalist, the band stages a "tap live performance" that converges tap dancing with improvisation of jazz music.

Kim Soon Young has been active in a variety of stages in and out of Korea, including Seoul Forest Jazz Festival in Seoul Forest Park in 2022 and Ulsan Jazz Festival in 2023. Kim also expanded to many international stages, such as Tokyo International Tap Festival, Hong Kong Tap Festival, and the tour in Osaka, Japan.

# 월담 Beyond the Wall

더툰  
The Tune

 musicband\_thetune  thetune4.com

## 공연일시

10.05.(토) 16: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전통타악 이성순

보컬 고현경

키보드 오영진

피리/태평소 남정훈

퍼커션 정규하

## 제작진

음악감독 이성순

## 작품소개

<월담>은 공연 제목처럼 과거와 현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속음악에 담긴 신비롭고 강한 에너지가 공연장을 휘감으며, 민중이 힘든 노동을 잊기 위해 부른 노동요는 현대적 색감으로 살아난다. 지금의 '무대'는 공연자와 관객이 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하던 전통의 '마당'으로 확장하며 다채로운 전통장단으로 역동성을 더한다. 과거와 현재,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있는 벽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음악을 통해 강렬한 에너지와 선명한 이미지가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국악 밴드 더툰은 샤머니즘, 노동요, 국악 장단 등 한국 전통의 모티프에 현대적 음악을 더해 특유의 개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직관적인 보컬과 원시성이 강한 타악, 건반, 피리, 태평소는 더툰만의 강렬한 에너지와 이미지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2019년부터는 전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혀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J.F.케네디센터, 링컨센터, Colours of Ostrava를 비롯해 13개국 15개 도시에서 진행한 투어 공연은 큰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도 음악적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DATE & TIME**

10.05.(Sat) 16:30

**LOCATION**

Kyungsoo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CAST****Traditional Percussion** Songsoo Lee**Vocal** Hyunkyung Go**Keyboard** Youngjin Oh**Piri/Taepyeongso** Jeonghoon Nam**Percussion** Gyuha Joong**CREDITS****Music Director** Songsoo Lee**INTRODUCTION OF THE WORK**

<Beyond the Wall>, as its title suggests,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past and the present as if they never existed. While the mystic and intense energy preserved in the traditional shamanistic music dominates the stage, the traditional folk work songs the lowly people sang to forget about the pain of hard work are reinterpreted with contemporary colors. A contemporary "stage" here is further expanded to a "madang (lit. "yard")" wher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were in close communion so that they could touch each other, as a variety of traditional rhythms add even more dynamism to the already exciting stage. Through the music that does not know any boundary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performers, the audience will feel the vigorous energy and matchless characters.

**GROUP INTRODUCTION**

"The Tune" is a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that adds contemporary vibes to the traditional motifs such as shamanism, work songs and typical gugak rhythms, finding harmony of the signature characters of gugak and universal beauty of music. The striking consonance of the intuitive voice and primitive moods of the ensemble of percussion, keyboard, piri (flute) and taepyeongso (double reed wind instrument) effectively convey the unique intensity and signature images of "The Tune".

Since 2019, the Tune has expanded to the international stages to reach a larger audience. The tour in 15 cities across 13 countries, including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Colours of Ostrava, received remarkably positive critical reviews. The band plans to expand its musical spectrum further.

# 하모니 오브 라이트 Harmony of Light

쇼디자인그룹 \_ 생동감 크루  
Show Design Group \_ SDG Crew

 [sdg\\_media\\_performance](#)  [blog.naver.com/sdgcrew](#)

## 공연일시

10.07.(월) 13: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2명, 스태프 10명

## 출연진

김영섭  
김준용  
박이슬  
김완혁  
이영준  
최헌재  
김서진  
민지홍  
정민혁

## 제작진

예술감독 남대원  
무대감독 남준영  
영상감독 김진욱  
영상조감독 정지현  
안무 김영섭  
기획감독 김준용

## 작품소개

<하모니 오브 라이트>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예술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러 시도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더 많은 관객이 다양한 공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으며, 빛의 아름다움과 미디어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객들은 <하모니 오브 라이트>를 통해 순수예술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편견을 떨치고, 한국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체소개

쇼디자인그룹 생동감 크루는 인천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융복합 전문 예술단체다. 2002년 6월 창단한 이후 23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며 순수예술에 현대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로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생동감 크루만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작품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공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DATE & TIME**

10.07.(Mon) 13:0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2, STAFF 10

**CAST**

Youngsub Kim  
 Junyong Kim  
 Yiseul Park  
 Wanhyuk Kim  
 Youngjun Lee  
 Heonjae Choi  
 Seojin Kim  
 Jihong Min  
 Minhyeog Jung

**CREDITS**

**Artistic Director** Daewon Nam  
**Stage Director** Junyoung Nam  
**Visual Director** Jinwook Kim  
**Visual Assistant Director** Jihyeon Jung  
**Choreographer** Youngsub Kim  
**Planning Director** Junyong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Harmony of Light> is the product of a wide variety of experiments and researches conducted with the conviction that arts must advance through diverse directions as time evolves. Crew SDG has created a unique and unmatched piece by merging a wide range of elements from diverse genres, so that the wider audience can experience and enjoy varying performing arts genres. In <Harmony of Light>, the audience can be immersed into the beauty of illumination and the essence of media arts, overcoming the stereotypical prejudice that fine arts always seem encrypted and hard to understand and feeling the true beauty and charm of Korean traditional arts.

**GROUP INTRODUCTION**

"Show Design Group: Crew SDG (Korean: saeng-dong-gam, lit. "vitality")" is an arts group of young artists from Incheon who are specialized in convergence and converge a wide variety of genres to create forms of new arts and culture. Founded in June 2002, it has been active for the past 23 years creating contents merging fine arts and latest technologies to erase boundaries between genres. The signature works with unique characters and philosophy of "Crew SDG" are trying to reach a wide range of audience in and out of Korea and be in universal communion with the wider audience.

# 세상을 바꿀 수 있어 I can change the world

이케다 요스케  
Yosuke Ikeda

 IkedaYosuke630

## 공연일시

10.07.(월) 13:40

## 출연진

이케다 요스케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일본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인간 두뇌의 지적 능력의 한계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Tony Buzan).  
영리함을 넘어서 천재적인 작품(Richard Wiseman).

## 단체소개

이케다 요스케는 마임과 그래픽 및 어쿠스틱 아트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저글링, 판토마임, 마술에 기반한 놀랍도록 정밀하고 세련된 기술이 어우러진 작품은 압도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와 나라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ATE & TIME**

10.07.(Mon) 13:40

**CAST**

Yosuke Ikeda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Jap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is the example how clever the human brain can be. (Tony Buzan)

More than clever. This is genius. (Richard Wiseman)

**GROUP INTRODUCTION**

Yosuke Ikeda presents a totally new style of performance blending mime with graphic and acoustic arts. All his works based on juggling/pantomime/magic techniques are surprisingly precise and sophisticated and absolutely entertaining. He uses no languages, so it is easy to understand for all ages and countries.

# 일장춘몽 Life is but a Dream

틀에디션  
Tr-edition

 tr\_edition\_kr  linktr.ee/tredition.kr

## 공연일시

10.07.(월) 14:2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세션 이광혁, 최형석, 고현아

판소리 유시은

퍼포머 양문창, 김경훈, 서황민, 천권준, 김우창

## 제작진

음악프로듀서 이광혁

안무 양문창

제작/연출/작가 양승민

조연출/기획 최지혜

의상 백보림

조명 강진구

## 작품소개

<일장춘몽>은 한국의 전통 마당극인 '수영야류'의 5과장 형식을 빌린 작품이다. 한국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대금, 가야금 등 국악기에 EDM, 트랜스뮤직, 덤스텝을 결합해 전위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대의 조화는 안무에도 드러난다. 전통 탈춤(가면극)과 스트릿댄스의 절묘한 조합은 전통적인 춤가락을 빠른 비트에 얹어 '한국형 EDM', '한국형 스트릿댄스'라는 틀에디션만의 독창적인 공연 장르를 탄생시켰다.

## 단체소개

틀에디션은 전통이라는 의미의 영어 'Tradition'의 발음을 변형한 것으로, 틀을 깬 판(edition)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장르 융복합 퍼포먼스를 지향한다. 부산 거점의 댄스팀(킬라몽키즈), 트랜스뮤직밴드(루츠리듬)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무한한 실험과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틀에디션은 국악, 판소리, 탈춤, DJ, 스트릿댄스, 힙합, 시각예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DATE & TIME**

10.07.(Mon) 14:2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2

**CAST****Session** Gwanghyuk Lee, Hyeongseok Choi,  
Hyuna Go**Singer** Sieun Yu**Performer** Moonchang Yang, KyeongHun Kim,  
Hwangmin Seo, Kwonjoon Cheon,  
Woosung Kim**CREDITS****Music Producer** Gwanghyuk Lee**Choreographer** Moonchang Yang**Producer/Director/Writer** Seungmin Yang**Assistant Director/Promotor** Jihye Choe**Costume** Borim Baek**Lighting** Jingu Kang**INTRODUCTION OF THE WORK**

<Life is but a Dream> has borrowed the form of Korean traditional outdoor play "Suyeong Yaru ("outdoor masked play from Suyeong district of Busan")", which consists of five acts with different themes. Converging EDM, trance music and dubstep with the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uch as pansori (Korean traditional full-length storytelling performed by a solo singer and a drummer) and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such as daegeum (large bamboo wind instrument) and gayageum (Korean traditional string instrument resembling a hand-plucked zither with 12 silk strings), the stage is filled with avant-garde and dreamlike moods of trance electronic music. The distinctive harmony of Western and East Asian arts or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is also reflected in the choreography. The sophisticated combination of traditional talchum (Korean mask dance) and contemporary street dance has invented an unmatched performing arts genre of Tr-edition, which is called "Korean EDM" or "Korean street dance".

**GROUP INTRODUCTION**

Tr-edition is a homophone of "tradition", an English word that means old customs and beliefs transmitted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Therefore, the name of the theater company reflects its brave ambition to build an original "edition" of a new world denying an old "frame (in Korean: "tr" or "teur")", staging a performance converging and merging different genres and crossing boundaries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Young artists of diverse genres, such as Busan-based dance crew Killa Monkees and trance music band Roots Redeem, have gathered in this company to continue ceaseless experiments and challenges. Tr-edition has staged various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 with artists from a wide range of genres, disciplines and backgrounds, such as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pansori (Korean traditional full-length storytelling performed by a solo singer and a drummer), talchum (Korean traditional mask dancing), DJing, street dance, hip hop, visual arts and theater.

# 홵빠! Hoppa!

타르카바르카  
Tarkabarka

 tarkabarka.li

## 공연일시

10.07.(월) 15: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리히텐슈타인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안나-카트리나 코스티알-뉘헬

발린트 아론 코스티알

## 작품소개

<홵빠!>는 서커스 마임극으로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비언어적 공연이다.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언어에 제약받지 않고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유머와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상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기발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전 연령층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연이다.

## 단체소개

타르카바르카는 안나-카트리나 코스티알-뉘헬과 발린트 아론 코스티알, 두 명의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타르카바르카는 헝가리어로 '다채로운'을 의미한다. 타르카바르카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다채로워, 모든 사람이 생활 여건에 상관없이 서커스와 연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DATE & TIME**

10.07.(Mon) 15:0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Liechtenstei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CAST**

Anna-Katharina Kostyál-Büchel

Bálint Áron-Kostyál

**INTRODUCTION OF THE WORK**

<Hoppa!> is a two-person circus mime performance that is a non-verbal show suitable for the whole family. The performance humorously portrays everyday stories, allowi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enjoy and relate to the show regardless of language. Through expressive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the performers bring to life various relatable scenarios, making the audience laugh and feel connected without the need for any spoken words. The show is a delightful and creative performance that offers entertainment for all ages, turning ordinary daily experiences into extraordinary and amusing moments for everyone to enjoy together.

**GROUP INTRODUCTION**

Tarkabarka is composed of two artists, Anna-Katrina Kostyál-Büchel and Bálint Aaron Kostyál. Tarkabarka is Hungarian and means 'colorful'. Tarkabarka's projects are also colorful, aiming to provide the experience of circus and theater to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life situation.

# 마술인형 '선물' Magic Puppets 'Present'

푸른 해  
Puleunhae

 puleunhae\_theatre  blog.naver.com/puleunhae

## 공연일시

10.07.(월) 15:4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오현승

정명필

## 제작진

연출 정명필

음악 박혜미

## 작품소개

<마술인형 '선물'>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노인 부부의 꿈에 관한 이야기다. 무료한 일상과 가난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데, 술에 취해 잠든 뒤 화려했던 젊은 시절에 관한 꿈을 꾸다. 위트 있는 줄거리와 마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다.

## 단체소개

푸른 해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술, 인형,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한 창의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상상력을 무대에 재현하며 대사나 나레이션 없이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을 만난다.

**DATE & TIME**

10.07.(Mon) 15:4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CAST**

Hyunseung Oh

Myungpil Joung

**CREDITS****Director** Myungpil Joung**Music** Hyemi Park**INTRODUCTION OF THE WORK**

<Magic Puppets "Present"> illustrates a dream of an elderly couple before Christmas. During the monotonous everyday life in which they struggle to make ends meet, they get drunk and fall asleep to have a dream of their youthful days. Clever wits and captivating magic skills dominating the stage will make the entire audience be immersed into the stage regardless of their age, gender and background.

**GROUP INTRODUCTION**

Theater company Puleunhae stages a wide variety of maim-based original and creative pieces that employ diverse theatrical elements such as magic, puppets, and media arts. Reincarnating a unique imagination on the stage, the company effectively conveys the intended messages and reaches the audience even without any spoken lines or narration.

# 제이-코드 J-Code

템페이  
Tempei

 tempei.net

## 공연일시

10.07.(월) 16:1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일본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템페이

##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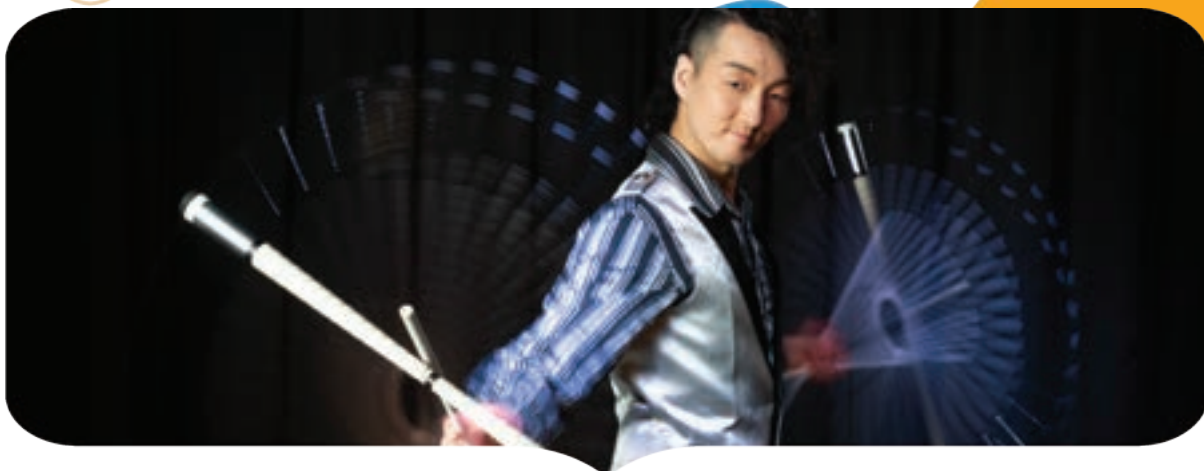
콘셉트 템페이

## 작품소개

<제이-코드> 쇼에서 템페이는 지금까지 20여 개국에서 선보이고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저글링 경연에서 펼쳐졌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세계적인 저글링 쇼! 놓치지 않을 수 없는 저글링의 향연.

## 단체소개

템페이는 20여 개국에서 공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저글링 아티스트이다. 그는 프랑스 파리 내일의 서커스 세계 챔피언십에서 결승에 진출한 최초의 일본인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 특별상도 수상하였다. 또한 월드컵 시즈오카 스트리트 퍼포먼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 태양의 서커스단 정회원이 된 템페이는 태양의 서커스단이 스페인 시스코 프라이스 극장에서 2개월간 진행한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 SBS 스타킹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DATE & TIME**

10.07.(Mon) 16:1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Jap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Tempei

**CREDITS**

**Concept** Tempei

**INTRODUCTION OF THE WORK**

In the Show <J-Code>, Tempei will present acts that he has performed at international juggling competitions. These acts have been showcased in over 20 countries and have received various awards. You can't miss his world class juggling show time! You will be amazed by his juggling act.

**GROUP INTRODUCTION**

Tempei is a globally renowned juggler with experience performing in over 20 countries. He made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Japanese performer to be a finalist at the World Championship of Circus Artists, Cirque de Demain, in Paris, where he also won several accolades, including the Judgement Special Prize. Additionally, he secured the first prize at the World Cup Shizuoka Street Performance Contest.

In 2012, Tempei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Cirque du Soleil, participating in their Spanish show at Teatro Circo Price for two months. He also won a gold medal on the popular Korean TV show, Star King.

# 더 레터 The Letter

파올로 나니  
Paolo Nani

 paolonani.com

## 공연일시

10.07.(월) 16: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이탈리아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파올로 나니

## 제작진

콘셉트 파올로 나니, 놀로 파치니

연출 놀로 파치니

## 작품소개

절묘하고 영리하게 다듬은 스타일과 창의성, 타이밍으로 1992년부터 관객들을 만나온 <더 레터>는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한다. 이 작품의 매력은 극도로 단순한 구성에 기반한다. 무대의 정교한 연출을 담은 시노그래피, 특수 조명, 특수 효과, 독특한 의상 없이 오직 배우의 탁월한 재주와 정교한 표현, 타이밍, 상상력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섬세한 디테일과 개그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의 웃음에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 단체소개

이탈리아 배우 겸 연출가 파올로 나니는 1995년 덴마크 보르딩보르에 자신의 극단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솔로 공연을 창작하며, 다른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연출하고 제작한다.

파올로 나니는 세계 최고의 신체 코미디언 중 한 명이다. 절묘한 타이밍과 유쾌하고 정교한 몸짓 언어, 완성도 높은 마임과 능숙한 연기로 잘 알려진 다재다능한 퍼포머이다.

**DATE & TIME**

10.07.(Mon) 16: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Italy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Paolo Nani

**CREDITS****Concept** Paolo Nani, Nullo Facchini**Director** Nullo Facchini**INTRODUCTION OF THE WORK**

A sparkling study in style, creativity and timing, having been on tour since 1992 <The Letter> continues to amaze and amuse audiences of all ages. 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 is based on its extreme simplicity: No scenography, no special light, no special effect, no special costume but an actor's tour de force, precision, timing and fantasy.

The performance is packed with details, gags from the beginning until the end and it gives no single minute of break to audience's laughing muscles.

**GROUP INTRODUCTION**

Actor/Director Paolo Nani has an Italian background. He established his company, Paolo Nani Teater in 1995 in Vordingborg, Denmark. There he creates his solo performances while he also directs and produces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other artists.

Paolo Nani is one of the world's most respected physical comedians. He is a multifaceted performer, renowned for his extraordinary timing, his funny and precise body language, his masterly mime, and his skillful acting.

# BPAM NEXTSTAGE





# NEXT STAGE

## 비주얼 씨어터 <노인과 바다> 쇼케이스 Visual Theatre <The Old Man and The Sea> Showcase

판플  
FANPL

 fantasticplay

 fantasticplay.creatorlink.net

### 공연일시

10.06.(일) 15: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비주얼 씨어터 <노인과 바다>는 기존의 “노인과 바다”를 희곡으로 재창작하여, 3면 홀로그램 무대에서 진행되는 형태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무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다를 환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작 “노인과 바다”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낭독극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 단체소개

판플은 판타스틱 플레이(Fantastic play)의 줄임말로, 부산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을 창작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판플은 ‘판타스틱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관객들이 현실을 벗어나 색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을 판타스틱한 경험으로 변화시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출연진

이크신

박준희

유시화

문재희

고유라

### 제작진

연출 양재영

무대감독 손상훈

미디어&프로젝션 임태홍(엘일루전)

기획 김정민

**DATE & TIME**

10.06.(Sun) 15: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Visual Theatre <The Old Man and The Sea> reinterprets the well-known novella written by Ernest Hemingway into a contemporary play, staged on the set surrounded by 3-sided hologram displays. While the striking illustration of the fantastic view of the ocean overcoming the physical restriction of the stage offers a lively rendition of the images from the masterpiece novella, the stage also offers a unique reinterpretation into a reader's theater.

**GROUP INTRODUCTION**

FANPL, an abbreviation of "fantastic play", is the name of a performing arts group formed by Busan-based young artists who majored in performing arts, aiming to create and stage a unique and provocative piece. "Being fantastic", which is the key value that FANPL pursues, is what enables us to experience the world outside the real one, turn daily life into a fantastic one, and hopefully, find a small relief in the complicated world.

**CAST**

Keusin Lee  
Junhee Park  
Sihwa Yoo  
Jaehee Moon  
Yura Ko

**CREDITS**

**Director** Jaeyoung Yang  
**Stage Director** Sanghun Son  
**Media&Projection** L'ILLUSION  
**Promotor** Jungmin Kim

# 오함마백씨행장 The Sound of Being

오치운  
Chiwoon Oh

## 공연일시

10.06.(일) 15:30

## 공연장소

문화골목 갤러리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오치운

## 제작진

작가 이용훈

프로듀서 이은주

연출 손은지

공동제작 씨앗프로젝트, 창작공간 자기만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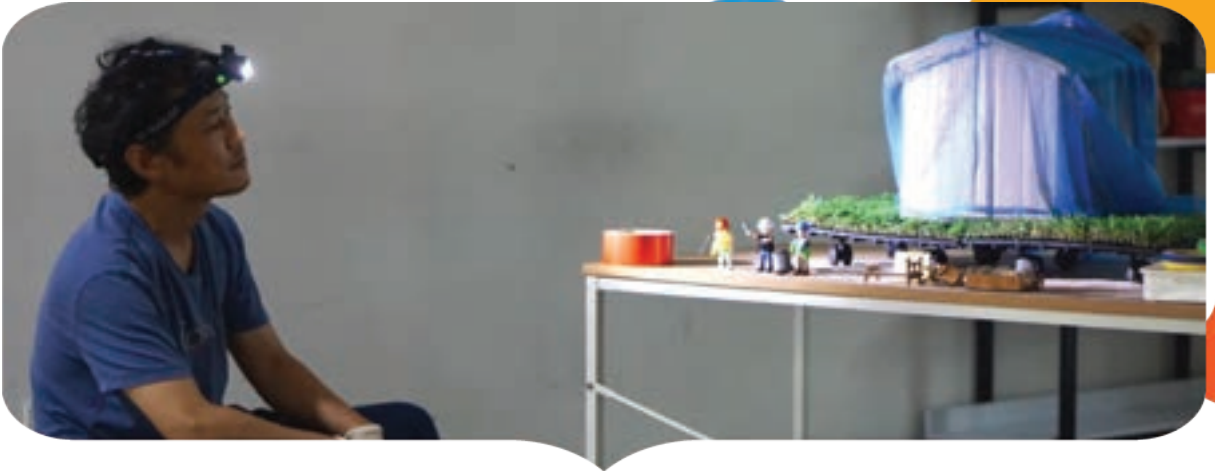
## 작품소개

<오함마백씨행장>은 철거 노동자의 독백을 통해 구옥과 철거 노동자가 사라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 작품은 철거 현장에서의 일상과 백씨의 죽음을 고윤호의 시각으로 그려내며,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빈 공간 속에서 오브제, 빛, 영상이 주요 표현 매개체로 사용되어 감성적인 심리와 주제를 전달한다. 배우의 행위는 오브제와 빛, 영상과 조화를 이루며 섬세한 연출을 이끈다. 이러한 형식은 극장뿐만 아니라 갤러리에서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단체소개

오치운이 소속된 씨앗프로젝트는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라는 가치를 가진 공연창작단체로,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와 주변적 충동을 탐구한다.

오치운은 창작공간 자기만의 방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사물, 빛, 소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은유가 담긴 시청각적 작품을 창작하고, 사물의 특성을 깊이 탐구해 무대에 구현한다. 사물이 지닌 힘으로 무대 위의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작업 방식이다.

**DATE & TIME**

10.06.(Sun) 15:30

**LOCATION**

Cultural Alley Gallery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ound of Being> (Korean: Ohhamma baek ssi haengjang, lit. "luggage of hammer worker Mr. Back") offers an intricate illustration of how an old residential area and a demolition worker there disappear, through a monologue of a demolition worker. Through the perspectives of a demolition worker Yunho Go, daily life in the demolition field and death of worker Baek is illustrated to discuss the implication of being. Objects, lights and video clips are used as key mediators of expression in the empty space that convey sentiments and themes. Movements of the actor are in optimal harmony with such objects, illumination and video clips, which make the directing even more sophisticated. The piece has been produced so that it is not only staged in a theater, but also at an art gallery.

**GROUP INTRODUCTION**

See.aht (lit. "seed") Project, a theater company that Chiwoon Oh belongs to, is a creative theater group with the motto: "A personal story is a social story". It explores trivial personal stories and their peripheral collisions with the world.

Creative Space: a Room of One's Own, another theater company that Chiwoon Oh belongs to, creates audiovisual pieces with poetic metaphors using objects, illumination, sounds and images. The group stages products of profound exploration into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As such, how the group usually works is through expanding the stage narrative through the intrinsic power of the props and the objects.


**CAST**

Chiwoon Oh

**CREDITS****Writer** Yonghoon Lee**Producer** Eunju Lee**Director** Eunji Son**Coproduction** See.aht project, Creative Space :  
A Room of One's Own

# 평범한 삶 A Normal Life

황시윤  
Siyun Hwang

 dan\_chuu\_art

## 공연일시

10.06.(일) 16: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황시윤  
박지현  
이지혜  
신지향

## 제작진

극작/연출 황시윤

## 작품소개

<평범한 삶>은 삶의 지숙이 어려운 소외계층, 특히 여성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세원은 친구 민아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출팜에서의 삶을 회상한다. 작품은 인생의 갈등과 희망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영상과 조명을 활용해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 단체소개

극단 단추 소속의 황시윤은 동서대학교 연기과 졸업하였으며, 연극 <다시, 한번?>, <더블데이트>, <도담도담> 등의 극작 겸 연출로 활동 중이다.

**DATE & TIME**

10.06.(Sun) 16: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3

**INTRODUCTION OF THE WORK**

<A Normal Life> illustrates life of the marginalized people who fac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own survival—runaway female teens, in particular. Sewon, the protagonist, is interrogated by the police since her friend Minah has committed suicide, which makes her look back on her life in the runaway fam. The struggles and hopes portrayed in this piece will raise awareness of current socio-structural problems. The optimal use of video arts and illumination highlights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characters and enables empathy of the audience.

**GROUP INTRODUCTION**

Siyun Hwang, member of Theater Company Dan Chuu (lit., "button/fabric fastener"),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Acting of Dongseo University. The artist has been active as a director and playwright from works such as <Once, Again?>, <Double Date> and <Dodam Dodam>.

**CAST**

Siyun Hwang

Jihyeon Park

Jihye Lee

Jihang Shin

**CREDITS**

Playwright/Director Siyun Hwang

# 갠 나랑 헤어지고 후풍풍 왔을까 You miss me, Mr. Dildo?

희곡시대사랑  
Write This Love

 writethislove

## 공연일시

10.06.(일) 16:30

## 공연장소

문화골목 노가다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정이나

박성호

## 제작진

작가/연출 김영화

스태프 김염지

## 작품소개

<갠 나랑 헤어지고 후풍풍 왔을까>는 은영과 재호의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2030 세대 이성 커플의 적나라한 사랑과 갈등을 다룬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젠더 갈등'을 코믹하면서도 묵직하게 풀어낸다. '상'과 '섹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코미디 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단체소개

희곡시대사랑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희곡 창작소로, 언어를 바탕으로 비정상의 세계를 창작한다. 부산에서 본 적 없는 참신한 주제의 희곡과 연극을 발굴하며 교육극, 희곡 창작 워크숍, 음성 해설,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6:30

**LOCATION**

Cultural Alley Pub NOGADA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You miss me, Mr. Dildo?> illustrates an unreserved dialogue of Eunyoung and Jaeho to offer an honest embodiment of romantic life and struggles of young heterosexual couples in their 20s and 30s. Moreover, the gender conflict, which is shaking Korean society now, is reinterpreted as a comic but still serious satire. An undaunted female protagonist who talks about "sex" and "libido" openly offers the potential of an unprecedented stage comedy.

**GROUP INTRODUCTION**

Write This Love is a Busan-based creative group of theatrical plays, which creates an abnormal world using words as the medium. Discovering plays and theatrical works with unique and distinctive themes not staged in Busan before, it has expanded its fields to educational plays, playwright workshops, voice-over narration and publication, and so forth.

**CAST**

Eina Jung  
Seongho Park

**CREDITS**

**Writer/Director** Younghwa Kim  
**Staff** Yeomji Kim

## XXXXY

강인정  
Injung Kang injung2ee2공연일시

10.06.(일) 17:00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러닝타임

15분

관람연령

12세이상

국가

대한민국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5명

작품소개

'남자가 살아온 인생, 여자가 살아온 인생'으로 시작되는 연극 <XXXXY>는 각자의 성별로서 강요받아온 삶을 조명하며 시작된다. 이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한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죽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삶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남자는 다시 자신의 내면인 여자를 살리게 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성 고정관념, 성 정체성,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실험극이자 신체 이미지극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단체소개

강인정은 극단 우릿의 대표이자 상임연출로,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출가이자 극작가이다. 평소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독특한 세계관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 <갈대가 타서 재가 되고, 바람이 불어 사라지다>, <우리 집에 왜 있니?> 등이 있다.

출연진

하현우

문석종

강유정

제작진

극작/연출 강인정

조연출 손혜윤

음향 오퍼레이터 이열우

**DATE & TIME**

10.06.(Sun) 17: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5

**INTRODUCTION OF THE WORK**

<XXXY> starts with the phrase, "a life that a man has lived, and a life that a woman has lived", reflecting on the lives forced by the respective imposed gender roles. Afterwards, the man and the woman meet each other but still deny their existence. The man murders the woman, only before discovering the stark reality that nothing was what he wanted. Therefore, the man revives the woman, who essentially was the inner self of himself,, before the curtain falls. The experimental as well as bodily-image focused play, which illustrates problems of gender stereotypes, gender identities and absurdities that gender minorities face, will leave the audience an intense impression.

**GROUP INTRODUCTION**

Injung Kang, the chairperson and senior director of Theater Company Woolit, is a director and playwright active in Busan. With deep interest in social problems, the artist would like to create a piece that portrays a unique worldview. Representative works are <Islet Ancha: Children of the Island where Escaping Means Death>, <Reeds Burn to Ashes and Disappear into Blowing Winds>, and <Why Are You in My Place?>

**CAST**

Hyunwoo Ha  
Seokjong Mun  
Yujeong Kang

**CREDITS**

Playwright/Director Injung Kang  
Assistant Director Hyeyoon Son  
Sound Operator Yeolu Lee

# 단물 빠진 껌 Unsweet Gum

장학민  
Hakmin Jang

 aw\_hakmin

## 공연일시

10.06.(일) 17:30

## 제작진

극작 장학민

## 공연장소

문화골목 갤러리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단물 빠진 껌>은 가정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하면서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병든 아버지를 떠나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병상을 지키며 갈등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극 중 여러 사건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며 내면의 갈등을 겪는다. 이 과정을 통해 아들은 가족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 단체소개

부산에서 활동 중인 극작가 장학민은 가족의 존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6.(Sun) 17:30

**LOCATION**

Cultural Alley Gallery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Unsweet Gum> illustrates a story of a family—a father who ends up being a burden just as much as he tries hard to support his family, a mother who is frustrated by her husband but is still hopelessly devoted to him and stays in the family, and, last but not least, a son who tries to desert his sick father but just agonizes at his sickbed only for lingering sympathy with his mother. Multiple episodes remind the son of his hatred with his father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he served to support the family, which only worsens his own inner struggles. Then he ends up contemplating further on the definition and implications of a family.

**GROUP INTRODUCTION**

Hakmin Jang, a playwright active in Busan, has deep interest in families and would like to motivate the audience to build a sound family through this stage.

**CREDITS**

Playwright Hakmin Jang

# 의자들 'rebuild' The Chair 'rebuild'

극단 코코  
CoCo

 theater\_coco

## 공연일시

10.06.(일) 18: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용천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0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의자들 'rebuild'>은 외젠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 '의자들'을 스토리텔링한 움직임극이다. 1세기 동안 외부인의 방문이 없었던 노부부에게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비극적 소극을 특징으로 한다.

## 단체소개

극단 코코는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창작활동에 투영한다. 극단 코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 출연진

김대원  
김이지  
하은성  
임해승  
장 아유미  
곽다린

## 제작진

연출 안로검  
조연출 박민정  
기획 박수빈

**DATE & TIME**

10.06.(Sun) 18:00

**LOCATION**

Cultural Alley Yongcheon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0,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hair 'rebuild'> is a movement-focused nonverbal play that has reinterpreted the story-telling of the one-act play of the absurd "Les Chaises" by Eugène Ionesco—a tragic farcical narrating an elderly couple not having visited by anyone for a century but now suddenly encountering guests.

**GROUP INTRODUCTION**

The theater company CoCo has deep interest in the social absurdity and resulting problems. Therefore, it reflects such concerns on its creative projects, with special efforts to maintain objective views towards ongoing problems that are continuously projected onto its stages.

**CAST**

Daewon Kim

Iji Kim

Eunseong Ha

Haeseung Lim

Ayumi Jang

Darin Gwak

**CREDITS**

**Director** Rogeom An

**Assistant Director** Minjeong Park

**Promotor** Subin Park

# 와인 네 잔 4 Glasses of Wine

청춘터  
Cheongchunter

 pencio88  cheongchunter

## 공연일시

10.06.(일) 18:30

## 공연장소

문화골목 노가다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와인 네 잔>은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장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뜻하지 않게 재난 상황으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손님들의 숨겨진 사연이 드러난다. 이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단체소개

청춘터는 청춘의 나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성별, 나이, 성격, 신분, 직업, 국적에 제한받지 않고, 연기와 공연,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청춘 같은 마음으로 활동하며 함께 협업하는 단체이다.

## 출연진

김명선

강현준

김은진

권오령

## 제작진

작가/연출 강현준

**DATE & TIME**

10.06.(Sun) 18:30

**LOCATION**

Cultural Alley Pub NOGADA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4 Glasses of Wine> narrates the story of an owner of a wine bar and its guests. As an unpredicted disaster destroys the building, the undiscovered story behind each one unfolds, as each story also portrays the elements reflecting the current affairs of the time.

**GROUP INTRODUCTION**

Cheongchunter (lit. "place of fresh and green youth") is a theater group believing that the age cap of "cheongchun (fresh and green youth)" depends on how the person feels about himself/herself. Regardless of gender, age, personalities, social status, occupation, or nationality of the person, everyone in love with acting, performing arts and video arts stay in the youthful spirit of true "cheongchun"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CAST**

Myoungsun Kim

Hyunjoon Kang

Eunjin Kim


Ohryong Kwon

**CREDITS**

**Writer/Director** Hyunjoon Kang

# 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I am a Mother of One Child

권상우  
Sangwoo Kwon

 joonji\_lap

## 공연일시

10.06.(일) 19:00

## 공연장소

문화골목 갤러리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는 장애아동의 엄마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은 장애아동의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매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괴로움에 잠식될 때마다 자신을 위로하는 아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남들과 똑같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다시 일어나 아이를 데리러 간다.

## 단체소개

권상우는 세상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연구한다. 그는 주류에서 벗어나더라도 가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 출연진

손남숙

## 제작진

작가/연출 권상우  
조명디자인 이하슬  
소품디자인 김세진  
의상디자인 박소윤  
드라마투르그 김예빈

**DATE & TIME**

10.06.(Sun) 19:00

**LOCATION**

Cultural Alley Gallery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I am a Mother of One Child> is a narrative of a woman, who continuously faces difficulties from her life as a mother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The play honestly portrays an unreserved illustration of emotions, realities, and fear of the future that a mother of a disabled child feels. Even though every moment encounters frustration and reasons to make her wish to give up everything, whenever she is overwhelmed by the pain from the ordeal, the mother reminds herself of the smile of the child that consoles her, becomes just like any other mother again, and gets up to pick up her child.

**GROUP INTRODUCTION**

As Sangwoo Kwon investigates the world and others with affectionate interest and tries to understand them, the director and playwright would like to continue to find a wide variety of identities, which still deserve respect even though they digress from the mainstream.

**CAST**

Namsuk Son

**CREDITS**

**Writer/Director** Sangwoo Kwon

**Lighting Design** Haseul Lee

**Props Design** Sechin Kim

**Costume Design** Soyun Kim

**Dramaturg** Yebin Kim

# 애니멀 Animal

PDPC

 pdpc\_official

## 공연일시

10.05(토) 13: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애니멀>은 카니발(carnival) 속에서 나타나는 식인 행위(cannibalism)를 통해 인간 내면의 숨겨진 본성과 잔인성을 은유한다. 규제를 벗어난 카니발의 일탈과 해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 안의 또 다른 자아, 즉 숨겨진 괴물을 마주하게 된다. 권력이 주어지면 인간은 짐승이 되며, 그 잔인함의 한계와 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단체소개

PDPC(Physical Design Performance Company)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신체를 통해 공간을 스케치하고 소리와 빛으로 색을 칠한다. PDPC는 인간의 신체를 공간 구성의 도구로 사고하며, 그 공간에서 신체는 비로소 건축된다.

## 출연진

권재현

김재진

안남근

이유진

하권재

## 제작진

안무 안영준

작곡 부다혜

기획 황예진

**DATE & TIME**

10.05(Sat) 13: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Animal> stages cannibalism practiced in a carnival, which serves as a metaphor to the hidden cruel human nature and brutality. In the carnival that has eliminated all restrictions, as everyone is free and can break away from any social norms, they end up discovering their alter ego, or the hidden monster. Once they are granted rights to do anything, they are nothing other than wild beasts. Then we would like to pose the question on whether there ever is a restriction on that cruelty and how we could stop it.

**GROUP INTRODUCTION**

PDPC, which means Physical Design Performance Company, sees every physical space with a graphic /architectural designer's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dancer's body draws a sketch in the space while sounds and illumination add colors. PDPC uses a human's body as the device to design and organize the space, where the dancer's body is eventually built and structured to form an architecture.

**CAST**

Jaeheon Kwon

Jaejin Kim

Namegeun An

Yujin Lee

Gwonjae Ha

**CREDITS****Choreographer** Youngjun An**Composer** Dahae Boo**Promotor** Yejin Hwang

# 수렴하는 것들 Converging Things

성승정  
Seungjung Seong

 sseungjung  cactuspillow

## 공연일시

10.05(토) 13: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4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1명

## 작품소개

<수렴하는 것들>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수학적 개념의 '수렴하는' 곡선과 비유한다. 두 존재는 관계 속에서 가까워질 수 있으나 결코 완전히 닿을 수 없다. 두 개의 선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치열하고 때로는 경쟁적이기까지 하다. 관계의 지속은 두 존재의 대립과 타협이 반복되는 과정이며, 결국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다. 나와 타인은 결국 적당한 거리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 단체소개

성승정은 안무가이자 영상감독으로, 영상 매체와 무용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탐구해왔다. 최근에는 필름 작업과 함께 극장 등에서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근본적인 움직임과 신체의 형태 변화를 통해 아름다움과 서사를 탐색하며, 비언어적 소통을 안무에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창출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5(Sat) 13: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4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Converging Things> makes an analogy of comparing the “converging” curves from a graph of mathematics to a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the other. The two beings have some chances of getting closer, but they cannot perfectly stick to each other. The ordeal of the two curves trying to find an optimal distance even seems fierce and somewhat competitive. The sustenance of the relationship is essentially repetition of confrontations and compromises, going through multiple trials and errors to find the equilibrium. Therefore, I and the other end up keeping a certain distance and drawing a “tight” pair of parallel lines.

**GROUP INTRODUCTION**

Seungjung Seong is a choreographer and video arts director exploring new aesthetics through merger and convergence of video arts media and dance. Recently, the artist is trying more measures to reach the audience directly at diverse occasions such as the cinema, along with the film projects. Through essential bodily movements and change of forms of the body, Seong explores the intrinsic beauty and narratives of a human body. She also tries to use the methodology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the choreography to convey more diverse implications.

**CAST**

Heera Jung

Yumi Heo

**CREDITS****Choreographer** Seungjung Seong**Composer** Junyoung Park, Seungjung Seong

# Dear

노예슬  
Yeseul Roh

 now\_seul

## 공연일시

10.05(토) 14:1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4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의 불씨는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까? 사고를 경험한 신체에서 오는 불안정함은 춤을 추는 매 순간 내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반복되는 의심 끝에는 더욱 단단해진 몸과 마주하게 되었다. 불안이란 어쩌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Dear>는 몸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을 탐색하고, 이를 수용하며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 단체소개

노예슬은 다양한 안무자들과 협업하며 기능적이고 유동적인 신체 움직임을 탐구한다.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움직임, 대사, 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융복합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용을 기반으로 작품마다 적합한 요소를 활용해 메시지를 구현하고 전달하는 신체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출연진

노예슬

## 제작진

안무 노예슬

리허설 디렉터 김현호

드라마투르그/작가 박지현

음악 허준환

**DATE & TIME**

10.05(Sat) 14:1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4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In what form is an ember of anxiety, set in each mind, being preserved?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a body having been through an accidental injury sparks internal suspicion every moment repeatedly, at the end of which I ironically ended up with an even firmer body. Therefore, isn't it fair to say that anxiety could somewhat make you stronger? <Dear> explores the deep-seated anxiety and accepts it through bodily movements.

**GROUP INTRODUCTION**

Yeseul Roh has collaborated with a wide variety of choreographers to explore the functional as well as flexible bodily movements. Not restricted in any specific genres, the artist is interested in converging and merging diverse elements such as movements, words and video clips to convey intended messages effectively. The artist aims to advance into a comprehensive artist of bodily movements, producing and conveying intended messages by utilizing optimal elements freely based on dancing.

**CAST**

Yeseul Roh

**CREDITS**

**Choreographer** Yeseul Roh

**Rehearsal Director** Hyunho Kim

**Dramaturg/Writer** Jihyun Park

**Music** Junhwan Her

# Unseen

바라로프트  
Bara Loft

 bara.loft

## 공연일시

10.05(토) 14: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Unseen>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 작품은 음악 속에 감춰져 있던 카운트와 리듬을 드러내며, 무용수들은 오직 카운트를 기반으로 정교한 약속과 강렬한 춤을 펼쳐 나간다. 춤이 고조됨에 따라 관객은 무용수들이 바라보던 것들을 함께 감각하게 된다.

## 단체소개

바라로프트는 춤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춤 예술 브랜드'이다. 매년 '바라로프트 춤전시 시리즈'를 통해 수많은 대중에게 춤을 소개하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춤을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예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출연진

김준서

김예진

오형은

이해수

## 제작진

안무 오형은

음악 정주원

영상 김예은

**DATE & TIME**

10.05(Sat) 14:30

**LOCATION**

Kyung 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Unseen> highlights what is not visible. The piece reveals counts and rhythms, which are normally concealed under the music. Counts are the sole basis on which dancers abide with the sophisticated conventions of rhythms to realize intense bodily movements of their dance. As the dance reaches its climax, the audience will feel the shared sensation of what the dancers have been focusing on.

**GROUP INTRODUCTION**

Bara Loft is "a dancing arts brand" that produces and realizes everything that can be embodied through dancing. The annual "Bara Loft Dance Exhibition Series" introduces dance to the general public, so that a dynamic arts culture is created, in which everyone can experience dance from everyday life.

**CAST**

Junseo Kim

Yejin Kim

Hyoungeun Oh

Haesu Lee

**CREDITS****Choreographer** Hyoungeun Oh**Music** Juwon Jeong**Video** Yeyun Kim

# Face to Face

김하현  
Hahyun Kim

 ddance\_hyun  ritzy-robe-566.notion.site  
/\_HA-HYUN-KIM

## 공연일시

10.05(토) 14: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혹은 마주할 무수한 상황과 관계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분열과 조화. 또렷하게 마주할 때 느껴지는 선명한 감각과 형태. 모든 것이 눈으로 들어와 온몸을 통해 퍼져나간다.

## 단체소개

김하현은 각기 다른 삶 속에 존재하는 공통과 공유를 탐구한다. 몸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몸짓에 분리와 결합을 통해 색다른 움직임을 시도한다.

## 출연진

김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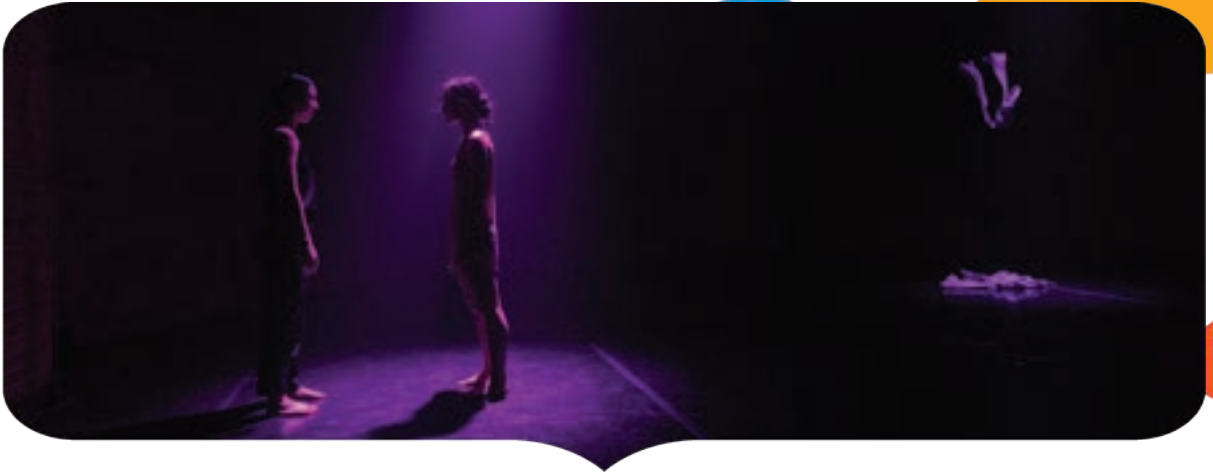
김하현

## 제작진

안무 김하현

음악 김민정

조연출 조경철

**DATE & TIME**

10.05(Sat) 14: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ountless situations and relationships that we have come across with and will encounter, small and large division and harmonious merger taking place there, and the clear sensation and perception of the tangible shape you feel when you face them directly—everything is perceived by your eyes but spread out through your entire body.

**GROUP INTRODUCTION**

Hahyun Kim explores the common and shared elements that exist in completely different entities of life. The artist tries to create a unique movement through separation from and merger with the moves beginning naturally from the body.

**CAST**

Yerim Kim

Hahyun Kim

**CREDITS**


**Choreographer** Hahyun Kim

**Music** Minjung Kim

**Assistant Director** Kyoungchul Cho

# 라그랑주 포인트 Lagrange Point

박소현  
Sohyun Park

 sohyunnnny

## 공연일시

10.05(토) 15:1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작품소개

‘라그랑주 포인트’처럼, 사회의 균형과 안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예술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로서 기존 규범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며, 사회 내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맞춘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이러한 예술의 역할을 통해 균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인이 원하는 삶과 사회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탐구한다.

## 출연진

박소현

신지혜

## 제작진

안무 박소현

음악 필라이즈 스튜디오, 우영선

의상디자인 씬 프로덕트, 신호영

## 단체소개

현대무용가 박소현은 현재 ‘시스템 온 퍼블릭 아이’ 무용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한국현대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기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안무가로서도 2024 대전 뉴댄스 국제 페스티벌 최우수 안무상, 2023 서울무용제 댄스랩 경연부문 우수작품상, 2023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5:1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Like the Lagrange points, which are the points of equilibrium for small-mass objects under the gravitational influence of massive orbiting bodies, balance and stability of a society is prone to be challenged by external factors. Therefore, maintaining the status quo requires intricate maintenance of balance. Art serves as the catalyst to drive change of society, by challenging the existing norms, inspiring new ideas and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a wide variety of coexisting views. As such, <Lagrange Point> would like to convey the message about the balance maintained by the roles served by art, exploring the balance stricken between an ideal life that an individual wishes and desirable stability of a community.

**GROUP INTRODUCTION**

Sohyun Park is a contemporary dance artist who is also active as a regular member of contemporary dance company System on Public Eye. Awarded from 2020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of Seoul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etition of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 National Rookie Dancers Competition of Korea Dance Association, Park has been acknowledged for her meticulous dance techniques as a dancer. Being also active as a choreographer, Park received Choreography Prize of Grand Excellence from 2024 Daejeon International New Dance Festival of 21th Century Contemporary Dance Research Society and Choreographed Piece Prize of Excellence from 2023 Seoul Dance Lab of Seoul Dance Festival, and was invited to MODAFE of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CAST**

Sohyun Park

Jihye Shin

**CREDITS****Choreographer** Sohyun Park**Music** Feelize Studio, Youngseon Woo**Costume Design** Scene Product,  
Hoyoung Shin

# 2024 시간의 진화 2024 The Evolution of Time

블루댄스씨어터2  
Blue Dance Theater2

 bluedancetheater2

## 공연일시

10.05(토) 15: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참가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2024 시간의 진화>는 시간을 단순히 나열하여 보여주는 대신, 시간의 다양한 형태를 의인화하여 재현한다. 사람의 움직임에 시간을 덮어씌워 시간을 시각화하는 시도를 한다. 작품에 사용되는 오브제는 각각의 명확한 의미를 지닌다. 씬마다 달라지는 의상은 현재, 과거, 미래 등 물리적인 시간의 구분을 나타내며, 붓짐은 정형화된 굳어진 시간과 진화된 시간을 의미한다.

## 출연진

김남훈

오주연

김재원

온지윤

장희정

안지영

## 제작진

예술감독 김혜정

연출/안무 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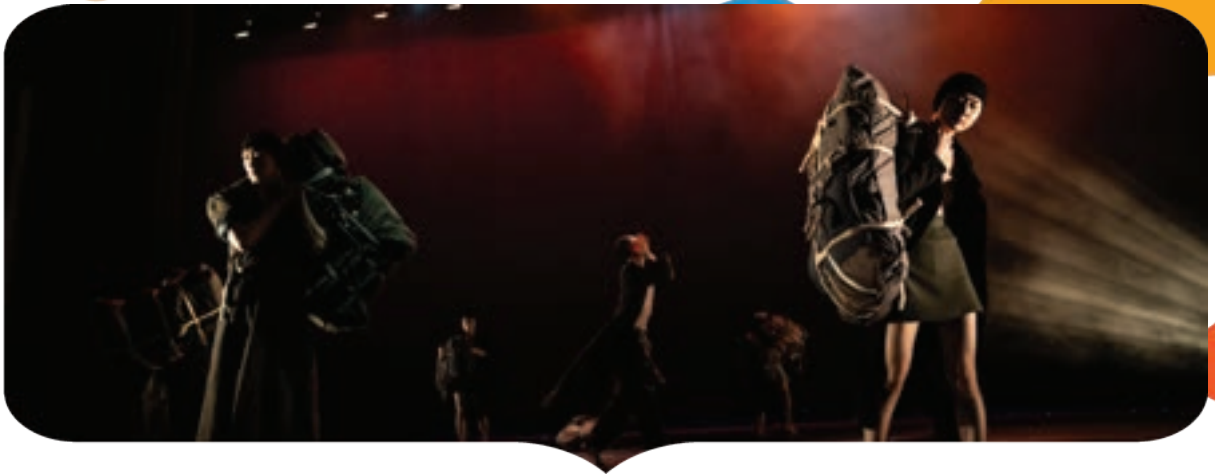
조명감독 허환

작곡 김재덕

의상디자인 최인숙

## 단체소개

블루댄스씨어터2는 '누구나 즐기는', '어울림', '공감', '소통'을 키워드로 하여 무용의 대중화를 지향한다.

**DATE & TIME**

10.05(Sat) 15: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2024 The Evolution of Time> does not simply illustrate the chronological development of time, but also personifies and reinterprets diverse properties of time. In other words, time is visualized by the attempt of covering the bodily movement of a human dancer with the characters of time. Therefore, each of the props and objects appearing in the piece has its own clear use and implication. For example, change of the costumes of each scene symbolizes the physical separation of time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while the fabric-wrapped bundles with different covers refer to standardized or fossilized time and evolved time.

**GROUP INTRODUCTION**

With the keywords of "appreciated by everyone", "harmony of all" "empathy" and "communication", Blue Dance Theater 2 aims to reach a wider range of audience and enable everyone to enjoy contemporary dance.

**CAST**

Namhoon Kim

Juyeon Oh

Jaewon Kim

Jiyun On

Heejung Jang

Jiyoung An

**CREDITS**

**Artistic Director** Heajeong Kim

**Director/Choreographer** Yujin Jung

**Lighting Director** Hwan Hur

**Composer** Jaeduck Kim

**Costume Design** Insook Choi

# 기氣류 Typhoon

언리쉬댄스컴퍼니  
Unleash Dance Company

 unleash\_dancecompany

## 공연일시

10.05(토) 15: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바닷물이 증발하여 공기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위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된다.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공기가 모여 만들어지는 강력한 힘의 움직임인 태풍처럼, 사람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누군가를 만나 각자에게 얽히고 감기다 때로는 다시 풀리기도 하며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인연의 모습을 태풍에 빗대어 표현한다.

## 단체소개

비보이 출신 안무가 김재권이 이끄는 현대무용단 언리쉬댄스컴퍼니는 2023년 대한무용협회 젊은안무자창작공연에서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하고, 예술의전당과 온라인 공연을 통해 무용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물리학을 모티브로 한 언리쉬댄스컴퍼니의 춤은 피지컬하고 역동적인 현대무용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 출연진

김재권

정종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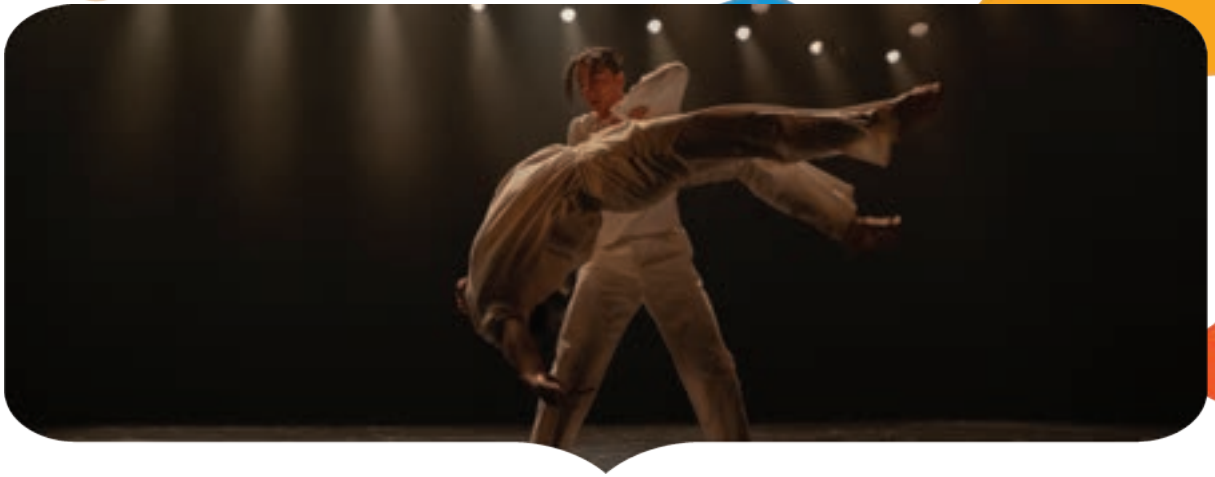
## 제작진

안무 김재권

기획 프로듀서/오퍼레이터 지세영

음악 오페이크

드라마투르그 김경은

**DATE & TIME**

10.05(Sat) 15:5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When the sea water gets heated and evaporates, it further heats the air, which goes up and leaves the empty space. Then the air with lower temperature gets inside the empty space, developing the dynamism of air with different temperatures and forming the intense tropical storm. Likewise, an individual meets another person with different energy, gets involved and intertwined with him/her or sometimes be released. That is how life continues with relationships. The piece suggests an analogy of the karma/connection between humans compared to a tropical storm.

**GROUP INTRODUCTION**

Unleash Dance Company is a dance company focusing on contemporary dance, led by Jaekwon Kim, a former B-boy and choreographer. The dance company received the Jury President's Prize from the 2023 Young Choreographers' Original Stages hosted by the Korea Dance Association and was gradually recognized by the world of contemporary dance through the stages at Seoul Arts Center and online events. The signature dance moves of Unleash Dance Company, which have been inspired by physics, epitomize the physical and dynamic charms of contemporary dance.

**CAST**

Jaekwon Kim

Jongung Jung

**CREDITS****Choreographer** Jaekwon Kim**Creative Producer/Operator** Seyoung Ji**Music** Opake**Dramaturg** Kyeongeun Kim

# Being

## 티유티 댄스 컴퍼니 TUT Dance Company

 tutdc062530705  dance.tut.edu.tw

### 공연일시

10.05(토) 16:1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만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6명

### 출연진

우시  
천용제  
정즈이  
왕용신  
리첸위  
정아원  
저우자원  
우자롱

###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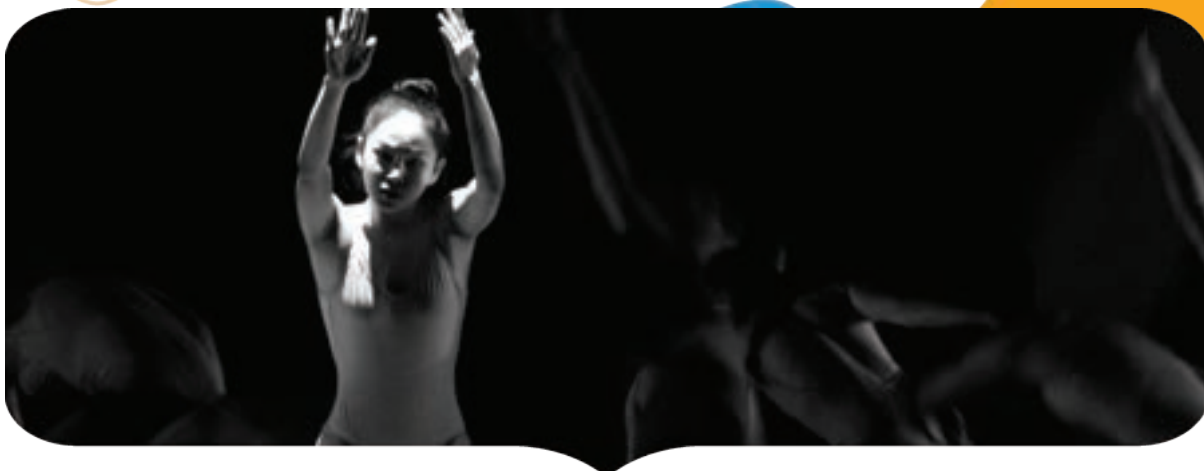
안무 도미니크 평시엔  
영상디자인 코알라 입  
음악디자인 핀다 디 호  
조명디자인 첸하오 커우  
드라마투르그 이화 우  
리허설 보조 완천 창, 아원 정  
영상조감독 관유티  
총괄감독 유치 첸, 이원 옌

### 작품소개

<Being>은 여성 무용수, 뉴스 보도 영상,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사용해 인종 및 국가 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한다. 무용수들은 인간 생명을 상징하며, 세계 갈등과 재앙이 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작품은 유엔 인권 선언문을 현대의 전쟁, 정치적 위기와 비교하며 인권 선언문의 실효성을 묻는다. 이를 통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관객이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성찰하게 한다.

### 단체소개

TUT Dance Company는 엔 평시와 엔 평이가 설립했으며, 대만 현대 무용 창작과 신체 움직임을 연구하며 다양한 국제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 단체의 창작 작품은 대만 문화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DATE & TIME**

10.05(Sat) 16:10

**LOCATION**

Kyung 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Taiw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6

**CAST**

WU, HSI  
 CHEN, YONG-JIE  
 CHENG, CHIH-YI  
 WANG, YUNG-HSIN  
 LI, CHIEN-YU  
 CHENG, YA-YUN  
 CHOU, CHIA YUN  
 WU, CHIA RONG

**CREDITS**

**Choreographer** Dominique Feng Hsi Yen  
**Visual Design** Koala Yip  
**Music Design** Pinda D. Ho  
**Lighting Design** Chien-hao Kou  
**Dramaturg** Yi-Hua Wu  
**Rehearsal Assistant** Wan-Chen Chang,  
 Ya-Yun Cheng  
**Visual Assistant Director** Pan Yu-Ting  
**General Supervision** You-Chi Chen, Yi-Wen Yen

**INTRODUCTION OF THE WORK**

<Being> portrays female dancers, video footage of news reports an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xploring the issues regarding racism and wars. While dancers symbolize the life of human beings, the piece highlights that th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disasters do not only stay in news reports but directly have an impact on our daily life. The piece compares the words and the phrases from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ongoing wars and political crisis and questions the practical efficacy of the declaration. The questions on identities raised here will remind the audience of the situations around themselves and others.

**GROUP INTRODUCTION**

TUT Dance Company, founded by Yan Fengxi and Yan Fengyi, creates Taiwanese contemporary dance, studies bodily movements and hosts a variety of international workshops. The original pieces created by the dance company contain metaphors and implications of the essence of the Taiwanese culture, as the dance company tries to maximize the cultural appeal and facilitate performing arts in the region.

# 흐르다 Flow

갈스댄스컴퍼니  
Gals Dance Company

 galsdancecompany  galscompany.modoo.at

## 공연일시

10.05(토) 16: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정명훈

## 제작진

연출/리허설디렉터 김진우

안무/음악 정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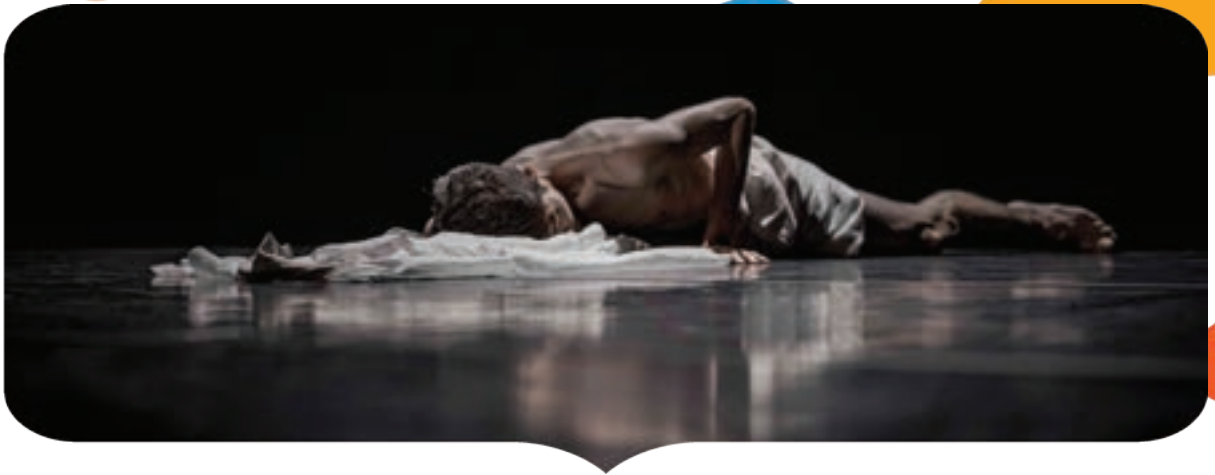
조안무 한지원

## 작품소개

<흐르다>는 '세월이 흐르다'와 같은 시간의 경과를 몸의 물리적 흐름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마치 한 줄기의 계곡물이 무한한 강을 이루는 여정을 담고 있으며, 한국 전통 움직임의 기반인 들숨과 날숨의 호흡으로 시작된다. 숨이 몸의 곳곳으로 퍼지면서 움직임이 확장되고 발현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구현된다.

## 단체소개

갈스댄스컴퍼니는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무용의 표현법과 춤의 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적인 정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인지를 강조한다. 한국무용의 정서와 표현법을 통해 기존의 구태의연한 한국 공연 양식을 탈피하고, 움직임의 근원을 해체하며 실험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6: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Flow> has been inspired by the fact that they say time "flows", as if a visible, physical and tangible thing, like their bodies, flowed and trickled down. The piece stages a long journey of a small stream flowing down to join an endless river, beginning with the breathing in and out, which are the fundamental basic units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s. As the breathed air spreads throughout the entire body, consecutively, the bodily movements on the stage expand and develop.

**GROUP INTRODUCTION**

Based on the shared Korean traditional sentiments, Gals Dance Company highlights the authentic expressive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origins of the traditional dance. In the end, we would like to prove that the traditional Korean sentiments are competitive elements for creating a content reaching the international audience. Escaping the stereotypes of performing arts stages in Korea by utilizing the signature sentiments and expressive methods of traditional Korean dance, pulling apart the fundamental essence of dance moves, and trying a wide variety of experimental attempts, we are creating and suggesting a unique and original genre of our own.

**CAST**

Myunghun Jung

**CREDITS****Director/Rehearsal Director** Jinwoo Kim**Choreographer/Music** Myunghun Jung**Assistant Choreographer** Jiwon Han

#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

## A zebra that runs through the grassland

이민근  
Mingeun Lee

 \_dlalsrms

### 공연일시

10.07.(월) 13: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참가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이민근

### 제작진

안무 이민근

음향 김민지

조명 전은정

### 작품소개

어렸을 적 엄마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꿈은 멋있는 사자도, 용감한 호랑이도 아닌 도망만 다니는 겁쟁이 얼룩말이었다. 왜 얼룩말이 되고 싶었는지 문득 궁금했다. 어린 소년에게 맹수에게서 도망치는 얼룩말의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작품은 얼룩말에 자신을 투영하며 성장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얼룩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다.

### 단체소개

안무가 이민근은 현재 계명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다. 2024년 제26회 전국차세대안무가전 대상작 <Pause>에 출연하여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제14회 부산국제춤마켓 ‘대한민국 청춘챌린지’ BIDAM <인생은 아름다워!>에 출연했다. 또한 제2회 안성국제신인작가전 수상작 <그건 풋내기 시절 분별력은 미숙하고, 정열도 일지 않던 무렵의 이야기기>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ATE & TIME**

10.07.(Mon) 13: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When I was little, my mom asked me,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 grow up?" At that time, to be honest, my dream was not to be a powerful lion or an intimidating tiger, but a cowardly zebra that runs away quickly. Looking back on my childhood, I wondered why I wanted to be a zebra. Then I was reminded that the young boy found the zebra successfully running away from its predators carefree. Through the image of the boy projecting himself onto a zebra, the piece portrays the process of growing up as a completely carefree zebra.

**GROUP INTRODUCTION**

Mingeun Lee is a choreographer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Dance of Keimyung University, who was featured in "Pause", which received the Grand Prize from the National Next Generation Choreographers Competition hosted by Daegu Branch of Korea Dance Association, and received the Best Acting Prize. The artist was also featured in <Life Is Beautiful!> from BIDAM Korean National Young Dance Challenge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Dance Market, and <That Was when I Was an Ignorant Novice, Careless and even Apathetic>, which was awarded from Anseong International New Artists Competition. Lee is continuing to expand the oeuvre by participating in a wide variety of performing arts stages.

**CAST**

Mingeun Lee

**CREDITS**

**Choreographer** Mingeun Lee

**Sound** Minji Kim

**Lighting** Eunjung Jeon

# 본질적인 Intrinsic

윤승민  
Seungmin Yoon

## 공연일시

10.07.(월) 13:4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작품소개

시작된 맥박은 삶의 시작과 끝을 암시하는 메시지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 몸의 벽 안에 감춰진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영혼의 실체와 마주하는 순간, 이 호흡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 단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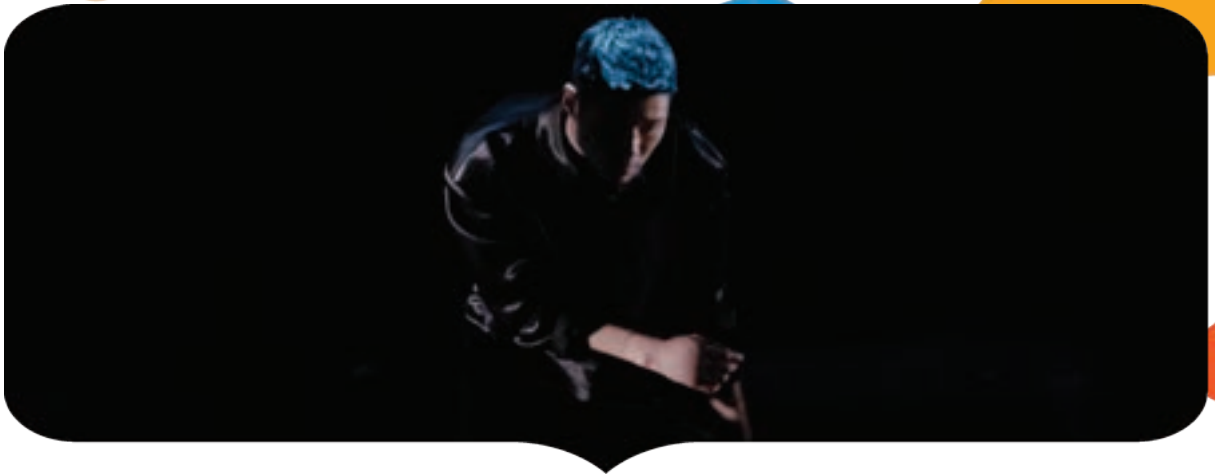
안무가 윤승민은 LDP무용단 소속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현대무용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출연진

윤승민

## 제작진

안무/음악 윤승민

**DATE & TIME**

10.07.(Mon) 13:4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pulse that has begun serves as the message imply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life. From the present moment that seems eternal, could anyone look into the space concealed in the barrier of his/her own body? As you face the reality of your own soul, you will recognize the truth of the breath.

**GROUP INTRODUCTION**

Seungmin Yoon is a choreographer from Dance Company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The artist has been actively creating after having graduated from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of the Department of Dance Performance,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AST**

Seungmin Yoon

**CREDITS**

**Choreographer/Music** Seungmin Yoon

# 유토피아 2: 달콤한 꿈 Utopia 2: Sweet Dreams

보에티아트컴퍼니  
Boety Art Company

 boetyartcompany

## 공연일시

10.07.(월) 14:0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마치 수족관에 갇힌 외로운 물고기가 된 것처럼 살아있음에도 살아가지 못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의 선율은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이내 불협화음을 내며 무너져버린다. <유토피아 2: 달콤한 꿈>은 이러한 물음을 통해 고립과 해방, 그리고 진정한 연결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 단체소개

보에티 아트 컴퍼니는 '몸으로 시를 짓는 예술단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Boety'는 Body와 Poet의 혼성어다. 2022년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창단한 이래, 가녀린 선에 깊은 울림이 깃든 몸의 시를 써오고 있다. 보에티 아트 컴퍼니의 언어가 더 넓은 세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정적이고 진실한 이야기를 몸짓 언어로 써 내려간다.

## 출연진

서하람

어진주

이중환

이화영

## 제작진

안무 이화영

음악 홍지예

매니저 박재균

**DATE & TIME**

10.07.(Mon) 14:0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Like a lonely fish locked in an aquarium tank, I am not living even though I am still alive. The rhythm of the blind pursuit without looking back ends up getting stuck, eventually hearing the disharmony and having the breakdown. <Utopia 2: Sweet Dreams> poses questions of such life, reflecting on isolation, liberation and being really connected with others.

**GROUP INTRODUCTION**

"Boety" a portmanteau of "body" and "poet", which means Boety Art Company would like to be an art company writing poetry through the bodily movements. Since it was founded by young artists in 2022, it has been writing bodily poetry with profound resonance preserved in the delicate lines of the dance moves. Wishing to let the signature language of Boety Art Company travel the larger world and reach a wider audience, the company keeps writing a passionate and genuine narrative with the language of body.

**CAST**

Haram Seo

Jinju Eo

Jonghwan Lee

Hwayeong Lee

**CREDITS****Choreographer** Hwayeong Lee**Music** Jiye Hong**Manager** Jaekyun Park

# 잠 못 자 죽어가는 마네킹 A sleepless, Dying Mannequin

아도  
adDO

 addo\_archive

## 공연일시

10.07.(월) 14:2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 작품소개

인간의 인생에서 '일'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은 만족감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몰두하면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마저 잃게 된다. <잠 못 자 죽어가는 마네킹>은 현대인이 흔히 앓고 있는 '일 중독'을 마네킹에 비유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 단체소개

'아도'는 '더하다'를 의미한다. '아도'는 끊임없이 세상에 예술적인 감각과 사유를 더해, 보다 풍요로운 예술적 세상을 지향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무용수 9명이 협력하여 '아도'를 창립한 이후, 현대무용 분야에서 젊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 신체의 감각과 현시대의 흐름, 그리고 내용 탐구에 중점을 두며,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세상과 공감한다.

## 출연진

권용희

김정연

설은주

이효정

김단

류우진

박정은

빈서연

**DATE & TIME**

10.07.(Mon) 14:2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CAST**

Yonghee Kwon  
Jeongyeon Kim  
Eunjoo Seol  
Hyojeong Lee  
Dan Kim  
Yujin Ryu  
Jungeun Park  
Seoyeon Bin

**INTRODUCTION OF THE WORK**

"Work" takes up a large share of an individual's life. While work gives satisfaction and social approval, overindulgence into it may even eradicate the self-recognition of his/her own existence. Through an analogy of comparing a workaholic, which many contemporary people end up becoming, to a dead mannequin, the piece raises a philosophical question on the real meaning and objective of life.

**GROUP INTRODUCTION**

"Addo" means "to add". Therefore, adDO is a dance company that continuously tries to add artistic sensation and contemplation to the world, to make a richer and more artistic world. Since nine dancer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have collaborated to found adDO, the company has pioneered an independent path in the world of contemporary dance with its youthful energy. Focusing on the bodily sensations, trends of the contemporary time, and exploration on what should be inside, the company creates distinctive original piece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 멍석말이 Homo Sacer

하현봉  
Hyunbong Ha

 undergroundcactus

## 공연일시

10.07.(월) 14:4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하현봉

## 제작진

안무 하현봉

조명감독 정인국

스태프 황정은

음악 김오키, 우지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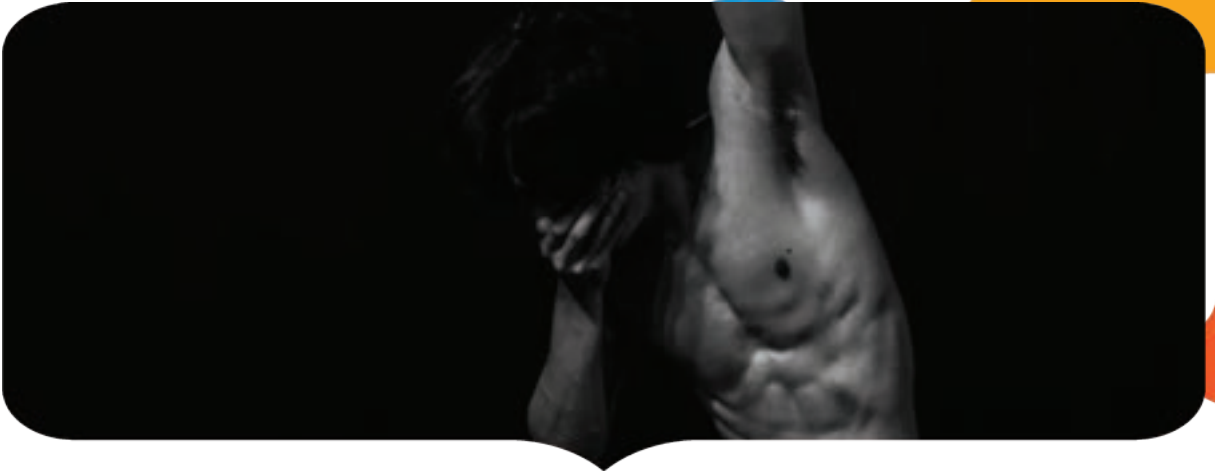
도움 김오키 피오디

## 작품소개

전통적인 멍석말이는 사람을 멍석에 말아 집단이 못매질하여 교정하는 습속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멍석말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집단적 단죄 행위로 변모했다. 사실보다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며, 진실을 찾기보다는 단죄의 대상을 찾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 단체소개

하현봉은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작업한다. 작품 안에 이야기를 풀어내고, 오브제와 연출 등 다양한 표현을 녹여내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한다.

**DATE & TIME**

10.07.(Mon) 14:4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traditional meongseok mari (lit. "rolling in a straw mat") was to correct a certain wrongdoing by punishing the convicted and showing him/her to people as an example by wrapping him/her in a straw mat and making the crowd beat the rolled mat. However,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boundary between the predator and the victim is unclear, as the general public easily finds someone guilty and judges him/her online. "Modern meongseok mari" seems quite common, as the general public often focuses on what is visible to them than the facts, and they look for a scapegoat to punish rather than the truth. However, do we ever have such a right to judge others?

**GROUP INTRODUCTION**

Hyunbong Ha creates works based on integrity and empathy. The artist aims to narrate a coherent story in a work and incorporate a wide variety of expressive methods such as objects and direction, so that the spectacles in the entire stage look like watching a well-made feature film.

**CAST**

Hyunbong Ha

**CREDITS****Choreographer** Hyunbong Ha**Lighting Director** Inguk Jeong**Staff** Jeongeun Hwang**Music** KimOki, usicove sound**Help** KimOki POD

# 알레오 Alleo

콜렉티보 글로보  
Colectivo Globo

 colectivoglovo

 colectivoglovo

 colectivoglovo.com/en

## 공연일시

10.07.(월) 14:5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포르투갈&스페인

## 투어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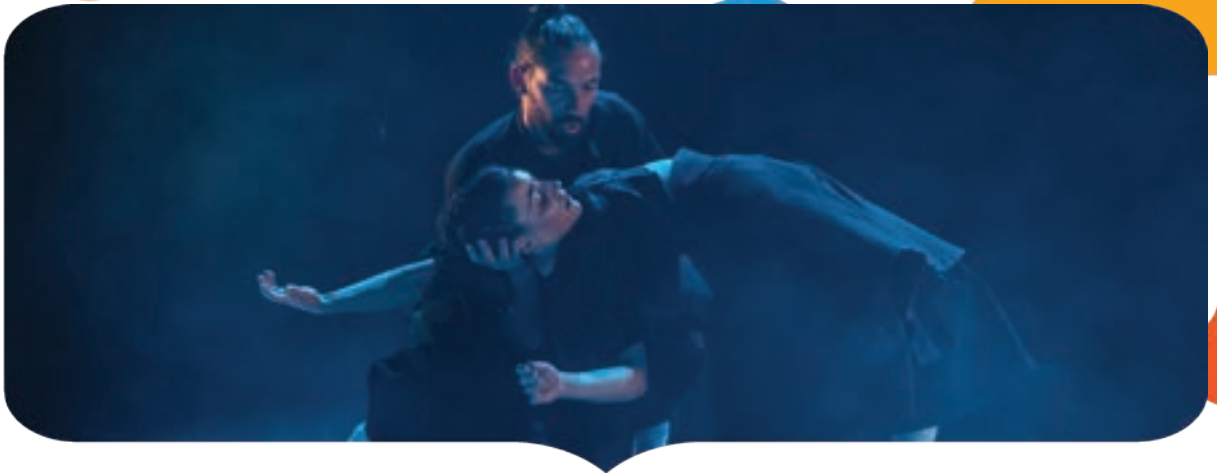
출연자 2명

## 작품소개

<Alleo>는 감시탑의 개념을 모티프로 삼아 창작된 작품이다. 감시탑의 '특권적' 위치와 그곳에서 관제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조건에서 출발하여, 두 무용수의 몸짓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선점하는 권력, 그리고 혼자 감시탑에 머무르는 고독과 외부인을 먼저 발견하는 임무의 중대성 등 감시탑에 홀로 선 관제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Alleo>는 2023년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 단체소개

콜렉티보 글로보는 스페인 갈리시아와 포르투갈 출신 아티스트들로 이루어진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에서 활약하는 현대무용단으로, 휴고 페레이라와 에스테르 라토레가 공동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창단 이래 콜렉티보 글로보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했으며, 뛰어난 작품으로 유럽 전역의 다양한 무용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무용단 콜렉티보 글로보의 무용수이자 연출가, 안무가인 휴고 페레이라와 에스테르 라토레는 각자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오랫동안 활약해 왔다. 세계 여러 무용단의 순회 공연에서 연출가, 안무가, 무용수로 활약했으며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지원금 대상에 선정되며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다.

**DATE & TIME**

10.07.(Mon) 14:5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Portugal&amp;Spai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CAST**

Esther Latorre

Hugo Pereira

**CREDITS****Choreographer/Director**

Esther Latorre, Hugo Pereira

**INTRODUCTION OF THE WORK**

<Alleo(alien)> is based on the idea of the watchtower. It starts from the conditioning of the "privileged" position of the tower and who played the role of watchman. We inhabit both bodies: the power granted by the knowledge of the unknown and what was to come as well as the loneliness of that position and the weight of the discovery of the alien. Since 2023, several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pain, Portugal, Italy, and Costa Rica, have been introducing <Alleo>.

**GROUP INTRODUCTION**

We are the company Colectivo Glovo, a Galician-Portuguese dance company based in Galicia, co-directed by Hugo Pereira and Esther Latorre. Since its foundation, Colectivo Glovo has toured different countries such as Spain, Portugal, Italy, Mexico, Costa Rica, among others. With their pieces they have received different mentions and awards in festivals all over Europe. Hugo Pereira and Esther Latorre are the dancers, directors and choreographers of the company, with a long individual career, being part of several tours of different companies around the world, receiving several awards, mentions, grants...

# 룩 백 ver.2 Look Back ver.2

김제영  
Jeyoung Kim

 do\_yeoll

## 공연일시

10.07.(월) 15:1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작품소개

고개를 숙이고 등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되묻는다. 자신보다 타인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가 점차 상실됨을 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이기심이 확장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커다란 사회구조 속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단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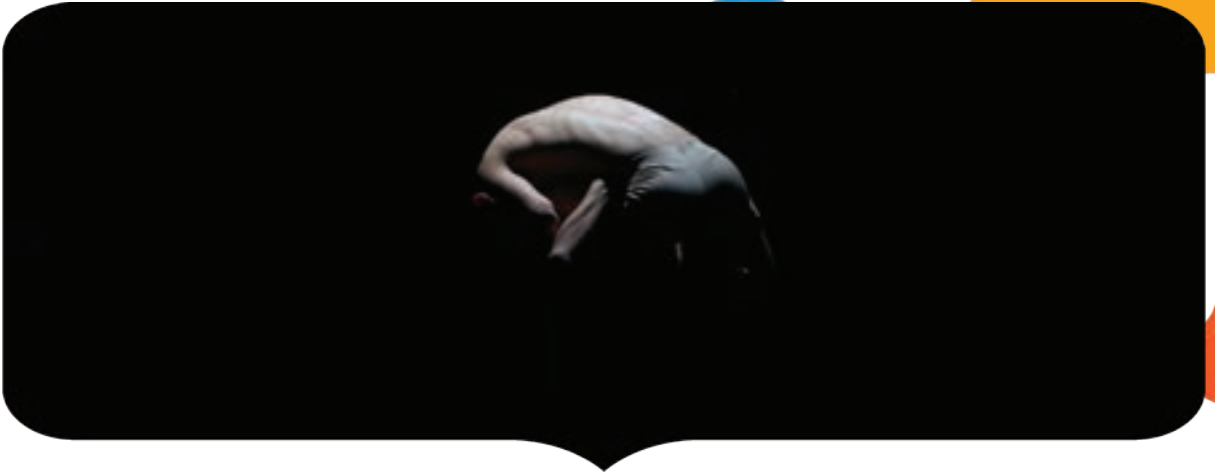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하는 김제영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융합하는 정체성을 추구한다. 작품마다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며, 몸의 다양한 방법론을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 출연진

김제영  
백두산

## 제작진

안무/연출 김제영  
작곡 퍼스트 톤, 이브 드 메이

**DATE & TIME**

10.07.(Mon) 15:1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Lowering my head and looking back, I ask myself again what I am. I often find myself seeing others more than myself, forgetting myself until my own existence is forgotten and almost disappears, and only going forward without any objective but with maximized selfishness. Then I end up wondering what a human being is. Likewise, in the macrostructure of society that isolates individuals, I would like to ask you who you are, as a human being.

**GROUP INTRODUCTION**

Choreographer and dancer Jeyoung Kim does not only accommodate the properties of a wide variety of genres of arts, but also builds his unique identity by converging and merging them. Each piece is created as a project with collaborating artists, upgrading its level of completion by adopting diverse methodologies of bodily mov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CAST**

Jeyoung Kim  
Doosan Baek

**CREDITS**

**Choreographer/Director** Jeyoung Kim  
**Composer** First tone, Yves De Mey

# 에피파니 Epiphany

하선애  
Senhea Ha

 senhea.ha.1

## 공연일시

10.07.(월) 15:3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하선애

## 제작진

안무 하선애

음악 조르지 리게티

사진 김사랑

## 작품소개

<Epiphany>란 순수하고 영원한 본질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는 현현(顯現)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머무르는 시간과 장소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차분한 명상을 자아내는 침묵 속에서 형태가 있거나 없는 것들이 유연하게 표현되며 인체는 온 우주가 움직이게 해주는 동력의 본질을 마주하려는 몸짓을 이어간다.

## 단체소개

UCLA에서 무용인류학과 안무법 & 퍼포먼스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하선애는 예송춤타원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한국-인도네시아 TBS댄스씨어터의 예술감독 및 상임안무가로도 활동 중이다. 미국 알마홉킨스 안무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이탈리아 작곡가 프랑코 바티아토의 오페라 <Telesio>의 안무를 맡아 출연한 경력이 있다. 또한 피나 바우쉬 탄츠씨어터의 초청으로 International Tanzfestival NRW에 참가하여 우수한 역량을 선보였다.

**DATE & TIME**

10.07.(Mon) 15:3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2

**CAST**

Senhea Ha

**CREDITS****Choreographer** Senhea Ha**Music** Gyorgy Ligeti**Photographer** Sarang Kim**INTRODUCTION OF THE WORK**

<Epiphany> is an expression of pure eternal essence manifesting in the body. This dance describes a place of repose where a woman discovers her own spiritual sacred space and time. Through meditative silence, fluidity of both form and formlessness, the body prepares to meet the essence of the universe to become energized.

**GROUP INTRODUCTION**

After receiving her master's degree in dance ethnography and dance performance and choreography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enhea Ha is active as the president and art director of Yesong Dance Town, also working as the art director and senior choreographer of Korea-Indonesia TBS Dance Theater. Proving talents and capabilities at many opportunities, the artist received an Alma Hopkins Choreography Prize of the US, was featured in 2011 as a choreographer of <Telesio>, an opera composed by Italian composer Franco Battiato, and was invited to the Pina Bausch International Tanz Theater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Tanz Festival NRW.

# 나의 4년 4계절 My 4years and 4seasons

배현우  
Hyeonwoo Bae

 b\_w.o.0

## 공연일시

10.07.(월) 15:5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1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배현우

## 제작진

안무/연출 배현우  
드라마투르그 이가영

## 작품소개

<나의 4년 4계절>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며, 추상적이지만 감정적인 몸짓, 비언어적 의사소통, 움직임과 분위기를 구현한다. 이 작품에서 배현우는 타인을 위한 춤이 아닌, 자신을 위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는 틀 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능동적으로 나타내며, 마치 광대처럼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길 원한다. <나의 4년 4계절>은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사랑받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단체소개

배현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예술사 실기와 현대무용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사 실기와 현대무용 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현재 LDP 무용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2021/2022, 2022/2023 시즌 동안 독일 카셀 주립 무용단(Staatstheater Kassel, Tanz Kassel)의 단원으로, 그리고 2019/2020, 2020/2021 시즌 동안 독일 포르츠하임 시립 무용단(Stadttheater Pforzheim)의 단원으로 활동했다

**DATE & TIME**

10.07.(Mon) 15:5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1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My 4 Years and 4 Seasons> portrays our intrinsic emotions, through abstract but sentimental dance move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he embodiment of the relevant movements and moods. In this piece, Hyeonwoo Bae would like to have time in which he does not simply dance for others but consoles himself and talks about himself. The artist expresses himself actively and freely without reservation or any preset frames. Like a street clown, he wants the audience to see him as the way he is without trying to define the intended meanings. As such, <My 4 Years and 4 Seasons> delivers the universal message of "No matter what we really are, we deserve to be loved and understood".

**GROUP INTRODUCTION**

Hyeonwoo Bae graduated from the undergraduate program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at the Department of Dance Performance,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is now doing his MFA program in contemporary dance at the same department. The artist is also a member of Dance Company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after being a member of Staatstheater Kassel, Tanz Kassel in Germany in during the regular seasons in 2022/2023 and 2021/2022 and being a member of Stadttheater Pforzheim during the regular seasons in 2019/2020 and 2020/2021.

**CAST**

Hyeonwoo Bae

**CREDITS****Choreographer/Director** Hyeonwoo Bae**Dramaturg** Gayoung Lee

# 논픽션 Nonfiction

디아트리베  
Diatribae



## 공연일시

10.07.(월) 16:1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김나의  
조현도

## 제작진

안무/연출 김나의, 조현도

## 작품소개

<논픽션>은 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과 표현에는 작가의 주관, 해석, 그리고 창의적 요소가 반영된다. 따라서 '논픽션' 안에는 '픽션'이라는 상상과 창의성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과 상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디아트리베는 춤과 삶 속에 녹아있는 허구적 사실성을 탐구하며, 인간의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 단체소개

디아트리베는 다채로운 시각에서 예술적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고 참신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DATE & TIME**

10.07.(Mon) 16:1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CAST**

Naeui Kim

Hyundo Jo

**CREDITS**

Choreographer/Director Naeui Kim, Hyundo Jo

**INTRODUCTION OF THE WORK**

<Nonfiction> refers to a genre of literature based on facts, actual events, or real people, not a completely fictional story created by the writer. However, even though a nonfiction novel is based on a real event, the way the narrative is delivered and expressed depends on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and creative approach of the writer. Therefore, it is fair to say that imagination and creativity of "a fictional work" is also incorporated in a nonfiction work.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facts and imagination, Diatribe explores the "fictional reality" that dance and life contain, and delivers an even more honest and unreserved speech about human emotions.

**GROUP INTRODUCTION**

Diatribae is a dance company founded with an aim to realize artistic communication from a wide variety of perspectives. Starting from a small and trivial curiosity, it would like to deliver a universal narrative that everyone would be in communion with, through an honest and unreserved manner.

# 버티- Withstand-

황서영  
Seoyoung Hwang

 3eo\_\_o

## 공연일시

10.07.(월) 16:3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황서영

## 제작진

안무 황서영

연출 공시선

음악 고티에, 호소노 하루오미

사진 옥상훈

## 작품소개

<버티->는 긴 체형의 댄서와 푸른색 고무장화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무대를 압도한다. 황서영은 이 작품에서 고무장화를 움직임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장화를 힘겹게 이동시키거나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쉬는 등의 동작을 통해 고통과 해방을 표현한다. 장화 속에서 치마를 꺼내는 등의 창의적인 오브제 활용이 돋보이며,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단체소개

황서영은 몸으로 생각하는 꿈 많은 무용수이자 연기자를 꿈꾸며, 이 시대의 예술을 위한 물음에 끊임없이 답을 찾아나간다. 작은 몸짓으로 거센 무용계에 움직임을 더해가며, 2024년 첫 솔로 작품인 <버티->로 데뷔하였다.

**DATE & TIME**

10.07.(Mon) 16:3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intense visual image of a tall and slender dancer wearing a pair of blue rubber rain boots overwhelms the stage in <Withstand->. As Seoyoung Hwang uses the boots as the device to add change to the dance moves, the distinctive moves such as the arduous attempts to move and drag the boots, lowering her head and breathing raggedly highlight pain and liberation in life. While the creative use of the stage objects, such as taking the hidden skirt out of a boot, are notable and impressive, the piece conveys the universal message of "Slow and steady will take you to a better day".

**GROUP INTRODUCTION**

Seoyoung Hwang aims to be an ambitious and imaginative dancer and actress, trying to continuously find an answer to every question for art that serves the contemporary world. Adding meaningful movements to the rough world of contemporary dance with the small and delicate dance moves, the artist debuted with her first solo piece <Withstand-> in 2024.

**CAST**

Seoyoung Hwang

**CREDITS**

**Choreographer** Seoyoung Hwang


**Director** gomsisun

**Music** Gotye, Haruomi Hosono

**Photographer** Sanghoon Ok

# 갈라테이아 II Galatea II

조혜정에이치엠  
ChohyejungHM

 hyejungeeeeeee

 chohyejunghistoricalmemories

## 공연일시

10.07.(월) 16:5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3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적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3명

## 작품소개

'피그말리온 효과'는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 피그말리온과 그의 이상적인 조각상 갈라테이아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조혜정에이치엠은 이 작품에서 갈라테이아의 관점에 주목하여, 타인의 기대에 의해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여성을 부정하고, 자유롭게 강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여성상을 표현한다.

## 단체소개

조혜정에이치엠(ChohyejungHM)은 '역사적 기억'을 의미하는 'Historical Memories'의 약자로, 조혜정이 살아온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관객들이 조혜정에이치엠의 작품을 통해 의미 있는 기억의 일부를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DATE & TIME**

10.07.(Mon) 16:5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3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3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Pygmalion effect, named after the eponymous Greek myth of sculptor Pygmalion and his ideal statue Galatea,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that high expectations lead to realization of what you have desperately wished and worked hard for. ChohyejungHM has reinterpreted the Greek mythology from the view of Galatea, denying the stereotypical gender role imposed to women who are expected to follow the passive path as expected by society. Instead, the work highlights a new contemporary model of women, who lead their life according to their carefree and undaunted will.

**GROUP INTRODUCTION**

"HM" of ChohyejungHM is an abbreviation of "Historical Memories", implying that the dance company will incorporate the memories of the historical moments from the life of Hyejung Cho. Moreover, hopefully, the oeuvres of ChohyejungHM will let the audience share part of the meaningful historical memories that the dancer and choreographer cherishes.

**CAST**

Hyejung Cho

**CREDITS**

**Choreographer** Hyejung Cho

**Music** Heesook Seo

## 적당한 침묵 Moderate Silence

현대무용단 '자유'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

 dancecompany\_jayu

### 공연일시

10.07.(월) 17:1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적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적당한 침묵>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 단체소개

현대무용단 '자유'는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매회 새롭고 다양한 공연을 시도한다. 자연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넓히고 무용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출연진

이혜리  
하주은  
황세민  
김규나  
박수인  
최혜빈  
김다영  
김나연

### 제작진

안무 이언주  
음악 황세민

**DATE & TIME**

10.07.(Mon) 17:1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Moderate Silence> incorporates the message encouraging the audience to look deeply inside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 community. In the noisy and crowded world, moderate silence will inspire us to look back into ourselves.

**GROUP INTRODUCTION**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 (lit. "freedom/liberty")" has continued its creative career and experimented with a unique stage of a wide variety of diversity at every opportunity. Inspired by nature and focusing on the rich content, the dance company aims to expand the range of audience nationwide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world of contemporary dance.

**CAST**

Hyeri Lee  
Jueun Ha  
Semin Hwang  
Gyuna Kim  
Soojin Park  
Hyebin Choi  
Dayoung Kim  
Nayeon Kim

**CREDITS**

**Choreographer** Eonju Lee  
**Music** Semin Hwang

# 아리랑 판타지 프런티어 Ariang Fantasy&Frontier

골든 앙상블  
Golden Ensemble

 golden\_ensemble

## 공연일시

10.06.(일) 13:3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9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참가인원

출연자 5명

## 출연진

바이올린 김푸름, 김진태

비올라 이현준

첼로 박수민

가야금 엄하연

## 제작진

편곡 김혜미

## 작품소개

<아리랑 판타지 프런티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을 한국 특유의 색채와 동서양의 조화를 아우르는 편곡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이 곡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24년 4월 26일 부산음악대축제 '실내악의 밤'에서 초연되었으며, 2024년 5월 15일 김해공항 5월 문화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연주되었다. 초연 당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 단체소개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진 골든 앙상블은 부산 출신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양악기와 국악기 연주자가 모여 각 악기의 음악적 기량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한다.

**DATE & TIME**

10.06.(Sun) 13:3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9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INTRODUCTION OF THE WORK**

<Ariang Fantasy & Frontier> is a uniqu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orean folk song "Arirang" with signature Korean tunes and distinctive rearrangement harmonizing charms of both Western and East Asian music. As such, the creative variation has been loved by a wide variety of audienc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and ethnic backgrounds. Premiered on April 26th, 2024 at "the Night of Chamber Music" of Busan Music Festival and staged again on May 15th, 2024 in the May Cultural Events of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the piece was applauded at the premier for successfully portraying the beauty of Korea.

**GROUP INTRODUCTION**

Golden Ensemble, meaning "invaluable like gold and special like being together (ensemble) coincidentally", is a musical band of Busan-based young musicians, who try to maximize the level of completion of each musical instrument and experiment with a wide variety of music.

**CAST**

**Violin** Pureum Kim, Jintae Kim

**Viola** Hyunjun Lee

**Cello** Soomin Park

**Gayageum** Hayeon Eom

**CREDITS**

**Arrangement** Hyemi Kim

# 함께 아리랑 With Arirang

아카펠라그룹 위드  
Acappella Group W.I.T.H.

 withacappella

## 공연일시

10.06.(일) 14:0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테너 김태현

소프라노 최규남

알토 정연우

베이스 박경준

## 제작진

매니저 박진실

## 작품소개

아카펠라그룹 위드는 신이 주신 최고의 악기라 불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아카펠라로 관객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함께 아리랑>이라는 작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인 '희노애락'을 음악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단체소개

아카펠라그룹 위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어우러지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평론가들에게 '마음까지 치유하는 하모니'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재즈, 보사노바,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하며, 아카펠라 고유의 감각을 가미한 대중적인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행복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DATE & TIME**

10.06.(Sun) 14:0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Acapella Group W.I.T.H. conveys delight to the audience through the “unaccompanied human voices”, which are called the best musical instrument that the creator of the world built in. In particular, <With Arirang> portrays the basic universal feelings human beings have throughout life—delight, anger, sadness and joy, which the audience, regardless of age and nationalities, would empathize with.

**GROUP INTRODUCTION**

Acapella Group W.I.T.H. is an a cappella band that plays only the human voices, the musical instrument that are essentially said to be the most beautiful. Having acclaimed with the critical reception of playing “the harmony that even heals the soul”, the band, which basically bases its repertoires on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jazz, bossa nova, pop and classical music, adds signature tones of the unaccompanied polyphonic music to reach the wider audience and offer them pleasant delight of music.

**CAST**

**Tenor** Taehyun Kim

**Soprano** Kyunam Choi

**Alto** Yeonwoo Jung

**Bass** Kyungjun Park

**CREDITS**

**Manager** Jinsill Bak

# 마지막 환경 Last Environment

창작국악 깃:든  
Git-deun

 muzit\_jyg

## 공연일시

10.06.(일) 14:35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해금 이경은

25현 가야금 이송이

타악 김지혜

가야금/키보드 지연겸

플루트 김다연

## 제작진

작곡/연출 지연겸

음향 김신애

큐 오퍼레이터 김소욱

## 작품소개

창작국악 깃:든은 환경 보호를 위해 천연 수세미 사용 등 작은 실천을 이어오며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다. 이러한 고민을 <마지막 환경>이라는 창작곡을 통해 황폐화되어 가는 지구의 모습을 국악으로 표현하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 단체소개

창작국악 깃:든은 장르를 결합한 퓨전 국악과 전통을 발전시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창작하고 있다. 단원들은 각자 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교육 강사,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4:35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Members of the creative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Git-deun" have been concerned profoundly about the ecosystem and continued small but meaningful things from daily life to conserve the environment, such as using the environment-friendly reusable hand-crocheted washcloths. Reflecting such concerns, the band has written an original piece <Last Environment> to portray how the Planet is being destroyed and deforested through the harmony of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further raising awareness of and promoting the gravity of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climate crisis.

**GROUP INTRODUCTION**

Creative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Git-deun" converges and merges genres to stage a distinctive "fusion gugak" and create original pieces by developing elements from the traditional music that can reach the wider audience. Each member of the gugak band is active in a variety of creative arts and culture fields, such as instructors of arts education and arts directors of performing arts stages.

**CAST**

Haegeum Kyungeun Lee

25-string Gayageum Songyi Lee

Percussion Jihye Kim

Gayageum/Keyboard Yeongyeom Ji

Flute Dayeon Kim

**CREDITS**

Composer/Director Yeongyeom Ji

Sound Shinae Kim

Cue Operator Souk Kim

## 제祭:Je

카마  
K.A.M.A. kmusic\_kama공연일시

10.06.(일) 15:10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러닝타임

15분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국가

대한민국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출연진

타악/보컬 정다휘

대금 공경환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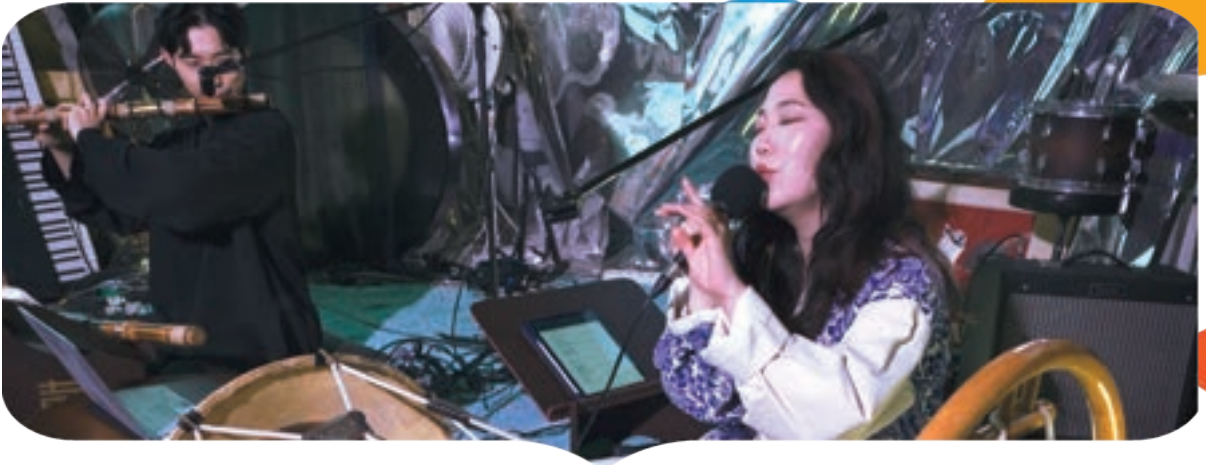
기획 강기원

작품소개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한과 남겨진 자의 슬픔을 씻어내는 '죽음'을 매개로 한 제의이다. 이번 작품은 씻김굿을 죽음의 영역이 아닌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의로 재해석한다. 또한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축원을 전하는 축제의 형태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단체소개

카마(K.A.M.A., Korean Ancient Music fActory)는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단체이다. 카마는 진도 씻김굿과 같은 전통음악을 일렉트로니카와 융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다채로움을 결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기쁨과 응원을 나누는 음악을 들려준다.

**DATE & TIME**

10.06.(Sun) 15:10

**LOCATION**

Kyung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Jindo Ssitgimgut (lit. a shamanist purification ritual from Jindo Island) is a commemorative ritual using "death" as the medium, which aims to console the regrets of the deceased and purify the devastated souls of the bereaved. Moreover, the piece does not restrict the commemorative purification ritual in the domain of death, but brings it to the domain of living people, completely reinterpreting the ritual as the purifier and rejuvenator of the feelings of the living people who are stressed and exhausted. Furthermore, the ritual is evolved as a celebration inviting the audience to feel delight and share their wishes for a splendid tomorrow.

**GROUP INTRODUCTION**

K.A.M.A. (Korean Ancient Music Factory) is a crossover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that reinterprets gugak with a fresh and contemporary touch to create a unique sound. Well-known traditional pieces, such as Jindo Ssitgimgut (lit. a shamanist purification ritual from Jindo Island) are converged and merged with contemporary electronica to form a distinctive sound with the intricate harmony of tradition and contemporaneity. Merging the profound epitome of tradition and the diversity of the contemporary world, the band stages the music that purifies the soul of the audience and shares delight and encouragement with them.

**CAST**

Percussion/Vocal Dahwi Jeong


Daegeum Kyoungwan Kong

**CREDITS**

Promotor Giwon Kang

# 처랏 -! Hit it -!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Yeonhee Performance Group Cheer Art

 cheer\_\_art  chee-rart.netlify.app

## 공연일시

10.05.(토) 16:5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 출연진

김준호

김재현

박성규

고희창

김민국

## 작품소개

전통 연희를 모티브로 새롭게 구성된 연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다양한 장단과 구성력, 그리고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를 통해 전통적인 국악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나는 K-performance를 창조한다. 사물놀이의 신명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채롭고 즐거운 공연을 추구한다. 마임, 댄스, 퍼포먼스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 단체소개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희 단체이다. '처랏'은 환호를 의미하는 'Cheer'와 예술을 의미하는 'Art'를 조합하여 'Cheer Art'로 지어졌으며, '악기를 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연희의 장단과 정서에만 몰두하지 않고, 관객이 다채롭게 빠져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단순하고 직관적인 즐거움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DATE & TIME**

10.05.(Sat) 16:50

**LOCATION**

Kyung 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INTRODUCTION OF THE WORK**

Providing intricate and uniqu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orean yeonhee (lit. "stage of tricks") performances, the group creates a new K-performance full of contemporary vibes beyond stereotypes of the traditional gugak (lit.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diverse rhythms, sophisticated composition and ambitious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genres. Not simply restricting itself in the signature thrill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s such as samul nori (lit. play of four musical instruments), the band, which is capable of performing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mime to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ing arts, aims to offer a more diverse and pleasant stage.

**GROUP INTRODUCTION**

Yeonhee Performance Group Cheer Art is a traditional Yeonhee (lit. "stage of tricks"), whose name, "Cheer Art", is composed of "cheer" and "art", but is also a homophone of "cheorat", the Korean imperative verb meaning hitting or strumming on a musical instrument, such as a drum. Not just restricting itself in the signature rhythms and sentiments of the traditional genre, the group aims to stage a performance that offers a wide variety of joys and immerses the audience by conveying the simple and intuitive means of delight.


**CAST**

Junho Kim  
Jaehyeon Kim  
Sungkyu Park  
Heechang Ko  
Minkuk Kim

# 우아한 남자 Elegant Man

초록소  
Green Cow

 cie.greencow

 cultured-pail-b0b.notion.site/GREEN-COW

## 공연일시

10.05.(토) 17:20

## 공연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러닝타임

1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우아한 남자〉는 가족 구성원 중 가장의 무게를 우아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그린다. ‘우아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중력 상태와 그 상태로 가는 과정을 균형과 불균형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시소를 형상화한 구조물과 무게를 대변하는 여러 개의 추(weight)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해당 공간과 구조의 변형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가장의 무게를 표현한다. 습관적인 삶과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남자는 스스로의 자유를 발견하며 가장이 지닌 무게를 우아하게 덜어낼 수 있을까?

## 단체소개

초록소는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및 거리예술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정성택이 창단한 단체이다. 거리예술과 서커스가 가진 장르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협업하여 동시대 사회 문제를 예술로 접근한다. 단체가 정의하는 컨템포러리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구성과 전달 방식을 연구하며, 동시대 서커스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가능성을 탐구한다.

## 출연진

정성택

## 제작진

예술감독/안무/연출 정성택

조안무/리허설 디렉터/음향디자이너 양설희

코디네이터/통역 장수영

무대감독 이정민

오퍼레이터 김재은

**DATE & TIME**

10.05.(Sat) 17:20

**LOCATION**

Kyung Sung University College Yeno Small Theater

**RUNNING TIME**

1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4

**CAST**

Sungtaek Jeong

**CREDITS****Artistic Director/Choreographer/Director**

Sungtaek Jeong

**Assistant Choreographer/Rehearsal Director****/Sound Design** Seolhui Yang**Coordinator/Interpreter** Suyoung Jang**Stage Director** Jungmin Lee**Operator** Jaeun Kim**INTRODUCTION OF THE WORK**

<Elegant Man> embodies the journey of a man trying to escape the burden as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elegantly". To visualize "elegance", the piece stages weightlessness and utilizes the coexistence of balance and imbalance to portray the progress of reaching the almost impossible status. The structure, reinterpreting the shape of a see-saw, and weights, representing burdens and gravities in life, are arranged in varying sizes, so that the change in the space and the structure represents the burden with varying gravity that a breadwinner of the family carries as time passes. From the vain habitual repetition of daily routines in life, could the elegant man discover his own freedom and relieve the burdens as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elegantly"?

**GROUP INTRODUCTION**

Green Cow is a performing arts company founded by Sungtaek Jeong, who has completed the Circus and Street Arts Specialist Nurturing Program of th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llaborating with artists from a wide variety of genres based on the distinctive properties of the genres of street arts and circus, the company reinterpret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through art. To embody contemporaneity according to its unique definition by Green Cow, the company studies the methods of composition and delivery not restricted to any certain genre, and explores roles, ranges and potential of the contemporary circus.

# BPAM STREET





# STREET

# 허버트의 꿈 Herbert's Dream

라 콤파니 데 퀴담  
La Compagnie des Quidams

 compagniedesquidams  Compagnie des Quidams  quidams.com/en/

## 공연일시

10.05.(토)18: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프랑스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줄리 엘리스 재키 로요  
뱅상 필리프 앙투안 보렐  
쥘 자크 제라르 마르크 네프

## 제작진

기술 장-루 뷔  
작가/감독 장-바티스트 뒤페레 & 니콜라 마르탱  
음악 스웨뇨 앙 라 파브리카  
제작 콤파니 데 퀴담 & 엔코니토

## 작품소개

어두운 그림자 속, 하얗고 긴 형체들이 나타난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천천히, 또 조용히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멀어진다. 결국 그들을 따르도록 관객을 초대한다. 4m 남짓의 거대한 캐릭터로 변한 물체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모습이다. 낯선 음악에 맞춰, 별을 하늘로 띄우는 마법의 의식이 시작된다. 달에 웅크 하는 것처럼, 꿈같은 환상을 경험한다.

## 단체소개

라 콤파니 데 퀴담은 1994년에 설립되어 약 15개의 공연을 제작해왔다. 전 세계의 약 50개국을 방문하며 매년 100~150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오브제와 우주를 연상케 하는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낯설함과 시적인 요소를 더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있는 공공장소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꿈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DATE & TIME**

10.05.(Sat)18: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French Republic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In the darkness, long white silhouettes emerge, moving slowly and silently as if waiting for an unknown appointment. They approach and withdraw from the audience, eventually inviting them to follow. Transformed into towering characters about 4 meters high, they appear as if from another planet. Accompanied by strange and bewitching music, a magical ritual begins, raising a star into the sky. It feels like a wink to the moon, creating a dreamlike vision.

**GROUP INTRODUCTION**

La Compagnie des Quidams, founded in 1994, has created approximately 15 performances. They perform 100 to 150 shows each year and have visited around 50 countries worldwide. Giant luminous objects and cosmic-sounding music in the darkness add a sense of strangeness and poetry to our everyday life, transforming the public space we inhabit during the performance. It is an invitation for everyone to dream and unleash their imagination, creating their own story.

**CAST**

Julie Alice Jackie Loyot

Vincent Philippe Antoine Borel

Jules Jacques Gerard Marc Neff

**CREDITS****Technician** Jean-Loup Buy**Writer/Director** Jean-Baptiste Duperray  
& Nikola Martin**Music** Sueño en la Fábrica**Production** Compagnie des Quidams & Inko'Nito

# 고소공포증 Acrophobia

리브 앤 토비  
Liv & Tobi

 livandtobiduoatrapeze  duotrapeze.de

## 공연일시

10.05.(토) 16:30 / 10.06.(일) 18:30

## 공연장소

SPOT B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독일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작품소개

무서움을 이겨내고 공중그네에 올라설 수 있을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의 격려나 도움이 필요할까? 리브&토비와 함께 공중그네 공연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고소공포증>은 공중그네 위에서 펼쳐지는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스릴에 대한 짧은 이야기이다.

## 단체소개

독일 남부의 보덴 호수 근처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리브앤토비는 서커스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성장했다. 2010년, 그들은 네덜란드 코버츠 예술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함께 공부 했다. 2014년에 졸업한 후 프리랜서 아티스트로서 함께 일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6:30 / 10.06.(Sun) 18:30

**LOCATION**

SPOT B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Germ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Can you climb up to a Trapeze even if you are scared?

Do you need someone pushing you or supporting you to overcome your fear? Let's find out together what it takes to prepare for a Duo Trapeze performance.

<Acrophobia> is a short story about the fear experienced on a trapeze and the thrill of overcoming it.

**GROUP INTRODUCTION**

They grew up near Lake Boden in southern Germany as children and developed a passion for circus art. In 2010, they met again at the University of the Arts of Covers in the Netherlands.

They studied together, and after graduating in 2014, they worked together as freelance artists and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around the world.

**CAST**

Liv Knoche

Tobias Willasch

**CREDITS**

Klaus Jürgens

Yolaine Doods

Eva Schubach

# 거리는 우리의 것 The Street is Ours

얼웨이즈 드링킹 마칭 밴드  
Always Drinking Marching Band

 alwaysdrinkingmarchingband  en.admband.com

## 공연일시

10.05.(토) 13:00, 15:00 / 10.06.(일) 11:30

## 공연장소

SPOT A / SPOT C

## 러닝타임

4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스페인

## 투어인원

출연자 9명

## 출연진

파스쿠알 몬타네 아르나우  
하코메 만띠야 다비드 마우리시오  
마타로 바트예 제라  
에스폴라노 이 베낙 오리올  
리코 아빌라 후안 호세  
차리 메히아 후안 기예르모  
휠서 니나  
바사르 카프마니 세르히  
크뤼거 토비아스 틸

## 작품소개

유럽 전역의 거리를 모두 누빈 얼웨이즈 드링킹 마칭 밴드의 상징적인 공연이 바로 <거리는 우리의 것>이다. 오리지널 음악뿐만 아니라 독특한 커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음악을 들으며 그들과 함께 춤추다 보면 어느새 거리는 축제 현장이 된다.

## 단체소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밴드는, 1997년부터 스페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 거리에 개성 넘치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들의 단체명은 거리에서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지중해 연안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 특유의 재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든 관객과 나누면서도 음악적인 퍼포먼스를 놓치지 않는 유쾌한 밴드이다.

**DATE & TIME**

10.05.(Sat) 13:00, 15:00 / 10.06.(Sun) 11:30

**LOCATION**

SPOT A / SPOT C

**RUNNING TIME**

4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Spai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9

**CAST**

Pascual Montané Arnau  
 Jacome Mantilla David Mauricio  
 Mataró Batlle Gerard  
 Escolano I Benach Oriol  
 Rico Avila Juan Jose  
 Charry Mejía Juan Guillermo  
 Hölscher Nina  
 Basart Capmany Sergi  
 Krüger Tobias Till

**INTRODUCTION OF THE WORK**

It is the iconic performance of Always Drink Marching Band, which toured streets across Europe. Their performances, combined with original music and unique covers, make the streets a festive scene and dance with the music.

**GROUP INTRODUCTION**

The band, which brings together people from various professions, has left a unique mark on the streets around the world, mainly in Spain, since 1997. Their group name contains a Mediterranean way of life, enjoying alcohol and food together on the street. It is a delightful band that shares its unique wit and positive energy with all audiences but does not miss musical performances.

# 리듬 Rhythm

이케다 요스케  
Yosuke Ikeda

## 공연일시

10.06.(일) 14:00

## 출연진

이케다 요스케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일본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작품소개

이케다 요스케의 대표작 중 하나로, 비틀즈의 노래로 잘 알려진「Hello, Goodbye」가 바탕이 된다. 노래 가사는 음악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며, 여기저기 흩어진 요소들은 후반부에서 아름답게 절정에 이른다. 난버벌 쇼이며, 모든 연령대와 국가에서 쉽게 이해하며 관람할 수 있다.

## 단체소개

이케다 요스케는 마임과 그래픽 및 음향 예술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을 선보인다. 전 세계의 거리 축제, 코미디 극장, 클럽 하우스 등에서 공연을 했으며, 그의 공연은 매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DATE & TIME**

10.06.(Sun) 14:0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Jap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One of Yosuke Ikeda's signature pieces is based on the well-known Beatles song 'Hello, Goodbye'. The lyrics of the song appear in many different ways synchronized with music, and all the things studded here and there culminate beautifully in the end. As a non-verbal show, it is easy for audiences of all ages and from any country to understand and enjoy.

**GROUP INTRODUCTION**

Yosuke Ikeda presents a totally new style of performance blending mime with graphic and acoustic arts. He performed his act in many street festivals, comedy theaters and club houses around the world. And every time, his act blew audience's mind.

# 홵빠! Hoppa!

타르카바르카  
Tarkabarka

 tarkabarka.li

## 공연일시

10.06.(일) 16: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리히텐슈타인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안나-카트리나 코스티알-뷰헬  
발린트 아론 코스티알

## 제작진

김경명

## 작품소개

<홵빠!>는 서커스 마임극으로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비언어적 공연이다.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언어에 제약받지 않고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유머와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상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기발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전 연령층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연이다.

## 단체소개

타르카바르카는 안나-카트리나 코스티알-뷰헬과 발린트 아론 코스티알, 두 명의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타르카바르카는 헝가리어로 '다채로운'을 의미한다. 타르카바르카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다채로워, 모든 사람이 생활 여건에 상관없이 서커스와 연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DATE & TIME**

10.06.(Sun) 16: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Liechtenstei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Hoppa!> is a two-person circus mime performance that is a non-verbal show suitable for the whole family. The performance humorously portrays everyday stories, allowi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enjoy and relate to the show regardless of language. Through expressive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the performers bring to life various relatable scenarios, making the audience laugh and feel connected without the need for any spoken words. The show is a delightful and creative performance that offers entertainment for all ages, turning ordinary daily experiences into extraordinary and amusing moments for everyone to enjoy together.

**GROUP INTRODUCTION**

Tarkabarka is composed of two artists, Anna-Katrina Kostyál-Büchel and Bálint Aaron Kostyál. Tarkabarka is Hungarian and means 'colorful'. Tarkabarka's projects are also colorful, aiming to provide the experience of circus and theater to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life situation.

**CAST**

Anna-Katharina Kostyál-Büchel  
Bálint Áron-Kostyál

**CREDITS**

Kyungmyung Kim

# 다이어트 Die A(nd) T(hink)

춤선캡  
Chumsuncap

 chumsuncap  linktr.ee/chumsuncap

## 공연일시

10.05.(토) 12: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

## 국적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18명

## 작품소개

일과 가족밖에 몰랐던 한국인들에게 '관광버스춤'은 제의였다. 무엇에 홀린 듯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교양 없이 몸을 흔들어대는 이 행위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일탈을 넘어 자신들의 한을 한 치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얗게 불태우는 탈출구이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리고 신명에 도달하기 위한.. 잡생각 디톡스였다.

지금 이 순간 일상 속의 시름과 잡생각들은 점점 지워지고 체면, 성격, 사회적 지위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그 어떤 행동도 허용되는 완벽한 자유의 순간 즉 신명의 세계가 찾아온다.

당신을 초대한다. 잊고있었던 신명의 세계로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신명의 세계로... 당신에게 신명이 함께하기를...

## 단체소개

춤선캡은 도합 20만 유튜브버 춤추는 선진이와 씬캡보이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트렌드에 민감하고 관객, 대중친화적인 작품 개발 및 관객 개발 그리고 홍보 가능한 Young한 작품을 만들어 많은 대중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창단되었다.

안무가 최종인은 2020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최우수안무상(문화부장관상), 2020 대한민국무용대상 문화부장관상, 2021 고양국제무용제 안무상, 2024 보훈무용제 대상(서울특별시시장상), 2024 풍남무용제 대상(문화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으며 드라마, 트로트, 뮤지컬, 코레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 출연진

최종인  
이선진  
박수빈  
허하정  
김지연  
김황주

심유진  
김소희  
김찬양  
이정연  
정수림  
천승범

김건우  
김리연  
신채린  
고문정  
박지혜

## 제작진

안무 최종인

**DATE & TIME**

10.05.(Sat) 12: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18

**INTRODUCTION OF THE WORK**

For Koreans who only knew work and family, the 'tour bus dance' was a suggestion. This act of shaking one's body without manners on a dangerous highway as if possessed by something was not just a break from the past, but an escape route that burned away all of their regrets, and a detox of distracting thoughts to return to daily life and reach spirituality.

At this moment, the worries and distracting thoughts of daily life gradually disappear, and a perfect moment of freedom, a world of spirituality, comes where any behavior that was not usually allowed due to face, personality, and social status is permitted.

I invite you. To a world of spirituality that you had forgotten, a world of spirituality without face or social status... May spirituality be with you...

**GROUP INTRODUCTION**

Chumsuncap is a group created by 200,000 YouTubers Dancing Seonjini and Suncap Boy as the core, and was founded with the goal of providing enjoyment and happiness to the public by developing works that are sensitive to trends, audience-friendly, and young works that can be promoted.

Choreographer Choi Jong-in has received the Best Choreography Award (Minister of Culture Award) at the 2020 Young Choreographer Creation Performance, the Minister of Culture Award at the 2020 Republic of Korea Dance Awards, the Choreography Award at the 2021 Goyang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e Grand Prize at the 2024 Veterans Dance Festival (Seoul Mayor Award), and the Grand Prize at the 2024 Pungnam Dance Festival (Minister of Culture Award), and is active in various fields regardless of genre, such as drama, trot, musical, and choreography.

**CAST**

Jongin Choi	Yujin Sim	Gunwoo Kim
Sunjin Lee	Sohee Kim	Riyeon Kim
Soobeen Park	Chanyang Kim	Chaerin Shin
Hajeong Heo	Jeongyeon Lee	Munjeong Ko
Jiyeon Kim	Surim Jeong	Jihye Park
Hwangju Kimt	Seungbeom Chun	

**CREDITS**

Choreographer Jongin Choi

# 거리상담소 with 말자할매 Street Counseling Center with Grandma Malja

김영희  
Yeonghee Kim

 kim\_younghee  user-eb6du3wo2o

## 공연일시

10.06.(일) 14:3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김영희

## 작품소개

일상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거리상담소를 광안리에 개소한다. 코미디언 김영희가 '말자할매'라는 캐릭터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조언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이 특별한 상담소에서 자신의 고민을 편안하게 나누고, 유머와 진정성이 가득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말자할매'의 친근한 캐릭터와 유머러스한 조언으로 광안리를 웃음바다로 만들 예정이다. 이 웃음바다에 빠질 준비 되었는가?

## 단체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개그우먼으로, 뛰어난 유머 감각과 따뜻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 라디오, 그리고 다양한 공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개성 넘치는 개그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유의 유쾌한 개성과 솔직한 매력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오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더욱 폭넓은 관객층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말자할매'이다.

**DATE & TIME**

10.06.(Sun) 14:3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Yeonghee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She is opening a street counseling center in Gwangnanri to address and resolve everyday concerns. Comedian Younghee Kim will connect with the audience through her character 'Grandma Malja' offering warm advice. Visitors to this special counseling space w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eir concerns in a relaxed setting and solve their issues through humor and genuine interaction. With 'Grandma Malja's' friendly character and humorous advice, Gwangnanri is set to become a sea of laughter. Are you ready to dive in it?

**GROUP INTRODUCTION**

As a leading comedian in Korea, she is beloved for her exceptional sense of humor and warm charm. Actively engaging in television, radio, and various performances, she captivates audiences with her unique comedy and genuine communication. Known for her cheerful personality and straightforward appeal, she has brought laughter and inspiration to people of all ages. Recently, she has been reaching out to an even wider audience through new content, one of which is the popular 'Grandma Malja'.

# 더글라스룸 The Glass Room

초록소  
Green Cow

 cie.greencow  linktr.ee/cie.greencow

## 공연일시

10.05.(토) 11:00

## 공연장소

SPOT D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정성택

양설희

이정민

## 제작진

예술감독 정성택

코디네이터/통역 장수영

사진 박김형준

오퍼레이터 김재은

## 작품소개

<더글라스룸>은 기후에 대한 무관심으로 언제 깨지고 부서져 버릴지 모르는 유리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이야기한다. 큐브 형태의 구조물은 평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공간인 방을 대변함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지구이며, 우리의 마음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방은 우리를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기후변화와 위기를 백색소음으로 치부한다면, 우리의 방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 단체소개

초록소는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및 거리예술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정성택'이 창단했다. 거리예술과 서커스가 가진 장르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협업하여 동시대 사회 문제를 예술로 접근한다. 단체가 정의하는 컨템포러리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구성과 전달 방식을 연구하며, 동시대 서커스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가능성을 탐구한다.

**DATE & TIME**

10.05.(Sat) 11:00

**LOCATION**

SPOT D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3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Glass Room〉 tells the story of modern people living in a glass-like daily life that might shatter and break at any moment due to indifference towards the climate. The cube-shaped structure represents a room, a space we usually consider safe, and at the same time, it symbolizes the Earth we live on and our hearts. As time passes, without us even realizing, the room transforms into a space that threatens us. If we continue to dismiss climate change and crises as mere background noise, our room will no longer be safe.

**GROUP INTRODUCTION**

"Green Cow" was founded by Jeong Sung-taek, who completed the Circus and Street Arts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at th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part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Based on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street arts and circus, the organization collaborates with artists from various genres to approach contemporary social issues through art. To express what the organization defines as contemporary, they research compositions and methods of delivery that are not confined to a specific genre, exploring the role, scope, and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circus.

**CAST**

Sungtaek Jeong


Seolhui Yang

Jungmin Lee

**CREDITS****Artistic Director** Sungtaek Jeong**Coordinator/Interpreter** Suyoung Jang**Photographer** Hyungjoon ParkKim**Operator** Jaeeun Kim

# 흔들 흔들 One Two! One Two!

231과 서남재  
231 and Namjae Seo

 @231show\_leeseokwon

 namj\_s

 circusdlab.com

## 공연일시

10.05(토) 11:3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이석원

서남재

## 제작진

드라마투르그 박다솔

작곡 김현수

## 작품소개

<흔들흔들>은 서커스 오브제인 롤라볼라의 크기, 무게, 재질 등 오브제를 구성하는 요소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탐구해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롤라볼라 오브제인 원통과 사각프레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몸 또한 끊임없이 균형과 불균형의 상태를 오간다.

우리 삶에는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나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 흔들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을 찾아나선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흔들림 속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단체소개

'231과 서남재'는 서커스 오브제를 실험하고 이에 따른 움직임을 탐구하는 단체이다. 두 사람은 오브제를 변형 및 확장하며 기예의 범주를 넓히고, 움직임의 예측 불가능성을 창작의 중심에 두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1:3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One Two! One Two!> is a project that was created through the exploration of an object called Rolabola. '231 and Namjae Seo' altered various aspects of the object, such as its size, weight, and material, and delved deeply into new movements that naturally emerged. In this work, both the circular and square frames of Rolabola, as well as the two bodies of performers, continuously shift between states of stability and instability.

There are always shaky moments in our lives. We're shaken by our own actions or by others. However, we are constantly seeking stability. If we're together, not alone, can we regain stability in the shaking?

**GROUP INTRODUCTION**

'231 and Namjae Seo' is a duo project between circus artist Seokwon Lee(231) and Namjae Seo, a creative circus group that experiments with circus objects and explores movements accordingly. These young circus artists transform and expand objects, broaden their skills, and place the unpredictability of movement at the center of their creation.

**CAST**

Seokwon Lee

Namjae Seo

**CREDITS**

**Dramaturg** Dasol Park

**Composer** Hyunsoo Kim

# 옛장수 허쟁강 Scissors Dance

협동조합 손에손에  
Sone Sone

 sonesone\_kr

 sonesone.co.kr

## 공연일시

10.05.(토) 13:30

## 공연장소

SPOT D

## 러닝타임

5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7명

## 출연진

고석진

장영구

김수영

## 제작진

작가/연출 권호성

안무 최병규

기획 박석영

제작 최용우

음향감독 김세선

무대감독 이정원

## 작품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옛가위 춤 명인 '고석진'의 인생 역작!

한국 전통 타악기와 옛가위 장단을 바탕으로, 현란한 연주와 구성진 입담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옛장수 허쟁강의 '징하디 징한 인생사'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관객들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삶의 애환 속에서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음악으로 풀어내어 관객들을 하나로 만드는 퍼포먼스와 스토리가 펼쳐진다.

## 단체소개

협동조합 손에손에는 전통 예술과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 자원을 최신 ICT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연예술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진화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DATE & TIME**

10.05.(Sat) 13:30

**LOCATION**

SPOT D

**RUNNING TIME**

5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7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Magnum Opus of Korea's Top Scissors Dance Master, Sukjin Go!  
A vibrant stage unfolds with dazzling performances based on Korea's traditional percussion and scissors dance rhythms, complemented by Sukjin Go charismatic storytelling. The show delves into the colorful life story of a scissors dance master, unraveling through wit and satire. It is an immersive performance where audience participation is actively encouraged without spatial constraints. The amusing performance and story weave the universal theme of love in life's tragicomedy into music, making the audience resonate with the story and unite as one.

**GROUP INTRODUCTION**

Sone Sone is a performing arts content specialist company that develops a variety of content and creates new artistic value by integra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al resources, such as traditional arts, with the latest ICT technology. Through relentless challenge and evolution, it produces high-quality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that offers audiences a diverse and moving experience.

**CAST**

Sukjin Go  
Younggoo Jang  
Sooyoung Kim

**CREDITS**

**Writer/Director** Hosung Kwon  
**Choreographer** Byunggyu Choi  
**Promotor** Seogyoung Park  
**Production** Ethan Choi  
**Sound Director** Eliot Kim  
**Stage Director** Arjay Lee

# 모두의 광장 BARA Everyone's Square 'BARA'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냐포  
Africa Percussion Group AnyaFo

 anyafo\_korea

 blog.naver.com/anyafo

## 공연일시

10.05.(토) 14:3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9

## 작품소개

'BARA'는 서아프리카 말린케 부족의 말로 광장을 뜻한다. 서아프리카 전통리듬과 역동적 움직임으로 가장 자유로운 에너지와 해방감의 거리 공연이다.

## 단체소개

아냐포 'ANYA FO'는 말린케 부족의 말로 '다함께 연주하자!'라는 뜻이며, 현대음악의 뿌리인 서아프리카의 만딩음악을 기반으로 한국 정서와 현대적 감성을 접목시켜 원초적 에너지의 창작실험을 다양한 접근을 통해 펼쳐내고 있다.

## 출연진

젬베 양인선

마스크퍼포머 오지영

댄서 배인혁

벨두눈바 이미연, 박지훈

벨상박 이복근

벨켄케니 김한솔, 김수빈

마칭탐탐 박승준

## 제작진

음악감독 양인선

연출 오지영

안무 배인혁

**DATE & TIME**

10.05.(Sat) 14:3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9

**INTRODUCTION OF THE WORK**

'BARA' means 'square' in Malinke, which is used in West Africa. street performance with the most free and easy energy with dynamic movement and traditional rhythm of West Africa.

**GROUP INTRODUCTION**

'ANYA FO' means 'let's perform together' in Malinke, which is used in West Africa. Based on Mandingue music from West Africa, which is also a root of modern music, it grafted Korean sensibilities and modern moods to express primitive energy in various ways through creative experiments.

**CAST**

**Djembe** Insun Yang

**Mask Performer** Jiyoung Oh

**Dancer** Inhyuk Bae

**Bell Dununba** Miyeon Lee, Jihoon Park

**Bell Sangban** Boggeun Lee

**Bell Kenkeni** Hansol Kim, Soobin Kim

**Marching Tom Tom** Seungjun Park

**CREDITS**

**Music Director** Insun Yang

**Director** Jiyoung Oh

**Choreographer** Inhyuk Bae

# 유토피아 - 항해 Utopia - The Wave

구니스 컴퍼니  
Goonies Company

 the\_gooniescrew  thegoonies.co.kr

## 공연일시

10.05(토) 17:0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1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박종훈  
김동현  
여인수  
김경민  
문진홍  
권순민  
김예진  
유정훈  
황세영  
이현강  
최혜민

## 제작진

연출 이종민  
안무 박종훈  
기획 윤재훈, 최소영  
PM 최소영

## 작품소개

파도는 바람의 흔적이자 기록이다. 바람은 파도가 되어 우리의 감각에 닿으며 중력과 지진, 바람이 만든 풍랑과 너울을 통틀어 파랑(波浪)이라 일컫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파랑은 가지각색이나, 그들은 언제나 도전하고 주변과 연결되어 각자의 바다를 만들어 한 층씩 성장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예술은 바람과 같다. 바다 위 등대와 같은 무대에서 움직임과 예술을 통해 관객과 함께 새로운 물결에 패들링 한다.

## 단체소개

구니스 컴퍼니는 브레이킹을 기반으로 타 예술 장르 및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공연 콘텐츠를 직접 창작 하고 유통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시장에 한국 브레이킹 저변을 확대한다.

**DATE & TIME**

10.05.(Sat) 17:0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1, STAFF 3

**CAST**

Jonghoon Park

Donghyun Kim

Insu Yeo

Kyungmin Kim

Jinhong Moon

Soonmin Kwon

Yejin Kim

Jeonghoon Yoo

Seyoung Hwang

Hyunkang Lee

Hyemin Choi

**CREDITS****Director** Jongmin Lee**Choreographer** Jonghoon Park**Promotor** Jaehoon Yoon, Soyoung Choi**PM** Soyoung Choi**INTRODUCTION OF THE WORK**

Waves are traces and records of the wind. The wind conjures waves and swells that resonate with our senses. The wave that overwhelm people living in modern society vary in size and shape, but they constantly challenge themselves, connect with those around them, create their own seas, and grow layer by layer.

Art that drives society is like the wind, shaping and guiding the currents of change.

Through breaking and art, they paddle together with audience into a new wave of creativity.

**GROUP INTRODUCTION**

Goonies Company creates and distributes performance content by integrating 'breaking' with other artistic genres and technologies, aiming to promote 'Korean breaking' in the global cultural and artistic scenes.

# 랄랄라패밀리쇼 Lalala Family Show

음악당 달다  
Umdalda



## 공연일시

10.06.(일) 11:00

## 공연장소

SPOT D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 출연진

이정훈

연리목

이어진

이로이

## 제작진

연출 이정훈

음악감독 연리목

무대디자인 창작그룹 노니

의상 이진희

## 작품소개

<랄랄라 패밀리쇼>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악기들을 접할 수 있는 유쾌한 음악극이다. 예술적 디테일들로 채워진 오브제는 공연이 시작되면 콘서트 무대가 되고, 떠돌이 음악 가족의 집이 된다. 각종 악기와 신기한 물건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 집을 자유로이 들락날락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가족의 노랫소리에 신이 난다. 한창 즐거웠던 공연이 마무리되면, 펼쳐졌던 무대는 다시 수레가 되고, 모두 함께 노래 부르며 아코디언 가락과 함께 길을 떠난다.

## 단체소개

‘음악당 달다’는 음악, 퍼포먼스, 설치미술을 결합한 거리 음악극 단체이다. 움직이는 특수무대와 생생한 라이브 연주, 유쾌한 퍼포먼스의 융합으로 색다른 예술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간 부부 음악극단으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는 두 아이도 공연에 합류하여 가족극단이 완성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네 명의 음악 가족이 펼치는 공연도 매년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1:00

**LOCATION**

SPOT D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INTRODUCTION OF THE WORK**

<Lalala Family Show> is a delightful musical theater performance that allows audiences to face various music and instruments from around the world. The objects filled with artistic details become a concert stage and the home of a tramp musical family when the show begins. A parade of various instruments and curious items appears, and the musical family, freely moving in and out of their home, delight the audience with their joyful songs. As the fun-filled performance comes to an end, the stage transforms back into a cart, and the family sets off on their journey, singing together to the tune of an accordion.

**GROUP INTRODUCTION**

'Umdalda' is a street music theater group that combines music,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art. They create a unique artistic world with their moving special stage, vibrant live performances, and delightful acts. Initially performing as a husband-and-wife duo, they became a family troupe in 2021 when their two children joined the performances. As the children grow, the performances by this family of four musicians continue to evolve and develop each year.

**CAST**

Junghoon Lee

Rimog Yon

Eojin Lee

Loie Lee

**CREDITS****Director/Cast** Junghoon Lee**Music Director/Cast** Rimog Yon**Stage Design** Creative Group NONI**Costume** Jinhee Lee

# 체어,테이블,체어. Chair,Table,Chair.

팀 퍼니스트  
Team Funniest

 teamfunniest.com

## 공연일시

10.06.(일) 12:0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5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 출연진

아코디언 김희명

퍼커션 최대성

베이스 심재성

색소폰 김한상

기타 이원호

## 작품소개

<체어, 테이블, 체어.>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 밴드가 들려주는 의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상상력 가득한 코미디 마임 공연과 흥겨운 음악 그리고 신기한 서커스 공연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 단체소개

‘퍼니스트’는 ‘funny(재미있는)’와 ‘artist(예술가)’의 합성어로, 유머러스한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의미한다. 팀 퍼니스트는 한국에서 유일한 서커스 밴드 공연팀으로, 서커스, 마임, 음악 연주를 통한 난버벌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다.

**DATE & TIME**

10.06.(Sun) 12:0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5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INTRODUCTION OF THE WORK**

<Chair, Table, Chair.> is an entertaining story about chairs presented by Korea's only circus band. The performance is a blend of imaginative comedy mime, lively music, and fascinating circus acts.

**GROUP INTRODUCTION**

'Funneist' is a portmanteau of 'funny' and 'artist', referring to an artist who creates humorous work. Team Funnist is the only circus band performance team in Korea, specializing in non-verbal performances that combine circus acts, mime, and musical performances.

**CAST**

**Accordion** Heemyeong Kim

**Percussion** Daesung Choi

**Bass** Sungsim Jae

**Saxophone** Sanghan Kim

**Guitar** Oneho Lee

# 합!? Hap!?

공간 서커스살롱  
Space Circus Salon

 circusalon\_korea

## 공연일시

10.06.(일) 13: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3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박동조

전현규

## 제작진

작가/연출 서상현

무대/운영 차진광

## 작품소개

유쾌한 난장이 펼쳐지는 플라스틱 서커스, <합!?!>  
놀거리를 찾아 우주를 헤매는 서커스유랑꾼들.  
지구에서 발견한 플라스틱으로 서커스를 시작한다!

## 단체소개

영뚱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서커스 커뮤니티, 공간 서커스살롱!  
그들은 남녀노소 모두 서커스를 하는 세상을 꿈꾸며, 서커스를 통한 건강하고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각자의 일상이  
더 유쾌하고 영뚱해지길 안내한다.

**DATE & TIME**

10.06.(Sun) 13: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3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CAST**

Dongjo Park  
Hyunkyu Jeon

**CREDITS**

**Writer/Director** Sanghyun Seo  
**Stage/Manager** Jinkwang Cha

**INTRODUCTION OF THE WORK**

Pleasant messy plastic circus, <Hap!?!>  
Circus wanderers wandering in space in search of entertainment.  
Start a circus with plastic what they found on Earth!

**GROUP INTRODUCTION**

A circus community creating a quirky and healthy world, Space Circus Salon!  
They dream of a world where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engage in circus arts. They aim to provide healthy and artistic experiences through circus, guiding individuals to make their daily lives more pleasant and quirky.

# 수직 Suzik

포스  
Force



force\_artech



force-artech.com

## 공연일시

10.6(일) 13:30

## 공연장소

SPOT D

## 러닝타임

2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이영호

김선혁

김찬양

## 제작진

작가/연출 이영호

기술스태프 조민상

## 작품소개

수직구조 속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세 남자의 이야기  
수직사회 속에서의 경쟁이 아닌 상생, 수직이 아닌 수평,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수직이라는 위태로운 직선 위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상생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 뒤처지면 손을 내밀고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연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생의 가치이자, 새로운 '수직'의 의미이다.

## 단체소개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향한 예술창작과 미지의 예술을 향한 독창적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국내외 다양한 문화와 상호 교류하며 글로벌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몸의 예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공생 속 진화론을 연구하고 있다.

**DATE & TIME**

10.6(일) 13:30

**LOCATION**

SPOT D

**RUNNING TIME**

2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tory of three men going against gravity in a vertical structure  
Win-win, rather than competition in a vertical society. Horizontal, not vertical. It is a story where you can feel the "value of cooperation" living together. Rather than trying to pull each other down in a vertical structure, wouldn't it be much more meaningful to reach out your hand and step forward together? If someone falls behind? This is the win-win value they want to create through this performance, and the new meaning of 'vertical'.

**GROUP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organization is to expand a new art world through art creation toward the essence of nature and life and original work toward unknown art, interacting with various cultures at home and abroad, and becoming the center of global culture and art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uman life. Currently, the theory of evolution in symbiosis between art and technology is being studied through the fusion of body art and modern technology.

**CAST**

Youngho Lee  
Sunhyuk Kim  
Chanyang Kim

**CREDITS**

**Writer/Director** Youngho Lee  
**Operator** Minsang Cho

# 우주비행사 되기 대작전 Becoming an astronaut

휠러스  
Wheelers

 cyrwheel\_baby\_minyoung

## 공연일시

10.6(일) 15:0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이민영

## 제작진

오퍼레이터 곽효중

## 작품소개

<우주비행사 되기 대작전>은 공사장 인부의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꿈을 되찾아 우주로 떠나는 상상을 씨어휠(Cyr wheel) 그리고 모자 저글링(Hat Manipulation)을 통해 서커스로 펼쳐내는 넘버벌 서커스 극이다.

## 단체소개

휠러스는 씨어 휠(Cyr wheel), 모자 저글링(Hat manipulation), 차이니즈 폴(Chinese Pole)등의 서커스를 중심으로 드라마 기반의 넘버벌 서커스 공연예술을 창작해 나가고 있으며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서커스의 예술적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BPAM STREET [Circus]



## DATE & TIME

10.6(Sun) 15:00

## LOCATION

SPOT A

## RUNNING TIME

30min

##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 INTRODUCTION OF THE WORK

<Becoming an astronaut> is a nonverbal circus that recalls a construction worker's forgotten childhood dream and imagines going to space through Cyr wheel and Hat Manipulation.

## GROUP INTRODUCTION

"Wheelers" is creating drama-based nonverbal circus performing arts focusing on circus such as Cyr wheel, Hat manipulation and Chinese pole. And they aim to expand the artistic scope of circus that is not limited to one genre.

## CAST

Minyoung Lee

## CREDITS

Operator Hyojoong kwak

# 해설이 있는 스트릿댄스 Street dance with commentary

갬블러크루  
Gamblerz Crew

 pf.kakao.com/\_umkZxj  gamblerzcrew.modoo.at

## 공연일시

10.06.(일) 16:30

## 공연장소

SPOT A

## 러닝타임

4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0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박지훈  
임석용  
성승용  
김연수  
최찬배  
김응혁  
이규진  
홍성식  
배소망  
박선희

## 제작진

기획 이준학  
무대감독 고빈희  
현장스텝 안시현

## 작품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들이 펼치는 화려한 몸짓, 몸이 그리는 k 스트릿댄스 !  
1970년 미국 뉴욕의 브롱스로 떠나는 스트릿댄스 여행이 펼쳐진다. 최초의 비보이 탄생에서부터 스트릿 댄스의 배틀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리스펙 문화, 댄서들의 파티문화, 디제이, 비트박스, 락킹댄스, k-pop 문화 등 전문 사회자의 해설을 중심으로 댄서들의 상황별 연기력과 역동적인 움직임, 디제이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종합 퍼포먼스 공연이다.

## 단체소개

2002년 설립된 갬블러크루는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이다. 그들은 스트릿댄스 및 브레이킹을 통해 기초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적 대중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스트릿댄스 문화를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 축제, 예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창작/개발하여 대한민국 스트릿댄스 문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갬블러크루의 브레이크댄스는 삶의 본질 그 자체이다"를 모토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DATE & TIME**

10.06.(Sun) 16:30

**LOCATION**

SPOT A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0, STAFF 3

**CAST**

Jihoon Park  
 Sukyong Lim  
 Seungyong Sung  
 Yeonsoo Kim  
 Chanbae Choi  
 Eunghyeok Kim  
 Gyujin Lee  
 Sungsik Hong  
 Somang Bae  
 Sunhee Park

**CREDITS**

**Promotor** Junhak Lee  
**Stage Director** Binhee Ko  
**Staff** Sihyeon An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dazzling movements of Korea's top dancers, K-Street Dance drawn by the body!  
 A street dance journey to the Bronx in New York City in the 1970s unfolds. From the birth of the first B-boy to the battle culture of street dance, the respect culture that honors each other, dancers' party culture, DJing, beatboxing, locking dance, and K-pop culture. this comprehensive performance show is centered around a professional host's commentary. It combines dancers' situational acting skills, dynamic movements, and the DJ's vivid live performances.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02, Gambler Crew is a professional art group based in Seoul. Through street dance and breaking, they aim to promote foundational culture and arts, contribute to the progressive popularization of these arts, enhance the public's right to cultural enjoy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Gambler Crew strives to lead the street dance culture in South Korea by creating and developing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performances, festivals, art education, etc.) that make street dance easy and enjoyable for the public.

With the motto "Gambler Crew's breaking dance is the essence of life itself," they are consistently making efforts.

# 0g(제로그램) 0g(zero gram)

멜랑콜리댄스컴퍼니  
Melancholy Dance Company

## 공연일시

10.06.(일) 17: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정철인

류지수

문경재

전중근

주영상

## 제작진

연출/안무 정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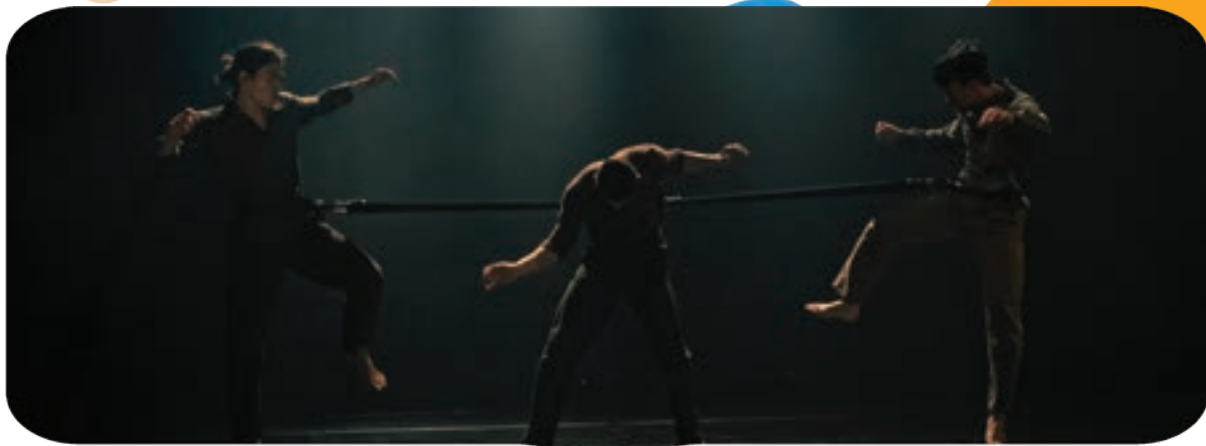
기획 김민영

## 작품소개

작품 <0g>은 신화 속 인물인 시시포스의 헤어 나올 수 없는 떨어짐의 반복적 행위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시시포스의 계속되는 떨어짐의 행위 자체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낙하운동'의 물리적 원리를 움직임에 활용한다. 이를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극한의 상황들을 실험하며 몸짓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 단체소개

2016년 창단된 멜랑콜리댄스컴퍼니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며 <비행>, <0g>, <초인>, <당신의 징후>, <모빌리티> 등 인간의 삶을 주제로 속도와 리듬감, 무게감을 통한 변주를 인간사와 현상에 대한 통찰로 메시지를 담아낸다.

**DATE & TIME**

10.06.(Sun) 17: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work <0g> depicts the process of discovering our lives in the repetitive acts of the mythical figure Sisyphus' inextricable fall and finding the true meaning of life in seemingly meaningless actions. Inspired by Sisyphus' continuous falling action itself, the physical principle of 'free fall movement' is used for movement. Applying this to various parts of the body, experimenting with extreme situations arising from dynamic movements derived from it, and making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estures.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16, Melancholy Dance Company views the world we live in as art itself. Through works such as <Flight>, <0g>, <Superhuman>, <Your Symptoms> and <Mobility>, the company conveys messages on human life by using variations in speed, rhythm, and a sense of weight to offer insights into human affairs and phenomena.

**CAST**

Cheolin Jeong

Jisoo Ryu

Gyungjae Mun

Joonguen Jun

Youngsang Ju

**CREDITS**

**Director/Choreographer** Cheolin Jeong

**Promotor** Minyoung Kim

# 돌아버리겠네 Dizzy

코드세시  
CodeSassy



codesassy



codesassy.kr

## 공연일시

10.06.(일) 18:00

## 공연장소

SPOT C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돌아버리겠네>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호기심을 두고 창작되었다. 코드세시의 시각으로 해석 및 제작되어진 오브제를 활용하여 '돌다, 구르다.'의 움직임을 우리가 마주하는 '돌아버리겠네' 현실에 빗대어 표현한다.

돌아가는 지구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돌아가는 건지 돌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현실 속. 우리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돌아가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단체소개

코드세시는 권해원이 2019년에 창단한 한국의 서커스 창작단체로, 예술 장르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커스 창작에 접근하고 있다. 코드세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또한 오직 공연예술만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감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 출연진

권해원

최재영

김조이혜수

## 제작진

연출 권해원

프로듀서 문수빈

제작감독 정용현

작곡 조은희

**DATE & TIME**

10.06.(Sun) 18:00

**LOCATION**

SPOT C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Dizzy> was created with a curiosity about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 Starting from the words 'Spinning' and 'Turning', the objects have been interpreted and produced by the perspective of CodeSassy. And also the movement is expressed in the comparison to DIZZY reality we're facing. Those of us who live on the earth that is spinning, in the reality that we don't know if we're spinning it or not. We keep turning and spinning. Our lives also keep turning without stopping. If we can't either escape or stop from the spinning and turning reality, why don't we get into the center and enjoy it?

**GROUP INTRODUCTION**

Codesassy is a Korean contemporary circus company founded by Heawon Kwon in 2019, they explore diverse approaches to creating circus works, beyond the boundaries of artistic genres. Codesassy aims to ponder the social role of art and create works that reflect our lives and society. They also constantly questions what sensations can only be conveyed through performing arts.

**CAST**

Haewon Kwon  
Jaeyoung Choi  
Joy Hyesue Kim

**CREDITS**

**Director** Haewon Kwon  
**Producer** Subin Moon  
**Production Director** Yonghyeon Jung  
**Composer** Eunhee Jo

# BPAM LINK





# LINK

# 슬픔이 찬란한 이유 Why Sorrow is Shinning

문화판 모이라  
Moira

 moiratheatercompany

## 공연일시

10.03.(목) ~ 10.04.(금) 19:30  
10.05.(토) 15:00

## 공연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러닝타임

100분

## 관람연령

14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3명, 스태프 10명

## 출연진

진선미, 양진철, 배진만, 박호천, 이태경, 김아름, 이한성  
김예빈, 이크신, 전자연, 김정환, 한혜민, 최현준, 문정희  
박은진, 박다울, 최연진, 정태웅

## 제작진

작가/연출 김숙경  
기획 안성혜  
조연출 최혜리  
무대감독/조명디자인 이하슬  
무대디자인 백철호  
음악 전현미  
무대 아우라스테이지 김재한  
의상 김현진  
분장 박은주  
그래픽 박태양  
조명오퍼레이터 목수연  
음향오퍼레이터 김동규  
영상감독 손희승  
기록영상/사진 김혜진  
조명크루 이영석, 하주원  
홍보 김지선  
소품 안성미  
스태프 강효정

## 작품소개

문화판 모이라의 창단 10년 기념공연 <슬픔이 찬란한 이유>는 2021년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 2024년 부산문화재단 [올해의 포커스 온]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슬픔이 찬란한 이유>는 뜻하지 않은 갈등, 병마와의 싸움, 상실감 등을 겪으며 안으로 고여 있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이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주목하고 있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맛보는 슬픔의 여러 빛깔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공감으로, 어떤 것은 연민으로, 또 어떤 것은 분노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슬픔을 잘 보듬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삶처럼 찬란하기 때문이다.

## 단체소개

2014년 창단한 문화판 모이라는 10년 동안 김숙경의 창작극을 일관되게 무대화시켜 왔다. 창단 작품인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로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올드 브라더미싱>, <119 옆 낙원빌딩>, <목대평으로부터> 등이 10년 동안 관객들과 만난 작품들이다.

'모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의 이름이자, '모여라'의 경상도 방언이다. 운명처럼, 좋은 공연을 지향하는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모여서, 날카로운 인식과 따뜻한 정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 10.04.(Fri) 19:30  
10.05.(Sat) 15:00

**LOCATIO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RUNNING TIME**

100min

**AGE LIMITS**

14+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3, STAFF 10

**CAST**

Sunmi Jin, Jincheol Yang, Jinman Bae, Hochun Park  
Taegyeong Lee, Ahreum Kim, Hanseong Lee  
Yebin Kim, Keusin Lee, Jayeon Jun, Junghwan Kim  
Hyemin Han, Hyeonjoon Choi, Junghee Mun  
Eunjin Park, Dayull Park, Yeonjin Choi  
Taewoong Jeong

**CREDITS**

**Writer/Director** Sukkyung Kim  
**Producer** Sunghye An  
**Assistant Director** Hyeri Choi  
**Stage Director/Lighting Design** Haseul Lee  
**Stage Design** Chulho Back  
**Music** Hyunmi Jeon  
**Stage** Aura Stage Jaehan Kim  
**Costume** Hyunjin Kim  
**Makeup** Eunju Park  
**Graphic** Taeyang Park  
**Lighting Operator** Suyeon Mok  
**Sound Operator** Donggyu Kim  
**Visual Director** Hwiseung Son  
**Video/Photograph** Hyejin Kim  
**Lighting Crew** Youngseok Lee, Juwon Ha  
**Promotion** Jisun Kim  
**Props** Sungmi An  
**Staff** Hyojeong Kang

**INTRODUCTION OF THE WORK**

<Why Sorrow is Shinning> is the stag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ater Company Moira. The original play has been critically acclaimed, having received the Grand Prize of the 2021 National Original Play Competition and selected as the 2024 Focus-on of the Year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Why Sorrow is Shinning> highlights "sadness", which is reserved and oppressed inside but sometimes overwhelmingly poured out, as we go through unexpected conflicts, fight a formidable foe with a disease, or lose something we have cherished. Through the life of the characters, the audience may encounter with a wide variety of colors of sadness that a long journey of life might come across with, some of which they would receive with empathy, compassion, or even indignance. Aren't we, perhaps, "the beings that require handling with care for their sadness"? After all, sadness is unavoidable, and even as splendid as our entire life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14, Theater Company Moira has consistently staged original pieces written by playwright Sukgyeong Kim for the past decade. The premier stage "There We Go, Welcome to Duru Village", "The Only Real Estate in the World", "The Old Brother Sewing Machine", "Nakwon Building Next to the 119 Emergency Headquarter", and "Letter by Daepyeong Mok" are what the company staged to reach the audience.

Moira, the name of the Greek goddess of fate, is also the homophone that sounds the same as the Korean imperative verb meaning "Gather!" in the Gyeongsang accent. As if fate had predisposed, the artists and the audience who want a well-made theatrical stage would like to share their sharp awareness of the world as well as warm-hearted empathy.

# 창작오페라 페스트 Opera 'La Peste'

루체테음악극연구소  
Lucete Theatrical Music Academy



lucetemusic



blog.naver.com/lucetemusic

## 공연일시

10.31.(목)~11.01.(금) 19:3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러닝타임

8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0명, 스태프 10명

## 출연진

김종표

이태영

최모세

김정현

하태선

박찬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루체테 오페라 앙상블

## 제작진

연출/대본 김지용

작곡 백현주

지휘 전진

무대디자인 황지선

조명감독 조세현

## 작품소개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의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한 오페라다. 도시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야기되는 혼란과 공포,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처럼 반복되는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 포기하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해 바위를 굴리는 의지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위대함이다.

창작오페라 "페스트"는 실존주의적 철학을 예술적으로 무대화하려 한다. 소설 "페스트"를 까뮈보다 더 까뮈답게 오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 단체소개

루체테(LUCETE: '밝게 빛나라'라는 뜻의 라틴어) 음악극연구소는 다양한 장르의 극음악을 연구하고 공연하는 단체이다. 2015년 10월에 설립하였고, 2016년 3월에 창단공연으로서 윌리엄 불콰의 코믹오페라 "루크레치아" 공연을 아시아 초연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후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 옴니버스 오페라 '목하인연' 및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 등을 제작하며 참신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DATE & TIME**

10.31.(Thu)~11.01.(Fri) 19:30

**LOCATIO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RUNNING TIME**

8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0, STAFF 10

**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is an opera created based on the setting of Albert Camus's novel "La Peste." It depicts the chaos and fear caused by the outbreak of the plague in the city and the resulting communication breakdown with the outside world. It showcases how people respond to these challenges. The greatest tragedy of humanity is the repetitive nature of history, akin to Sisyphus's eternal punishment. Despite this, the unceasing steps and the unwavering will to push the boulder up the mountain represent the greatness unique to humans.

The original opera "La Peste" aims to artistically stage existentialist philosophy. It seeks to transform the novel "La Peste" into an opera that is even more true to Camus's essence than Camus himself.

**GROUP INTRODUCTION**

LUCETE (Latin for 'Shine Brightly') is a music theater research institute dedicated to the study and performance of diverse genres of music theater. Established in October 2015, LUCETE made its debut with the Asian premiere of William Bolcom's comic opera "Lucrezia" in March 2016. Since then, the organization has garnered attention in the music industry for its innovative projects and high-quality performances, including original operas such as "The Name Is Far Cloud," omnibus operas like "Mokha Inyeon," and new formats of concerts.

**CAST**

Jongpyo Kim

Taeyoung Lee

Mose Choi

Junghyun Kim

Taesun Ha

Chan Park

United Korean Orchestra

Lucete Opera Ensemble

**CREDITS****Director/Libretto** Jeeyong Kim**Composer** Hyunju Baek**Conductor** Jin Jeon**Stage Design** Jisun Hwang**Lighting Director** Sehyun Cho

# 노인가족극 “老미오와줄리엣” Elderly Family Drama “Romeo and Juliet”

극단 해풍  
Theatre Seawind

 Good.SeaWind

## 공연일시

10.03.(목) 15:00  
10.04.(금) 19:30  
10.05.(토) 15:00

## 공연장소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 러닝타임

9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김선관  
이진희  
조기정  
이희영  
강병용  
이권아  
최민  
황하림  
신현우

## 제작진

작가/연출 이상우  
조연출 윤재근  
총괄감독 양민우  
조명오퍼레이터 김지은  
음향오퍼레이터 박성준  
무대감독 전영주  
기획 고명현, 김세친  
음악감독 김영구

## 작품소개

<노인가족극 “老미오와 줄리엣”>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노인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는 로맨스 드라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들들은 서로 원수이다. 로미오의 사랑을 반대하는 그의 아들과 줄리엣에 대한 효심 가득한 그녀의 아들이 서로 맞은 편에서 장사를 하며 싸움을 한다.

## 단체소개

극단 해풍은 2011년에 창단했으며, 이름에는 "바닷바람"과 "해학과 풍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극단은 어린이, 노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창작 공연을 선보였으며, 부산의 지역성을 반영한 작품과 부산 소설을 각색한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산 북구에서 어린이극단, 청소년극단, 시민극단, 실버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들과 함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극공동체운을 설립하였으며, "감동진 연극제"라는 고유의 연극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5:00

10.04.(Fri) 19:30

10.05.(Sat) 15:00

**LOCATION**

Busan Buk-gu Culture and Arts Center

**RUNNING TIME**

9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2

**CAST**

Sunguan Kim

Jinhee Lee

Gijung Jo

Heeyoung Lee

Byoungyong Gang

Gona Lee

Min Choi

Halin Whang

Hyunwoo Shin

**CREDITS****Writer/Director** Sangwoo Lee**Assistant Director** Jaegeun Yoon**General Supervision** Minwoo Yang**Lighting Operator** Jieun Kim**Sound Operator** Sungjun Park**Stage Director** Youngjoo Jeon**Programmer** Myounghyun Go, Sechin Kim**Music Director** Younggu Kim**INTRODUCTION OF THE WORK**

<Elderly family drama "Ro-meo and Juliet"> addresses the issue of aging in Busan, a city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Ro" is used as a prefix to imply old age.) The story follows a widowed senior who finds new love and embarks on a beautiful romance. However, their sons are sworn enemies. Ro-meo's son opposes his father's new love, while Juliet's son, full of filial piety, runs a shop across from Ro-meo's son, resulting in constant conflict.

**GROUP INTRODUCTION**

Theatre Seawind was founded in 2011. The name means "sea breeze" and incorporates the first letters of the Korean words "haehak" and "pungja," which mean "humor and satire," thus embodying these concepts in its name. The company presents original performances for diverse audiences, including children, seniors, and families. It also produces works that reflect the local culture of Busan, as well as adaptations of novels set in Busan, offering a wide repertoire of performances. In the Buk-gu district of Busan, the company operates children's, youth, citizen, and senior theater troupes. In 2022, these troupes came together to form the intergenerational theater community "ON," which hosts its own unique theater festival called the "Gamdongjin Theater Festival."

# 제80회 정기연주회 The 80th Regular Concert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Neo Philharmonic Orchestra

 busanneophil  neophil.org

## 공연일시

10.12.(토) 19: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러닝타임

1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8명, 스태프 15명

## 작품소개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 단체소개

사단법인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상근체제를 유지하며 매년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해외 순회공연, 살롱음악회 등 연간 20여 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쳤다. 또한 수많은 연주자와 협연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네오파는 개인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1,000명의 후원자를 목표로 명실상부한 시민 오케스트라로 성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홍성택 상임지휘자의 슬로건인 "느리게, 그러나 곧게... 최고 수준의 음악을 창조하는 높은 이상을 꿈꾼다."를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정신을 발휘하며 문화예술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 출연진

지휘 홍성택  
바이올린 임지영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 제작진

예술감독 홍성택

**DATE & TIME**

10.12.(Sat) 19: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1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8, STAFF 15

**INTRODUCTION OF THE WORK**

L.H.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in C Major, Op. 14

P.I.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

**GROUP INTRODUCTION**

Busan Neo Philharmonic Orchestra is widely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private orchestra of Busan. It not only holds regular concerts each year but also engages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special performances, international tours, and salon music events, totaling over 20 performances annually. The orchestra collaborates with numerous performers and continues to attract attention. Currently, Neo-Phil is supported by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triving to reach its goal of 1,000 patrons and establishing itself as a truly citizen-based orchestra. Since 2023, the orchestra has been a resident ensemble at the Geumjeong Cultural Center.

Guided by the slogan of Music Director Seongtaek Hong, "Slowly, but surely... We dream of creating music of the highest level with lofty ideals," the orchestra is committed to creating a cultural and artistic city in Busan through continuous challenges and a spirit of experimentation.

**CAST**

**Conductor** Seongtaek Hong

**Violin** Jiyoung Lim

**Busan Neo philharmonic Orchestra**

**CREDITS**

**Artistic Director** Seong-taek Hong

# 부산발레시어터 10주년 기념 갈라 BusanBalletTheatre 10th Ballet Gala

부산발레시어터  
Busan Ballet Theatre

 busan\_ballet\_theatre\_official

## 공연일시

10.26.(토) 18:00

## 공연장소

영도문화예술회관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1명, 스태프 5명

## 작품소개

<지젤> 3막 그랑파드두  
<해적> 2막 그랑파드두  
<백조의호수> 2막 파드두  
<파리의불꽃> 그랑파드두  
<돈키호테> 3막 그랑파드두

## 단체소개

부산발레시어터는 2014년에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자리 잡았으며, 창작 공연부터 클래식 전막 공연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쳤다.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과 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매년 정기공연과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발레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 출연진

김동현  
양지희  
임인하  
박정미  
윤예지  
김예찬  
이주호  
박성희  
이지영  
김지아  
조희원

## 제작진

정성복  
김예카테리나

**DATE & TIME**

10.26.(Sat) 18:00

**LOCATION**

Yeongdo Culture and Arts Cen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1, STAFF 5

**INTRODUCTION OF THE WORK**

Gisele Act3 grand pas de deux  
 Pirate Act2 grand pas de deux  
 Swan Lake Act2 grand pas de deux  
 Flames of Paris grand pas de deux  
 Don Quixote Act3 grand pas de deux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14, Busan Ballet Theatre is a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 designa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s Busan's representative private vocational ballet company that has a wide range of work activities from creative performances to classical full-length performances. Based in Busan, we are actively conducting cooperation and festivals with various genres to reach out to the public familiarly. In addition, it enjoys the artistic value of ballet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arts by presenting high-quality works to the public through regular and various planned performances every year.

**CAST**

Donghyun Kim  
 Jihee Yang  
 Inha Im  
 Jeongmi Park  
 Yeji Yoon  
 Yechan Kim  
 Juho Lee  
 Sunghoi Park  
 Jiyoung Lee  
 Jiah Kim  
 Heewon Cho

**CREDITS**

Sungbok Jung  
 Yekaterina Kim

# 백수행 Baeksuhang

무인도  
Muindo

 \_muindo

## 공연일시

10.03.(목) 17:00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아 아.. 현재 타고 계신 열차는 백수행 열차입니다.'

곧 있으면 세상으로 내던져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본다. 무엇을 꿈꾸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떠올려본다. 작은 동지를 벗어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곁에 둔 채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무엇이 될 수 있나, 무엇을 꿈꾸었나...

지하철 소리가 들린다. 완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 단체소개

무인도는 '춤추는 사람들이 모인 섬'이라는 뜻으로 그들만의 색깔로 현대무용을 풀어간다.

## 출연진

김동현

김수민

박채경

이원재

## 제작진

최두경

문지현

우지코브

**DATE & TIME**

10.03.(Thu) 17:00

**LOCATION**

KT&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Ah, the train you are on is heading to Baeksu station."

We reflect on what thoughts we had before being cast into the world. We recall our dreams and what we should do. With a small nest left behind, we ponder what we have become, what we could be, and what we have dreamed of...

The horning sound of the subway is coming in. It is time to move towards a complete world.

**GROUP INTRODUCTION**

Muindo(Deserted Island) means "an island where dancing people gather," expressing contemporary dance in their unique style.

**CAST**

Donghyun Kim

Soomin Kim

Chaekyoung Park

Wonjae Lee

**CREDITS**

Dugyeong Choi

Jihyen Moon

Usicove Sound

# 호흡 Breathe

BWC댄스컴퍼니  
BWC Dance Company

 bwc\_dance  asp.bwc.ac.kr/sub01/sub11\_2.asp

## 공연일시

10.03.(목) 17:00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김보경  
김지나  
김해솔  
이채영  
서초영  
한가현  
이지원  
유주영  
김경희

박소영  
이의현  
김도영  
김나영  
이수인  
천가영  
정지원  
허림

## 제작진

김은영  
신수민  
서덕구

## 작품소개

호흡은 삶의 리듬. 춤은 그 리듬에 깃든 언어. 들숨에 시작된 이야기가 날숨에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순간을 영원으로 확장한다. 작품을 통해 호흡과 의식이 주어진 우리 삶을 고찰하고 고정 개념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려는 현대의 풍경을 보고 '나'라는 존재는 호흡하며 의식을 가지고 죽어가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무엇을 하며 죽어가는가를 호기심에서 시작해 질문하는 자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 단체소개

BWC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스트릿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여러 파트의 전공생들이 함께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7:00

**LOCATION**

KT&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Breath is the Rhythm of Life. Dance is the language imbued with that rhythm. The story that began with an inhalation does not end with an exhalation. We expand that moment into eternity. Through the work, we contemplate the breath and consciousness given to our lives, expressing the landscape of our time that seeks to move beyond fixed concepts, transforming from a curiosity into a question about what other existences do while 'I' breathe and die.

**GROUP INTRODUCTION**

BWC Dance Company consists of graduates and current students from the Children's Arts Dance Department at Busan Women's College who major in street dance, Korea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based in Busan.

**CAST**

Bokyoung Kim  
Jina Kim  
Haesol Kim  
Chaeyoung Lee  
Choyoung Seo  
Gahyun Han  
Jiwon Lee  
Jooyeong You  
Kyunghee Kim

Soyoung Park  
Euihyeon Lee  
Doyeong Kim  
Nayoung Kim  
Suin Lee  
Gayoung Chun  
Jiwon Jeong  
Rim Huh

**CREDITS**

Eunyoung Kim  
Sumin Shin  
Duckku Seo

# 맷고풀고 Tie and Untie

맷풀  
Tie Untie

## 공연일시

10.03.(목) 17:00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러닝타임

14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김지윤  
김지영  
백다경  
최유리  
배재은  
이주희  
박유빈

## 제작진

신진영

## 작품소개

한국의 민속놀이 중 하나인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하여 사회 속에서의 구속과 억압을 한국 춤의 맷음으로,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아 해방하고자 하는 모습은 풀림으로 표현한 춤이다.

## 단체소개

맷풀은 부산대학교 한국무용 전공생들로 구성된 팀이며 '맷고 풀고'의 줄임말이다. 맷고 풀고는 한국춤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전통과 현대적인 움직임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3.(Thu) 17:00

**LOCATION**

KT&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14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dance, inspired by one of the Korean folk games, 'Ganggangsullae' represents the constraints and oppression in society through the tying movements while seeking freedom and liberation through the untying movements.

**GROUP INTRODUCTION**

Tie Untie consists of Korean dance major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is an abbreviation of "Tying and Untying" represents a key characteristic of Korean dance, and we aim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by utilizing this feature through both traditional and modern movements.with the audience by utilizing this feature through both traditional and modern movements.

**CAST**

Jiyun Kim  
Jiyoung Kim  
Dakyeong Baek  
Yuri Choi  
Jae-eun Bae  
Juhee Lee  
Youbin Park

**CREDITS**

Jinyoung Shin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I'm off to school!

아니모  
ANIMO

## 공연일시

10.03.(목) 17:00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러닝타임

7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박정민  
한승우  
한수지  
박소민  
한서현  
이예원

## 제작진

이재원

## 작품소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겹기만 하던 학교는 이제 이보다 재밌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영화 <스쿨 오브 락>에 영감을 받아, 혼자가 아닌 6명의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에 오늘도 한 걸음 가까워져 간다.

## 단체소개

아니모는 활기를 돋우다, 힘내다, 응원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신나고 활기찬 댄싱을 보여주는 팀이다. 6명의 댄서들이 모여 힙합, 걸리쉬, 브레이킹, 코레오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보여주며 팀워크와 더불어 각자의 개성이 뚜렷히 나타나는 팀이다.

**DATE & TIME**

10.03.(Thu) 17:00

**LOCATION**

KT&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7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I'm off to school!"

The monotonous school that once was has now become an exciting place. Inspired by the movie <School of Rock>, six friends dance together, rediscovering the meaning of life and getting closer to the genuine art they pursue.

**GROUP INTRODUCTION**

ANIMO means 'to invigorate, encourage, and cheer', showcasing lively and energetic dancing. Six dancers come together to present various genres and styles such as hip-hop, girlish, breaking, and choreography, highlighting teamwork and individual uniqueness.

**CAST**

Jeongmin Park  
Seungwoo Han  
Suji Han  
Somin Park  
Seohyeon Han  
Yewon Lee

**CREDITS**

Jaewon Lee

#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 휴댄스프로젝트 Hu Dance Project

 hudanceproject

### 공연일시

10.03.(목) 17:00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러닝타임

7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김다영  
임지우  
허지혜

### 제작진

하유리

### 작품소개

본인과 타인 속 끝없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그 관계 속엔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중일 것이다.

### 단체소개

휴댄스프로젝트(Hu Dance Project)의 이름은 'Human'의 'Hu'를 따서 만들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작업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성 무용단이다. 2023년 12월에 작품으로 처음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고, 작품을 통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관객들과 소통하여 무용수와 관객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DATE & TIME**

10.3.(Thu) 17:00

**LOCATION**

KT&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7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re are endless stories created between oneself and others. They may feel discomfort due to their differences, but those relationships encompass more than just that, therefore they are constantly in search of their answers.

**GROUP INTRODUCTION**

Hu Dance Project was created from "Hu," which stands for "Human," and is a project-based dance group aimed at working with various people. They first met the audience with their work in December 2023 and strive to create a stage where dancers and audiences can positively influence sharing personal experiences.

**CAST**

Dayoung Kim  
Jiwoo Lim  
Jihye Heo

**CREDITS**

Yuri Ha

## OUR [ ]

BWC댄스컴퍼니  
BWC Dance Company

 bwc\_dance  asp.bwc.ac.kr/sub01/sub11\_2.asp

공연일시

10.03.(목) 17:00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러닝타임

10분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국가

대한민국

투어인원

출연자 13명, 스태프 3명

출연진

윤아연  
김보경  
김지나  
김해솔  
이채영  
서초영  
한가현  
김경희  
박소영  
이지원  
김나영  
김도영  
천가영

제작진

김은영  
신수민  
서덕구

작품소개

우리가 함께일 때, 각자의 다채로운 색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 <Our [ ]>는 완성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여정의 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Our [ ]>는 빈칸 속에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해석과 상징성을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이 빈칸을 다양하게 해석해 나가며 우리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단체소개

BWC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스트리트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여러 파트의 전공생들이 함께하며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7:00

**LOCATION**

KT&amp;G Sangsang Madang Live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3, STAFF 3

**CAST**

Ahyeon Yun  
 Bokyung Kim  
 Jina Kim  
 Haesol Kim  
 Chaeyoung Lee  
 Choyoung Seo  
 Gahyun Han  
 Kyunghee Kim  
 Soyoung Park  
 Jiwon Lee  
 Nayoung Kim  
 Doyeong Kim  
 Gayoung Chun

**CREDITS**

Eunyoung Kim  
 Sumin Shin  
 Duckku Seo

**INTRODUCTION OF THE WORK**

When we are together, our diverse colors harmonize to complete a community. <Our [ ]> contains the potential to become a completed whole, and at the end of our journey together, we will discover something.

<Our [ ]> can hold various meanings in the blank space, possess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symbolic significance. Through this work, we aim to show plenty of possibilities that can be completed through cooperation and interaction.

**GROUP INTRODUCTION**

BWC Dance Company consists of graduates and current students from the Children's Arts Dance Department at Busan Women's College who major in street dance, Korean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based in Busan.

# Peak

최호정  
Hojeong Choi

 hotima\_v ez

## 공연일시

10.02.(수) 19:30

10.03.(목) 19:3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 출연진

최호정

최정홍

장수범

최예원

오현택

김석현

## 제작진

안무 최호정

작곡 장지호

의상디자인 최인숙

## 작품소개

작품 <Peak>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절정을 몸으로 나타내려 한다.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탐색-흥분-절정의 단계를 거쳐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감정들을 움직임의 에너지로 표현해본다.

## 단체소개

안무가 최호정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과 특별함을 찾아내는 안무 방식을 지향한다. 반복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진 몸을 해부하고 재구성하여 몸짓 그 자체로 표현되는 움직임을 선호하며, 움직임에서 파생되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감정들도 몸짓에 대입하여 무대화 시킨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관객의 시선으로 안무를 관찰하려 하고 주제 혹은 의도에 따르는 인간 본연의 움직임들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자 한다. 안무가 최호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졸업하고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DATE & TIME**

10.02.(Wed) 19:30

10.03.(Thu) 19: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CAST**

Hojeong Choi

Jeonghong Choi

Soobeom Jang

Yewon Choi

Hyeontaek Oh

Seokhyun Kim

**CREDITS****Choreographer** Hojeong Choi**Composer** Jiho Jang**Costume Design** Insook Choi**INTRODUCTION OF THE WORK**

The work aims to express the climax experienced when the body reaches a goal. It captures the emotions felt as one gets closer to the goal, moving through stages of exploration, excitement, and the psychological climax of someone who aspires to ascend endlessly, driven by the energy of movement.

**GROUP INTRODUCTION**

Choreographer Hojeong Choi aims for a choreography method that finds newness and specialness in familiarity. He prefers movements expressed by gestures themselves by dissecting and reconstructing the body made up of repetitive learning, and also substitutes emotions derived from movements into gestures and turns them into stage. In the process of working, he tries to observe the choreograph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dience and tries to elicit empathy by creating an image with natural human movements according to the subject or intention. Choreographer Hojeong Choi graduated from the practical department of the Dance Institute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is actively working as a dancer and choreographer at the LDP Dance Company.

# 희열 Euphoria

텡성 댄스 컴퍼니  
Tengsheng Dance Company

 TENGSHENG DANCE\_TAIWAN

## 공연일시

10.02.(수) 19:30

10.03.(목) 19:3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러닝타임

12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칠정육육이 무분별하게 방출될 때, 감정의 괴물들이 발산의 쾌감에 빠져들기 시작하여, 곧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 단체소개

안무가 황텡성은 국립타이베이예술대학교 무용과 출신이다. 그는 소품 없이 신체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무용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공연하는 등 꾸준히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창작 중이다.

## 출연진

황텡성

위웨이청

천유준

## 제작진

안무 황텡성

스태프 허화이포

**DATE & TIME**

10.02.(Wed) 19:30

10.03.(Thu) 19: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12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When the seven emotions and six desires are unscrupulously released, Emotional monsters get addicted to the thrill of catharsis, Then soon it will go out of control.

**GROUP INTRODUCTION**

Choreographer HUANG Teng-sheng entered the dan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he Arts. He is committed to original pure body dance and tries to find the maximum possibility of the body without using props.

**CAST**

Huang Teng-Sheng

Yu Wei-Cheng

Chen Yu-Chun

**CREDITS****Choreographer** Huang Teng-Sheng**Administration Staff** He Hual-Po

## GIRLS

로이 아사프 댄스  
Roy Assaf Dance royassafdance royassafdance.com**공연일시**

10.02.(수) 19:30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러닝타임**

40분

**관람연령**

8세이상

**국적**

이스라엘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작품소개**

다섯 명의 여성은 붉은 옷을 입고 흰색 바닥 위에 서 있다. 그들은 완고한 여성성의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쁘게 하거나, 항의하거나, 달래기 위해 높아진다.

무대 위의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어둠 속 모든 이들에게겐 위험이 도사린다. 이 공연은 당신을 상처 입히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위험이 있다.

무대 위 다섯 명의 여성은 우리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게, 강력하게, 불가피하게 얹혀 있는 사회의 기대와 요구, 그것들과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단체소개**

로이 아사프는 1982년 이스라엘 남부의 농업 커뮤니티 스데 모세에서 태어났다. 그는 기억하는 한 내내 춤을 추고 창작해왔다. 16세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용을 시작한 그는 2003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무가인 엠마누엘 갓을 만나 5년간 공연자이자 보조 안무가로 작업했다.

2010년 이후, 그는 독립적으로 작품을 개발해왔으며 벤자민 밀레피에의 LA 댄스 프로젝트, 로열 스웨덴 발레단, 바체바 무용단, 웨일스 국립 무용단, 예테보리 오페라 무용단, 줄리어드 스쿨, 탄츠 마인츠 및 덴마크 무용단 등 여러 단체 및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극장과 축제에서 공연되었다.

**출연진**

나오미 벤 데이비드

엘라 이스만

로니 밀라틴

베아트리체 라리비에

로니 아르가만

**제작진**

예술감독/안무 로이 아사프

음악 편집/편곡 루트 예후다이

예술자문

아리엘 프리드만, 로닛 지브, 아이르 바르디

**DATE & TIME**

10.02.(Wed) 19: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4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Israel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INTRODUCTION OF THE WORK**

Five women in red, on a narrow white floor, exposing themselves to stubborn cliches of femininity. Voices go up to please, to protest, to pacify.

Although it might seem that the women are the ones in the spotlight, there is no mistaking the risk for all those who sit in the dark and observe. There is a risk it may hurt you, embarrass you, outrage you, frighten you, provoke in you a profound need to deny and, above all, expose you, the flesh and blood spectator who sits in front of them, to the workings of your own mind.

Five women are gathered here, engaged in a complicated dialogue with the expectations and demands of society sitting invisibly, mightily, inescapably upon all our shoulders.

**GROUP INTRODUCTION**

Roy Assaf was born in 1982 in the farming community of Sde Moshe in the south of Israel. He has been dancing and creating as long as he can remember. He began formal training at the age of sixteen, when he joined a dance group at the community center in Kiryat Gat. In 2003 he me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horeographer Emanuel Gat and collaborated with Gat as both performer and choreographic assistant from 2004-2009.

Since 2010, he has been developing his own works independently and has received commissions from companies including Benjamin Millepied's LA Dance Project, the Royal Swedish Ballet, the Batsheva Dance Company, the National Dance Company Wales, the Gothenburg Opera Dance Company, The Juilliard School, TanzMainz and Danish Dance Theater, among others. His work has been performed in such renowned venues and festivals as the 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Jacob's Pillow, American Dance Festival, Belgrade Dance Festival, Bolzano Danza, Sziget Festival, Trafo, Pavillon Noir, La Biennale di Venezia, La Biennale De Lyon and the Baryshnikov Arts Center. His award-winning duet Six Years Later was performed by Natalia Osipova in her program Pure Dance, produced by Sadler's Wells.

**CAST**

Naomi Ben David

Ella Isman

Roni Milatin

Béatrice Larrivée

Roni Argaman

**CREDITS****Artistic Director/Choreographer** Roy Assaf**Music editing/Arrangement** Reut Yehudai**Artistic Advisors**

Ariel Freedman, Ronit Ziv, Yair Vardi

# 작은리본 Chiffonnade

카레 블랑 컴퍼니  
Carre Blanc Cie

 carreblancie

## 공연일시

10.02.(수) 11:00

10.04.(금) 11: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45분

## 관람연령

2세이상

## 국가

프랑스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야네 코르파

앙젤린 기로디에스

## 제작진

안무 미셸 달루

조명디자인 이브-마리 코르파

음향디자인 바티스트 베르제

무대디자인 코린 베르게즈

## 작품소개

<작은리본>은 촉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으며, 바스락거리고, 주름지거나 찢어질 수 있는, 그리고 몸에 걸침으로써 우리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생한 소재와 감각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한 인물이 둥근 공간 안에서 여러 천과 함께 춤을 추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펼친다. 이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하며, 천으로 만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낡은 천 조각들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어린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몽환적인 무용 공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적 여정을 떠나게 한다.

## 단체소개

1986년에 설립되어 미셸 달루가 이끄는 카레 블랑은 현대 무용의 관객층을 확장하고 현대예술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작품세계를 펼쳐나간다.

미셸 달루는 무용을 창작할 때 극적 요소에 중점을 둔다. 그녀의 작품은 무용, 연극, 서커스, 인형극, 음악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감정, 몽환성, 시적 요소, 그리고 유머를 이끌어낸다.

**DATE & TIME**

10.02.(Wed) 11:00

10.04.(Fri) 11: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III

**RUNNING TIME**

45min

**AGE LIMITS**

2+

**NATIONALITY**

France

**CAST**

Yane Corfa

Angéline Guiraudies

**CREDITS****Choreographer** Michèle Dhallu**Lighting Design** Yves-Marie Corfa**Sound Design** Baptiste Verger**Stage Design** Coline Vergez**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Chiffonnade> is a choreographic creation rich in raw material which can be felt, touched, rustled, pleated, torn, that can be worn or use to disguise and transform our appearances in the eyes of others. Cocooned within a sphere, a character and a multitude of fabrics become partners in a dance evoking emancipation, with the chrysalis of a child growing until he becomes an adult, spreading his fabric-made wings to fly.

From pieces of rags, we can create new worlds... A dreamlike dance show for very young audience that will embark you on a poetic journey from childhood to adulthood.

**GROUP INTRODUCTION**

Created in 1986 and directed by Michèle Dhallu, Carré Blanc aims to promote contemporary art by seeking to broaden the specific audience of contemporary dance, both by the diversity of the pieces created and its educational engagement. The company creates works mainly dedicated to children but not only.

MichèleDhallu's artistic choice is to focus on dramaturgy when writing dance. Her work takes place in between dance, theatre, circus, puppets, music. By encouraging the intertwining of disciplines, Michèle's pieces bring out emotions, onirism, poetry and humor.

# 보여지지 않는 ( ) Invisible ( )

김지은(코스모스인아트)  
Jieun Kim(Cosmos In Art)

 \_ji\_leuning

 cosmos\_in\_art

## 공연일시

10.03.(목) 19:3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김지은

## 제작진

안무 김지은

영상 전세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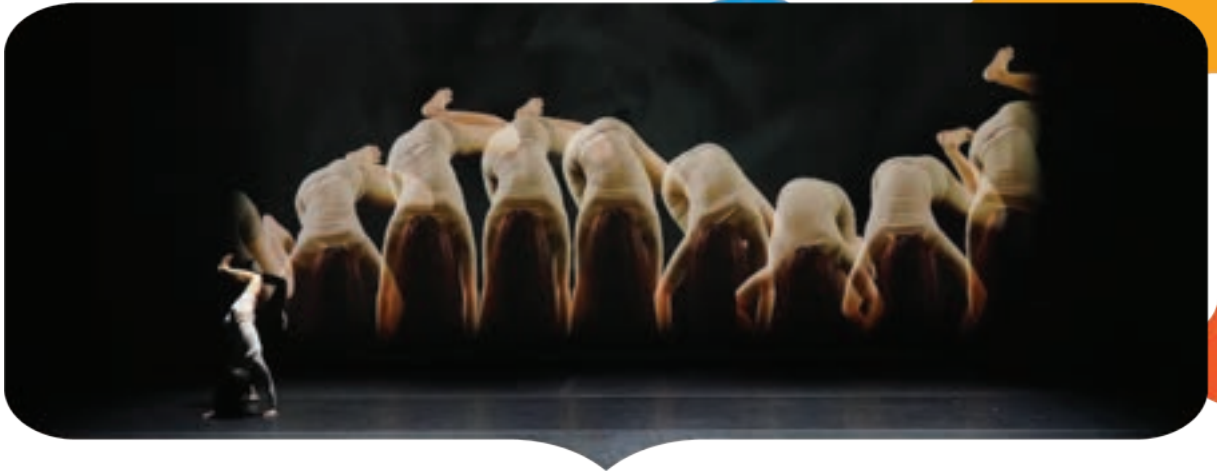
음향 최혜리

## 작품소개

본 작품은 외형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가려진 상태에 안정감을 느꼈던, 안무가 개인의 경험에 대한 불편함과 의구심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퍼포머는 지속적인 여러 행위들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는 ( )'를 갈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퍼포머의 행위는 기괴하고 가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강한 의도를 내뿜어내며, 낯선 형상을 띤 잔상의 존재들을 생성해낸다. 안무가는 이를 통하여 현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불건강한 모습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며, 일부 사회의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이 가진 단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단체소개

안무가 김지은은 고유한 색을 가진 행성들이 모여 질서 있는 큰 우주를 형성한다는 뜻의 '코스모스'에서 착안한 예술복합공동체 코스모스인아트(cosmos in art)의 소속 안무가이다. 현대무용을 전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연, 전시, 영상(촬영),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진 예술가이다. 주로 신체를 통하여 여러 이미지의 몸의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묘하고 복합적인 느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체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흥미와 호기심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9: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work started from the discomfort and doubts about choreographer's personal experience. The experience that she felt oddly comfortable when her appearance did not show clearly but covered. Performer craves 'invisible ( )' by continuously performing various acts. Over time, the performer's actions appear to be grotesque and sadistic but strongly state its intentions. And produce afterimages with unfamiliar shapes. Through this, the choreographer reveals her discomfort with the unhealthy situation in the current society. And tries to talk about the slice of individuals influenced by one society's atmosphere.

**GROUP INTRODUCTION**

Choreographer Jieun Kim belong to 'Cosmos In Art', an interdisciplinary art community. The name of this interdisciplinary art community came from the idea that planets with their own colors gather together to form an orderly structure of the cosmos. She is a new artist who majored in modern dance and is active in various fields such as performance, exhibition, video, and media performance based on this. She is mainly interested in creating the shape of the body of various images through the body or creating something with a strange and complex feeling. In addition, she is curious about how far human body can be used, so she is working on it based on these interests and curiosities.

**CAST**

Jieun Kim

**CREDITS****Choreographer** Jieun Kim**Video** Sehoon Jeon**Sound** Hyelee Choi

# 오래 된 축제 An Old Carnival

판댄스씨어터  
Pan Dance Theater

 heoseongjun\_pdt

## 공연일시

10.03.(목) 19:3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허성준  
박은지  
김소이  
이용진  
강동환  
김민찬  
고은영

## 제작진

안무 허성준  
음향 송민지

## 작품소개

“잔혹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축제에 속한다.” 우리는 이 전통적이고 오래된 축제를 구성하는 한 개인을 축제의 주최자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면적으로는 이 축제의 행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알아차리기 힘든 감정의 이면을 포착하여 기존의 축제와는 변화된 잔혹함의 의미로서 무대 위의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외적으로는 위험하고 잔혹해 보일지라도 축제를 여는 주최자의 이면에는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히 차 있다.

## 단체소개

자유로운 몸짓과 한계 짓지 않는 움직임, 몸이 말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판 벌여 각자의 고민, 사상, 재미나는 상황, 비극적인 상황 등을 들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창조하고 발견하는 데 또 다른 관심이 있다. 그것들이 우리가 벌여 놓은 판 위로 드러나길 기대한다.

**DATE & TIME**

10.03.(Thu) 19: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Geumbit Nuri Hall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Cruelty is one of mankind's oldest festivals." We look at an individual who makes up this traditional and long-standing festival of manki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ganizer of the festival, and capture the other side of emotions that are not easily revealed and difficult to recognize in the activities of this festival on the surface, and create a change from existing festivals. As a meaning of cruelty, I try to express it through a work on stage. Although it may seem dangerous and cruel on the outside, the other side of the festival organizer is full of enchanting beauty.

**GROUP INTRODUCTION**

Gathering individuals who communicate through the freedom of movement and limitless movements, where the body becomes a language, and the spirit takes flight, we aim to create a space where diverse concerns, philosophies, captivating scenarios, and even tragic moments can be expressed. Moreover, our interest extends beyond binary thinking, as we aspire to cultivate creativity and discovery.

**CAST**

Seongjun Heo  
Eunji Park  
Soi Kim  
Yongjin Lee  
Donghwan Kang  
Minchan Kim  
Eunyoung Ko

**CREDITS**

**Choreographer** Seongjun Heo  
**Sound** Minji Song

# 구음검무 Gueum Sword Dance

이상연  
Sangyeon Lee

## 공연일시

10.04.(금)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1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작품소개

진주검무를 모태로 서울교방의 김경란 선생이 독무로 재구성한 춤이다. 구음과 장구의 단출한 하모니로 이루어진 음악이 특색이다. 궁중무의 형식미와 함께 한삼춤의 우아함, 매혹적인 맨손사위, 현란한 검기가 다채로우면서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 단체소개

한국 전통춤의 다양한 류파를 익혀 춤의 기본과 내공이 탄탄하다. 전통춤의 맥을 올곧게 지키면서, 동시대의 감각과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출연진

이상연

## 제작진

안무 이상연

구음 김보라

**DATE & TIME**

10.04.(Fri)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1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Derived from the Jinju Sword Dance, it is a solo performance redefined by Master Kim Kyung Ran of the Seoul Kyobang. Its unique sound consists of a simple consonance between Gueum, the imitation of Korean instruments played by the human mouth, and the beat of janggu. Witness the formal beauty of a court dance, captivating bare-handed movements, and dazzling sword action all coming together as a colorful yet balanced harmony.

**GROUP INTRODUCTION**

A seasoned practitioner of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with strong backgrounds on diverse styles. She has been pursuing the legacy of the traditional dance, as well as redefining it to suit the contemporary taste and emotions.

**CAST**

Sangyeon Lee

**CREDITS**

**Choreographer** Sangyeon Lee

**Vocal** Bora Kim

# 상춘도량(常春道場) Sangchundoryang

서정숙  
Jungsook Seo

## 공연일시

10.04.(금)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6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서정숙

## 제작진

안무 서정숙

음악감독/소리 김보라

## 작품소개

<상춘도량>은 常春(상춘-봄이 계속됨)과 道場(도량-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을 합친 말로써, '봄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춤과 소리의 2인 작업으로서 두 예술의 근원적인 음(音)을 지향하고 춤과 소리의 하모니와 여음(餘音)을 통해 승무, 더 나아가 부처님의 심미(審美)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작품이다. 음악은 쇠악기(풍경, 종, 방짜유기)를 연주하며 부르며 전통 승무를 기반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 단체소개

안무가 서정숙은 오랫동안 서울교방의 춤꾼으로 활동하며 전통춤의 다양한 유파와 무대화되기 이전의 권번춤을 연마하며 전통의 해체와 창작작업을 해오고 있다. 소리하는 김보라, 기획자 최예진과 푸른가지 팀을 결성하여 우리 전통의 소리와 몸짓을 기반으로 재창작한 작업들을 즉흥소리와 춤으로 동시대성을 담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DATE & TIME**

10.04.(Fri)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6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CAST**

Jungsook Seo

**CREDITS****Choreographer** Jungsook Seo**Music Director/Musician** Bora Kim**INTRODUCTION OF THE WORK**

<Sangchundoryang>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常春(Sangchun, meaning "continues of the spring") and 道場(Doryang, meaning "a place for practicing the Do"). It can be interpreted as "a place to embrace the Do of spring." This work is a duet of dance and sound, aiming to explore the fundamental tones(音) of these two arts. Through the harmony and resonance(音) of dance and sound, it seeks to delve into the aesthetic essence of "Seungmu"(Korean traditional dance) and the Buddha's aesthetic(审美). The music is based on traditional "Seungmu," incorporating metal instruments such as Punggyeong(Korean wind chimes), bells, and Bangjja Yugi(Korean Brassware).

**GROUP INTRODUCTION**

Jungsook Seo is a dancer and a choreographer of "Seoul Gyobang" which is an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Korean traditional dance. At "Seoul Gyobang," Seo has trained in various style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including the "Kwonbeon" dance. Her primary goal is to deconstruct Korean traditional dances and create new work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dance methods. Recently, she co-created a dance project team called "Purungaji" with Korean traditional vocalist Bo-ra Kim and producer, and dance artist YeaJean Choi. Purungaji reimagines traditional Korean sounds and movements to create new dance works. Purungaji aims to communicate with nature and people through improvisational sound and dance by revealing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 논개별곡 A Separate Song for Nongae

김지영  
Jeeyoung Kim

## 공연일시

10.04.(금)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2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김지영

## 제작진

소리 박순아

음악 시나위

## 작품소개

이 춤은 논개제에서 추어진 김수악의 유작을 김경란이 서사적으로 창안한 작품이다. 진주기방 계열의 수건춤에 남해안 무속 색체가 가미 된 독창적인 수건사위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조용하고 잔잔한 시나위, 다잡는 듯 강인한 동살풀이, 격정적인 휘몰이 그리고 마지막 무덤덤함까지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

## 단체소개

김지영은 춤을 좋아하고 춤작업을 업으로 삼은 한국춤전공자이다. 한국문화와 한국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인문학적 소양 위에 춤 창조현장의 실천 체험으로 실재를 통한 이론의 구축, 이론을 통한 실제의 실현으로 한국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열린 한국적 사유방식과 춤신명으로 가득찬 활화산 같은 에너지와 친화력으로 한국춤의 밝은 전망을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

**DATE & TIME**

10.04.(Fri)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2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dance is epicly created by Kyungran Kim of Soo-ak Kim's posthumous work performed at the Nongae Festival. It features a unique towel dance with the southern coast shamanic color added to the Jinju Kibang-based towel dance, and it implies life with quiet and calm Sinawi, strong dongsalpuri as if holding on to it, passionate whimpering, and the last graveness.

**GROUP INTRODUCTION**

Jeeyoung Kim is a lover of dance who has made it her profession, major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e. She questions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and Korean dance, striving to build theory through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creative field of dance, while also realizing theory through practice. With a focus on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she embodies an open, Korean-style way of thinking, filled with volcanic energy and a passion for dance. Through her infectious energy and affinity, she leads a life dedicated to shaping a bright future for Korean dance.

**CAST**

Jeeyoung Kim

**CREDITS****Musician** Soona Park**Music** SINawe

# Wet Blanket

배진아  
Jinah Bae

 ae.rest.ah\_  ppongstore\_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작품소개

외부 소음에 의해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 내면의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인지해 본다. '크나큰 세상 속에 나를 지켜줄 안전지대는 존재하는가?' 작품은 이러한 의문 속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 단체소개

안무가 배진아는 관객과의 정서적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상적 움직임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며 무용이 지닌 기능적 표현에 극적 요소를 녹여 낸다.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의 형식에 가두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기법을 활용해 풀어 내기 위해 '잡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단체를 창단했다.

## 출연진

배진아  
장진솔

## 제작진

안무 배진아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Confronted by the reality brought on by external noise, I find myself trying to escape it. I become aware of the negative and incomplete state within me. In this vast world, does a safe haven exist that can protect me? The work captures the process of seeking a path amidst these questions.

**GROUP INTRODUCTION**

Choreographer Jinah Bae aims to develop works that foster emotional connection and empathy with the audience. To achieve this, she translates everyday movements into the language of the body, blending dramatic elements with the functional expressions of dance. To express stories without confining them to a single form, she founded a company using the term 'Variety Store,' reflecting her approach of utilizing diverse genres and techniques.

**CAST**

Jinah Bae  
Jinsol Jang

**CREDITS**

Choreographer Jinah Bae

# 스러지다. O.O.E.

안서연  
Seoyeon An

 ineffable\_an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안서연

## 제작진

안무 안서연

## 작품소개

삶에서 방전이란 무엇일까? 안무자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방전을 '반복'을 통해 표현한다. 우리의 삶에서 방전은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이다. 마침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방전되어 가고 있다.

## 단체소개

안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에서 예술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같은 학교에서 실기과 전문사 과정을 재학 중이다. 또한,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한 제31회 신인데뷔전 <맞-올림>에서 공동 안무 및 출연을 맡았으며, M.A.P 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CAST**

Seoyeon An

**CREDITS**

Choreographer Seoyeon An

**INTRODUCTION OF THE WORK**

What does 'discharge' mean in life? Choreographers vividly portray the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of individuals through the rhythmic repetition of movements. In our journey, discharge stealthily creeps in, characterized by recurrent cycles. Gradually, it dissipates, leaving us depleted. Presently, we find ourselves immersed in this relentless dance of discharge.

**GROUP INTRODUCTION**

Seoyeon An graduated from the undergraduate program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at the Department of Dance Performance,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is now doing her MFA program in contemporary dance at the same department. The artist participated as a co-choreographer and dancer in "Mat-mulim: the 31st Rookies Debut Competition" of the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and is active as a member of the dance company MAP.

# 순애(殉愛) Pure love

오푸름  
Pureum Oh

 gitachineunchinchilla  fert\_family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오푸름  
한지원

##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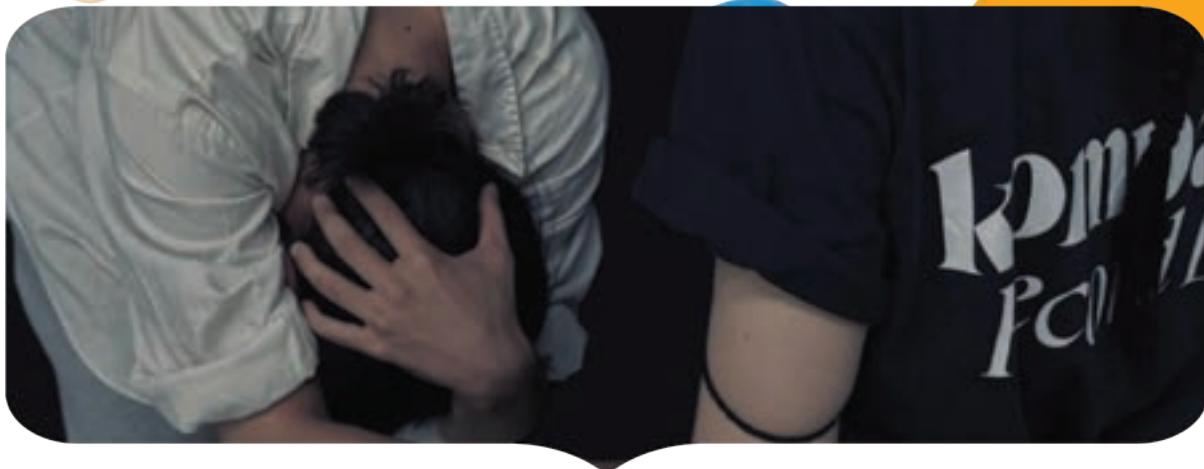
안무 오푸름  
드라마투르그 최수빈

## 작품소개

작품 <순애(殉愛)>는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이 아닌 고통스럽고 필사적인 사랑이라 가정한다. "나는 너와 있는데, 너는 나를 느끼지 못한다." 서로를 갉아먹는 폭력적인 사랑, 연의 마침표를 정해놓은 비극적인 사랑을 과연 순애라 칭할 수 있을까.

## 단체소개

오푸름은 FERT Family에 소속되어 있다. FERT는 '예술'이라는 씨앗에 '우리'라는 비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FERT Family가 추구하는 예술은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쉽고 재밌게 그리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INTRODUCTION OF THE WORK**

<Pure Love> assumes that it is a painful and desperate love, not devotion and beautiful sacrifice. "I'm with you, but you don't feel me." Can the violent love that gnaws away at each other and the tragic love that sets the end of a relationship really be called pure love?

**GROUP INTRODUCTION**

Pureum Oh belongs to artists' group FERT, whose name means that the fertilizer called "us" nourishing the seed of "art". Therefore, the art that a FERT Family pursues is that everyone is given the equal platform to express themselves in their own way they are with an easy, entertaining, and genuine manner.

**CAST**

Pureum Oh  
Jiwon Han

**CREDITS**

**Choreographer** Pureum Oh  
**Dramaturg** Subeen Choi

# Lights Out

이영우  
Youngwoo Lee

 regina\_ywl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누리홀

## 러닝타임

9-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이영우

## 제작진

안무 이영우

## 작품소개

모든 불이 꺼지고 나면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단순히 외관으로 구별되어질 수 없으며 차별은 유사성과 상이함 사이에 놓인 왜곡된 해석이다. 세상은 당신이 선택한 색상의 조명으로 비추어진다.

## 단체소개

이영우는 현대인의 경험을 고찰하고 해부하며 그 안에서 평등함이라는 가치에 주목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이다. 그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올바른 사회에 대한 각자의 사고를 권유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9-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Skin color doesn't matter after all lights go out. We cannot be distinguished simply by appearance, and discrimination is the distorted interpretation between similarity and difference. The world is illuminated in the color you choose.

**GROUP INTRODUCTION**

Youngwoo Lee is a choreographer and dancer who contemplates and analyzes the experiences of human beings and focuses on the value of equality within them. She intends to convey the message through this piece to encourage each person to think about the desirable society.

**CAST**

Youngwoo Lee

**CREDITS**

**Choreographer** Youngwoo Lee

# 탄생의 순수 The Purity of Birth

이재아  
Jaeah Lee



oasodanceproject



siikmuljip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 출연진

이재아

김소연

## 제작진

안무 이재아

## 작품소개

앞이 흐릿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 속, 우리는 만들어진다. <탄생의 순수>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순수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태어남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태반, 탯줄과 같은 조직체들이 하나씩 형성되는 과정을 '태(Tae)'라고 한다. 이를 통해 뱃속에서의 나만의 태동을 상상한다. 그 과정 속 나타나는 무해한 몸부림을 통해 인간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을 감각하고 성장한다.

## 단체소개

이재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실기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실기과에 재학중이다. 현재 ALTIMEETS 무용단 단원으로서 활동 중이며, 그 외에 OASO Dance Project 안무자이다. 주로 개개인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며 서로의 감각과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에 호기심이 있다. 관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것을 목표로, 한국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는 작업을 추구한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CAST**Jaeah Lee  
Soyeon Kim**CREDITS**

Choreographer Jaeah Lee

**INTRODUCTION OF THE WORK**

We are born in a blurry, unstable state which things are not almost invisible. <The Purity of Birth> signifies the purity presented in the process of birth. Our birth begins in our mother's womb. We call the formation process of various tissues like placenta and umbilical cord surrounding the fetus as 胎 (Tae). Through this, I imagine my own fetal movements, my own imagination within the womb. Through the harmless struggles that appear in this process, we sense and grow from the moment we set foot on the earth.

**GROUP INTRODUCTION**

Jaeah Lee graduated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Bachelor of Arts in Practical Dance and is currently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Practical Dance at the same institution. She is an active member of the ALTIMEETS dance company and a choreographer for the OASO Dance Project. Her work primaril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intrigued by movements that reflect each other's senses and perceptions. Aiming to provide audiences with fresh stimuli, she strives to incorporate Korean elements into her work.

# 해방하는 춤 Dance of Liberation

황예인  
Yeain Hwang

 yiamove.project  yiam\_95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 출연진

황예인  
정지은  
엄선우

##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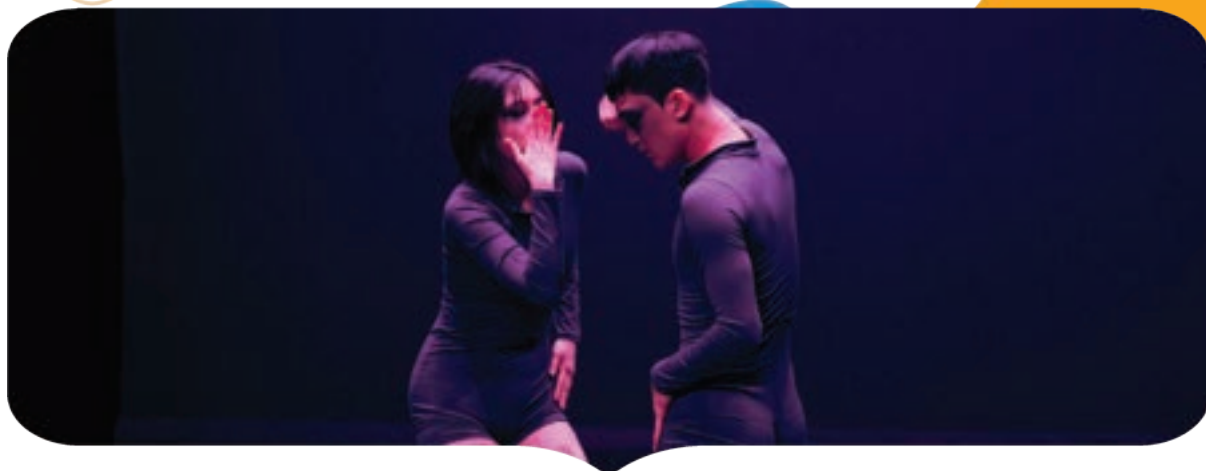
안무 황예인

## 작품소개

안무자로서의 해방, 그리고 무용수로서의 해방을 담았다. 다듬어진 것에서부터 작품과 몸을 해방시키고 독특한 구성과 움직임 언어로 작품을 채워가고자 한다. 관객들이 무용수들의 해방된 움직임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발견하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 단체소개

황예인이 소속된 Yiamove Project는 독창적인 움직임 언어를 연구하고 조합하며 작업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미래지향적 태도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INTRODUCTION OF THE WORK**

We included liberation as a choreographer and a dancer. While trying to liberate the work and bodies from the existing form, we are filling the work through unique compositions and movement languages. We hope the performance will allow the audience to find vitality and life force coming from the dancers' liberating movements.

**GROUP INTRODUCTION**

'Yiamove Project', to which Yeain Hwang belongs, is a group that researches, combines, and works on unique movement languages. This group works with a future-oriented attitude.

**CAST**

Yeain Hwang  
Jieun Jung  
Seonwoo Eom

**CREDITS**

**Choreographer** Yeain Hwang

# 그을음 Hazy

황정은  
Jeongeun Hwang

 day\_of\_nino

## 공연일시

10.03.(목) 15:0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러닝타임

1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명

## 출연진

황정은

##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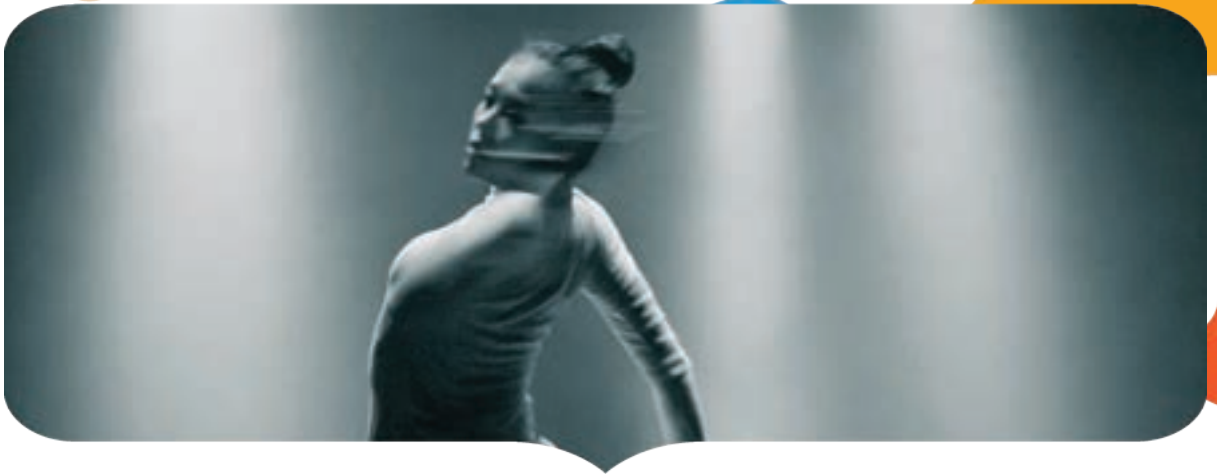
안무 황정은

## 작품소개

삶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립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먹으로 젖었다 마른 종이의 끝 한 켠과 같다. 그리움은 먹과 같아 계속해서 마음을 들일수록 그 깊이가 짙어지고, 먹의 색과 수분을 머금어 그리움에 젖은 종이는 마른 후에도 희뿌옇게 운다. 그런 종이들이 만나 책 한 권으로 완성되는 것이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그립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희뿌옇게 우는 종이를 가진 채 살아갈 뿐이다.

## 단체소개

황정은은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이다. 그녀에게 춤은 자신의 내부 세계를 견고히 하고, 외부 세계의 감각을 받아들이기 위한 매개체이다.

**DATE & TIME**

10.03.(Thu) 15:0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Silver Spring Hall

**RUNNING TIME**

1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

**INTRODUCTION OF THE WORK**

As time passes in life,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we miss but cannot see is like the edge of a paper once soaked in ink and now dried. Longing is like ink; the more you immerse yourself in it, the deeper it becomes. The paper soaked in nostalgia retains the color and moisture of the ink, and even after it has dried, it becomes hazily wrinkled. When such pieces of paper come together to form a book, it feels like the passage of time in our lives. We miss them, but cannot see them, so simply continue living with that mistily creased paper.

**GROUP INTRODUCTION**

Jeongeun Hwang, a choreographer and dancer, endeavors to express herself and broaden her personal universe through dance. To her, dance is what fortifies her inner realm and serves as an intermediary for external perceptions.

**CAST**

Jeongeun Hwang

**CREDITS**

**Choreographer** Jeongeun Hwang

# 음 - 양 陰陽 Yin - Yang

펑 댄스 컴퍼니  
Feng Dance Company

 fengdance

 feng-dance.com

## 공연일시

10.02.(수) 18:30

## 공연장소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

## 러닝타임

12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만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도미니크 펑-시 엔

완-전 장

장-즈 치

## 제작진

안무 도미니크 펑-시 엔

조안무 완-전 장

스태프 이웬 엔

## 작품소개

음양(陰陽)은 원래 단순히 햇빛과 어둠을 가리키는 의미였다. 이후 그 의미는 점차 확장되어 자연에서 "상호 대립하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고, 사물의 변화 법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만의 무용수들은 동서양의 다양한 훈련을 통합하여 대만 특유의 현대 무용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호흡"을 통해 움직임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시각적 요소와 공연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선보인다.

## 단체소개

펑 댄스 컴퍼니(FDC)는 "예술이 곧 삶"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적 창작을 통해 사회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안무는 춤의 틀을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한다. 그들은 공연, 전시, 이벤트를 통해 예술과 삶, 현대 사회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현대 안무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예술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펑 댄스 컴퍼니(FDC)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타이난 예술제, 춘천마임축제, 부산국제무용제 등에서 1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DATE & TIME**

10.02.(Wed) 18:30

**LOCATION**

Geumjeong Cultural Center Outdoor Concert Hall

**RUNNING TIME**

12min

**AGE LIMITS**

8+

**NATIONALITY**

Taiwan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original meaning of Yin-Yang referred only to the sunlight and the darkness. Later on, its meaning gradually extended to abstract concepts in nature of "mutual opposition yet interdependence," elaborating the laws of changes in things. Taiwanese dancers integrate various training from both the East and the West, developing contemporary dance with Taiwanese characteristics. They use "breath" to develop movement "forms", integrating visual and performance, presenting a crossover creative style.

**GROUP INTRODUCTION**

Feng Dance Company (FDC) has followed the belief that "art is life, and life is art," using diverse interdisciplinary creations to raise questions about society and life. Their choreography goes beyond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dance, communicating with audiences in various spaces. Through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events, FDC has offered new perspectives on art, life, and the modern social environment, while continuously expanding the boundaries of contemporary choreography and blurring the line between art and life. FDC has accumulated extensive experience with over 100 performances at events such as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Tainan Arts Festival, Chuncheon Mime Festival, a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CAST**

Dominique Feng-Hsi Yen

Wan-Chen Chang

Chih-Chi Chang

**CREDITS****Choreographer** Dominique Feng-Hsi Yen**Assistant Choreographer** Wan-Chen Chang**Administration Staff** Yi-Wen Yen

# 뚝단배 Shipwrecks

따뜻한 사람  
Warm Person

 warmperson1

## 공연일시

10.05.(토) 13: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5명

## 출연진

유병영

김건

엄주하

## 제작진

작가 이민준

연출 허석민

조연출 양진우

조명 김세휘

음향디자인 김시아

무대디자인 김승환

기획 이경진

## 작품소개

망망대해 바다 위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세 사람.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뗏목 위는 계급 사회가 존재한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줄 알았던 양반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없이 신세한탄에 빠져 있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노비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자고 했던 동학 운동가는 의미 없는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책에 빠져있다. 뗏목 위, 그들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엇치락뒤치락하면서 모순적인 모습들은 사라지며, 그들은 완벽해진 않지만, 서서히 융화된다.

안전한 육지에 도착하게 되자,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난다. 시대가 흘러도 계급 사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또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과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속하는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들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이번 공연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과 공존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단체소개

극단 따뜻한 사람은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부산 출신 젊은 연극인들과 힘을 모아 결성한 극단이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공연이 창작되어 사장되지 않고 공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며, 다양한 세대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시대에 앞서 시사점을 던짐으로써 공연예술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며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사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고자 한다.

**DATE & TIME**

10.05.(Sat) 13: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NUMBER OF PARTICIPANTS**

CAST 3, STAFF 5

**CAST**

Byoungyoung Yu

Geon Kim

Jooha Eom

**CREDITS****Writer** Minjun Lee**Director** Seokmin Heo**Assistant Director** Jinwoo Yang**Lighting Director** Sehwi Kim**Sound Design** Sia Kim**Stage Design** Seunghwan Kim**Promotor** Kyeongjin Lee**INTRODUCTION OF THE WORK**

Three people rely on a raft adrift in the vast ocean. Even in moments of life and death, a hierarchical society still exists on the raft. The aristocrat, who once believed he was leading the world, is now lost in endless lamentation over his past. The slave, who was treated worse than an animal, suggests practical solutions to survive the crisis. The Donghak revolutionary, who once advocated for a better world, is overcome with guilt due to the many lives lost in vain sacrifices. On the raft, their appearances are paradoxical. As they struggle and clash, these contradictions gradually fade, and although not perfect, they begin to harmonize.

Upon reaching safe land, they each go their separate ways. Despite the passage of time, hierarchical societies still exist. Some are deluded into thinking they lead the world, while others live believing. Furthermore, there are still those who call for chang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What kind of people are we today? Can any of these extreme perspectives be the answer? Through this performance, we aim to prompt the audience living in the present age to reflect on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coexistence. We hope to inspire thoughts on what attitudes we must adopt to move towards a better future. They are worthless.

**GROUP INTRODUCTION**

The Theater Warm Person was formed by young theater artists from Busan with the aim of creating a warm performance that can be shared by generations. We want to show that excellent performances are created in the region and can be performed without being left unattended. In addition, it continues to prove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performing arts by investigating the interests of various generations and expressing various implications to the public. Most of all, we try to find commonalities in human history that do not change despite the rapidly changing trend of the times and reach the audience with creative works.

# 닥치고 전진 Shut up! Just go!

드링크씨어터  
Drunken Theater

## 공연일시

10.05.(토) 15: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15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5명

## 출연진

김혜원

김인우

정지수

## 제작진

작가/연출 윤준기

## 작품소개

어릴 적부터 친구인 초록, 보라, 곤은 전국을 걸어서 여행하는 국토대장정 중이다. 자신들의 여행과 청춘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걷고, 걷고 또 걷는다.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 휘영청 달이 뜬 낭만적인 밤. 술을 마시며 이 여행에 대한 각자의 목표에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 단체소개

예술적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낭만 있는 극단. 연극에 취하자!

**DATE & TIME**

10.05.(Sat) 15: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15+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5

**INTRODUCTION OF THE WORK**

Three friends are traveling on foot across the country. They record their travel and youth on video. Walk, walk, and walk. At night, they set up tents and camp. a romantic night with a bright moon. It is a night when you drink and think more about your goals for this trip.

**GROUP INTRODUCTION**

A romantic troupe that never stops artistic experimentation and challenges. Let's get drunk on the play!

**CAST**

Hyewon Kim

Inwoo Kim

Jisu Jung

**CREDITS**

Writer/Director Joonki Yun

# 워 아이니 War 愛

배우창고  
Baewoochanggo

 ggim\_ka

## 공연일시

10.05.(토) 17: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3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김신호

이설

## 제작진

작가/연출 김가영

음향감독 남태인

## 작품소개

무언극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대사가 없이 배우들의 몸의 연기를 통해 작품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워 아이니>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이 인간의 목숨을 바퀴벌레처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 단체소개

2008년 창단한 배우창고는 단체 고유의 창작극과 우수 번역극, 신체적 언어로 구현된 드라마 등을 다루어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관객과의 문화예술적 교감에 몰두하고 있다. 배우창고는 하나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색깔을 지닌 연출가를 초빙하여 연극 언어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극단 고유의 연극 미학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층위 확장과 더불어 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DATE & TIME**

10.05.(Sat) 17: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3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nonverbal physical stage without lines offers special delight for the audience to discover the hidden ideas and intentions of the work, which tries to convey the message that the horrendous atrocities of war could treat human lives as if they were as expandable as harmful insects.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2008, Baewoochanggo has staged original plays, translated masterpieces and nonverbal physical dramas, and so on. Through a wide variety of creative stages reflecting the contemporary world, it is dedicated to building a close communion with the audience through arts and culture. Not simply restricting itself in a single theatrical genre, the company has collaborated with directors with diverse characters to explore the world of languages of theater. As such, the company has established its own unique and distinctive aesthetics, so that it coul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horizon of local arts and culture and upgrading the quality of arts and culture the local people appreciate from their everyday life.

**CAST**

Shinhyo Kim

Seol Lee

**CREDITS****Writer/Director** Kayoung Kim**Sound Director** Taein Nam

# 월지문소나타 Kiss Under the Moonlight

아이컨택  
ICONCONTACT

 icontact\_kr  icontact.creatorlink.net

## 공연일시

10.06.(일) 13: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2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6명

## 출연진

김주효

박문현

전현준

## 제작진

작가/연출 김수진

조연출 윤채원

드라마투르그 장재영

음악감독 박동재

프로듀서 양승민

기획 최지혜

디자인 안영현

조명감독 강진구

## 작품소개

'우리는 가끔 사랑에 무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끔 절체절명의 위기와 천운과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더욱이 무모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모하다고 욕할지언정 결과가 어떨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지 않을까. 누군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날 만큼 강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버리지 못해 마음을 숨겼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용기일까 두려움일까. 우리가 사랑하며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일까. 상대방의 마음일까. 무모하다는 것은 생각 없이 나선다는 말이다. 하지만 때론 무모하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아이컨택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존 관행에 대한 저항정신을 표현한다. 다양한 창작 공연을 바탕으로 융복합, 장소 특정형, 이머시브 공연 등 콘텐츠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매년 6~8회의 창작 및 레퍼토리 공연, 2~3건의 페스티벌 및 국제행사 용역사업을 진행하며 2,500~3,000명에 달하는 누적 관객 수를 기록 중이다.

**DATE & TIME**

10.06.(Sun) 13: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2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6

**INTRODUCTION OF THE WORK**

"Sometimes, taking risks in love can be necessary" We all face challenging times or experience unexpected opportunities. When we truly desire something, it is important to take ac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love; a willingness to be bold can be crucial. While some may consider this approach reckless, we cannot predict the outcome without trying. Some individuals are willing to sacrifice everything for love, while others conceal their true feelings because they cannot bear to leave someone they care about. Love can inspire courage or fear. It raises the question: should we prioritize our own feelings or those of the person we love? Taking risks might seem like acting without consideration, but at times, it is an action that only the brave can take.

**GROUP INTRODUCTION**

ICONTACT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with childlike innocence. Through ceaseless experiments and research, the company develops its signature approaches to express objection against conventional practices. Based on a wide variety of original play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ir specialties across content creation industries, such as convergence of genres, site-specific contents, and immersive shows. Staging from six to eight original or repertory theaters and from two to three events in festival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every year, the company has received around 2,500-3,000 accumulated viewers.

**CAST**

Juhyo Kim  
Moonhyun Park  
Hyunjune Jeon

**CREDITS**

**Writer/Director** Sujin Kim  
**Assistant Director** Chaewon Yoon  
**Dramaturg** Jaeyoung Jang  
**Music Director** Dongjae Park  
**Producer** Seungmin Yang  
**Promotor** Jihye Choe  
**Designer** Yeonghyun Ahn  
**Lighting Director** Jingu Kang

# 비나리 Binari

극단 맥  
MAC Theatre Company

## 공연일시

10.06.(일) 15: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55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심미란  
조영미  
이태규  
이민성  
박선유  
정재욱  
김다솜

## 제작진

작가/연출 이정남  
조명감독 손희원  
마케팅매니저 박경희

## 작품소개

하늘과 소통을 갈망하는 한국의 무속신앙(샤머니즘)이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하늘에 대한 동서양의 다르면서도 같은 이 작품은 새로운 창작 방법을 제시한다. 이 작품은 동해안의 오구굿과 한국의 가면극 동래야류 영감할미 과장을 집대성한 것으로, 전통의 틀을 과감하게 해체하여 예술적 가치로 접근하려는 극단 맥의 창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굿의 형식을 빌린 연극! 이승과 저승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 한이 많은 원혼이 즐겁게 놀다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굿판 무당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한 노래가 펼쳐지고,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미의 몸부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고리를 암시한다. 극 중에서 펼쳐지는 망자의 혼을 달래는 행위는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 단체소개

1986년 12월에 창단된 극단 맥은 부산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아비뇽의 발공극장, 에스빠스 호조 극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라 메종 프로덕션과 매년 비디오 매핑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있다. 극단 맥은 한국 전통연희 형식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창작한다. 관객이 없으면 연극도, 예술도 없다는 신념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며 세계 공연예술 시장에 부산연극과 한국연극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DATE & TIME**

10.06.(Sun) 15: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55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Korean shamanistic wish to communicate with heaven (shamanism) is reincarnated into a theatrical stage! The piece incorporates the East Asian ideas about heaven, which seem different as well as similar to those of the West, and suggests a new and original method of creating a theatrical stage. The stage epitomizes Ogu-gut (a shamanistic ritual to lead the deceased to the afterlife world) of the eastern fishing villages of Korea, and the Yeonggam Halmi (lit. "old man and old woman") Act of Dongnae Yaru (traditional outdoor masked play of Dongnae District of Busan), proving the company's unspared commitment to ambitiously dismantle the stereotypical conventions of a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tage and highlight the fundamental artistic values of the tradition. not only relieve the dead soul but also wishes for a fortunate and peaceful life of the living people.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December 1986, MAC Theatre Company is based in Busan and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y have established networks with Avignon's Théâtre des Carmes, Espace Hojô, and collaborate annually on video mapping projects with La Maison Productions. MAC Theatre Company aims to moderniz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create the most Korean-style theater that captures the Korean spirit. With the belief that without an audience, there is no theater or art, they strive to secure public interest, align with the public's expectations, and serve as a bridge to introduce Busan and Korean theater to the global performing arts market.

**CAST**

Miran Sim  
 Youngmi Cho  
 Taegy Lee  
 Minsung Lee  
 Sunyou Park  
 Jaewook Jung  
 Dasom Kim

**CREDITS**

**Writer/Director** Jungham Lee  
**Lighting Director** Heewon Son  
**Marketing Manager** Gyunghee Park

**10,000원 내고 우리 연극 보러 올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먹겠다**  
**Instead of paying 10 bucks for our theater,  
I would rather buy a bucket of fried chicken**

극예술실험집단 초  
 Theater Arts Experiment Group CHO

 cho\_thespian

#### 공연일시

10.06.(일) 17:00

####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12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7명, 제작진 4명

#### 출연진

황정인  
 김가은  
 전솔지  
 정성현  
 목수연  
 이선준  
 이한성

#### 제작진

제작 노경민  
 작가/연출 김동규  
 무대감독 지민아, 강명진  
 조명디자인 이하슬  
 음악 손현진

#### 작품소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지만 이것은 연극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가끔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면 “이게 연극이지!”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연극을 만드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오락도, 눈물도, 웅장미도, 간지러움도, 정의도, 가치도, 역사도, 미장센도, 호흡도, 지적 허영도, 그 어떠한 카타르시스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연극의 형식에 대해 토로하지 않는다. 관객이 모두 떠나면 연극은 종료된다.

#### 단체소개

“밝히다, 자라다, 시작하다, 흐르다, 뛰어넘다.”

밝은 촛불이 될지도, 자라는 풀이 될지도, 누군가의 시작점이 될지도, 흘러가는 시간이 될지도, 뛰어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연극을 찾아오는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남겼으면 하는, 형식과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DATE & TIME**

10.06.(Sun) 17:00

**LOCATION**

Nada Theater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12+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7,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Nothing is presented, but this is a play."

Until now, we've given you reasons about why you should watch our play. We continue to create new works, and sometimes when a groundbreaking play comes alive, we say, "This is why we do theater!" But this didn't give us a clear reason about why we make plays. Today we will offer you no entertainment, no tears, no grandeur, no tickling, no justice, no values, no history, no mise-en-scène, no breathing, no intellectual vanity, no catharsis. We are not talking about a new format of the play. The play ends when you leave.

**GROUP INTRODUCTION**

"Reveal, Grow, Begin, Flow, Overcome"

It may be a bright candle, growing grass, someone's starting point, the passage of time, or an opportunity to overcome. We want to leave a different meaning to everyone who visits the theater, and we always want to provide new experiences to the audience without being bound by format or style.

**CAST**

Jeongin Hwang

Gaeun Kim

Solji Jeon

Sunghyeon Jung

Suyeon Mok

Seonjun Lee

Hanseong Lee

**CREDITS****Producer** Gyoungmin Noh**Writer/Director** Donggyu Kim**Stage Director** Minah Ji, Myeongjin Kang**Lighting Design** Hasuel Lee**Music** Hyunjin Son

# 장고개 사람들 The people of Janggogae

극단 연  
theater yeun

 yeun\_theater

## 공연일시

10.03.(월) 14:00, 17:00

## 공연장소

가온아트홀 1관

## 러닝타임

90분

## 관람연령

8세이상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10명, 스태프 13명

## 작품소개

장고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단했던 시절, 부산 남구 우암동 장고개에 살아가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식당, 수입품, 싸전, 어물전, 잡화점을 주 배경으로 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 단체소개

2009년 10월에 부산에서 창단한 극단 연은 2010년 7월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창작 및 무대공연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 예술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위해 각종 공연 및 거리퍼포먼스 행사와 예술활동 그리고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향토극단으로서 부산지역의 예술인 육성과 공연예술작품의 개발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부산 지역 문화 예술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역량있는 예술가들이 모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DATE & TIME**

10.03.(Mon) 14:00, 17:00

**LOCATION**

Gaon Art Hall 1

**RUNNING TIME**

90min

**AGE LIMITS**

8+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10, STAFF 13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tory of people who are sold from Janggogae. It depicts the stories of characters living in Janggogae, Uam-dong, Nam-gu, Busan, during the difficult times. It is a work that depicts the lives of characters living fiercely with restaurants, imported goods, a grain store, fish market, and general store as the main background.

**GROUP INTRODUCTION**

Founded in Busan in October 2009, Yeon has been engaged in creative and stage performing arts activities since its foundation in July 2010, and has been conducting various performances, street performance events, art activities, and cultural exchange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art culture.

**CAST**

Hakjoon Kim, Sugyeong Gil, Juhyeon Lee, Jeongeon Bak, Sangho Gim, Mingyeong Im, Huimin An, Hyeonmuk Lee, Damseo Kang, Taeli Kim

# 더 레터 The Letter

브리즈온색소폰앙상블  
Breeze On Saxophone Ensemble

## 공연일시

10.01.(화) 19:30

## 공연장소

공간 523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남겨진, 작곡가들의 다양한 편지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그와 어울리는 음악들을 연주한다.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있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통해 피아노 연주곡, 현악기 연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색소폰 콰르텟으로 편곡한 이번 특별한 연주회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슈만의 '어린이정경', '쇼팽의' '녹턴 Op.9-2', 아이유의 '밤편지', 김광진의 '편지'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브리즈온색소폰앙상블은 소프라노 색소폰 우다연, 알토 색소폰 이현진, 테너 색소폰 노태호, 바리톤 색소폰 김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색소폰 콰르텟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단체다.

**DATE & TIME**

10.01.(Tue) 19:30

**LOCATION**

Space 523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Letters written by well-known musical composers that have been preserved to date are introduced, as matching music is played. Since the saxophone is believed to be the musical instrument that resembles the human voice most, music of a wide variety of genres, including works written for piano or strings, have been rearranged for the saxophone quartet—Fuer Elise by Beethoven, Scenes from Childhood by Schumann, Nocturne in E-flat major, Op. 9, No. 2 by Chopin, Night Letter by IU and Letter by Kim Kwang Jin, and so forth.

**GROUP INTRODUCTION**

Breeze On Saxophone Ensemble consists of Dayeon Woo (soprano saxophone), Hyunjin Lee (alto saxophone), Taeho Roh (tenor saxophone) and Siheon Kim (baritone saxophone). The team plays works from a wide variety of genres after rearranging them into saxophone quartets.

**CAST**

Soprano Saxophone Dayeon Woo

Alto Saxophone Hyunjin Lee

Tenor Saxophone Taeho Roh

Baritone Saxophone Siheon Kim

# 헤이브와 함께하는 'Have hope' 콘서트 "Have Hope" Concert with HAVE

우리소리사랑방  
Uri Sori Sarangbang

## 공연일시

10.02.(수) 19:30

## 공연장소

카페0101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소리 박세미

피리 임진희

장구 이현서

첼로 성아란

피아노 김시은

무용 김지혜

## 작품소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예쁜 선율로 헤이브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자작곡을 시작으로,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헤이브의 자작곡 '웃어라 이놈아', 민요를 헤이브만의 색으로 편곡한 '군밤타령', '너영나영', '퓨전 쑥대머리', '배 띄워라', 그 밖에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홀로아리랑', 자작곡 '문어의 꿈'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국악그룹 '헤이브'는 우리나라 대표 성악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에 얹어 담아낸 하모니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모던판소리' 국악그룹이다.

**DATE & TIME**

10.02.(Wed) 19:30

**LOCATION**

Cafe0101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Sori** Saemi Park**Piri** Jinhee Lim**Janggu** Hyunseo Lee**Cello** Ahran Sung**Piano** Sieun Kim**Dancer** Jihye Kim**INTRODUCTION OF THE WORK**

The original piece written by the gugak (traditional Korean music) band Have marks the beginning of the stage, as its beautiful melodies comfort the audience. Afterwards, the stage repertoire includes another original song written by Have, "Smile, Dude", which was inspired by the Korean pansori (Korea's traditional full-length musical storytelling) classic Sugungga (lit. song of the underwater palace) and Korean traditional folk songs rearranged with the unique touches of the band-Gunbam Taryeong (roasted chestnuts song), Neoyeong Nayeong (with you and me), Ssukdaemeori (stalk hair), and Bae Ddiweora (float the boat). Furthermore, popular Korean songs such as On a Beautiful Day of October and Holo Arirang and an original piece "Dream of an Octopus" are played.

**GROUP INTRODUCTION**

"Have" is a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that reinterprets pansori, Korea's iconic full-length monologue performance akin to Western operas, with an optimal dose of contemporary touches. Known as a "modern pansori" gugak band, the group blends the authentic narratives of contemporary Koreans with the harmony of the splendid melodies of the piano.

# The Song of Polyphony

## 폴리포니의 노래

폴리포니기타듀오  
Polyphony Guitar Duo

### 공연일시

10.03.(목) 18:00

### 공연장소

BFGE음악홀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2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2016년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 플린지에 참가해 세 차례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는 폴리포니기타듀오는 독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결성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바티나', '줄리엣', '보사노바 풍으로', '남쪽의 밀롱가', '안녕 아버지',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환상곡', '기타 듀오를 위한 G장조', '아랑훼즈 협주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 단체소개

폴리포니기타듀오는 2005년에 결성된 클래식기타 듀오로, 클래식·영화음악·국악·남미 무곡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단체다.

**DATE & TIME**

10.03.(Thu) 18:00

**LOCATION**

BFG Music Hall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2, STAFF 1

**CAST**

**Classical Guitar**

Seungwan Seo, Kyungtae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Polyphony Guitar Duo, founded to realize musical expression with more depth than that of a solo performance, was selected as a Rising Star three times from the fringe competition at the 2016 Isang Yun and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he band will play Cavatina, Juliette, In Bossa Nova, Milonga del Sur, Adios Nonino, Fantasia for Two Guitars, G Major for Two Guitars, Concierto de Aranjuez, and so forth.

**GROUP INTRODUCTION**

Polyphony Guitar Duo is a classical guitar duo founded in 2005, active with a repertoire of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classical music to movie soundtracks,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Latin American folk dance music.

##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4집 가을바람 쇼케이스

### Jazz Pianist Ha Ji-rim's 4th Album Autumn Breeze Showcase

하지림 외 7인  
Jirim Ha and 7 others

#### 공연일시

10.04.(금) 19:30

#### 공연장소

스페이스움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재즈 피아니스트 하지림의 4집 '가을바람' 쇼케이스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앨범 타이틀 곡 '가을바람'을 위시하여 연주곡과 시인과 일반시민들이 지은 시에 선율을 입혀 기존장르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음악으로 재즈와 국악적인 컨셉을 가진 한국스러운 재즈음악을 선보이고자 한다.

#### 단체소개

피아노 · 작곡 · 편곡 하지림, 보컬 박선우, 보컬 문소진, 판소리 안희주, 피리 김혜지, 클래식기타 고충진, 베이스 신세영, 드럼 김우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연진

피아노/작곡/편곡 하지림

보컬 박선우, 문소진

판소리 안희주

피리 김혜지

클래식기타 고충진

베이스 신세영

드럼 김우진

**DATE & TIME**

10.04.(Fri) 19:30

**LOCATION**

Space Um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4

**CAST****Piano/Composition/Arrangement** Jirim Ha**Vocal** Sunwoo Park, Sojin Moon**Pansori** Heejoo Ahn**Piri** Hyeji Kim**Classical Guitar** Chungjin Ko**Bass** Se-young Shin**Drum** Woojin Kim**INTRODUCTION OF THE WORK**

Showcasing jazz pianist Jirim Ha's 4th album "Autumn Wind", the stage plays Autumn Wind, the titular piece of the album, instrumental music, and original songs that have added melodies to poetry written by poets as well as ordinary people. The band adds unique touches to conventional genres, by merging concepts of jazz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aim of staging unique Korean jazz music.

**GROUP INTRODUCTION**

The group consists of Jirim Ha (piano, composition and arrangement), Sunwoo Park (vocal), Sojin Moon (vocal), Heejoo Ahn (pansori, Korean traditional narrative singing), Hyeji Kim (piri, Korean traditional flute), Chungjin Ko (classical guitar), Se-oung Shin (bass), and Woojin Kim (drum).

# 애가 Aega

GP양상블  
GP Ensemble

## 공연일시

10.05.(토) 17:00

## 공연장소

게네랄파우제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 1번 g단조 '비가'는 그의 스승인 차이콥스키의 Op.50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이고, 차이콥스키의 Op. 50는 루빈스타인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애가'를 주제로 하여 환희보다는 비감을, 밝음보다는 어둠을 표현하였다.

GP양상블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에 직면한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참담한 사태와 억압받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예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 단체소개

GP양상블은 2017년 공간 게네랄파우제에서 출범한 앙상블로 고전적이고 참신한 음악적 해석으로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DATE & TIME**

10.05.(Sat) 17:00

**LOCATION**

General Pause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

**Violin** Jinkyoungh Jung

**Cello** Kyungsoo Kim

**Piano** Daehyun Kang

**INTRODUCTION OF THE WORK**

Trio élégiaque No. 1 in G minor by Rachmaninoff was inspired by Tchaikovsky's Piano Trio in A minor, Op. 50, which was written to commemorate Rubinstein. Both works are elegies that portray lament rather than delight and darkness rather than light.

Through this stage, GP Ensemble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the oppressed people and victims from ongoing wars and their devastating results, communicate with the local people, and remind ourselves of the true meanings of art.

**GROUP INTRODUCTION**

GP Ensemble was founded in 2017 from the cultural space General Pause. The group actively performs with a deep understanding in the classical fundamentals as well as unique reinterpretation.

# ‘뮤지션’의 픽(숨은 재즈 명곡 알리기) ‘Musician’s Pick(Revealing Hidden Jazz Gems)

효정리 밴드  
Hyojeong Lee Band

## 공연일시

10.06.(일) 16:00

## 공연장소

남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뮤지션’의 픽(숨은 재즈 명곡 알리기)> 효정리 밴드 편으로 빌리 할리데이의 ‘Fine and mellow’, ‘I love my man’, ‘해리 스위츠 에디슨의 ‘Centerpiece’, 스티브 보가드와 바바라 워릭의 ‘Damn your eyes’, 존 렌 채트만의 ‘Everyday I have the blues’, 마크 고든과 해리 워렌의 ‘At last’를 연주한다.

## 단체소개

효정리 Band는 보컬 이효정, 피아노 김대규, 베이스 김대경, 드럼 피오토르 파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연진

보컬 이효정

피아노 김대규

베이스 김대경

드럼 피오토르 파블락

**DATE & TIME**

10.06.(Sun) 16:00

**LOCATION**

Gwangalli Namme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In <Musician's Pick (Revealing Hidden Jazz Gems)>, Hyojeong Lee Band plays Fine and Mellow and I Love My Man by Billie Holiday, Centerpiece by Harry Sweets Edison, Damn Your Eyes by Steve Bogard and Barbara Wyrick, Every Day I Have the Blues by John Len Chatman and At Last by Mack Gordon and Harry Warren.

**GROUP INTRODUCTION**

Hyojeong Lee Band consists of Hyojeong Lee (vocal), Daekyu Kim (piano), Daekyung Kim (bass) and Piotr Pawlak (drum).

**CAST**

**Vocal** Hyojeong Lee

**Piano** Daekyu Kim

**Bass** Daekyung Kim

**Drum** Piotr Pawlak

# Come Together

프리포트  
Freeport

## 공연일시

10.07.(월) 15:00

## 공연장소

더락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인스트루먼트 밴드인 Freeport의 이번 공연은 팝 레퍼토리와 재즈 스탠다드 넘버 등의 곡을 재즈펑키, 라틴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Come Together', 'Close to You', 'Groove Merchant', 'You Don't Know What Love Is', 'Like Someone in Love'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 단체소개

프리포트는 팝과 재즈를 펑키, 라틴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인스트루먼트 밴드이다. 부산을 주축으로 각자의 재즈팀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이 '프리포트'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도모하였다.

## 출연진

베이스 허진호

기타 최성준

색소폰 김승모

드럼 황준혁

**DATE & TIME**

10.07.(Mon) 15:00

**LOCATION**

Busan The Rock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Instrument band Freeport will reinterpret the repertoire of well-known pop songs and standard jazz numbers into a wide variety of styles such as jazz funky and Latin, playing 'Come Together', 'Close to You', 'Groove Merchant', 'You Don't Know What Love Is', 'Like Someone in Love', and so forth.

**GROUP INTRODUCTION**

Freeport is an instrument band reinterpreting pop and jazz into a wide variety of styles including funky and Latin. The band has been founded by Busan-based musicians who are active from different jazz teams.

**CAST**

**Bass** Jinho Heo

**Guitar** Seongjun Choi

**Saxophone** Seungmo Kim

**Drum** Junhyeok Hwang

**제499회 가람초청음악회  
리에토 세번째 정기연주회**  
**499th Garam Invitational Concert  
Lieto's Third Regular Performance**

**앙상블 리에토**  
**Ensemble Lieto**

**공연일시**

10.08.(화) 19:30

**공연장소**

가람아트홀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국가**

대한민국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작품소개**

제499회 가람초청음악회 리에토의 세번째 정기연주회로 1부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1악장,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드뷔시의 사장조 피아노 트리오 1악장 등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영화 음악으로 해리포터, 라라랜드, 히사이시 조, 디즈니 OST의 메들리를 각각 연주한다.

**단체소개**

2021년 창단한 앙상블 리에토는 이탈리아어로 '기쁜,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Lieto를 팀명으로 한다.

**출연진**

바이올린 정은주

첼로 이현아

피아노 박나희

**DATE & TIME**

10.08.(Tue) 19:30

**LOCATION**

Garam Art Hall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

**Violin** Eunjoo Jeong

**Cello** Hyunah Lee

**Piano** Nahoe Park

**INTRODUCTION OF THE WORK**

<499th Garam Invitational Concert> marks the third regular stage of Ensemble Lieto. In section 1, classical pieces are played, such as the first movement of Piano Trio No.1, by Brahms, Trio élégiaque No.1 in G minor by Rachmaninoff, the first movement of Piano Trio in G major by Debussy. In section 2, the team plays medlies of movie soundtracks from the Harry Potter series, La La Land, Japanese animations (composed by Joe Hisaishi) and Disney animations.

**GROUP INTRODUCTION**

Ensemble Lieto was founded in 2021. Lieto means "pleasant, joyous or happy" in Italian.

**민주신티리오 2집 앨범  
'WAVE SUBSIDES' 발매기념 쇼케이스  
Jusin Min Trio's 2nd Album  
'WAVE SUBSIDES' Release Showcase**

**민주신 트리오  
Jusin Min Trio**

**공연일시**

10.09.(수) 19:30

**공연장소**

공간갯츠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국가**

대한민국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작품소개**

올해 2월 일본 가고시마에서 녹음을 마친 민주신 트리오의 2집 앨범을 주제로 하는 공연이다. 본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많은 추억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여 청중들과 공감하며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부산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적 수준을 감안하여 재즈 음악 본연의 퀄리티는 유지하되 익숙지 않은 재즈 음악 장르의 벽을 넘기 위하여 재즈를 잘 모르는 청중들이 들어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민주신 트리오의 감성적이며 역동적인 곡들로 구성되었다.

**단체소개**

네덜란드 유학파로 최근에는 일본으로도 연주 영역을 넓히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과 베이스스트 김대경 그리고 일본인 재즈드럼 연주자 오쿠보 시게키의 3인조이다.

**출연진**

피아노 민주신

베이스 김대경

드럼 시게키 오쿠보

**DATE & TIME**

10.09.(Wed) 19:30

**LOCATION**

Space Getz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Piano** Jusin Min**Bass** Daekyung Kim**Drum** Okubo Shigeki**INTRODUCTION OF THE WORK**

The main theme of the stage is the 2nd album of the trio, which they finished recording in Kagoshima in Japan this February. Many cherished memories and hilarious episodes until this stage was made possible have been organized as the narrative of the talk concert, so that the audience can feel in communion with the band. Since people in Busan have a deep understanding in diverse musical genres, the stage tries to preserve the fundamental essence of jazz music, but more sentimental and dynamic contemporary pieces, which might be well appreciated by those who do not understand jazz, are also included in the repertoire in order to reach a wider range of audience.

**GROUP INTRODUCTION**

The trio consists of jazz pianist Jusin Min, who studied in the Netherlands and has recently advanced to Japan, bassist Daekyung Kim, and jazz drummer Shigeki Okubo.

# 콘서트 “루나” Concert “Luna”

루나  
Luna

## 공연일시

10.10.(목) 19:30

## 공연장소

BOF아트홀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피아노 3중주로 서곡 '루나 판타지', '오늘의 별 내일의 달 (두뇌공조 OST)'과 피아노 · 바이올린 듀오 '달의 왈츠 (여름스웨터)' 그리고 소프라노 윤장미의 음성으로 윤석중 시 · 권길상 곡 '둥근 달', 드보르작의 '달에게 바치는 노래', 그 외 '산복도로 아뜰리에', '서울의 달', '봄날은 간다', '섬집아기' 등을 연주한다.

## 단체소개

소프라노 윤장미(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대표), 첼로 정혜주, 피아노 이수민, 퍼포먼스 화가 엄경근(엄살롱 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연진

소프라노 윤장미

첼로 정혜주

피아노 이수민

퍼포먼스 화가 엄경근

**DATE & TIME**

10.10.(Thu) 19:30

**LOCATION**

BOF Art Hall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After the piano trio plays Overture: Luna Fantasy and Today's Star, Tomorrow's Moon (from the soundtrack of the KBS series Brain Works), the duo of violin and piano plays Waltz in the Moon by Summer Sweater. Then classical soprano singer Jangmi Yoon sings popular songs such as Full Moon (written by Yun Seokjung and composed by Kwon Gilsang), Song to the Moon by Dvorak, Atelier at Sanbok Road, Moon in Seoul, Spring Days Are Fading, and an Island Baby.

**GROUP INTRODUCTION**

The team consists of Jangmi Yoon (soprano, chair of Busan Opera Association Cooperation), Hyejoo Jeong (cello), Sumin Lee (piano), and Kyunggeun Eom (performance painter, president of Eom Salon)

**CAST**

**Soprano** Jangmi Yoon

**Cello** Hyejoo Jeong

**Piano** Sumin Lee

**Performance Artist** Kyunggeun Eom

# Essential Hathaw9y: 해서웨이 단독 공연

해서웨이  
Hathaw9y

## 공연일시

10.11.(금) 19:30

## 공연장소

무사이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해서웨이'가 2023년에 발매한 정규 1집+L37 앨범 <Essential>에 수록된 곡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어쿠스틱 세트 'Woo', '파도', '섬', '좋아하지', 밴드 세트 'Boy', '샷별', '1392010', '낙서', '영원', 'Flame', 'Sweet', '월드투어'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해서웨이는 2020년 데뷔한 인디 팝 밴드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이다.

## 출연진

기타/보컬 강키위

드럼 최세요

베이스 이특민

**DATE & TIME**

10.11.(Fri) 19:30

**LOCATION**

Multi-purpose Cultural Space Mousai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tage focuses on the songs featured in "Essential", the 1st regular album of the band released in 2023. "Woo", "Wave", "Isle", and "Like" are played with the acoustic set, and "Boy", "Venus", "1392010", "Scribbles", "Eternity", "Flame", "Sweet" and "World Tour" are played with the full band set.

**GROUP INTRODUCTION**

Hathaw9y is a Busan-based indie pop band that debuted in 2020.

**CAST**

**Guitar/Vocal** Kiwi Kang

**Drum** Seyo Choi

**Bass** Teukmin Lee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Brahms

라이크앙상블  
Like Ensemble

## 공연일시

10.12.(토) 17:00

## 공연장소

비바 아텔 챔버홀 아카데미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작품소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클라라와 슈만, 브람스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하고 각자가 사랑하는 감정을 실어 만든 실내악곡들을 감상하는 공연이다.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해설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이현우 비올리스트 김명복 첼리스트 조명환 피아니스트 정은정의 연주로 함께 한다.

클라라 슈만의 'Three Romances for Violin and Piano, Op.22', 로베르트 슈만의 'Romance in A major, Op.94-2', 브람스의 'Piano Trio No.1 in B major', 1악장, 그리고 'Clarinet Quintet Op.115 in b minor'가 연주된다.

## 단체소개

라이크앙상블(Like Ensemble)은 독일어로 클래식을 사랑하는 앙상블이라는 의미로 "Liebe der Klassik Ensemble"의 약자를 따서 지은 앙상블이다.

## 출연진

바이올린 이진, 이현우

첼로 조명환

피아노 정은정

클라리넷 유지훈

비올라 김명복

**DATE & TIME**

10.12.(Sat) 17:00

**LOCATION**

Viva Acell Chamber Hall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

**Violin** Jin Lee, Hyunwoo Lee

**Cello** Myunghwan Cho

**Piano** Eunjung Jeong

**Clarinet** Jihoon Yoo

**Viola** Myungbok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Do you LIKE Brahms> introduces the love stories of composers Robert and Clara Schumann and Johannes Brahms and plays chamber music pieces reflecting their love. Clarinetist Jihoon Yoo narrates the story, as the ensemble of violinists Jin Lee and Hyunwoo Lee, violist Myungbok Kim, cellist Myunghwan Cho, pianist Eunjung Jeong play the matching music. Three Romances for Violin and Piano, Op.22 by Clara Schumann, Romance in A major, Op.94-2 by Robert Schumann, the first movement of Piano Trio No.1 in B major, and Clarinet Quintet Op.115 in b minor by Johannes Brahms are played.

**GROUP INTRODUCTION**

In the name of Like Ensemble, "like" is the abbreviation of "Liebe der Klassik Ensemble", which means "love of the classic ensemble" in German.

# 우리는 / 세 가지 색깔 WE ARE / Three colors

지민, 선우, 권눈썹  
Jimin, XEONU, Kwon Noonseop

## 공연일시

10.13.(일) 19:00

## 공연장소

포포스튜디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부산의 여성 3인 싱어송라이터의 라이브 공연이다. 지민의 어쿠스틱 라이브, 선우의 일렉기타 라이브, 눈썹의 어쿠스틱 라이브로 자작곡들을 연주한다. 관객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단체소개

기타 · 보컬 지민(밴드 헤이 유니즌), 싱어송라이터 선우(XEONU), 싱어송라이터 권눈썹으로 구성되어 있다.

**DATE & TIME**

10.13.(Sun) 19:00

**LOCATION**

Popo Studio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live stage of three Busan-based female singer-songwriters feature their original songs with acoustic guitar of Jimin and Noonseop and electric guitar of Xeonu. The three musicians will try to narrow the distance with the audience by receiving improvised questions and having unreserved conversations about what they like.

**GROUP INTRODUCTION**

The band consists of Jimin (guitar/vocal, Band Hey Unison), Xeonu (singer-songwriter), and Kwon Noonseop (singer-songwriter).

**CAST**

**Guitar/Vocal** Jimin/Band Hey Unison

**Singer-Songwriters** XEONU, Kwon Noonseop

# 4人 4色 희망 콘서트 4 People, 4 Colors: Hope Concert

루체문화컴퍼니  
Luce Culture Company

## 공연일시

10.14.(월) 19:30

## 공연장소

아이러브스페이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루체문화컴퍼니의 이번 공연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연으로 한국 가곡부터 이탈리아, 독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페라 아리아 Stage로 'Je Veux Vivre', 'La donna e mobile', 'Nessun dorma', 뮤지컬과 팝클래식 stage로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지금 이 순간', 'Time to say goodbye', 한국가곡 stage로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경복궁타령', 가요 stage로 '행복을 내게 주는 사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람의 노래', '오 해피데이', '챔피언' 등을 연주한다.

## 단체소개

루체문화컴퍼니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유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이루어진 단체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10.14.(Mon) 19:30

**LOCATION**

Music Academy I Love Space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2

**CAST**

**Tenor** Kyungmin Kim, Daehyun Shin  
**Soprano** Bohee Park, Eunkyung Park  
**Piano** Ahyoung Kim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oncert of Luce Culture Company would like to stage a wide variety of genres with an intriguing narrative that reaches a wider range of audience, incorporating Korean classical songs, Italian and German opera arias, and popular musical numbers. The repertoire consists of following works and many more: opera arias including 'Je Veux Vivre', 'La donna e mobile', and 'Nessun dorma, musicals and pop classics including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This Is the Moment', and 'Time to say goodbye', Korean classical songs including 'Fly to the Sky: Beautiful Country', 'Arirang', and 'Gyeong-bokgung Palace Taryeong', and Korean pops including Someone Giving Me Happiness, On a Beautiful Day of October, Song of Wind, O Happy Day, and Champion.

**GROUP INTRODUCTION**

Luce Culture Company consists of opera singers and pianists who studied in Italy and Germany and are now active in Busan.

# 리얼라이즈 '아크라이트' 라이브 Realize 'Arc Light' Live

아크 라이트  
Arc Light

## 공연일시

10.15.(화) 21:00

## 공연장소

리얼라이즈

## 러닝타임

9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소프트 록을 연주하는 아크라이트의 공연으로 EP와 싱글 앨범 수록곡 '출항', 'Cloud', 'Lost', 'Alive', 'Drowning', 'Rescue me', '던져버려', 그 외 신곡과 발라드 커버 곡들을 연주한다. 보컬리스트의 부드러운 발라드 곡으로 시작하여 미드 템포의 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을 위한 커버 곡들도 함께하여 총 1시간 30분의 공연을 진행한다.

## 단체소개

아크 라이트는 음악의 배(Ark)를 타고 빛(Light)을 찾아 모험하는 소프트 록 밴드이다.

**DATE & TIME**

10.15.(Tue) 21:00

**LOCATION**

Live Club Realize

**RUNNING TIME**

9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tage of soft rock band Ark Rock plays the original songs from its EP and single albums, such as "Sailing", "Cloud", "Lost", "Alive", "Drowning", "Rescue Me", and "Throw It Away", along with covers of latest songs and popular ballads. The 90-minute long stage begins with original ballad pieces characterized by the singer's soft voice, followed by mid-tempo original songs as well as popular covers loved by the audience.

**GROUP INTRODUCTION**

Ark Light is a soft rock band in the journey in search of "light" on the "ark" of music.

**CAST**

**Guitar** Seunghwan Yoon

**Vocal** Myoseon Kim

**Bass** Byungjun Kim

**Drum** Jiweon Song

# 오페라 토크 콘서트 “사랑의 묘약” Opera Talk Concert “The Elixir of Love”

뚜또 베네  
Tutto Bene

## 공연일시

10.16.(수) 19:00

## 공연장소

아포지테라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뚜또 베네의 오페라 토크 콘서트로 도니젯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재미있는 해설과 주요 아리아의 중창으로 진행한다. 가난한 시골청년 네모리노와 부유한 농장의 딸 아디나의 사랑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처럼 사랑의 묘약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인가? ‘Caro elisir’, ‘Una furtiva lagrima’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뚜또 베네는 클래식음악 전문 공연팀이다.

## 출연진

테너 김은교  
소프라노 노연수  
피아노 전지호

**DATE & TIME**

10.16.(Wed) 19:00

**LOCATION**

Comprehensive Culture and Art Space Apogee Terrace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opera talk concert reinterprets the Elixir of Love by Donizetti with interesting narration that maximizes understanding of the arias sung by the singers. Will the forbidden love between simple peasant Nemorino and wealthy heiress Adina be realized through the elixir of love, like the story of Tristan and Isolde? The stage plays popular arias such as "Caro elisir" and "Una furtiva lagrima".

**GROUP INTRODUCTION**

Tutto Bene is a live performance team focusing on classical music.

**CAST**

**Tenor** Eunkyo Kim

**Soprano** Yeonsu Noh

**Piano** Jiho Jeon

# 부산 옛 음악의 향기 Busan: The Fragrance of Old Music

도담앙상블  
Dodam Ensemble

## 공연일시

10.17.(목) 19:00

## 공연장소

진목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편곡/사회 강현민

플루트 조다운

클라리넷 강철주

피아노 손안나

바이올린 김민화

첼로 정혜주

## 작품소개

도담앙상블의 <부산 옛 음악의 향기> 콘서트에서는 1930 ~ 1950년대 가요로 김용환의 '낙동강 칠백리', 박시춘의 '울며 헤진 부산항', 이재호의 '귀국선', 박시춘의 '굳세어라 금순아'가 연주되고 1960 ~ 1980년대 가요로 정훈희의 '안개', 김종순의 '부산갈매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연주된다.

## 단체소개

도담앙상블은 2019년 결성된 퓨전 클래식 앙상블로, 2022년 부산시 월드클래스 예술인 강현민을 주축으로 영화음악, 게임음악, 재즈, 클래식을 자체 편곡하여 연주하는 단체이다.

**DATE & TIME**

10.17.(Thu) 19:00

**LOCATION**

Cafe Jinmok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INTRODUCTION OF THE WORK**

In the concert <Busan: the Fragrance of Old Music>, Dodam Ensemble plays old Korean songs from the 1930s to 1950s, such as 300 Kilometers of Nakdong River by Kim Yonghwan, Tearful Departure from Busan Port by Park Sichun, Homecoming Ship by Lee Jaeho, and Be Strong, Geum-soon by Park Sichun, as well as more recent Korean songs from the 1960s to 1980s, such as Fog by Jeong Hunhui, Busan Seagulls by Kim Jungsun and Come back to Busan Port by Cho Yong-pil.

**GROUP INTRODUCTION**

Dodam Ensemble is a fusion classical music ensemble founded in 2019, with Busan-based world-class artist Hyunmin Kang. The team stages a wide variety of popular works such as jazz, classical music and soundtracks of movies or video games rearranged with the unique styles of the team.

**CAST**

**Arrangement/Host** Hyunmin Kang

**Flute** Da-eun Cho

**Clarinet** Cheolju Kang

**Piano** Anna Son

**Violin** Minhwa Kim

**Cello** Hyeju Jeong

# Love Notes - 사랑에 대한 기록

스튜디오 팔레트  
Studio Palette

## 공연일시

10.18.(금) 19:30

## 공연장소

금정아트홀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적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작품소개

스튜디오 팔레트의 <Love Notes - 사랑에 대한 기록> 공연이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 (Cinderella op. 87)',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The Love for Three Oranges)',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Suite No.2)'과 Stella Jang의 'L'Amour', 'Les Baguettes', 'Paris'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스튜디오 팔레트는 마치 화가의 팔레트에 놓인 다채로운 색깔의 물감처럼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모여 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적 색채와 감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단체이다.

## 출연진

플루트 박한나  
클라리넷 이효주  
해설/색소폰 우다연  
첼로 윤주연  
더블베이스 박예송  
피아노 박지은

**DATE & TIME**

10.18.(Fri) 19:30

**LOCATION**

Geumjeong Art Hall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Flute** Hanna Park**Clarinet** Hyuju Lee**Narration/Saxophone** Dayeon Woo**Cello** Juyun Yoon**Double Bass** Yesong Park**Piano** Ji-eun Park**INTRODUCTION OF THE WORK**

This stage, titled <Love Notes-Records of Love> and performed by Studio Palette, plays the ballet Cinderella Op. 87, the opera The Love for Three Oranges Op. 33, and Suite No. 2 from the ballet Romeo and Juliet, Op. 64 by Sergei Prokofiev, and 'L'Amour', 'Les Baguettes', and 'Paris' by Stella Jang.

**GROUP INTRODUCTION**

Like the colorful mix of paints on the palette of a painter, Studio Palette aims to produce authentic and unprecedented musical colors and sentiments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players of a wide variety of musical instruments.

# 골목미술관에서 만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회 Studio Ghibli Concert at the Alley Art Museum

잼곳  
JAMGGUT

## 공연일시

10.19.(토) 16:00

## 공연장소

구박갤러리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아트 크리에이티브 그룹 '잼곳'의 <골목미술관에서 만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회>는 마녀 배달부 키키 OST '일의 시작', '바다가 보이는 마을', 천공의 성 라퓨타 OST '너를 태우고', 이웃집 토토로 OST '이웃집 토토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오월의 마을', '산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어느 여름날', '언제나 몇 번이라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세계의 약속', 버랑 위의 포뇨 OST '버랑 위의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를 공연한다. 실제 교재를 위해 함께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자 이다숨(동아대학교 음악과)과 함께 2중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 단체소개

아트 크리에이티브 그룹 '잼곳'은 해설 · 바이올린 미카, 바이올린 이다숨, 첼로 김혜지, 피아노 주은정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DATE & TIME**

10.19.(Sat) 16:00

**LOCATION**

Koobak Gallery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CAST****Narration/Violin** Mika**Violin** Dasom Lee**Cello** Hyeji Kim**Piano** Eunjung Joo**INTRODUCTION OF THE WORK**

<Studio Ghibli Concert at the Alley Art Museum> staged by the Art Creative Group 'JAMGGUT' plays the following repertoire: Starting the Job, and A Town with an Ocean View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Kiki's Delivery Service, Carrying You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Laputa: Castle in the Sky - the Mystery of the Levitation Stone, My Neighbor Totoro - Ending Theme Song, The Path of the Wind, The Village in May, and Hey Let's Go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My Neighbor Totoro, One Summer's Day, and Always with Me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Spirited Away, Ending Song - The Promise of the World - Merry-Go-Round of Life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Howl's Moving Castle,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the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And Opening Song: Merry-go-round of Life from the Soundtrack Album of Howl's Moving Castle.

The stage will also consist of a violin duo with violinist Dasom Lee, who is also the student (Department of Music, Dong-a University) of the producer and is collaborating for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video contents.

**GROUP INTRODUCTION**

Art Creative Group 'JAMGGUT' consists of Mika (narration/violin), Dasom Lee (violin), Hyeji Kim (cello) and Eunjung Joo (piano).

# 카페인 프로젝트 'I need caffeine' Caffeine Project 'I need caffeine'

홍영호 퀸텟&다히  
Youngho Hong Quartet & Dahi

## 공연일시

10.20.(일) 19:00

## 공연장소

오션컬처팩토리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작곡/드럼 홍영호

피아노 강혜인

보컬 다히

베이스 황대웅

기타 김경모

## 작품소개

<카페인 프로젝트 'I need caffeine'> 공연에서 재즈 밴드 '홍영호 퀸텟'과 보컬리스트 다히가 만나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카페인과 같은 음악을 들려준다. 커피와 오후, 휴일과 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와 상상들을 팀의 드러머이자 리더인 홍영호의 작곡과 작사로 담아냈다. '오늘은 왠지', 'I need caffeine', '우린 잠시 힘들었던 것뿐이야', '자기소개서' 등이 연주된다. 가 '지금 이 순간', '당신께 바라는 전부' 외에도 드라마 OST, 영화 주제가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작곡 · 드럼 홍영호, 피아노 강혜인, 보컬 다히, 베이스 황대웅, 기타 김경모로 구성되어 있다.

**DATE & TIME**

10.20.(Sun) 19:00

**LOCATION**

Art and Culture Space Ocean Culture Factory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oncert <Caffeine Project 'I need caffeine'> stages the stimulant-like music that will wake you up in the sleepy afternoon, which has been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jazz band Youngho Hong Quartet and singer Dahi. The concert, under the theme of an afternoon with coffee, and a holiday and romance, incorporates some probable fictional episodes and related imaginations written and composed by the band leader Youngho Hong.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songs from the regular album of the band, such as <Somehow Today>, <I Need Caffeine>, <For Weary Lovers>, and <Letter of Self-introduction>.

**GROUP INTRODUCTION**

The band consists of Youngho Hong (composition/drum), Hyein Kang (piano), Dahi (vocal), Daewoong Hwang (bass) and Kyungmo Kim (guitar).

**CAST****Composer/Drum** Youngho Hong**Piano** Hyein Kang**Vocal** Dahi**Bass** Daewoong Hwang**Guitar** Kyungmo Kim

# [바람을 느끼며] 한·일 교류콘서트

## [Feeling the Wind] Korea-Japan Exchange Concert

휴&피유  
Hue&Piu

### 공연일시

10.21.(월) 19:30

### 공연장소

콘체르트보눔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84회 예감살롱콘서트로 일본의 정상급 만돌린연주자 타카하시 카즈히코, 피아노연주자 나츠카와 유키노 듀오팀인 피유를 초청하여, 그동안 음악적 교류를 맺어왔던 한국의 힐링뮤지션 휴와의 콜라보콘서트를 펼치게 된다. 흔히 볼수 없는 정상급 만돌린 연주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유와 휴의 콜라보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리베라탱고', '엄마야 누나야', '아리랑', 'Annie Laurie', '時代', '내 영혼 바람되어 & 천의 바람이 되어', 'Granada', 'Un di Felice'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테너 류무룡(휴), 소프라노 김지현(휴), 만돌린 타카하시 카즈히코(듀오 피유), 피아노 나츠카와 유키노(듀오 피유)로 구성된 단체이다.

**DATE & TIME**

10.21.(Mon) 19:30

**LOCATION**

Konzert Bonum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2

**CAST****Tenor** Muryong Ryu/Hue**Soprano** Jihyun Kim/Hue**Mandolin** Kazuhiko Takahashi/Duo Piu**Piano** Yukino Natsukawa/Duo Piu**INTRODUCTION OF THE WORK**

The 84th Yegam Salon Concert stages a collaborative concert, inviting Duo Piu of top Japanese mandolinist Takahashi Kazuhiko and pianist Natsukawa Yukino for the duo's collaboration with Hue, the Korean band which is known as "healing musicians" and has continued exchanges with the Japanese duo. With the unusual experience of watching the performance of a top mandolinist, the audience can enjoy a beautiful collaboration of Piu and Hue, full of a wide variety of different genres.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Libera Tango, Oh Mother and Sister Let's Go and Live together beside the River, Arirang, Annie Laurie, 時代 (lit. 'time'), a Thousand Winds, Granada, and Un di, felice, eterea ('One day, happy, ethereal').

**GROUP INTRODUCTION**

The band consists of Muryong Ryu (tenor, Hue), Jihyun Kim (soprano, Hue), Kazuhiko Takahashi (mandolin, Duo Piu) and Yukino Natsukawa (piano, Duo Piu).

# Let's start

알바루체  
Alba Luce

## 공연일시

10.22.(화) 19:00

## 공연장소

유정1995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작품소개

<Let's start> 공연은 2023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에서 입상 후 알바루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성장, 우여곡절과 그에 대한 위로까지 알바루체만의 음악으로 풀어보았다. 'Je te veux', '달팽이', 'Le festin', '숲', '꽃 피는 날', '형', '뮤지컬', 'Left right left'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알바루체는 이탈리아어로 '새벽빛'이라는 뜻을 가진 크로스오버 팀이다.

## 출연진

플루트 남유빈

보컬 김여진

피아노 조예림

**DATE & TIME**

10.22.(Tue) 19:00

**LOCATION**

Cafe Ujeong 1995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CAST****Flute** Yubin Nam**Vocal** Yeojin Kim**Piano** Yerim Jo**INTRODUCTION OF THE WORK**

Concert <Let's start> has been organized to mark the new beginning of Alba Luce, since the band received the Excellence Prize from the Rising Star Contest of the 2023 Local Cultural Salon Festa. Therefore, the repertoire incorporates the thrill of beginning something and the potential of everything afterwards—growth, difficulties of going through some trial and error, and consolation for going through them, with the unique music of Alba Luce, including Je te veux, Snail, Le festin, Forest, A Blooming Day, Older Brother, Musical, and Left Right Left.

**GROUP INTRODUCTION**

The name of crossover music band Alba Luce means "sunlight of dawn" in Italian.

# 뜨거운 열정의 풍류 Fervent Passion of Pungnyu

국악그룹 뜨락  
Traditional Korean Music Group Ttrak

## 공연일시

10.23.(수) 20:00

## 공연장소

노가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작품소개

국악그룹 뜨락은 전통 음악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동시대적 감성을 담은 공연을 준비했다. '아름다운 나라', '아이구 사또야', '실생활 속 국악', '축제', '민요의 향연', '훈민정음', '돌개바람' 등의 프로그램이 담긴 이번 공연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단체소개

국악그룹 뜨락은 전통과 컨템포러리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옛 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 출연진

소리 김다솜  
피아노 이수민  
피리 안하운  
해금 이유민  
대금 고현아  
타악 안유진

**DATE & TIME**

10.23.(Wed) 20:00

**LOCATION**

Pub Nogada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Sori** Dasom Kim**Piano** Sumin Lee**Piri** Hayun Ahn**Haegeum** Yumin Lee**Daegeum** Hyuna Ko**Percussion** Yujin Ahn**INTRODUCTION OF THE WORK**

Traditional Korean Music Group Ttrak has organized a stage that incorporates contemporary sentiments as well as preserves the fundamental esse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hile the stage will do its utmost to reach a wider audience and be in communion with the listeners,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Fly to the Sky: Beautiful Country, What a Magistrat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Everyday Life, Festival, Banquet of Traditional Folk Songs, Hunminjeongeum (lit. "proper sounds for instruction of the people", or the title of the manuscript that introduced the invention of the Korean script Hangeul), and Whirlwind.

**GROUP INTRODUCTION**

Traditional Korean Music Group Ttrak stages crossover music merging traditional Korean and contemporary music, aiming to convey the message: "old and traditional things are not boring, but, in fact, entertaining."

# Film Music: Thema “Love”

앙상블 원잇  
Ensemble Oneit

## 공연일시

10.24.(목) 19:00

## 공연장소

음악당라운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출연진

피아노 이안나

바이올린 서혜은, 강소연

비올라 나윤채

첼로 윤주연

## 작품소개

<Film Music: Thema “Love”>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음악들을 앙상블 원잇의 연주로 들려준다. 영화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영화 ‘라이언킹’의 ‘The lion sleeps tonight’, ‘Hakuna matata’, 영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Friend like me’, 영화 ‘인어공주’의 ‘Under the sea’, ‘Part of your world’, 영화 ‘겨울왕국’의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Let it Go’, 영화 ‘라붐’의 ‘Reality’,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영화 ‘맘마미아’의 ‘댄싱퀸’, ‘맘마미아’, 영화 ‘오페라의 유령’의 ‘Think of me’, ‘Phantom of the Opera’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앙상블 원잇은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팀으로 ‘원하다(Want It)’는 뜻과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낸다(One Instrument)’는 의미를 담고 있다.

**DATE & TIME**

10.24.(Thu) 19:00

**LOCATION**

House Concert Laon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CAST**

**Piano** Anna Lee

**Violin** Haeun Seo, Soyeon Kang

**Viola** Yunchae Na

**Cello** Juyun Yoon

**INTRODUCTION OF THE WORK**

<Film Music: Thema "Love"> stages the beautiful pieces under the theme of love from movie soundtracks played by Ensemble Oneit.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When You Wish Upon A Star from Pinocchio, The Lion Sleeps Tonight and Hakuna Matata from The Lion King, A Whole New World and Friend Like Me from Aladdin, Under the Sea and Part of Your World from The Little Mermaid,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and Let It Go from Frozen, Reality from La Boum, Edelweiss and Do-Re-Mi from The Sound of Music, Dancing Queen and Mamma Mia! From Mamma Mia!, and Think of Me and The Phantom of the Opera from The Phantom of the Opera.

**GROUP INTRODUCTION**

Ensemble Oneit is a band formed by alumni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name of the band is the homophone of "want it" and implies that it would like to make a harmonized and unified sound like "one instrument" through multiple musical instruments.

# 앙상블 루치아 “제3회 정기연주회” Ensemble Lucia: 3rd Regular Concert

앙상블 루치아  
Ensemble Lucia

## 공연일시

10.25.(금) 19:30

## 공연장소

필슈파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앙상블 루치아의 제3회 정기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실내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며 선선한 7월의 여유로운 저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현악 4중주 1번 'From my life', 안톤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2번 'American'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앙상블 루치아는 별 하나하나도 아름답지만 많은 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 현악기들이 함께 했을 때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은 앙상블이다.

## 출연진

바이올린 심해수, 심지민, 심채영

비올라 박수정

첼로 윤지영

**DATE & TIME**

10.25.(Fri) 19:30

**LOCATION**

Viel Spass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stage marks the third regular concert of Ensemble Lucia. The audience can enjoy the relaxed evening with the blowing fresh breeze of July while listening to the beautiful harmony of the string quartet, which is called the epitome of chamber music.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String Quartet No. 1, "From My Life", by Smetana, and The String Quartet No. 12 in F major, Op. 96, "the American Quartet", by Dvorak.

**GROUP INTRODUCTION**

The name of Ensemble Lucia means that, even if illumination of a star is already beautiful by itself, a constellation of many stars illuminates even exquisitely, and so does an ensemble of multiple string instruments.

**CAST**

**Violin** Haesu Shim, Jimin Shim, Chae-young Shim

**Viola** Sujeong Park

**Cello** Jiyoung Yoon

## 사운드 웨이브 콘서트 - 헤드터너 어쿠스틱 라이브 Sound Wave Concert - Headturner Acoustic Live

헤드터너  
Headturner

### 공연일시

10.26.(토) 18:00

### 공연장소

금사락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8명, 스태프 4명

### 작품소개

<사운드 웨이브 콘서트 - 헤드터너 어쿠스틱 라이브>는 헤드터너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앨범 수록곡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과 커버곡으로 구성되어 차분하고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로 임하는 공연이다. '피지 못한 꽃', 'Shadow', '왜내게', 'Thank you', 'Take my hand', 'Alive and awake', 'Delusion', 'Stage', 'Stop', 'Dangerously', 'First love'가 연주된다.

### 단체소개

헤드터너는 뒤돌아 볼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하드 록 밴드이다.

### 출연진

기타 장재호

베이스 김진재

보컬 김나인

키보드 김세준/세션

**DATE & TIME**

10.26.(Sat) 18:00

**LOCATION**

Art Theater Geumsarak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8, STAFF 4

**INTRODUCTION OF THE WORK**

<Sound Wave Concert: Headturner Acoustic Live> consists of most beloved original songs from the Headturner's albums from 2007 to 2019 and covers that incorporate tranquilizing and sentimental acoustic sounds.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A Flower That Could Not Bloom, Shadow, Why Me?, Thank You, Take My Hand, Alive and Awake, Delusion, Stage, Stop, Dangerously, and First Love.

**GROUP INTRODUCTION**

The name of hard rock band Headturner means someone who is noticeably attractive and draws attention repeatedly.

**CAST**

**Guitar** Jaeho Jang

**Bass** Jinjai Kim

**Vocal** Nine Kim

**Keyboard** Sejun Kim/Session

# 기타리스트들의 수다 The Chatter of Guitarists

기타리스트 6인  
6 Guitarists

## 공연일시

10.27.(일) 16:00

## 공연장소

기타고라스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3명

## 작품소개

관객과 소통하는 취지로 여섯 명의 기타리스트들이 모여 기타와 삶이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연주한다. 대중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곡들을 이승기 · 이윤정의 2중주, 박승웅 · 배윤진의 2중주, 신성진 · 윤병용의 2중주와 홍성률의 타악, 윤병용 · 배윤진, · 박승웅 · 신성진의 4중주 등 다양한 구성으로 들려준다. 페르난도 소르의 'Fantasie Op. 54 bis for two guitars', 'Divertissement op. 62 for two guitars', 'Souvenir de Russie, Op. 63 for two guitars', 'L Encouragement', 엔니오 모리코네의 'Cinema Paradiso', 스탠리 마이어의 'Cavatina', 오시오 코타로의 'Twilight',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Libertango', 루이지 보케리니의 'Introduction Fandango', 차이코프스키의 'Waltz of the Flower' 등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클래식기타 이승기, 박승웅, 이윤정, 배윤진, 신성진, 윤병용으로 구성된 단체다.

## 출연진

클래식기타

이승기

박승웅

이윤정

배윤진

신성진

윤병용

**DATE & TIME**

10.27.(Sun) 16:00

**LOCATION**

Guitargoras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Classical Guitar**

Seungki Lee

Seungwoong Kwak

Yunjung Lee

Yunjin Bae

Seongjin Shin

Byeongyong Yoon

**INTRODUCTION OF THE WORK**

Six classical guitarists share their story of life with the guitar and play their favorite music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Popular songs that most of the listeners would know are played through a wide variety of arrangements—the duos of Seungki Lee and Yunjung Lee, Seungwoong Kwak and Yunjin Bae, or the duo of Seongjin Shin and Byeongyong Yoon in collaboration with percussion of Seongryul Hong, and a quartet of Byeongyong Yoon, Yunjin Bae, Seungwoong Kwak and Seongjin Shin, to name a few. The repertoire also consists of the following pieces: Fantaisie for 2 Guitars, Op.54 bis, Divertissement for 2 Guitars, Op.62, Souvenir de Russie for 2 Guitars, Op. 63, and L'Encouragement, Op. 34 by Fernando Sor, Cinema Paradiso by Ennio Morricone, Cavatina Piece by Stanley Myers, Twilight by Kotaro Oshio, Libertango by Astor Piazzolla, Introduction & Fandango by Luigi Boccherini, and Waltz of the Flowers by Pyotr Ilyich Tchaikovsky.

**GROUP INTRODUCTION**

The band consists of classic guitarists Seungki Lee, Seungwoong Kwak, Yunjung Lee, Yunjin Bae, Seongjin Shin and Byeongyong Yoon.

# October Movie Date

힐앤힐스 뮤직 앙상블  
Hill & Hills Music Ensemble

## 공연일시

10.28.(월) 19:30

## 공연장소

스페이스 수정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3명, 스태프 1명

## 출연진

피아노 곽수현

바이올린 김상희

첼로 심지현

## 작품소개

힐앤힐스 뮤직 앙상블의 연주로 이번 공연 <October Movie Date>에서는 제임스 호너의 '가을의 전설', 영화 '웰컴투동막골' 삽입곡 Fumiaki Miyamoto의 'Kazabue', 영화 '왕카'의 삽입곡 '옴파롬파', 영화 '물란'의 삽입곡 'reflection', 영화 '토이스토리 2'의 삽입곡 'When She Loved Me' 외 다수가 연주된다.

## 단체소개

힐앤힐스 뮤직 앙상블은 부산 · 경남에서 활동하는 프로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팀이다.

**DATE & TIME**

10.28.(Mon) 19:30

**LOCATION**

Space Sujeong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3, STAFF 1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repertoire of the concert <October Movie Date>, staging the beautiful melodies played by Hill and Hills Music Ensemble,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and many more: Legends of the Fall by James Horner, Kazabue by Fumiaki Miyamoto (featured in Korean comedy film Welcome to Dongmakgol (UK: Battle Ground 625)), Oompa Loompa composed by Anthony Newley and Leslie Bricusse (featured in Wonka), Reflection composed by David Zippel and Matthew Wilder (featured in Mulan), and When She Loved Me composed by Randy Newman (featured in Toy Story 2).

**GROUP INTRODUCTION**

Hill & Hills Music Ensemble is a team of Busan and South Gyeongsang-based professional players of classical instruments.

**CAST****Piano** Suhyun Kwak**Violin** Sanghee Kim**Cello** Jihyun Shim

**손한별의 음악공방 V 세 번의 몰입-아성(我聲)****Hanbyeol Son's Music Workshop V:  
Three Instances of Immersion - Aseong (My Voice)**

손한별 외 5인

**공연일시**

10.29.(화) 19:00

**공연장소**

나홀락

**러닝타임**

60분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국가**

대한민국

**작품소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대금 이수자이자 제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손한별의 시리즈 창작 연주 중 3부 중 마지막 '음악공방 V 세 번의 몰입-아성(我聲)' 공연이다. 손한별 작곡의 '이름없는 숲', 송정환 작곡의 'Miracle', 김창환 작곡의 '더늌', 주소은 작곡의 '원초적 바다', 변재벽 작곡의 '수영강 너머', 안후윤 작곡의 '한 폭의 바다', 조수임 작곡의 '토리's'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체소개**

대금 · 소금 · 단소 손한별(한국전통아트컬처연합회 회장), 해금 김원지(가이아 음악감독), 가야금 · 양금 김소정(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신석현(1st 국악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 · 작곡 조수임(동아대 겸임교수), 아코디언 이지혜, 작곡 송정환(Songto Music Lab 대표), 작곡 김창환(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작곡 주소은(배재대 아펜젤러공유대학 교수), 작곡 변재벽, 작곡 안후윤로 구성되어있다.

**투어인원**

출연자 6명, 스태프 7명

**출연진**

대금/소금/단소 손한별

해금 김원지

가야금/양금 김소정

타악 신석현

피아노/작곡 조수임

아코디언 이지혜

작곡 송정환, 김창환, 주소은, 변재벽, 안후윤

**DATE & TIME**

10.29.(Tue) 19:00

**LOCATION**

Nanulak Music Studio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6, STAFF 3

**CAST****Daegeum/Soeum/Danso** Hanbyeol Son**Haegeum** Wonji Kim**Gayageum/Yanggeum** Sojeong Kim**Percussion** Seokhyeon Shin**Piano/Composer** Suim Jo**Accordion** Jihye Lee**Composer**

Jeonghwan Song, Changhwan Kim,

Soeun Joo, Jaebyeok Byeon, Huyun Ahn

**INTRODUCTION OF THE WORK**

Hanbyeol Son completed the official training of daegeum (traditional Korean large bamboo horizontal flute) in Samhyeon Yukgak (lit. "six essential elements of a formal music", consisting of jwago (hanging barrel drum played by a seated player), janggu (hourglass-shaped drum), mok-piri (small flute), gyeop-piri (small double flute), daegeum (large bamboo flute), and haegeum (a string instrument made of a vertical fiddle with two string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f Seoul. The daegeum player received the grand prize of the 15th National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etition. Hanbyeol Son's Music Workshop V: Three Instances of Immersion - Aseong (My Voice) is the last one of Son's original performance trilogy, in which the repertoire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Anonymous Forest, composed by Hanbyeol Son, Miracle, composed by Jeonghwan Song, Deoneum (lit. improvised variation added by a mast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ed by Changhwan Kim, Primitive Sea, composed by Soeun Joo, Beyond Suyeong River, composed by Jaebyeok Byeon, A Landscape of the Beach, composed by Huyun Ahn, and Tori's, composed by Suim Jo.

**GROUP INTRODUCTION**

The band consists of Hanbyeol Son (daegeum (traditional Korean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soeum (traditional Korean small transverse bamboo flute), danso (traditional Korean small vertical bamboo flute), chair of Korean Traditional Art and Culture Association), Wonji Kim (haegeum (traditional Korean two-string vertical fiddle), music director of Performing Arts Creative Group Gaia), Sojeong Kim (gayageum (traditional Korean plucked zither with 12 silk strings), yanggeum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with metal hammered strings), Busan City Gugak String Orchestra), Seokhyeon Shin (percussion, 1st player, Gugak Chamber Orchestra), Suim Jo (piano/composition, visiting professor, Dong-a University), Jihye Lee (accordion), Jeonghwan Song (composer, president of Songto Music Lab), Changhwan Kim (composer, art director/senior conductor, Gangwon Gugak String Orchestra), Soeun Joo (composer, professor, Pai Chai Appenzeller Shared University), Jaebyeok Byeon (composer), and Huyun Ahn (composer).

# 10월의 마지막 밤 즈음에 On the Last Night of October

프로무지카  
Promusica

## 공연일시

10.30.(수) 19:00

## 공연장소

음악풍경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5명, 스태프 2명

## 작품소개

프로무지카가 10월의 마지막 밤에 진행하는 공연으로 출연진 전원의 '우정의 노래'를 시작으로 바리톤 김경한이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춤', 소프라노 신하람이 부르는 '코스모스를 노래함', '안녕 마가렛, 너였구나', 김경한과 신하람의 듀오로 모차르트 '돈 죠반니' 중 '손에 손을 잡고', 테너 양승엽의 '아! 가을인가', '별은 빛나건만', 소프라노 왕기현의 '아름다운 나라', '줄리엣의 왈츠'가 연주된다.

## 단체소개

테너 양승엽(동서대 외래교수), 소프라노 왕기현(경성대 외래교수), 바리톤 김경한, 소프라노 신하람, 피아노 김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DATE & TIME**

10.30.(Wed) 19:00

**LOCATION**

Cultural Network Musical Landscape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5, STAFF 2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oncert staged on the last evening of October by Promusica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The Maine Stein Song (sung and performed by the entire team), On a Beautiful Day of October, Dance (sung by Kyunghan Kim (baritone)), Singing for Cosmos Flowers, Hello O Margaret It's You, The Telephone, G.C.Menotti (Haram Shin (soprano)), Là ci darem la mano ("There we will give each other our hands"), Don Giovanni, Wolfgang Amadeus Mozart (sung by the duo of Kyunghan Kim (baritone) and Haram Shin (soprano)), O Is It Autumn, E lucevan le stelle ("And the stars were shining"), Tosca, Giacomo Puccini (sung by Seungyeob Yang (tenor)), 'Fly to the Sky: Beautiful Country', and Juliet's Waltz, Romeo and Juliet, Charles Gounod (sung by Kihun Wang (soprano)).

**GROUP INTRODUCTION**

Promusica consists of Seungyeob Yang (tenor, visiti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Kihun Wang (soprano, visiting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Kyunghan Kim (baritone), Haram Shin (soprano), and Hyunjeong Kim (piano).

# 위너스앙상블의 “잊혀진 계절” Winner's Ensemble: “Forgotten Seasons”

위너스앙상블  
Winner's Ensemble

## 공연일시

10.31.(목) 19:00

## 공연장소

BNK부산은행갤러리

## 러닝타임

60분

##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 국가

대한민국

## 투어인원

출연자 4명, 스태프 3명

## 출연진

소프라노 장은녕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준연

바리톤 강경원

## 작품소개

부산, 경남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4명의 혼성 앙상블팀인 위너스 앙상블과 게스트 합창단들이 함께 펼치는 공연이다. 각자 합창단 및 클래스도 운영하면서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다양한 공연을 하고 기획하는 실력파 성악가들로, 본 공연에서는 오페라 아리아 '투우사의 노래', '하바네라', 뮤지컬 주제가 '지금 이 순간', '당신께 바라는 전부' 외에도 드라마 OST, 영화 주제가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 단체소개

위너스앙상블은 성악가 4명의 혼성 앙상블팀으로 각자 합창단 및 클래스도 운영하며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공연 및 기획도 하는 실력파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DATE & TIME**

10.31.(Thu) 19:00

**LOCATION**

BNK Busan Bank Gallery

**RUNNING TIME**

60min

**AGE LIMITS**

General audience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OF THE TOUR**

CAST 4, STAFF 3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concert is contributed by Winner's Ensemble, a mixed quartet of four classical singers active and based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guest choirs. All the participants of the concert are talented singers who manage their own choirs or educational programs to stage and produce concerts reaching a wider variety of audience and find a close communion with them. The stage consists of following pieces: Toreador Song, Habanera (full title: L'amour est un oiseau rebelle ("love is a rebellious bird")) from Carmen, Georges Bizet, This Is the Moment from Jekyll and Hyde, All I Ask of You from The Phantom of the Opera, and many other popular pieces from TV series soundtracks and theme songs of movies.

**GROUP INTRODUCTION**

Winner's Ensemble is a distinguished mixed quartet, formed by four exceptionally talented classical singers. Each member manages their own choirs or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which they stage and produce a wide variety of concerts and performing arts events, which enables them to reach an even more diverse audience and foster a deep connection with their listeners.

**CAST****Soprano** Eunyung Jang**Mezzo-Soprano** Jiyoung Lee**Tenor** Junyeon Kim**Baritone** Kyungwon Kang

BPAM Link Performance  
10.5 (Sat) ~ 6 (Sun) 13:00, 15:00, 17:00  
NADA Small Theater

작강연극제 10.15(화) ~ 21(월)  
평일 19:30 주말 18:00  
부산예술회관공연장

작  
강연극제  
1869회 부산예술제  
2024 제7회

# The 7th Jak Kang Theater Festival

주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부산문화재단)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 부산MBC (부산교통방송)  
특별후원 | (주)현대카드 (주)현대캐피탈 부산예술후원회 협력 | (주)G23 (주)이노비즈 (주)BPAM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051-645-3759 www.bs-theater.or.kr

# 2. BUSAN

## 10월 한달간의 부산음악 여행

# 부산원맨스 페스티벌 2024

釜山一個月的音樂盛典 / 釜山ワンマンズフェスティバル

###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4th

### 2024.10.1.TUE > 31.THU

01 오지현 선려조곤 발성법 공연서	02 JENNIE 우려조곤 사물놀이 유전 국악	03 김민서 통조로니 가요무도 공연서	04 스물다섯 김지현 주연연도 무-북연재스	05 김민서 OP 발성법 공연서	06 김민서 통조로 선드 차스	07 김민서 프리모를 장
08 김민서 발성법 김민서 공연서	09 김민서 전주선 통조로 차스	10 김민서 발성법 최 3명 공연서	11 김민서 김민서 연도 장	12 김민서 김민서 발성법 공연서	13 김민서 자민, 선우, 노성 장	14 김민서 김민서 발성법 공연서
15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16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17 김민서 김민서 발성법 공연서	18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19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0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1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2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3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4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5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6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7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8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29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30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31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공연서				

부산광역시 부산소공연장연합회 BNM 부산은행 부산이루국제음악제 KMA 대명대학교 BIFF

2024부산원맨스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The 15th

B U S A N

I N T E R N A T I O N A L

*Oct. 2 - 5, Busan, Korea*

D A N C E

M A R K E T

## 제15회 부산국제춤마켓

2024/10/2 (수) - 10/5 (토)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백양문화예술회관



www.bidam.kr  
@bidam\_festival

## 퀘벡, 해외에 독자적 대표부 설치



North America / Canada / Québec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1991년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대표부는 무역, 투자, 혁신, 문화 및 학술 분야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대표부는 앞으로도 퀘벡의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2025년 새로운 국제 정책에 따른 퀘벡의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The Quebec Government Office in Seoul was opened in 1991.

Over the course of the past 30 years, the office has deepened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rough promoting and fostering of trade, investment, innovation, political, cultural and academic exchanges.

Quebec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expand its presence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 Quebec's diplomatic network in line with the new international policy of 2025.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Délégation du Québec à Séoul



- ✉ [qc.seoul@mri.gouv.qc.ca](mailto:qc.seoul@mri.gouv.qc.ca)
- 🌐 [international.gouv.qc.ca/ko/seoul](http://international.gouv.qc.ca/ko/seoul)
- 📘 [facebook.com/QuebecSeoul](https://facebook.com/QuebecSeoul)
- 🌐 [linkedin.com/company/delegation-du-quebec-a-seoul](https://linkedin.com/company/delegation-du-quebec-a-seoul)
- 📝 [blog.naver.com/quebec\\_kr](https://blog.naver.com/quebec_kr)

Québec

BIENNALE CINARS 2024

MONTRÉAL

11-16 NOV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 부산 공연예술의 역사가 숨쉬는 곳 시민과 예술이 문화로 공명하는 부산 대표 공연장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2017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1993년 전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대극장(1,417석)'과 '중극장(783석)' 그리고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312석)'과  
클래식 전용극장인 '챔버홀(414석)'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가치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시민회관'은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올해 개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극장(1,624석)과 소극장(319석)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연과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두 공연장은 부산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품격 높은 공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공간 운영 및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두 공연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 PAVILION

## 풍정의 마당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나 공연은 기획된 예술활동으로서의 문화다. 그러나 기획된 이벤트여야만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되지 않은 다양한 행위나 불특정한 사건들도 문화가 될 수 있고, 이는 주로 문화회관 중심시설들 사이의 광장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주목해서 사이공간, 완충영역의 역할을 하던 광장을 또 하나의 문화회관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긴 가구처럼 보이기도 하는 파빌리온을 광장에 배치하여 관객을 끌어들이는 한편, 광장을 네 개의 작은 마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 벤치 등과 함께 풍정의 마당을 구성하였다.



PLAN CONCEPT SKETCH



부산문화회관 광장의 파빌리온은 시민들이 건축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2024 부산 젊은 건축가 파빌리온 공모전의 결과물로, 페트리커 건축사사무소 조성래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 도시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지역 건축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2001년 만들어진 조직으로, 시민들에게 건축문화를 홍보하고 그 혜택을 널리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이다.

# 지금까지의 찬란한 100년! 앞으로의 위대한 100년!

**혁신 창학! 힘찬 도약! New Beginning, New Inspiration**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지털금융 · AI · 바이오

주전공, 융합 · 학생설계 · 마이크로 전공

대연 · 용당 · 기장 · 고성 캠퍼스 인프라

첨단 신산업 분야 학문 혁신 선도

미래 융 · 복합 창의인재 양성

동남권 지 · 산 · 학 · 연 혁신 캠퍼스 조성



# PARALELA

*Leave The Legacy*

# Sports!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종우

  
Paralela™



# 함께 GREEN 세상

ABC-MART와 '함께 그린 세상'을 실천해 보세요!

취약 계층 아동 신발 후원 '한점한걸음' 사업 누적 3천 7천여  
행정안전부-ABC마트-전국재해구호협회 인관협력 업무협약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인정제 3년 연속 선정



# BUSAN STREET ARTS FESTIVAL

거 · 리 · 예 · 술 · 의 · 파 · 도 · 를 · 일 · 으 · 키 · 다

부산거리예술축제  
2024. 10. 5. 토 - 10. 6. 일  
광안리해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창작하기 좋은  
예술지원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간

도시가 젊어지는  
청년문화

일상에 스미는  
문화공유 나눔

배움으로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 전승 및  
국제교류



## 주최 Organizer



## 주관 Host



## 후원 Sponsors



## 협력 Partners



And fSW/ 2024  
FESTIVAL SHIWOL

크레딧  
CREDITS

주최 Organizer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Host

(재)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대표이사 이미연 CEO Meeyeon Lee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이종호 Jongho Lee

프로그래머 Programmer

김형준 신은주 심문섭 조희창  
Hyungjun Kim Eunju Shin Moonsub Sim Heechang Cho

협업위원회 Cooperation Committee

강열우 김준호 남영희  
Eolwoo Kang Junho Kim Younghee Nam  
박희연 이동휘 이정남  
Heeyeon Park Donghwi Lee Jungnam Lee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사업단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Task Force Associate

단장 General Manager

최윤진 Yoonjin Choi

차장 Project Manager

박성관 Sunggwan Park

사원 Project Manager

김희선 손보람 송세영 이수진  
Huiseon Kim Boram Son Seyoung Song Sujin Lee

코디네이터 Coordinator

이윤영 최예지  
Younyong Lee Yeji Choi

기술팀 Technical Team

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

김시네 Sine Kim

기술조감독 Technical Assistant Director

이성범 Seongbeom Lee

무대감독 Stage Director

최승환 Seunghwan Choi

조명감독 Lighting Director

조세현 Sehyun Cho

기술스태프 Technical Staff

김무혁 김지영 김태원  
Moohyeok Kim Jiyoung Kim Taewon Kim  
유지수 이준오 이현정  
Jisu Ryu Junoh Lee HyunJeong Lee

행사운영 Operating Agency

RAKUN

홍보운영 PR Agency

B.I.C Communication

번역 Translation

CLS

2024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프로그램북

202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PROGRAM BOOK

발행일 2024년 9월

Published on September, 2024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Publisher Meeyeon Lee,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Published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84-1, Uam-ro, Nam-gu, Busan, 48543 Republic of Korea

T. 051)745-7271~6

F. 051)744-7708

www.bpam.kr / www.bscf.or.kr